

독립운동가

이정래

李

景

采

1910 ~ 1978

평전

저자 박해현

전남 보성 출생

전남대학교 사범대학 역사교육과 및 동 대학원 사학과(문학박사)를 졸업하고, 한국교육개발원 학교평가위원,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출제위원·교과서 검정심의위원, 전라도천년사편찬위원을 역임하였다. 전남대학교 역사교육과 강사를 거쳐 현재 초당대학교에서 강의하고 있다. 전라남도 마한문화권개발 자문위원, 전라남도미래유산 자문위원, 전남교육청 민주시민교육 자문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주요 저서로 『신라 중대사 연구』, 『영암 의병사 연구』, 『독립운동가 의사 김범수 연구』, 『박해현의 새로 쓰는 마한사』, 『독립운동가 교사가 되다』, 『독립운동가 강석봉 평전』, 『도청의 마지막을 지킨 사람들』, 역저 『판결문으로 본 광주·전남 3·1운동』, 『판결문으로 본 광주·전남 학생운동』 등이 있다.

독립운동가

이정재

李 景 采
1910 ~ 1978 평전

인쇄 2023년 2월 15일
발행 2023년 2월 20일

발행처 (재)한국학호남진흥원(원장 천득염)
주소 62383 광주광역시 광산구 소촌로 152번길 53-27, 4층
연락처 Tel. (062) 603-9600 Fax. (062) 941-6705
홈페이지 <http://hiks.or.kr>

저자 박해현(초당대학교 교수)

편집·제작 전남대학교출판문화원
61186 광주광역시 북구 용봉로 77
Tel. (062) 530-0573 Fax. (062) 530-0579
홈페이지 <http://www.cnut.co.kr>

비매품

ISBN 979-11-90608-54-1

* 본 도서는 한국학호남진흥원의 지원사업으로 발간되었으며,
이 책에 실린 글과 사진은 (재)한국학호남진흥원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전재할 수 없습니다.

이경채 묘 (대전현충원)



비명

광주학생독립운동의 초석을 다지시고
타국에 망명하여 조국 해방의 그날까지 일제에 항거하다
조용히 돌아와 학처럼 사시다 가신 아버님
편안히 잠드소서

■ 머리말

역사를 사건이나 제도 중심으로 보려는 경향이 많다. 역사는 살아 있는 인간의 다양한 삶을 기록한다. 제도나 사건 중심으로 역사를 읽으면 그 시대를 살았던 인간의 삶을 놓치게 된다. 인간의 활동상이 비교적 많이 남아 있는 한국 현대사는 어느 시기보다 인물 연구를 지향할 필요가 있다. 최근 저자는 광주 3·1운동과 사회주의 운동을 이끈 인물¹⁾, 독립운동에 뛰어들었다가 해방 후 교사가 된 인물들을 다룬 전기물²⁾을 잇달아 펴내 인물 중심으로 광주·전남 현대사를 파악하려 하였다.³⁾ 이는 역사를 동태적으로 파악하는 데 유효한 방법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본서는 광주학생독립운동의 영웅 이경채를 다룬 평전이다. 1929년 11월 3일, 12일 전 세계인에게 감동을 준 광주학생운동은, 광주고보 학생 이경채가 1928년 4월 식민지배체제를 비판하는 유인물 살포로부터 비롯되었다. 이때 폭발된 항쟁의 에너지는 해방 그날까지 쉼 없이 이어졌다. 항일운동사에서 그가 차지하는 비중의 정도를 짐작하게 한다.

빼라 사건으로 투옥되었다가 출옥하자마자 그는, 1929년 11월 12일 일어난 2차 학생시위를 주도하였다. 그리고 일본으로 망명하여 그곳에서 독립운동을 꾀하다 구속되었던 그는, 상해로 건너가 대한민국임시정부를 중심으로 독립운동을 하였다. 빛나는 그의 독립운동 가운데 남경의열

1) 박해현, 2020, 『독립운동사 의사 김범수 연구』(도서출판 선인) 및 2022, 『강석봉 평전』(다큐디자인)

2) 박해현, 2021, 『독립운동가 교사가 되다』(도서출판 다컴)

3) 최근 5·18민중항쟁에 참여한 시민군 기동타격대 31인의 생애사를 다룬 『1980.05.27. 도청의 마지막을 지킨 사람들』도 인물 중심으로 현대사를 파악하려 한 시도라 하겠다. (박해현·이운정, 『1980.05.27. 도청의 마지막을 지킨 사람들』 2022, 5·18민주화운동기록관)

단에 가입하여 무장독립전쟁의 토대를 구축하고, 임시정부가 중국국민당과 연대하는 외교적인 방법을 모색한 점은 독립운동의 새로운 방력이라 하겠다. 특히 그는 중국군 장교가 되어 일본군과 치열한 전투를 치렀고, 조선의용대가 중국군과 연합작전을 수행하는 데 역할을 함으로써 한·중연대를 구현하는 데 앞장섰다. 이경채는 무장투쟁론·외교론을 함께 실천함으로써 독립운동의 활로를 개척한 위대한 독립운동가였다.

時·空을 초월하여 전개된 그의 삶은, 독립운동사를 구조적으로 이해하는 데 중요하다. 하지만 아직 변변한 연구논문이나 연구서 하나 없는 실정이다.⁴⁾ 다만 이경채가 생전에 남겨놓은 ‘투쟁경력’이라는 10쪽 안팎의 자필 소개서가 있어 그의 제반 독립운동을 살피는 데 도움을 준다. 이를 토대로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조각들을 엮어 그의 빛나는 삶을 유기적으로 구성하려고 하였다. 한편 흥미로운 것은, 이경채를 일본의 밀정으로 의심하는 증언도 발견되었다. 개인의 증언을 무턱대고 받아들이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가 하는 것을 새삼 우리에게 일깨워 준다.

본서의 집필은, 한국학호남진흥원 천득염 원장의 격려와 지원이 있었기에 가능하였다. 거듭 감사함을 표한다. 이경채의 3남 용립의 증언 또한 큰 도움이 되었다. 아울러 전남대출판문화원의 송미숙 과장의 수고로움에도 고마움을 전한다. 초당대학교 박종구 총장님께서서는 저자에게 강의 기회를 주시고 늘 격려를 아끼지 않으셨다. 일제강점기와 해방 전후사 관련 얘기를 해주었던 저자의 노부모는, 본서의 완성도를 높여주었다. 하지만 부친께서는 안타깝게도 본서의 출판을 보지 못한 채 지난달 하늘의 별이 되었다. 본서 집필 중에 “노트북 가지고 내 옆에서 일해라” 하며 입원 중에도 장남과 함께 있고 싶어 했던 아버님 목소리가 생생하다.

2023. 2.

저자

4) 국가보훈처, 『이달의 독립운동가』, 2014년 11월

목 차

- 머리말 ____ 04

제1장 독립운동의 귀재 탄생	13
1. 의향을 빛낸 필문·동암 후예	13
2. 광주의 새로운 중심지로 변모한 송정	16
3. 일본인이 얼씬하지 못한 '동부마을'	19
4. 어등산 의병의 피눈물과 이경채	22
제2장 민족자본가 이성륜, 송정 천재를 낳다	28
1. 우애하기로 소문난 민족자본가 이성륜	28
2. 송정 천재 탄생하다	36
3. 민족의식을 자각한 서당교육과 송정 3·1운동	37
4. 송정보통학교 월반(越班) 졸업한 천재	44
제3장 청년운동과 사회주의 사상 유입	51
1. 청년운동의 메카 광주	51
1) 행정·상업의 중심지 광주	51
2) 청년운동의 메카, 광주	53
3) 계몽운동을 지향한 초기 광주청년회	54
4) 활발한 사회운동과 광주청년회의 성격 변화	58
5) 송정청년회와 이경채	63
2. 사회주의 사상의 유입과 독립운동의 새로운 양상	69
1) 사회주의 사상 유입과 신우회	69
2) 청년운동과 광주청년동맹	73
3) 노동운동의 확산	75
4) 전남해방자동맹 결성	77
5) 아체이가 조직과 조선공산당	79

제4장 일제의 식민지 차별 교육과 학생의 저항	83
1. 민족의식을 자극한 차별교육과 동맹휴학	83
1) 1920년대 식민지 교육의 실상	83
2) 1920년대 동맹휴학의 전국적 양상	89
2. 학생운동의 성격 변화	92
1) 사회주의 사상의 유입과 학생운동	92
2) 동맹휴학의 성격 변화	94
3) 학생운동 조직의 기반 확대	96
4) 학생 비밀결사의 확산	99
5) 조선공산당 재건운동과의 결합	102
제5장 광주학생독립운동의 영웅 이경채	105
1. 광주지역 학생운동 조직의 성장	105
1) 광주의 교육 여건과 청년, 사회운동	105
2) 학생운동의 저수지, 성진회	109
3) 讀書會 중앙부 결성과 학생운동 역량의 성장	112
2. 광주학생운동의 영웅 이경채	114
1) 1920년대 전반 광주지역 동맹휴학의 양상	114
2) 독서회 활동과 이경채	115
3) 동맹휴학을 이끌어낸 뼈라 살포 사건	117
4) 맹휴중앙본부 결성과 맹휴	130
제6장 한·일 학생 충돌과 제1차 시위	140
1. 명치절 행사와 학생 시위	140
1) 수기옥정 부근 한일 중학생 충돌	140
2) 무등산의 포효와 제1차 시위	141
2. 1차 시위와 학생투쟁지도본부 결성	142
1) 1차 시위와 검거 선포	142
2) 광주 청년연맹과 학생투쟁지도본부	143
3) 신간회와 광주청년동맹	144
3. 제2차 항일시위와 이경채	144
1) 2차 시위를 주도한 이경채	144
2) 전 세계에 충격을 준 제2차 시위	146

제7장 일본 망명과 재일 유학생 독립운동 주도 ————— 149

- 1. 일본 망명과 독립운동 ————— 149
 - 1) 와세다 대학 유학과 독립운동 ————— 149
 - 2) 유학생 조직 결성과 학우회 ————— 151
 - 3) 사회주의 사상의 유입과 학우회 ————— 152
- 2. 재일유학생 출신의 독립운동 ————— 154
 - 1) 민족주의 계열의 민족운동 ————— 154
 - 2) 재일유학생 독립운동과 임시정부 ————— 157
 - 3) 재일유학생의 이념적 갈등과 학우회 해산 ————— 163

제8장 대한민국임시정부에서의 독립운동 ————— 166

- 1. 상해 인성학교 교사 활동 ————— 166
 - 1) 상해 망명과 인성학교 교사 ————— 166
 - 2) 상해 인성학교의 역사 ————— 168
- 2. 한·중연대론의 토대 구축과 이경채 ————— 178
 - 1) 한국독립당 활동과 한국독립보 발간 참여 ————— 178
 - 2) 중국국민당과 한국독립당 ————— 183
 - 3) 한국독립당의 진광(震光) 발행과 국민당 후원 ————— 188
 - 4) 震光의 발행 배경 ————— 189
 - 5) 한중 연대론을 표방한 진광 ————— 195
- 3. 남경 의열단과 무장투쟁 ————— 196
- 4. 열렬한 민족주의자, 김두봉 ————— 207
 - 1) 김두봉의 출신 ————— 207
 - 2) 김두봉의 정치성향 ————— 209

제9장 대한민국임시정부 지원 활동과 중국군 배속 ————— 215

- 1. 일본군 첩보 수집 활동과 중국군사위원회 근무 ————— 215
- 2. 중국군관학교 한인 특별반 출신 조선의용대와 이경채 ————— 217
- 3. 중일전쟁에 참전한 중국군 장교 이경채 ————— 221
 - 1) 중일전쟁의 전개 ————— 221
 - 2) 戰史에 빛나는 상해 크리크 전투와 이경채 ————— 225
 - 3) 후방 기지를 구축한 중국군과 이경채 ————— 232
 - 4) 무한 9전구와 이경채 ————— 235

제10장 천신만고 끝에 귀국한 조국	239
1. 독립운동 가문의 수난사	239
2. 광주 영웅 돌아오다	240
3. 조국에서의 은둔과 안타까운 죽음	242
■ 이경채 선생 연보	249
■ 부록	
부록 1. 박경순, 피의자 진술조서	251
부록 2. 臨時政府 獨立黨 所在件에 관한 日本領事館報告	264
부록 3. 증인 白井規一 심문조서	267
부록 4. 이경채 관련 판결문	273
부록 5. 1930년 신년초 광주전남 학생계의 반응	310
부록 6. 이경채, 자필 「투쟁경력」	323
부록 7. 이경채 유품 사진	338
■ 참고문헌	343

표 목차

표 1. 개항전후의 대일 무역	17
표 2. 물산 집산 상황(1916년)	19
표 3. 1916년 3월 현재 광주군의 민족별·직업별 호수 분포	34
표 4. 광주청년회 임원	58
표 5. 1926년 송정면 소재 조선인 교육기관 현황	64
표 6. 보통학교 한일 교육 비교(1928년)	85
표 7. 중등학교 이상 한·일 교육 비교(1928년)	85
표 8. 관·공립 각급 학교 한일교사 총수 비교표	86
표 9. 1920년대 동맹휴교의 발생 건수	89
표 10. 학교별 독서회 조직 실태	113
표 11. 동경제국대학 예과학생 수	150
표 12. 재일 조선인 단체 연도별 추이	151
표 13. 귀국 후의 취직 상황(1909-1923)	155
표 14. 대한민국임시정부에 참여한 일본 유학 경험자	157
표 15. 용의조선인 명부	167
표 16. 인성학교 역대 교장 및 교사	174
표 17. 1926년 10월 현재 인성학교 학생 현황	177
표 18. 한국 독립당 당원 명단(1934. 6)	182
표 20. 중국군 전투편성 및 작전지역	233
표 21. 귀국자 명단	241

그림 목차

이경채 묘비(대전국립현추원) _직접 촬영	3
김태원 의병장의 은신처 어등산 토굴 _직접 촬영	24
송석래 의병장 휴대먹통 _손자 송인정 제공	24
조경환 의병장 묘비 _직접 촬영	25
이기손 장군 기적비(송정공원) _직접 촬영	27
이경채 제적등본 _3남 용립 제공	35
송정동초등학교 개교 100주년 기념탑 _직접 촬영	49
이성방 제적등본 _3남 용립 제공	68
광주고보 재학 당시 이경채 _3남 용립 제공	118
이경채 공적비(송정동초등학교) _직접 촬영	127
매일신보(1928. 6. 28.)	132
광주보교 맹휴생 판결 신문 보도	139
동경사회국 페인트강습소 수료식기념(뒷줄 맨 왼쪽) _3남 용립 제공	161
이경채 중국군관학교 생도시절 _3남 용립 제공	216
화북(華北) 전역(戰域)	223
上海작전	225
이경채와 아내, 장녀(1943) _3남 용립 제공	237
중국군 장교 임명장 _3남 용립 제공	238
중국군 고등교육반 11기 명부 _3남 용립 제공	238
이경채가 거주한 집 _직접 촬영	243
결혼사진(1938) _3남 용립 제공	338
회갑사진(1971) _3남 용립 제공	339
중국군 장교시절 처가 식구(오른쪽 아내, 장녀 여흥) _3남 용립 제공	339
일본 망명 직전 금강산 여행(1930~31년 무렵) _3남 용립 제공	339
이경채 유품 전시실(광주학생독립기념관) _직접 촬영	340
이경채 중국군 장교시절 유품(광주학생독립기념관 전시실) _직접 촬영	340
이경채 재판 기록 원본(광주학생독립기념관) _직접 촬영	341
중국 한구(漢口)에서 장모, 아내, 장녀 여흥 _3남 용립 제공	341
회갑사진(1971) _3남 용립 제공	341
독립운동 동지회 전남지부결성(1966) _3남 용립 제공	339

독립운동의 귀재 탄생

1. 의향을 빛낸 필문·동암 후예

이경채는 본관은 광산(光山)으로 한림공(翰林公) 단사동파(丹沙洞派) 30세손이다. 광산 이씨는 광주(光州) 이씨라고 하는데, 경기도 광주(廣州)를 본향으로 하는 광주(廣州) 이씨와 혼동하기도 한다. 한 인물을 연구하는 데에 가계(家系)를 밝히는 작업은 중요하다. 가계 분석은 인물의 성격을 유추하는 데 도움을 준다.

광산을 본관으로 하는 이씨 시조는 태봉 왕국 국왕 궁예의 큰아들 신검의 후손 이종금이라는 설과 고려 말 광주 호족 출신 이정이라는 설이 있다. 현재는 이정을 시조로 하고 있는 것 같다. 이정의 7대손으로 고려 말에 현달한 이순백·숙백·승백 3형제 대에 이르러 상서공파·한림공파·제학공파로 분파되었다. 1856년 철종 7년 광주 증심사 선당에서 족보인 병진대동보를 발간하였는데, 이 책은 상서공 순백, 한림공 숙백, 제학공 승백 삼조(三祖)의 후손을 모두 등재한 광산 이씨 유일의 대동보이다.

광산 이씨 가운데 순백을 일세(一世)로 한 상서공파가 널리 알려져 있다. 상서공파는 5세인 이선제 때 이르러 다섯 명의 아들(원자를 돌림자로 하여 五元으로 불림)이 5개 지파로 분가하였다.

둘째 아들인 숙백의 한림공파 문중에서는 단종이 폐위되고 세조가 즉위하자 이를 개탄하여 경북 고령군 고곡동으로 은거하여 학문에 정진하

었던 근생(根生)이 유명하다. 근생의 결기 있는 행동은, 불의에 맞선 광산 이씨 가문의 표상으로 후손에게 전하고 있다. 한림공과는 장성파, 봉연파, 영남파, 칠곡파, 성주파, 단사동파, 합천파로 분화되어갔다.¹⁾

광산 이씨는 1세(世) 조부터 10세(世) 조까지 문과에 연이어 급제한 명문 가문이었다. 강진 수암서원²⁾과 화순 오현당³⁾에 배향된 ‘광산 이씨 오현(五賢)’이라 부른 ‘필문 선제, 청시당 조원, 이소재(履素齋) 중호, 동암발(중호 차남), 남계 길(중호 3남) 등이 가문과 지역을 빛내고 있다. 지금도 매년 지역 유림과 후손들이 제향하고 있다.

조선 건국 초 대표적 성리학자인 필문 이선제(1390 - 1454)는 광주 전남 광산 이씨를 대표하고 있다. 조선 초 문신으로 강원도 관찰사와 예문관 제학을 지낸 이선제는 권근의 문하에서 글을 배웠다. 그는 태종실록 및 고려사, 고려사절요 등 조선 초 대표적 관찬 역사서의 편찬에 참여한 공으로 ‘경창부원군’에 봉하여졌다.

이선제는, 유명한 광주 남구 양과동 향약을 시행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1430년(세종 12년) 광주사람 노홍준이 광주목사 신보안(辛保安)을 구타하여 광주목이 무진군으로 강등된 적이 있었다. 이에 이선제는 향약을 입안해 향풍 교정을 도모하여 1451년(문종 원년) 광주목 읍호(邑號)가 복구되도록 하였다. 이선제가 제정한 향약은 우리나라 최초의 향약이라고 한다. 이와 같은 공으로 부조묘(不祧廟 불천위)⁴⁾를 명하였고, 그의 호를 본 따 광주광역시에서 ‘필문로⁵⁾’라는 도로명을 제정하였다.

1) 김형주, 2019, 『빛고을 광주문화』

2) 수암서원은 1820년에 창건되었다. 1868년 대원군의 서원 철폐령으로 훼손되었다가 1919년 원우(院宇)를 복설하였다.

3) 1868년 5현을 배향하는 수암서원이 훼손되자 1896년 문중에서 5현을 배향하는 오현당을 이곳에 지었다.

4) 광주광역시 남구 구만산길 34(원산동)에 위치하며, 광주광역시 민속문화재 제7호(1990.11.15. 지정)이다.

5) 광주 유림들이 필문공 현창사업 추진위원회를 만들고 필문로 지정에 관한 청원문을 1987년 2월에 제출하여 1988년 12월 28일자로 지정되었다. 남광주 사거리에서 교육대학을 지나 서방 사거리(3.8km)까지의 도로명이다.

그런데 광산구 대촌면 만산동 입구에 필문이 직접 심으면서 “우리 자손들의 흥망성쇠가 이 나무와 함께할 것”이라 하였다는 수령 600년 되는 왕버드나무가 있다. 문중에서 문·무과에 급제한 이가 있으면 선조의 묘에 고유제를 지내고 돌아와 왕버드 나무에 복을 걸고 삼현육각을 울려 축하연을 베풀었다 하여 ‘괘고정수(掛鼓亭樹)’라고 불렀다.⁶⁾

여기에는 전설이 하나 있다. 기축옥사 이후 이 나무가 말라 죽어 없애려고 불을 피웠으나 타지 아니하므로 구멍에다 다른 나무 한 그루를 심었더니 200여 년간 말라 죽었던 나무가 다른 나무와 함께 살아나 완전히 옛 모습을 되찾으니 광산 이씨 전성기가 도래할 것이라고 세인들이 말하였다 한다. ‘괘고정수’는 광산 이씨 후손들에게는 마치 나다니엘 호돈의 ‘큰바위 얼굴’과 같은 존재였다.

필문을 잇는 광산 이씨를 대표하는 인물로 동암(東巖) 이발(1544 중종 39-1589 선조 22)이 있다. 이발은 이선제의 다섯째 아들 이형원의 후손으로, 선조 때 대사간을 역임한 동인의 영수(領袖)였다. 그는 1589년 정여립 사건으로 유명한 기축옥사 때 장살(杖殺)되었다. 이 사건으로 죽임을 당한 사람들이 1천여 명에 달할 정도로 우리나라 역사상 가장 참혹한 옥사였다. 심지어 세상을 떠난 지 150년이 지난 이선제의 작위까지 박탈하고, 이발의 82세의 노모와 여덟 살 어린 아들도 함께 죽이는 등 동인(東人)과 관련이 있는 인물은 삼족을 멸하였다.

이 사건은, 광산 이씨를 비롯한 우리 지역 사람의 희생을 불러 호남 사람의 몰락의 계기가 되었다. 광산 이씨는 동인 공격에 앞장을 선 송강 정철에게 깊은 한을 가져 제사 음식을 준비하며 고기를 칼로 다질 때 ‘정철’, ‘정철’ 하며 감정의 응어리를 삼켰다 한다.

어렸을 때부터 부친을 따라 집 가까이 있는 필문의 부조묘를 참배하고, 양과동 향약의식에 참석한 이경채는 대사간을 지낸 이발의 꾀꾀한 기개를 닮았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다. 경채가 어려서부터 끊고 맺음이 분명하고 대쪽 같은 성격을 지녔다는 3남 용립의 얘기는 이를 말해준다.

6) 광주남구문화원, 2021, 『광주남구 마을(동)지』

2. 광주의 새로운 중심지로 변모한 송정

현재의 광주광역시 광산구 송정1동이 되는 송정면 명칭은, 1914년 행정구역 통폐합이 이루어지면서 생겼다. 구한말 고내상면에 고상리, 용보리와 소지면 송정리가 있었는데, 1914년 4월 1일 송정, 월촌, 신덕, 선암, 신촌을 합병하여 송정면이 관할하도록 하였다.⁷⁾ 고내상 마을과 용보 마을은 원래 고내상면 관할이었다.

19세기 후반 개항을 전후하여 풍부한 농업 생산을 기반으로 수운 교통이 발달한 고내상면에 외지인 유입이 촉진되어 새로운 마을이 형성되었는데, 동부마을이 여기에 해당한다. 이경채의 조부도 이 무렵 이곳으로 이주하였다.

1876년 체결된 강화도 조약은, 영산강 수계의 주요한 뱃길에 있는 고내상면에도 영향을 끼쳤다. 강화도 조약 체결을 전후한 한·일 양국의 무역량 규모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개항 전인 1873년부터 1875년에 이르기까지 수출입의 규모는 각각 5만 원~6만 원이었고, 3년간 양국 무역은 매년 거의 담보상태였다. 하지만 개항이 되자 수출입이 급격히 늘어나 매년 무역량의 증가율이 2배에서 3배로 늘어났다. 개항 직전인 1875년과 개항 직후인 1881년 두 해를 비교해보면, 대일 수출은 52,300여 원으로 약 27배 증가하였다. 수출품 대부분은 미곡이었다. 공업화 과정에서 농토가 잠식당하여 쌀 생산력이 떨어진 일본은 부족분을 조선으로부터 수입하였다. 이로 인해 쌀값이 폭등한 조선 백성들의 삶이 힘들어졌다. 1882년 발생한 임오민란의 배경이다. 영산강 하구에는 일본으로 쌀 수출이 이루어졌던 항구들이 많았다.

7) 송정동의 행정구역 변천사를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935년 10월 1일 광산군 송정면 송정리, 1937년 송정면이 확대되어 광산군 송정읍 송정리가 되고, 1986년 11월 1일 송정읍이 송정시로 승격되면서 송정동은 원동(元洞)이 되고, 원1동, 동부, 상진, 고내상, 용보를 포함하여 중앙동 신설, 1988년 5월 1일 송정동 호칭 개시(원동 → 송정1동, 송정2동 → 중앙동), 1989년 3월 12일 중앙동을 송정 2동 개칭하였다. 참고로 1980년 발행된 광주시사에 고내상면을 '현 광산군 송정읍 동부'라 하였고, 소지면을 '현 광산군 송정읍 중부'라 하였다.

표 1. 개항전후의 대일 무역⁸⁾

(단위: 圓)

구분	연도	대일수출	대일수입	합계
개항 전	1873년	52,382	59,664	112,046
	1874년	55,935	57,522	113,457
	1875년	59,787	68,930	128,717
	1876년	82,572	81,374	163,946
	합계	250,676	267,490	518,166
개항 후	1877.7-1878.6	228,554	119,539	348,093
	1877.7-1878.12	142,618	154,707	297,325
	1879	566,953	677,061	1,244,014
	1880	978,013	1,373,672	2,351,685
	1882.1-1882.6	742,562	897,225	1,639,787
	합계	4,603,431	5,104,863	9,708,294

동아시아 최대의 곡창지대로 알려져 있었던 광주 신창동에는, 마한 시기에 왜 상인들이 쌀을 수입한 흔적이 남아 있다. 신창동과 인접한 곳에 있는 동부마을은, 곡창지대에다 극락강 수로를 통해 쌀이 수출되는 항구 기능도 하였다. 이곳이 개항 후 미곡상들이 몰려들며 새로운 시가지로 변모하게 된 배경이다. 동부마을이 ‘시가지로 조성된 최초의 마을’이라는 말이 나오게 된 데는 이러한 배경과 관련이 있다.

1896년 관찰부가 나주에서 광주로 옮겨온 이후, 광주는 전라남도 행정 중심지가 되었다. 일제강점기에 행정구역이 새롭게 조정된 1914년 무렵 광주군에 거주하는 조선인의 78%는 농업에 종사하고 있었다. 전통적인 농업 중심의 광주 산업 구조는 이미 1905년 을사늑약 체결 이후부터 급속히 변화되고 있었다.

일제의 식민지 정책이 노골적으로 나타나면서 광주에는 그와 관련된 군대·경찰·행정기구가 들어서기 시작했다. 광주면에는 전라남도청을 비롯하여 경무부, 헌병대 본부, 수비대, 자혜의원(전남대 병원 전신), 잠업 전습소 등의 식민지 통치기구가 들어섰다.⁹⁾

8) 자료: 러시아 대장성 ‘한국지’; 『광주시사』, 1980, 재인용.

9) 박선홍, 1994, 『광주1백년』

1914년 1월 목포 - 대전을 연결한 호남선 철도의 주 정거장으로 송정역이 신설되면서 송정면은 획기적으로 발전하는 전기를 마련하였다.¹⁰⁾ 광주 시내 사람들은 송정역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30리 길을 걷거나 승용차나 우마차를 이용하였다. 광주 - 송정을 연결하는 12km 철로 부설은 1922년 7월의 일이었다.¹¹⁾ 송정역을 중심으로 한 철도망이 완성되고, 광주군과 목포, 광주면과 담양·화순군을 연결하는 도로 건설 등 식민지 수탈을 위한 교통망이 정비되면서 광주의 경제 구조는 재편성되었다.

광주군과 인근 담양·화순 등에서 산출된 농산물 특히 쌀과 면화는, 광주면으로 집적되어 도로를 이용하여 송정리로 옮겨진 다음 철도를 통해 목포항으로 운송되었다. 당시 광주천변에 형성된 정기시장인 큰 장과 작은 장의 대부분 거래 품목이 미곡류와 면화였다고 하는 사실은 이를 짐작하게 한다.¹²⁾ 목포항을 통해 들어온 소비재 수입품은 수출품과 반대의 경로를 통해 내륙으로 퍼져 나갔다. 곧 목포항이나 영산포를 통해 수입된 교역품이 철로를 통해 송정역으로 들어왔다. 그곳에서 광주를 비롯한 전남 곳곳으로 보내졌다. 송정역이 중요한 물산 유입 통로였다.¹³⁾ 광주면과 송정리 일대는 미곡상, 잡화상, 정미·도정업, 양조업, 운송업 등이 발달하였다. 다음의 <표 2>에서 이를 알 수 있다.

10) 송정리역은 호남선의 구간 중 송정리 - 나주 간 구간이 1913년 10월 1일부터 영업을 시작하면서 개설되었다.

11) 광주 - 송정간 철도는 민간철도회사인 전남철도주식회사가 부설한 사철인데, 몇 년 뒤 남조선철도주식회사로 흡수되었고, 1928년에는 국철로 바뀌어 총독부가 운영하였다.

12) 『광주시사』, 1980.

13) 송정역을 중심으로 형성된 인근 평동·본량·삼도·동곡·서창·하남 역세권의 인구가 호남선 철도 부설 초기에 급증하여 1910년대 1만 5천 명이었던 조선인 인구가 1920년대 3만 명, 1924년 4만 5천 명, 1929년 5만 명, 1942년에는 7만 9천명으로 늘어났다. 같은 시기 일본인은 초기 5백여 명에서 1920년대 천여 명, 1930년대 1천 5백여 명, 1942년 1천 8백여 명에 달한다.(광산문화원, 2012, 『광주송정역 100년사』)

표 2. 물산 집산 상황 (1916년)¹⁴⁾

광주面 産	물자 677	가격 85,035
광주부근 지방도달	8,596	644,291
송정리 경유 도달	5,727	595,723
영산포 경유 도달	694	46,398
계	15,694t	1,371,447圓

물산의 집결지가 되면서 송정역 일대가 시가지로 형성되었다. 이때 역세권내에 들어선 주요 공장 가운데 가장 먼저 들어선 것이 도정공장(1곳)과 주조장(1곳)이었다. 처음 통계에 잡혔을 때 1곳이었던 주조장이 1932년 3곳으로 늘어난 것으로 보아 1931년까지 1곳만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 한 곳이 이경채의 부친 이성륜 등이 세운 서부주조장이었다.

3. 일본인이 얼씬하지 못한 ‘동부마을’

이경채는 전남 광산군 송정읍 송정리 612번지에서 태어났다. 현재의 광주광역시 광산구 송정1동에 해당하는 곳이다. 1935년 광주군에서 광산군으로 행정구역이 변경되고, 1937년 면에서 읍으로 승격된 후의 주소이다. 광산군으로 편입되기 이전 주소는 전남 광주군 송정면¹⁵⁾ 송정리 6통 2호 612번지였다.¹⁶⁾ 송정리에서 가장 빨리 시가지가 형성된 이곳은, 시가의 가장 동쪽에 위치하였다 하여 해방 후에 ‘동부마을’이라 불렸다.

현재 행정동인 송정1동은, 원동 마을, 동부 마을, 상전 마을, 고내상 마을, 용보 마을 등 5개 전통 마을로 이루어졌다. 1879년 간행된 광주읍지에 나온 광주군의 41개 면 가운데 하나인 고내상면이 이들 마을을 관할

14) 『광주시사』, 1980.

15) 광산군의 행정구역 변경은 여러 차례 있었다. 1896년 나주에 있던 관찰부가 광주로 옮겨지면서 광산군은 나주군에서 광주군으로 관할 구역이 변경되었다. 그러다가 1935년 광산군의 명칭으로 바뀌었다가 1986년 송정동이 송정시로 광산군에서 독립하였다. 그리고 곧 1988년 송정시와 광산군이 광주직할시 광산군으로 편입되고 1995년 행정구역 명칭 변경으로 광주광역시 광산구가 되었다.

16) 이경채, 제적등본.

하였다. 다섯 마을 가운데 고내상 마을과 용보 마을이 최초 고내상면을 구성하였다. 원동 마을, 동부 마을, 상전 마을은, 1896년 송정리가 나주군에서 광주군으로 편입되고, 관찰부가 설치될 때 형성된 마을이었다.

‘고내상면(古內廂面)’ 명칭의 유래는 이곳에 있었던 조선 초기 전라병마 도절제사의 병영이 전남 강진 병영으로 옮겨가고 터만 남았다 하여 ‘고내성(古內城)’이라 부른 데서 비롯된다.¹⁷⁾ 『세종실록지리지』에는 병영이 석성(石城)이고 둘레가 620보(步)라 하였다. 지금의 광주공항 주변 지역이다. 아직도 성의 자취가 남아 있다.

이곳에 병영을 둔 것은 주변이 평활해 교통이 원활하고, 넓고 기름진 들이 형성되어 있어 군마를 기르고 군량을 확보하는 데 편리하기 때문이었다. 그러다 병영은 태종 17년(1417년) 왜구의 침공이 잦아 서남해안의 방어를 위해 강진으로 이전했다. 일제강점기인 1914년 전국 행정구역이 통폐합될 때 고내상면은 ‘송정면’이라는 새로운 명칭으로 바뀌었다.

‘고내상 마을’은 원래 16세기 초 안동 권씨가 들어오면서 마을이 형성되었다고 한다. 1960년대에 이곳에 공군비행장¹⁸⁾이 들어서기 이전까지는 극락강과 마을 사이에 넓은 들녘이 있는 농촌 마을로, 동쪽에 농업용수로 사용하던 ‘회오리 방죽’이 있었다. 그러나 1960년대 대부분 농토가 공항 부지로 편입되고, 이후에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면서 도시 면모를 갖추었다.

‘용보 마을’은 조선 초기 병영터가 있던 고내상리의 일부로서 한말까지는 고내상면에 따른 마을이라 하여 일명 ‘성내(城內)’라고 불렀으나, 황룡강에서 송정 평야로 흐르는 ‘붓도랑’이 마을 중앙으로 관통한다고 해서 ‘용보(用漕)’라고 부르게 되었다. 이곳에는 1700년대 초 보성 선씨 선해성이 보성에서 이곳으로 옮겨와 마을을 이루었다고 한다. 1964년 광주

17) ‘내상(內廂)’이란 ‘지방에 주둔하는 군단을 일컫던 옛말’로 옛 병영터란 뜻도 있다고 한다.(박선희, 2012, 『광주 1백년』)

18) 1966년 2월 25일 공군 제1전투비행단 기지로 사용되기 시작하였다. 비행장 부지로 대부분의 농지가 편입된 것은 이보다 몇 년 이전이었다.

공항이 이전해 오기 전까지는 나주군 남평읍으로 가는 큰 길가의 농촌으로, 마을 남쪽에 '한새골(황새골)'이라는 넓은 들녘이 있었다. 한새골은 황새가 매년 이곳에 도래한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공군 제1전투비행단이 창설되고 미군들이 주둔하면서 일명 미군 기지촌이 형성되었으나 1990년대 이후 미군이 감축되고 완전히 떠나면서 과거의 변화한 모습은 거의 사라졌다.

‘상전 마을’은 고내상리의 일부로써, 한말까지 고내상면에 따른 마을이라 하여 ‘성동(城東)’이라고 불렀다. 이곳은 병영이 강진으로 옮겨간 후 오랫동안 비어 있다가 일본인 양잠농가들이 뽕나무밭을 많이 조성하였다하여 ‘상전(桑田)’이라는 이름이 생겼다고 한다. 마을 주변에 송정 5일 시장이 들어섰다.

‘원동마을’은 송정 시가지 중 제일 먼저 형성된 동부마을(원2동)과 관련되어 붙여진 이름이다. 일제강점기에는 ‘본정 5정목’ 또는 ‘원동’이라 부르다가 광복 후 송정리 5구가 되었다. 여기에 마을이 형성된 것은 18세기 초 지금의 신역 마을 부근 경전선 철로변에 경주 정씨 정은전이 경주에서 이사 오면서였다. 송정 시가지 중 가장 늦게 개발된 지역으로 해방 후에 시가지가 형성되었다.

‘동부 마을’은 송정 시가지 중 가장 먼저 형성된 마을로 ‘원동’과 구분하여 ‘원2동’이라 불렀는데, 송정 시가지의 가장 동쪽 끝에 위치한다 하여 ‘동부’라고 불렀다. 일제강점기에는 송정면 송정리 5구였다가 광복 이후 분동되어 동부가 되었다. 이곳은 극락강이 가까이에 있는 넓은 평야에다 과거에 영산강을 따라 화물을 실어 나르는 해운의 요충지로 물산이 풍부하였다. 마을 입향조는 경주 정씨로 알려져 있고, 그 뒤로 광산 이씨와 윤씨가 들어와서 살았다고 한다. 광산 이씨는 이경채의 집안을 말한다. 이경채 부친은 이곳에 이사 온 후 혼인을 했다고 한다. 이경채 부친 성륜은 1888년생이므로 1900년 전후에 조부와 함께 이곳에 정착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1896년 나주에서 전라남도 관찰부가 옮겨오면서 광주와 수로 교통과

육상교통의 요지인 송정지역도 외지인들이 본격적으로 유입되는 시기와 일치한다. 동부마을에 처음 들어온 광산 이씨는 곧 이경채 조부 때부터 였다고 생각한다. 이경채의 조부인 치정(致正)은 농업에 종사하였다고 한다. 천석군 지주로 알려진 이경채 부친의 재력 기반은 이 무렵 어느 정도 형성되었다.

그런데 송정면의 여러 마을 가운데 ‘동부 마을’이 일제강점기에는 일본인이 마을에 입촌하는 것을 막아 텃세가 센 마을로 널리 알려져 있다. 이렇게 ‘동부 마을’이 ‘항일’의 상징으로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된 데는 이곳에 세력을 형성한 ‘광산 이씨’ 가문의 존재 때문에 그러한 말이 나온 것이라 여겨진다.

우리나라 많은 성씨 중에 광주, 전남을 본향으로 하는 대표적 성씨가 ‘광산 이씨’이다. ‘광산 이씨’를 역사적으로 평가받게 한 대표적인 인물로 필문 이선제, 동암 이발이 있다. 특히 당쟁의 소용돌이에 휘말려 멸문의 피눈물을 기억하는 광산 이씨 후예들은 어느 가문보다 투철한 역사식이 있었다. 여기에 을사늑약으로 대표되는 일본의 침략과 이에 맞선 어등산의 의병 등의 빛나는 항일의 역사를 체득하고 있었다. 당시 일부 지주 자본이나 상공업 자본이 일제와 타협을 꾀하였을 때 광산 이씨 가문은 이와 결연히 맞섰다. 광산 이씨 가문이 마을의 여론을 장악한 동부마을에 일본인이 얼씬하지 못하였다는 말은 여기에서 비롯된다.

엄혹한 식민지 시대에 동부 마을의 어린 학생 이경채가 역사의 물줄기를 바꾼 항쟁을 주도한 것은 우연이 아니다. 특히 바로 이웃하는 같은 송정면 선암리에서 3월 10일 광주 시위를 이은 3월 17일, 18일 대규모 만세 시위가 격렬하게 일어난 데는 이 지역에 뿌리 깊게 형성된 항일 정서와 관련이 깊다.

4. 어등산 의병의 피눈물과 이경채

1910년 4월 6일 이경채가 태어나고 얼마 안 있어 1910년 8월 29일 국

권이 피탈되었다. 그가 태어난 순간 식민지의 한이 그의 의식을 옥죄고 있었다. 하지만 그의 몸에는 영산강을 붉게 물들인 어등산 의병의 피가 흐르고 있었다. 그가 태어난 송정리는 한말 호남 의병의 위대한 격전지였다. 광산구 관내에서 한말 의병유적은 전투지 11곳, 순국지 3곳, 무기 제조처 1곳 등 41곳에서 확인되고 있다. 광산 지역 전체가 의병과 일본 군경과 치열한 전쟁을 치른 전장터였다.

대표적으로 1908년 4월 25일 일본 군경과 6시간에 걸친 대혈전 끝에 김태원, 송석래 의병장 등 14명의 의병이 장렬하게 전사를 한 어등산이 바로 지척에 있다.¹⁹⁾

“그대들은 죽음을 두려워하는가. 대장부 남아가 죽을지언정 불의에 굴하여서는 안 된다. 또 적이 사방에서 총을 쏘는데 어찌 도망할 길이 있겠는가.”

일본 군경의 기습을 받은 의병들이 당황하자 이들을 독려하면서 의병 대장 김태원이 한 말이다. 이보다 앞서 1908년 2월 2일 설날 아침, ‘의병 잡는 귀신’ 요시다가 이끄는 일본군 광주수비대가 담양 무동촌 마을을 습격하였다. 일본 군경은 의병을 잡기 위해 10개 부대를 편성하여 토벌 작전을 전개하고 있었다. 일본 수비대가 끈질기게 추격한 의병부대는 고창 문수사 전투, 영광 범성포 전투 등 수많은 곳에서 일본 군경을 격파한 최강 김태원 의병부대였다.

일본 군경의 기습 공격에도 김태원은 당황하지 않고 치열한 교전을 전개하였다. 이 전투에서 일본군 2명 사살, 2명 중상이라는 쾌거를 거두었다.

19) 박해현, 2019, 『한말전남의병』(전남교육청)



김태원 의병장의 은신처 어등산 토굴



송석래 의병장 휴대머뚱

무동촌에서 광주수비대를 격파한 김태원 의병부대는, 장성 토천(토물) 전투에서 일본군 30여 명을 살상하는 대승을 거두었다. 일제는 김태원 의병부대를 잡기 위해 제2특설순사대를 편성하고, 광주수비대와 헌병까지 출동시켰다. 1908년 3월 29일 동생 김율이 송정리에서 일본군에 붙잡혀 광주 감옥에 수감되었다. 형인 김태원은 박산 마을 뒤 어등산에서 전투 중 입은 상처를 치료하며 일본 수비대를 공격할 계획을 세웠다. 하지만 이곳에 김태원 의병부대의 주둔 사실을 눈치챈 일본군이 4월 25일 포위망을 구축하여 공격해 왔다. 김태원 의병부대는 일본군과 3시간 넘는 대전투를 치렀다. 한말의병사를 빛낸 유명한 어등산 전투였다.

이 전투에서 김태원을 포함한 의병 23명 전원이 전사하였다. 전사자 중에는 김태원 의병부대의 중군장으로 활약한 송석래 의병장도 포함되어 있다. 나주의 한학자로 전 재산을 내어 수십 명의 의병부대를 결성한

그는, 김태원 의병부대에 합류하여 중군장의 직책을 맡아 많은 전공을 세웠다. 그는 사냥도 잘하여 명사수로 소문났다고 한다. 영광의 굴수산 전투에서 일본군 장교 2명이 포함된 일본군 수십 명을 사살하는 전공을 포함하여 김태원과 더불어 전남의 서남부 일대를 누비며 의병 전쟁을 치렀다.

김태원의 얼굴을 알지 못한 일본군은, 이튿날 동생 김을을 통해 형의 시신을 확인하고, 아우도 그 자리에서 총살시켰다. 김태원 의병부대가 장렬한 최후를 맞이한 후, 조경환·오성술·전해산 등이 뒤를 이어 어등산을 무대로 일본군과 치열한 전투를 치렀다.

② 어등산을 빛낸 조경환 의병장

김태원 의병부대와 함께 어등산을 무대로 활동을 한 조경환 의병장이 있다. 광산군 서방면 신안리 출신인 그는, 어등산에서 김태원이 전사하자 흩어진 병사를 재편성하여 광산 흑석동에서 순사부장 정득주를 포함하여 여러 명의 적을 생포하는 전공을 올렸다. 150명 규모의 조경환 의병대는 나주 다시면 원동에서 함평 주둔 일본 군경과 전투를 치렀고, 송정리에서 심남일·전해산·김기순이 이끄는 연합의병부대와 함께 일본 헌병대와 전투를 치렀다.



조경환 의병장 묘비

“하늘이 거듭 푸르고, 달빛 밝으니, 못된 귀신 되어서라도 왜적을 섬멸하리. 섬나라 오랑캐를 멸하지 않으면 죽어 혼백일지라도 돌아오지 않으리라.”

어등산에서 순국한 조경환(1876-1909) 의병장이 남긴 시의 한 구절이다. 조경환은 1907년 ‘불원복(不遠復)’으로 유명한 고광순 의병장이 지리

산 연곡사에서 순국하자 그를 추모하는 글을 지었다.

“백발이 되어서도 충성스런 마음으로 의로운 깃발 세웠건만/ 홀연 불
어오는 북풍에 무궁화꽃 떨어지네/ 광산모임 약속 있으나 어디로 다 갔
는지/ 등불 앞에 잠들지 못한 나 홀로 슬퍼한다네/ 당나라 장수 허원이
우리나라에 다시 태어나/ 의로운 북소리 연곡사 골짜기 드높였건만/ 국
운이 비색하여 능히 승전하지 못했으니/ 서쪽 바람에 만장을 쓸 제 눈물
만 가득하네”

조경환은 의병 전쟁에 나설 결심을 하였다. 1907년 12월 10일 김태원 의병부대에 합류하여 좌익장, 선봉장을 맡은 그는 함평면(읍), 무동촌, 장성 낭월산, 영광 월암산, 어등산 등지에서 수많은 전투를 치렀다. 김태원 의병장 순국후 흩어진 의병부대를 재정비한 조경환 의병장은, 일본 군경과 전투를 치열한 전투를 치렀고, 때로는 전해산 의병부대와 연합작전을 전개하기도 하였다.

1909년 1월, 설을 쇠기 위하여 의병들을 고향으로 돌려보낸 조경환은, 의병 50명을 이끌고 어등산에 주둔하였다. 야마다 소위가 지휘하는 일본군은 (읍) 1908. 12. 19 조경환 부대를 포위하고 맹렬한 공격을 해 왔다. 조경환을 비롯하여 20명 의병이 이 전투에서 전사하였다. 송정공원에는 그의 공을 기리는 의적비가 있다.

본량 출신 이기손 의병장

송정리와 이웃한 광산 본량면 장등마을에서 태어난 이기손 역시 이 지역을 대표하는 의병장이다. 그는 광산 삼도면에서 오준선으로부터 학문을 배워 20세에 역리와 지리를 통달하였다. 1907년 군대 해산 후 800여 명의 의병을 규합한 그는, 광산 임곡 용진산을 중심으로 의병 활동을 전개하여 여러 차례 일본군을 격파하였다. 지형이 유리하고 군량미 조달이 쉬운 함평 석문산으로 본진을 옮겨 활동하던 그는, 1909년 일본군에게 체포되었다. 압송 도중 탈출하여 충남 금산에서 은신하다 함경도를

거쳐 만주, 그리고 연해주로 망명하였다. 둘째 아들은 일본군에 붙잡혀 고문을 받다 옥중에서 사망했고, 부인 또한 두 차례나 옥살이하였다.

1915년 연해주에서 귀국한 후, 금산에서 젊은이들에게 애국정신을 교육하였고 고종과 순종을 모신 숭봉전과 어필각을 건립하여 민족정신을 고취하였다.

이처럼 어등산을 중심으로 한 송정리 일대는 대한제국의 의병부대가 일본군과 치열한 전투가 치러진 전장터였다. 이경채가 태어난 1910년까지도 송정면에서는 의병 전쟁은 현재 진행형이었다. 그의 유년 시절의 기억에 어등산을 중심으로 치열한 독립전쟁을 치른 의병들의 활약상은 깊은 충격과 감동으로 자리하고 있었다.



이기손 장군 기적비(송정공원)

민족자본가 이성륜, 송정 천재를 낳다

1. 우애하기로 소문난 민족자본가 이성륜

어렸을 때 화순에서 송정으로 이사 온 이성륜은 천석군 지주였다. 이성륜은 1888년생으로 치정의 장남이다. 그는 송정으로 이사 온 후 결혼했다고 하므로, 1900년 전후한 시기에 이주하였다고 추정할 수 있다. 치정은 수로 교통과 극락강 관개를 이용하기에 편리한 송정지역을 주목하였다. 특히 1896년 현재의 도청 격인 전라남도 관찰부가 나주에서 광주로 옮겨온 것도 그의 선택에 영향을 주었다. 도청이 광주로 옮겨오면서 광주면과 더불어 가장 번모한 곳이 송정면이었다. 치정이 새로이 이거한 송정에서 대지주로 발돋움하게 된 데는 나름의 이유가 있었다. 이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광주군은 서남부에 비옥한 평야 지대를 끼고 있어서 농업이 주산업이었다. 1910년대 중반 광주군에 거주하는 조선인 호수의 78%가 농업에 종사하고 있었다. 1926~1927년 무렵 광주군의 경지 가운데 논 76%, 밭의 40%는 소작지였는데, 이 수치는 같은 시기 전남의 평균치 61%, 34%를 훨씬 상회하였다. 50정보 이상을 소유한 대지주는 주로 광주면과 송정면에 거주하였다.¹⁾

1) 이애숙, 1995, 「1920년대 광주지방의 민중운동」, 『전남사학』 9.

한말 지주층이 대지주로 성장하는 과정을 보성 득량 양씨 사례를 통해 짐작할 수 있다. 양씨가 세거지였던 보성 득량 박실 마을은 득량만에 인접한 곳으로서 보성군 미력면 도개리, 복내면 당촌리와 함께 보성군의 '3대 명지(名地)'로 알려져 있다. 주변의 넓은 평야와 군두천, 송곡천, 득량천의 수리(水利)를 바탕으로 일찍부터 농사가 발달하였고, 인근 임야에서 풍부한 임산물이 나왔으며, 해안에서는 각종 해산물과 소금이 생산되었다. 가까운 해창포를 통해 강진, 해남, 목포 등지로의 해운도 원활하였다. 이러한 조건을 적절히 활용한 양씨 가문은 막대한 재력을 축적하였다.²⁾ 지응현(池應鉉), 최선진(崔善鎭) 등 1920년대 광주를 대표한 지주들도 이와 유사한 과정을 통해 재산을 형성하였다.

한편 광주가 도청 소재지가 되면서 광주와 송정리를 중심으로 상업과 무역이 발달함에 따라 조선인 지주 자본이 상공업 자본으로 빠른 속도로 전환되어 갔다. 특히 1917년 광주전등주식회사가 설립되어 동력문제가 해결되면서 큰 공장도 들어설 수 있었다. 지응현이나 최선진처럼 광주를 대표하는 지주들이 이름난 상업자본가로 성장하였다. 광주 3·1운동을 주도한 김범수의 아우인 김언수도 1926년에 형인 김범수가 세운 남선의 원과 동일한 이름인 '남선양말공장'을 창업하였다. 남선양말공장은 1935년 대표적 민족 자본으로 설립된 무등양말공장보다 10년 일찍 세워졌다.³⁾ 대표적 민족기업이라고 할 수 있다.

지응현이나 최선진, 김언수가 광주면에서 지주 자본을 상업자본으로 변모시킨 대표적인 인물이라면, 이경채의 부친인 성륜은 송정면에서 지주 자본을 상업자본으로 변모시킨 대표적 인물이었다. 성륜은 천석군으

2) 한말 적지 않은 양반가들은 한말-일제하 전기간에 걸쳐 소작 경영, 자작경영, 염전 운용, 대우(貸牛) 경영, 고리대 운용, 과수원 경영, 주식소유, 은행 거래 등 치부가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부를 축적하였다.(홍성찬, 2011, 「한말 일제하의 지주 계 연구: 보성 양씨의 지주경영과 그 변동」, 『동방학지』114) 저자의 증조부도 보성 미력면 도개리 맞은편 반룡리 대지주로 500섬 지주였다. 토지는 물론 염전, 임야 등을 소유하였는데 토지 문서를 보면 1920년대 말 토지를 크게 늘린 것을 확인할 수 있다.

3) 박선홍, 1994, 『광주 1백년』 및 박해현, 『독립운동가 의사 김범수 연구』.

로 소문날 정도로 송정면을 대표하는 지주로 이름이 알려져 있었다⁴⁾. 이성륜은, 그의 부친 치정이 일군 재산을 더욱 늘렸다. 이성륜이나 치정 모두 재산을 늘리는 과정에서 고리대 등 사회적으로 지탄받는 수단은 사용하지 않았다.⁵⁾

이성륜은 토지 자본을 상공업에 투자하여 민족 자본을 축적하려 하였다. 송정면의 대표적인 지주자본가인 이성륜은 ‘송정막걸리’ 회사를 창업하였다.⁶⁾ ‘송정막걸리’는 ‘금봉(金鳳 정종⁷⁾)’과 함께 송정의 2대 ‘명주(名酒)’의 하나로 유명하다.⁸⁾

송정 막걸리는 서부 주조장에서 생산된 막걸리를 말한다. 이 술은 맛 좋고 향기 짙기로 유명해 30리 밖 광주 시내 사람들이 일부러 찾아올 정도였다. 이 주조장의 창업자는 전남도 평의원을 지낸 정순조, 송정읍장 장안섭, 그리고 지역 유지인 이성륜으로, 송정면 지역의 명망가들이었다. 이들 가운데 정순조와 장안섭은 도평의원과 읍장을 지냈다. 송정면이 송정읍으로 승격된 것이 1937년이니 막걸리 회사를 공동으로 창업하였을

4) 이경채의 3남 이용립의 증언.

5) 해방 직후 건국준비위원회 화순지부 결성에 앞장 선 조주순(독립운동가 김범수 큰 사위)의 부친도 지주 출신으로 주조장을 경영하여 재력을 축적한 화순의 대표적인 부호였지만 사채업을 하였다 한다. 일본 유학을 중퇴하고 귀국한 조주순은 사채업을 하는 부친의 재산 증식형태에 반발하여 사채 문서를 모두 불태워버렸다고 한다. (박해현, 『독립운동가 의사 김범수 연구』)

6) 이하 서술은 장재철, 2004, 「송정의 2대 명주, 『어등골문화』 7.

7) ‘정종(正宗: 청주)’은 일본인이 좋아하고 상류층이 즐겨하는 고급술로, 일본인이 경영하는 ‘후시(不二)’ 양조장에서 제조, 판매하였다. 하지만 아직 도시 발달이 미약한 송정인지라 소비가 제한되어 경영난에 처하게 되어 매물로 나왔다. 그러자 해남에서 탁주 주조장으로 돈을 벌어 광주에 삼광여객운수회사를 경영하던 나정균이 이 양조장을 인수하여 금봉양주식회사를 차려 크게 번창하여 서울, 광주 등 전국 각지에 지사를 두었다. ‘금봉’이란 명칭은 지금의 송정공원과 연계되어 있는 우뚝 선 높은 산봉우리 이름이며, 양조장은 송정시가지에서 조금 벗어난 도산동 어귀에 있었다.(장재철, 위의 글)

8) 또 다른 기록에는 송정동 금천주조장에서 빚은 ‘금천막걸리’가 일제 때부터 빚어졌고, 서부주조장에서 빚어진 ‘어등산 막걸리’는 1960년대부터 시작되었다고 한다. 좀 더 확인할 필요가 있다.

때는 읍장이 되기 이전으로 보인다. ‘도평의원’과 ‘읍장’은 일제가 조선인을 분열시키려고 만든 식민통치기구의 하나였다. 성륜은 이러한 기구와 인연을 맺지 않았다. 성륜이 주조장을 이들과 함께 창업하였을 때는 이들이 아직 이러한 식민통치기구에서 역할을 맡지 않았던 때로 보인다. 만약 이들이 식민통치기구에 협조하는 직책을 지냈거나 역할을 하였다면 성륜은 동업을 하지 않았을 것이다. 성륜의 아우 성방이 1920년대 송정리에서 송정노동청년회의 간부로 활용하면서 노동자, 농민을 위한 활동에 진력을 기울이고 있었다. 이경채 집안 내력을 짐작할 수 있다.⁹⁾

서부주조장을 이성륜 등 3인이 공동으로 창업하였으나 곧 정순조가 단독 운영하였다. 1959년 자료에 정순조가 운영하는 ‘서부주조장이 전남 광산군 송정읍 도호리¹⁰⁾ 830번지에 있다고 되어 있다. 현재는 광주 광산구 신촌동 830-1번지이다. 처음 주조장 명칭이 ‘서부’였는지는 알 수 없으나 창업자인 정순조가 인수한 것으로 볼 때, 최초 창업 당시에도 그 명칭을 사용했다고 본다. 그 후 서부주조장은 원래 있는 곳에서 송정로길 반대쪽으로 옮겨졌고, 지금은 ‘어등산 막걸리’라는 새로운 상표로 그 명성을 유지하고 있다.

이성륜 등이 막걸리 양조장을 세운 데는 단순히 영리를 추구하려는 목적이 전부는 아니었다. 송정의 발전을 위해 손님을 끌어들이고 가난한 서민을 돕기 위해서였다. 호남선이 개통되자 송정역이 중요한 물류 유통 기지로서 기능하면서 많은 사람이 왕래하였다. 송정역 앞에 일본인이 경영하는 오가야마 여관, 도야마 여관 등 일류 고층 여관이 있었다. 이 여관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관공서 등에 일을 보러 광주면으로 나가 음식을 먹고 잠만 자러 오기 때문에 외부인이 온다고 하여도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되지 않았다. 그래서 이성륜은 지역민의 경제생활을 돕기 위해서는

9) 이성방에 대해서는 절을 달리하여 다루겠다.

10) 도호리는 1914년 행정구역이 조정될 때 고내상면, 소지면, 우산면 등 3개 면을 통합하여 송정면 신촌리, 도호리로 개칭되었다가 1986년 송정시로 승격될 때 신흥동으로 개칭되었다. 신흥동은 법정동인 도호동, 신촌동, 우산동 일부를 관할하는 행정동이다.

맛있는 음식과 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여 서부주조장을 만들었다고 한다.¹¹⁾ 이렇게 세워진 주조장이 빈한한 농민들의 생계에도 도움을 주었던 것 같다.

조선의 대표적인 농산지인 동시에 농민들의 부지런한 활동으로 인하여 흉품의 영향을 그다지 받지 않은 호남선 송정일대는 경제공황과 미가 폭락으로 인하여 농민들은 작년 수확물의 대부분을 채무와 고리대금으로 다 바치고 요즈음에는 먹을 것이 없어서 배고픔을 참지 못하고 두서너 줌의 겨와 마랭이(酒粕)를 얻어 먹으려고 1~20리나 되는 먼 곳을 이웃집 가리지 않고 시내 각 정미소와 주조장으로 매일 수백 명이 몰려 다닌다는 데 창백한 그 얼굴들은 목불인견이었다.¹²⁾

1929년 미국에서 비롯된 세계공황은 일본의 경제에도 커다란 타격을 주었다. 자국 농민을 보호하려고 일제는 조선으로부터 곡물 수입을 중단하였다. 1920년부터 시작된 산미증산계획 추진으로 쌀 생산이 늘어난 조선은, 일본으로 수출 길이 막히니 쌀값이 폭락하였다. 이때 가난한 농민들이 술 찌꺼기를 얻어다 연명하였던 당시 송정리의 사정을 여러 신문이 보도하고 있다. 이 사실이 언론에 보도된 것은 농민의 딱한 처지를 잘 아는 주인 성륜이 주민들에게 많은 도움을 주었기 때문인 것 같다.

양조장을 세워 상업자본을 축적한 이성륜은, 공장을 세워 산업자본을 축적하려고 노력하였다. 1926년 그는 송정동에 ‘쌍합성주물공장(雙合成鑄物工場)’을 설립하였다.¹³⁾ 이 공장은 보습류, 쟁기, 탈곡기 등 농업 생

11) 상무대 기갑학교 교장 시절 즐겨 마신 서부주조장 술맛을 잊지 못한 박정희 전 대통령이 전남 지역 순찰할 때는 저녁에 경호원과 은밀히 와 술을 마셨다는 비화가 있다.(장재철, 위의 글)

12) 동아일보 1931. 6. 5.

13) 1956년 자료에는 전라남도 광산군 송정리 8415번지에 공장이 있었다고 나와 있고, 1959년에는 전라남도 광산군 송정읍 명동 845번지에 있었다고 나와 있다. 같은 곳인데 기록의 차이로 보인다.(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 공장 터에는 현재 한국아텔리움더시티 오피스텔이 세워져 있다.

산에 도움을 주는 농기계를 제작하는 회사였다. 1920년대는 일제의 식민지 정책의 변화로 회사령이 철폐되어 회사 설립이 비교적 자유로운 시기였다. 일제가 조선의 인적, 물적 자원을 수탈하려는 의도에서 취한 조치였다. 1920년대 조선 농민들의 삶은 매우 힘들었다.

1912년 시행된 토지조사령에서 경작권이 박탈되어 기한부 소작농으로 전락한 데다 1920년부터 실시된 산미증식계획에 따른 비료 대금, 수리시설 이용대금, 우량 종자 대금 등 추가 영농비를 소작 농민이 떠안아 자기 소유 토지가 얼마 되지 않은 농민 몰락이 가속화되었다. 이성륜은 영농 기술 혁신을 통한 농업생산력 증대야말로 농민들 삶을 안정시키는데 매우 중요한 토대임을 잘 알고 있었다. 그가 농기계회사를 설립하려 한 까닭이다.

이처럼 이성륜은 토지 자본을 상업 자본과 산업 자본으로 전환하여 민족 자본의 토대를 구축하려 하였다. 이는 궁핍한 농민의 삶을 해결하려는 민족적 자각에서 비롯되었다. 그를 민족을 사랑한 민족주의자로 자리매김해도 좋지 않을까 한다. 그의 이러한 노력은 송정역 일대에 모여든 농촌 이탈 노동력을 구제하는데 적지 않은 도움을 주었다.

참시 일제강점기 초기의 광주면과 송정면의 상황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1905년부터 광주 성안에 들어서기 시작한 각종 식민지 통치기구를 따라 들어 온 일본인은 읍성 주변에 자리를 잡았다. 1910년 말 광주군에 자리잡은 일본인은 416호였는데, 그 99%가 광주읍에 몰려 있다. 1919년 말에는 광주군 거주 일본인이 1,017호로 늘어난 가운데 그 74%는 광주면에, 12%는 송정면 송정리에 거주하였다. 일본인은 주로 식민지 통치기구, 농업 및 상업 부문에 종사하면서 식민지 수탈의 첩병으로 활동했다.

일본인은 행정권을 장악하여 광주면과 송정리를 중심으로 새로운 시가지에서 상권을 확대해가고 있었다. 이들은 한말 이래 새롭게 자본을 축적하고 있던 조선인 상업자본, 재래시장 중심의 조선인 상권과 치열한 경쟁을 하였다. 1910년대부터 일본인 자본은 양조업, 도정·정미업 부문을 중심으로 소자본이 투자되었고, 조선인 자본도 사정은 마찬가지였다.

그런데 1918년에 이르러 종래 조선인 자본가가 지배하던 광주농공은행이 식산은행 광주지점으로 개편되었다. 식산은행 중역진은 일본인으로 채워졌다.

표 3. 1916년 3월 현재 광주군의 민족별·직업별 호수 분포

(단위: 호, 괄호안은 백분율)

구분	관공리	농업	상업	공업	기타	무직	합계
조선인	117(0.8)	11,987 (77.9)	796 (5.2)	2,280 (14.8)	26(0.2)	179 (1.2)	15,385
일본인	287(28.7)	203(20.4)	399(40.0)	74(7.4)	25(2.5)	9(0.9)	997

(北村友一郎 編, 1917, 『광주지방사정』¹⁴⁾)

1920년대 후반부터 일본인 대자본이 제사·방적업 부문에 침투하기 시작했다. 1910년대 후반부터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던 조선인과 일본인 자본의 균형 관계는 서서히 일본인 쪽으로 기울기 시작하였다.¹⁵⁾ 이 과정에서 상공업에 자본을 투자한 적지 않은 이들이 일본과의 타협의 길로 나섰으나 이성륜은 오히려 더 강하게 민족자본가로서의 길을 깨끗이 갔다. 그가 버티고 있는 ‘동부 마을’에 일본인들이 아예 얼씬도 하지 못했다는 얘기는 이를 입증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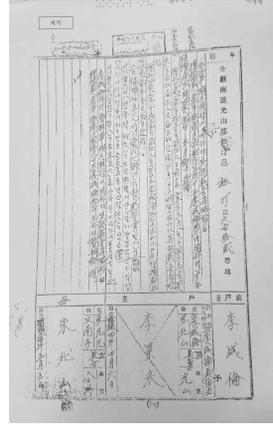
그런데 ‘쌍합성주물공장’을 세운 이성륜은 아우인 성방(成芳)에게 경영권을 주었다. 1894년생인 이성방은 1916년 3월 20일 그의 나이 23세 되던 해 전남 광주군 송정면 송정리 1통 8호로 분가하였다. 그가 혼인하여 분가한 것이라 생각한다. 그는 분가한 후에도 본가 근처에 살았다. 이성륜은 분가한 아우 성방을 끔찍이 아꼈다. 같은 마을에 분가를 시킨 데다 1926년 세운 ‘쌍합성주물공장’ 운영을 아우에게 맡긴 것에서 알 수 있다. 특히 아우인 성방이 후사가 없자 성륜은, 그의 3남 경호를 양자로 보냈다. 성방 또한 형의 사업을 적극적으로 도왔다.¹⁶⁾ 차남인 경도는 숙부

14) 이예숙, 앞의 논문, 재인용.

15) 이예숙, 앞의 논문.

가 운영하던 쌍합성주물공장을 운영하였다.¹⁷⁾

법률상 성방의 아들이자 경도의 친아우인 경호는 해군사관학교 1기생으로 직업군인으로 있었기 때문에 쌍합성주물공장을 상속받아 경영할 처지가 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일제강점기 많은 민족 지사를 길러낸 고창고보¹⁸⁾를 졸업한 경도는, 일본 주오대(中央大)를 졸업하고 영광세무서에 근무한 경력이 있다. 경도는 아우인 경호가 해군 대령으로 예편하자 공장 운영을 그에게 돌려주었다. 부친이 아우에게 운영권을, 준 공장을 아들들이 서로 갈등 없이 운영하고 있음을 알려준다.



이경채 제적등본

- 16) 이경채의 증언에 의하면 숙부인 성방이 독립운동에 자금을 지원하였다고 한다. 성방은 해방 후 광산군 구국회회장을 하다 한국전쟁 때 피살되었다.
- 17) 1949년 4월 6일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 전남 조사부 서기관 김교석 입회하에 피의자 이문환을 조사하는 과정에, 이문환이 태평양전쟁 말기인 1943년 송정리 이성방 철공소에서 '고구스'를 화물자동차로 2대 가져왔다는 증언이 나온다. 이로 미루어 1949년 무렵까지에도 이성방철공소가 유지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18) 고창고등학교의 略史에는 “1910년에 설립된 사립오산학교가 모태가 되었고, 이후 1920년 사립오산고등보통학교로 인가 설립되었다”고 되어 있다. 고창고등보통학교의 설립 역사에 대해서는 박선홍이 자세히 ‘민족교육의 선각자, 영태승’이라 하여 영태승 다룸며 자세히 설명하였다(박선홍, 앞의 책, 120~126쪽). 박선홍에 따르면 1912년 고창군 부안면 오산리 흥덕에 세워진 흥덕학당이 모태라 하여 학교의 약사와 2년의 차이가 있다. 이 흥덕학당이 모체가 된 고창고보는 일제강점기 ‘북오산고보 남고창고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교육적 열의와 민족의식이 투철하였다. 일본인 교원 배척운동, 비밀결사 조직 등 항일운동을 전개하였다. 수많은 민족 지사들이 고창고보를 다녔다. 광주학생운동이 일어나기 전에 가장 맹휴가 많이 일어난 학교로, 김범수의 아들 용채 또한 고창고보를 졸업하였다. 이렇게 고창고보가 대표적인 민족학교가 될 수 있었던 데는 학교 교사로, 교장으로 학교를 운영한 영태승의 공이 절대적이다. 영태승은 화순 출신으로 조선 중기 호남사람을 대표한 학포 양태승의 후손으로, 광주에 돌아온 후 1935년 일제강점기 대표적인 민족기업인 무등양말 공장을 설립하는 데도 참여하였다.

2. 송정 천재 탄생하다

이경채의 제적등본에 “융희 4년(1910년) 4월 6일 출생하였다”고 기록되어 있다. ‘융희’는 순종 황제의 연호로, 융희 4년 4월은 1910년 4월로 일제에게 국권이 피탈되기 이전의 시기였다. 1988년 7월 24일 화순에서 태어난 부친 이성륜은 송정으로 이사 와 혼인을 하였다. 성륜은 부친 이치정(1858년생)과 순창이 본관인 조남조(1860년생) 사이에서 3남으로 태어났다. 이경채의 모친 주북산은 명문 화순 능주 주씨 가문의 둘째 딸이다. 이경채는 성륜과 주북산의 3남 4녀 가운데 장남으로 태어났다. 1903년 조부 이치정은 45세의 젊은 나이에 작고하였다.

이성륜은 3남 4녀를 두었다. 장남 이경채(1910년생), 장녀 천례(1913년생), 차남 경도¹⁹⁾(1917년생), 차녀 경연(1920년생), 3녀 경례(1924년생), 4녀 경희(1927년생), 3남 경호(1930년생) 등을 두었다. 3남 경호는 아우인 이성방이 후사가 없자 양자로 보냈다. 그런데 경호가 입적한 지 얼마 후 이성방이 후사(맹식)를 얻어 족보상으로는 성방의 후손으로 경호와 맹식이 있다.

어려서부터 매우 총명하고 꿍고 맺음이 분명한 경채는 두뇌가 명석하였다. 그가 보통학교 4학년을 마치고 바로 월반하여 졸업하고 당시 호남의 영재들이 다닌 광주고등보통학교에 합격한 사실에서 알 수 있다. 그가 광주고보에 입학하던 1924년 입시에서 송정보통학교에서 단 2명 합격했는데, 1인은 6학년 졸업생이고, 다른 1인은 4학년생인 이경채였다는 사실에서 그가 명석한 두뇌를 지녔음을 알 수 있다.

특히 그가 광주고보 4학년 때 『사회주의 학설 개요』, 『시험관 속의 사회주의』, 『메이데이』, 『무엇을 할 것인가』 등 일본어판 사회과학 서적을 탐독하여 그것을 토대로 격문을 작성한 사실에서 그의 천재성을 엿볼 수 있다. 그가 읽은 사회과학서적들은 철학 서적에 가까워 쉽게 내용을 파악하기 어려움에도 이를 나름의 기준으로 정리하였다는 사실은 17세의

19) 이경도는 해남 북평출신 신란(申欄)의 4녀인 봉심과 혼인을 하였다.

소년으로서는 믿기지 않는다. 그가 매우 총명한 두뇌와 논리적이고 분석적인 사고를 지녔음을 짐작할 수 있다.²⁰⁾

경채를 비롯하여 성륜의 자녀들은 모두 두뇌가 영특하였다. 장녀 천례, 차녀 경례, 삼녀 경희 모두 일제강점기 전남의 명문 광주여자고등보통학교를 졸업하였고, 차남인 경도는 일본 주오대(중앙대)를 졸업하였고, 막내 경호는 해방 후 대한민국 해군사관학교에 1기로 입학하여 해군 대령으로 예편하였다.

3. 민족의식을 자각한 서당교육과 송정 3·1운동

경채가 태어나던 1910년은 일제에 국권이 넘어가던 참담한 시기였다. 그가 태어나고 갓 100일이 지나 국권이 완전히 넘어가고 말았다. 이미 을사늑약과 치열한 어등산 의병 전쟁을 겪었기에 이성륜은 소중한 장남이 태어났으나 마냥 기뻐할 수 없었다. 국권이 피탈되자마자 곡성에서 정재건 의사가 자결하고, 구례에서 매천 황현 선생이 목숨을 끊는 등 온 민족이 비통에 빠져 있었다. 이러한 슬픔과 분노를 갖 태어난 경채는, 고스란히 떠안았다.

경채는 11세 되던 1920년 막 개교한 송정공립보통학교에 입학하였다. 그 이전에 그는 서당교육을 받았다.²¹⁾ 그가 서당교육을 받은 까닭은 송정리에는 보통학교가 없었기 때문이다. 당시 광주에는 광주공립보통학교라는 근대식 교육기관이 있었다. 광주공립보통학교는 현재 광주 동구 서석동에 있는 서석초등학교의 옛 이름이다. 광주공립보통학교는 1896년 11월 6일 전라남도 관찰부 공립 소학교로 개교한 이래 1906년 조선통감부가 발표한 보통학교령에 따라 공립광주보통학교로 명칭이 바뀌어졌다. 1910년 다시 광주공립보통학교로 개칭되었다가 1934년 광주제1보통학교, 1938년 광주서석공립심상소학교, 1941년 광주서석공립초등학교

20) 경채의 3남 용립도 그의 부친이 수재로 소문나 있었다고 증언한다.

21) 3남 용립의 증언.

1950년 광주서석국민학교로 명칭의 변화가 있었다.²²⁾

그런데 처음에는 단발 문제 등 근대식 학교에 대한 거부감이 있어 광주공립소학교는 수업연한 3년에 학생 수 50명의 한 학급을 모집하려 하였으나 지원자가 한 명도 없었다.²³⁾ 1906년 4년제로 개편하며 교명도 공립광주보통학교로 바꾸고 교사(校舍)도 향교의 사마재에서 금남로 1가 전일빌딩 자리로 이전하였다. 1회 졸업생은 18명이었다. 이때도 지원자가 없어 서당의 학동들을 붙들어오기까지 하였다. 수업료 면제는 물론 교과서와 학용품 일체를 지급하였어도 지원자가 없었던 것은 반일감정이 뿌리 깊이 박혀 있어 일본식 수업을 거부하고 있었던 데다 학교에 다니게 되면 삭발하기 때문에 입학하려고 하지 않았다.

그러나 많은 조선인이 식민지 체제에서 실력을 기르는 것이 극일 및 항일의 기본 조건임을 인식하면서 근대학교 지원자가 차츰 늘어났다. 1922년 제2차 교육령 이전까지 보통학교 교육과정은 조선인은 4년으로 일본인의 6년에 비해 차별받았다. 한 학년에 50명씩 약 200명이 전교 재학생 숫자였다.

이경채도 보통학교에 다닐 연령이 되었으나, 부친은 서당교육을 선호하였다. 그것은 송정면에 보통학교가 없었기 때문에 부득이한 선택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당시 그의 경제력으로 볼 때 만약 근대교육을 절실히 느꼈다면 광주로 유학을 보냈을 것이다. 오히려 그가 광주로 유학을 보내지 않은 것은 식민지 교육에 대한 거부감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당시 서당교육은 4서3경 같은 유교 교육뿐만 아니라 근대적 민족 교육을 하고 있어 뜻있는 이들이 서당교육을 선호하고 있었다. 대표적으로 전북 부안 계화도에서 후학을 기른 유학자 간재 전우²⁴⁾를 예로 들 수 있

22) 박해현, 앞의 책.

23) 박선흥, 앞의 책.

24) 전우(田愚)(1841 - 1922)는 전북 전주 출신의 유학자로, 사헌부 장령 등 여러 벼슬을 모두 거부하였다. 급진개화파인 박영효는 전우를 보수 학자의 우두머리라고 참(斬)하여 한다고 고종에 청을 하였다고 한다. 을사늑약 체결 후 1908년 부안, 군산 등의 작은 섬에 은둔하며 성리학에 매진한 그는 1912년 계화도에 정착하여 저술과 제자

다. 상해임시정부 대의사로 활동한 독립운동가 변극도 한학교육을 선호한 부친 때문에 간재 선생으로부터 유학을 배웠다.²⁵⁾

당시 송정리 사람들에게는 송정면 동부 마을과 가까운 삼도동에서 용진정사를 세워 많은 후학을 기르고 있는 오준선 선생이 지조 있는 학자이자 스승으로 소문나 있었다. 노사 기정진의 제자인 오준선은 많은 유학자·의병장을 길렀다. 광산 출신 이기손을 비롯하여 오성술 등 한말 호남을 대표하는 의병장이 그의 문하생이었다.

오준선이 용진정사에 후학을 키우고 있던 시기와 경제의 서당 공부가 일치하고 있다. 이로 미루어 양인은 어떤 형태로든지 인연이 있었을 법하다. 오준선의 생애와 학문을 간단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의 사상이 경제에 영향을 주었다고 믿기 때문이다.²⁶⁾

오준선은 개항과 열강의 정치·경제적 침략, 그리고 국권 침탈의 과정에서 많은 고뇌와 번민을 하였다. 하지만 동학농민전쟁 이전에는 국내외 정세변화에 대한 주체적인 현실 인식이나 특별한 언행을 찾아보기 어렵다. 동학 농민전쟁으로 동학교도들이 호남 전 지역에 휩쓸렸을 때 오준선은 향약(鄉約)을 설치하여 ‘표류하는 배에 북극성 같은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고 하였다. 그는 나주목사 민종렬이 나주읍성을 사수할 때, 엽전 50꾸러미를 군비에 보태 쓰게 하였고, 난이 평정된 후에는 “주동자는 근절시키기 위해 섬멸해야 하나 어리석은 백성은 귀화시킴이 마땅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그의 사상은 전통적인 왕조 질서를 유지하려는 데 초점이 모아져 있다. 을미사변과 단발령으로 유생들이 앞장서 의병을 일으킬 때도 오준선은 향약 설치를 주장하는 등 성리학적 사상의 틀에서 벗어나 있지 못하였다.

양성에 힘썼다. 그는 전통적 유학사상을 그대로 실현시키려 한 점에서 조선 조 최후의 정통 유학자로 추앙을 받고 있다.

25) 박해현, 2021, 『독립운동가 교사가 되다』

26) 안동교, 2012, 「오준선의 학문성향과 의리정신」, 『유교사상문화연구 47』.

1905년에 을사늑약이 체결되자, 기삼연²⁷⁾과 고광순이 의병을 일으키는 문제로 찾아왔지만, 오준선은 노모의 봉양 때문에 참여하지 못했다. 그러나 토복(討復)의 의리만큼은 항상 마음에서 잊은 적이 없었고 뛰어난 순절한 이들의 전기(傳記)를 정리하였다.

이러한 오준선에게 국권피탈은 참담한 경험이었다. “내 장차 어디로 돌아갈까. 백년 예의를 지킨 나라가 하루아침에 오랑캐, 금수의 땅이 되었는가!” 오준선은 분노하였다.

“아, 근년 이래로 ‘존주(尊周)’ 두 글자는 세상에 꺼리는 바가 되어 임금을 버리고 아버이를 팽개치는 무리들이 한 세상에 충만하더니, 중화는 오랑캐가 되고 사람은 짐승이 되어 천리(天理)가 거의 꺼져가고 인도(人道)가 끊어지게 되었다.”

한때는 천하가 모두 이적(夷狄)으로 변해 가는 상황에서 중화의 문명을 보존하고 있는 깨끗한 땅을 오직 조선이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조선도 존주(尊周)의 의리가 혐오의 대상이 되어 천리와 인도가 사라져가는 참담한 상황이 되었다는 것이다. 이처럼 긴박한 역사적 상황에서 오준선은 기본적으로 존주론(尊周論), 곧 화이론(華夷論)의 틀을 기초로 하여 의리론을 전개하고 있다.

국권을 상실한 상황에서 유학자가 선택할 수 있는 의리는 무엇인가. 유인석은 ‘처변삼사(處變三事)’를 제시하면서 의병을 일으켜 외적과 국내의 역적을 쓸어내는 ‘거의소청(擧義掃淸)’과 더럽혀진 땅을 떠나서 옛 범도를 지키는 ‘거지수구(去之守舊)’와 죽음으로써 자신의 지조를 이루는 ‘치명축지(致命逐志)’로 분류하였고, 전우(田愚)는 유학자가 몸으로 도의(道義)를 지키는 방법을 세 가지로 요약하여 “죽음으로써 지조를 지키는 ‘치명축지’, 나무를 끌어안고 굶어죽는 ‘포목고사(抱木姑死)’, 숨어 살면서

27) 기삼연은 1907년 후기의병(정미의병) 때 거의를 하여 호남창의회맹소를 결성하였고 고광순은 담양에서 거의하여 지리산에서 일본군과 치열한 교전 끝에 전사한 의병장이다. 담양에 포의사가 있다.

제자를 기르는 ‘은거수도(隱居授徒)’는 훗날 양(陽)의 기운을 회복할 터전을 닦는 일이다”라고 제시하였다.

오준선은 황포한 시대를 “은인자수(隱忍自守)하다가 천명을 기다리는 것이 우리 유학자의 본분”이라고 하였는데, 고광선은 그에 대해서 도를 부여안고 산으로 들어가 후생을 가르치면서 스스로 깨끗이 지조를 지키는 ‘포도자정(抱道自精)’의 의리를 실천했다고 평가하였다.

오준선의 항일운동은 은사금(恩賜金) 수령거부로 표출되었다. 일제는 1910년 강제로 합방을 선포한 후, 조선의 명망 높은 유학자에게 일본 천황이 주는 은사금을 하사하여 회유하는 한편 선비의 지조를 짓밟으려 했다. 오준선은 은사금을 받을 수 없는 세 가지 이유를 들어 거부하였다.

첫째, 가난하게 살면서 홀로 선을 행하는 선비는 그 의리와 도가 아니면 하나라도 타인에게 취하지 않으며 받지도 않는 것이니 망령되어 원수국의 돈을 받을 수 없고, 둘째, 원수를 잊고 부끄러움을 참고서 무안해하며 돈을 받는다면 스스로 지조를 잃고 몸을 망치는 지경에 이를 것이며, 셋째, 망국의 유민으로 한 몸을 버려 국난을 구하지 못했으니 통분을 참고 원통함을 삭이며 스스로 깨끗한 정절을 지켜 충성을 바치려 한다는 것이었다.

은사금을 거절했다 하여 장성 삼거리 헌병분견소에 10여 일, 장성 헌병대에 20여 일 남짓 구금되었으나, 오준선은 조금도 당황하지 않고 받지 않는 까닭을 당당하게 설명하니 그의 기개에 헌병도 감복하여 석방하였다. 이에 오준선은 1917년 용진산(龍珍山)에 용진정사(龍珍精舍)를 짓고 ‘포도백정(抱道白靖)’하며 ‘은거수도(隱居授徒)’는 의리를 실천하면서 문인(門人) 교육에 힘썼다.

오준선은 성리설의 변칙한 분석보다는 혼탁한 시대를 맞아 마음의 정체성을 잘 보존하여 성리학의 본래 정신인 의리의 실천을 강조하였다. 아울러 그는 세속적인 탐욕에 물들기를 거부하고 특립독행(特立獨行)하는 행동 유형을 제시하였다. 오준선의 의리는 현실의 외압이나 유혹을 거부하고 자신의 신념을 지켜나가는 내면의 투쟁이요, 굽힐 줄 모르는 지기(志氣)라 할

수 있다.

이경채가 용진정사에서 오준선으로부터 학문을 수학하였는지 확인되지 않지만, 집과 가까운 데다 항일 의식이 강한 성륜이 경채를 그에게 보내 공부를 시켰을 가능성이 충분하다. 경채의 이후 삶의 궤적을 보면 어렸을 때 수학한 서당교육이 큰 영향을 미쳤음을 알 수 있다.

서당교육을 통해 경채의 민족의식은 확고해졌다. 이 무렵 그에게 충격과 감동을 주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1919년 3월 10일 광주에서 일어난 3·1운동이 그것이다. 광주 3·1운동은 신문잡지종람소 회원을 중심으로 비밀결사를 결성하여 1919년 2월부터 이미 만세운동을 계획하고 있던 광주의 젊은 청년들이 중심이 되어 일으킨 역사적 사건이었다. 광주 3·1운동은 100명이 넘는 시위주동자 및 적극 가담자가 구속된 단일 사건으로는 최대 규모였다. 광주에서 일어난 3·1운동은 이웃한 송정면에도 영향을 끼쳤다.²⁸⁾

광주면 다음으로 상업이 발달하고 인구가 늘어나고 있는 송정면에는 1914년 호남선 철도가 개통되면서 근대화의 물결이 격랑을 치고 있었다. 특히 목포, 나주를 통해 유입된 일본인이 호남선의 거점역인 송정역을 중심으로 차츰 늘어나고 있었다. 이 과정에서 조선인과 일본인 사이에 충돌이 나타나고 있었다. 특히 항일의식이 집단으로 형성되어 있어 일본인들이 아예 발을 내디딜 수 없었던 동부마을의 투철한 민족의식은 광주 3·1운동이 송정리로 확산되는 배경이 되었다.

“피고 박경주는 범윤두와 김용규, 김태열의 부추김을 받고 3월 17일, 18일 양일간 송정면 선암리 피고 박경주 집에서 등사판을 사용하여 독립선언서 1,500통과 독립가 500매를 인쇄하였다.”

송정면 선암리에 사는 박경주가 광주 3·1운동의 주역이자 신문잡지종람소 회원인 김용규, 김태열과 연결되어 3월 17일, 18일 이틀간 독립선언

28) 박해현, 2022, 『강석봉평전』.

서 1,500통과 독립가 500매를 인쇄하여 만세운동을 전개하였다는 판결문 내용이다. 3월 10일 광주 시위를 성공리에 이끈 김태열이 광주의 새로운 중심지로 떠오른 송정면에 시위를 확산시키려 함을 알 수 있다. 선암리의 옛 행정구역 소지면 탑동리·선암리·증보리가 1914년 송정면 선암리로 바뀐다.

이어진 또 다른 판결문에, 이때 사용된 인쇄기는 “최정두가 가져온 것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등사기는 광주 3·1의 실질적 주동자라고 할 수 있는 김범수가 그해 2월 5일, 6일 장성에서 2·8독립선언서를 인쇄하려고 경성에서 가져온 것이었다. 이 시위로 박경주는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²⁹⁾

광주와 송정리에서 불과 1주일의 사이에 두고 연이어 일어난 만세시위는 당시 10세의 어린 경채에게는 커다란 충격이었다. 그가 광주나 송정리에 있었던 시위에 참여하였는지는 확인되지 않으나, 적어도 그의 마을 근처에서 행해진 만세시위에 두 주먹을 불끈 쥐고 시위대의 맨 앞에서 만세를 불렀을 가능성이 크다.

3·1운동을 겪은 우리 민족은, 민족의 역량을 키우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함을 깨달았다. 광주 시위 주동 세력과 같이 대구형무소에 수감되었던 독립운동가 안재홍은 투쟁도 중요하지만, 내적 실력을 기른 것도 중요함을 광주의 젊은 영웅들에게 얘기하였다. 강석봉도 안재홍의 얘기에 감화를 받고 일본 유학을 떠났다.³⁰⁾

3·1운동에 조선의 민중들이 대거 참여한 것은 국권 상실과 더불어 다른 이유도 있었다. 일제는 조선을 식민지화한 후 수탈을 강화하였다. 조선 민중은 식민 지배에 들어간 후 조세 부담이 3배나 늘어난 반면 차별은 심해졌다. 특히 교육에서의 차별이 심하였다. 조선인은 학령인구의 1/6만 학교에 다닐 뿐이었다. 조선인 대부분이 보통교육을 받지 못한 까닭은 경제적으로 곤궁하여 학교에 다닐 처지가 되지 못한 측면도 있었

29) 송정리 3·1운동은 박해현, 앞의 책.

30) 박해현, 2020, 『독립운동가 의사 김범수 연구』.

다. 하지만 조선인이 다닐 보통학교가 부족한 것이 큰 이유였다.

3·1운동으로 조선인의 강한 저항을 확인한 일제는 민족에 대한 회유책으로 교육기관을 증설하는 정책을 추진하였다. 1919년부터 1937년 사이에 전국적으로 학교 설립이 빠르게 이뤄졌다. 1920년부터 1925년까지 추진된 '3면에 1교'를 두게 하는 조선인 보통학교 확충계획이 1922년에 조기에 마무리되었다. 이에 따라 1919년 전국에 517교, 8만 9천 명이었던 보통학교 학생 숫자가 1929년 통계에 의하면 1,584교(관립 2교, 공립 1,500교, 사립 82교)에 학생 수 47만 명으로 대폭 늘어났다. 저자가 초등학교 들어가던 1965년 학생 수가 82만 명인 것과 비교해 보면 35만 명이 수용할 공간이 없음을 알 수 있다.

이렇게 일제의 보통교육 확대 정책과 신학문을 배우려는 의지가 결합하여 공립보통학교의 수가 급격히 늘어나 조선총독부가 1930년부터 추진한 1면 1교 정책이 계획보다 조기에 달성했다. 당시 조선인들의 치열한 교육열은 1919년 3·1운동 후 광주고등보통학교가 처음에는 광주 시민들이 뜻을 모은 사립학교였고, 1938년 다시 개교한 광주사범학교도 광주 시민들이 성금을 모아 세웠다는 점에서 알 수 있다.

3·1운동 후 추진된 '3면 1교' 원칙에 따라 보통학교들이 대거 신설되었다. 송정면에는 1919년 12월 16일 수업연한 4년 과정의 송정공립보통학교가 개교하였다. 개교한 이듬해인 1920년 4월 1일 첫 신입생을 받았다. 당시 일본 학제는 4월 1일 새로운 학기가 시작되었다. 개교 당시에는 송정리 역전 인근의 창고를 이용하여 3개 학년 2개 학급으로 개교하였고, 1920년 4월 1일 송정읍 신촌리 1029번지로 교실 3칸을 신축하여 이전하였다. 1950년 4월 1일 송정동국민학교로 교명이 변경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4. 송정보통학교 월반(越班) 졸업한 천재

송정면에 공립보통학교가 세워진 것이 1919년 12월 19일이었다. 이경채

는 이듬해 4월 1일 입학하였다.³¹⁾ 그러니까 송정공립보통학교 1회 입학생인 셈이다. 그러나 그의 학적부에는 그를 4회 졸업생이라 하고 있다.³²⁾ 1910년 8월 29일 국권피탈 전후하여 설립된 보통학교에는 학생들이 많이 다니지 않았는데, 일본식 교육제도가 적용되고 있었고 상투도 자르는 등 우리의 전통문화가 위협을 받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개교 당시에는 학생 정원이 부족하여 교사들이 학생을 찾아 나서는 진풍경이 많이 보였다.

하지만 근대식 보통학교에 다니는 것에 주저한 학생이나 부모들의 인식이 3·1운동을 보통학교 학생들이 주도하는 것을 보면서 긍정적으로 바뀌었다. 서당교육을 고집하던 경채의 부친 역시, 보통학교가 설립되자 경채를 입학시켰다. 경채 부친이 근대식 학교를 보낸 데는 직전 해인 1919년 3월에 있는 광주와 송정에서 일어난 3·1운동이 영향을 미쳤다. 민족의 독립을 쟁취하기 위해서는 그들의 역량을 키우는 것이 중요함을 새롭게 인식하였다. 경채는 이미 서당을 통해 역사의식이 체계화되어 있었다. 그의 뚜렷한 정체성은 이선제 부조묘를 참배하며 형성되어 있었다.

1920년 막 개교한 송정보통학교 신입생으로 입학한 경채는 충격을 받았다. 조선 학생들은 우리 말 대신 일본어로 된 교과서로 공부를 해야 해 일본어를 새롭게 공부해야 하고, 학교 교육과정 및 대부분 일본인으로 구성된 교사들로부터 우리의 빛나는 역사 대신 왜곡된 역사를 배워야만 하였다. 이때의 상황을 전후 일본 동경대학 총장을 역임한 야나이바라(矢内原忠雄)의 다음과 같은 글에서 짐작할 수 있다.³³⁾

31) 이때 이경채가 송정소학교에 입학하였다(광주학생독립운동재경후손회, 2014, 「애국지사 이경채 항일투쟁」)고 하였으나, 소학교는 1938년에 변경된 명칭이다.

32) 송정공립보통학교의 후신인 현재의 송정동초등학교 학적부에는 이경채를 4회 졸업생이라 하였다. 그런데 '1920년 4월 1일 입학, 1924년 3월 25일 제4학년 수료'라고 가필이 되어 있다. 가필이 정확한 이경채의 학적이다. 1920년 4월 개교 당시 1년부터 4년까지 모두 편성되어 있었다는 얘기이다. 송정동초등학교의 학적부를 보면 1922년 3월 1회, 2회가 동시에 졸업하고, 1923년 4월 3회, 1924년 3월 4회로 되어 있다.

33) 박해현, 앞의 책.

“조선의 보통학교 교과에는 조선의 지리·역사에 관한 독립된 교과서는 없고 일본의 지리·역사교과서 속에 단편적으로 삽입되어 있을 뿐이다. 나는 조선인 보통학교의 수업을 참관했는데 조선인 교사가 조선인 아동에게 일본말로 일본 역사를 가르치는 것을 보고 마음속으로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없었다.”

경채처럼 집안에서 올바른 역사 교육과 민족주의적 서당교육을 받은 학생들은 일본 역사를 가르치고 우리 역사를 왜곡하는 것을 참기 어려웠다. 경채보다 약간 앞서 광주보통학교를 졸업한 강석봉도 광주농업학교에 입학하자마자 일본인 교사와 갈등을 빚은 끝에 퇴학을 당하였다. 경성의전 1회로 경성 3·1운동에 참여하다 일본 경찰에 쫓겨 상해로 건너가 독립운동하다 독일로 건너간 유명한 이미륵의 심경을 통해 이경채와 같은 또래의 심경을 유추할 수 있다.

“모든 교과서가 일본말로 바뀌었기 때문에 우리는 일본말을 배워야만 했다. 또한 우리들은 역사를 다시 배워야만 했다. 한국의 독립 시대에 일어났던 모든 사건을 깎아 없애 버렸던 것이다. 한국 민족은 이제부터 독자적인 역사를 지닌 민족으로 여겨지지 않았고, 다만 오래전부터 일본 제국에 공물을 바치는 변경 민족으로 여겨졌을 뿐이다.”³⁴⁾

일제가 식민지 학생들에게 우리 역사를 철저히 왜곡하는 식민사학을 강요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일제가 조선을 식민통치하는 것을 합리화하기 위해 내세운 식민사학은, 우리 민족이 늘 외세의 눈치를 본다든 타율성, 그러다 보니 발전이 없다는 정체성, 따라서 끊임없이 내부에서 분열 갈등한다는 당파성 등을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이미륵 글에서 흥미로운 사실을 하나 발견할 수 있다. 비록 일본에 나라를 빼앗기고 왜곡된 식민사관으로 역사 교육을 받았지만, 당시

34) 박해현, 앞의 책.

조선 학생들은 5천 년의 빛나는 역사에 대한 높은 자긍심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우리 조선 학생들은 어린 보통학교 학생이라 하더라도 식민통치에 대한 거부감이 적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3·1운동 때 전남지역을 비롯한 전국 각지에서 보통학교 학생들이 시위에 앞장섰던 것도 이러한 강한 민족의식의 발로였다. 어쨌든 이미륵의 이러한 분노에 찬 심경을 이미 어등산 의병, 송정 3·1운동을 경험한 이경채는 이미 누구보다 느끼고 있었다.

1919년 3월 1일 새벽 만세 시위를 알리는 뼈라가 거리에 뿌려질 때만 하더라도 일제는 이 시위가 전국적으로, 전 민족이 1년 넘게 치열하게 전개될 줄 알지 못하였다. 하지만 3월 5일 경성에서 대규모 학생 시위, 3월 10일 광주의 대규모 시위 등으로 우리 국민의 분노가 확산되어가자 일제는 3월 말 일본으로부터 군대 4천 명과 헌병의 증파와 더불어 강경 진압으로 나섰다. 마치 1980년 5월 공수부대를 동원하여 광주에 대한 무차별 살육 작전을 전개한 것과 같았다. 일제의 강경 진압은 오히려 우리 민족의 강력한 반발을 불러 왔다.

이에 당황한 일제는 총독을 육군대장 하세가와에서 해군대장 사이토로 교체하였다. 새로 부임한 사이토 총독은 서울역에 도착하자마자 60대 강우규 의사가 던진 폭탄 선물을 받았다. 불행히도 폭탄이 불발되어 사이토의 망토를 뚫는 데 그쳤지만, 부임하자마자 조선인의 그것도 나이든 노인으로부터 폭탄 세례를 받은 사이토 총독은 혼이 나갔다. 그는 조선에 대한 통치책을 무단통치에서 문화통치로 전환하였다.

여러 정책 가운데 헌병이 경찰 역할을 하던 역할을 보통경찰로 전환한 정책이 유명하다. 겉으로는 유화책을 펼치었으나 실제로는 경찰관서를 대폭 늘리고 사상범을 주로 감시 체포하는 형사 숫자를 크게 늘려 조선인에 대한 탄압을 강화하였다. 문화통치의 본질은 친일파를 양성하여 우리 민족을 분열시키는 데 있었다.

일제가 취한 유화책은 교육에서도 나타났다. 1922년 2월 공포한 조선 교육령이었다. 총독부는 1921년 1월 임시교육조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일

본 본토의 교육제도에 준거한 학제의 개혁을 심의케 한 데 이어 이듬해인 1922년 2월 교육령을 전면 개정한 제2차 '조선교육령'을 공포하였다. 교육령을 개정하려는 데는 보통학교의 학제가 일본은 6년, 한국은 4년으로 차이가 있어 한국인이 가지고 있는 불만 요인의 하나였기 때문이었다. 과거제의 전통으로 교육을 통한 신분 상승에 익숙하여 교육 열정이 강했던 조선 민중에게 교육에서의 차별은 견디기 힘들었다. 일제는 학교 신설과 더불어 조선 학교의 학제를 일본 학교와 같게 하였다. 조선 교육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보통학교의 수업연한을 4년에서 6년으로(지역의 상황에 따라서 5년, 4년으로 함), 고등보통학교는 4년에서 5년으로, 여자고등보통학교는 3년에서 4년(또는 5년)으로 연장하고, 사범학교 5년, 실업학교 5년, 예과 2년, 대학 4년으로 하였다.
2. 일본어의 수업시수를 증가하면서 일본어 교육을 강화하였다.
3. 새로 사범학교와 대학설치의 길을 마련했다.
4. 실업교육·전문교육·대학교육은 일본의 제도에 따랐다.
5. 동일한 교육제도·교육기간을 확충함으로써 일본식 교육을 강화하여 한국민족 사상을 말살하려는 데 있었다.
6. 새 교육령의 전체 내용은 곧 일본어 습득에 있었다.
7. 대학의 설치를 규정함으로써 한국에 대학교육의 문이 열린 것처럼 가장하였다.
8. 조선인과 일본인의 공학을 원칙으로 하였다.

1922년 2월 제정된 2차 교육령은 조선의 학제를 일본 학제와 같게 함으로써 그동안의 차별을 시정하고, 두 나라 민족을 교육을 통해 융합시키려 하였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각 조항을 보면 일본어의 수업 시수를 증가하고 조선인과 일본인의 공학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여기에도 철저히 조선을 일본화하려는 일제의 의도가 숨어 있다 하겠다. 이러한 제2차 조선교육령은 이를 직접 교육현장에 부딪뜨려야 하는 조선인 교사나 학생들에게 받아들이기 어려웠을 법하다.

일제가 여러 회유책을 표방하였지만, 실은 식민지 교육을 강화하고 있

다는 사실을 이경채는 잘 알고 있었다. 일본에 대한 적개심이 커질 수밖에 없었다. 특히 일본 상인들이 송정역을 중심으로 수탈경제를 강화하고 있는 것을 목격한 경채의 항일의식은 더욱 확고해졌다.

이경채가 송정보통학교 3학년이 되던 1922년 제2차 조선교육령이 공포되면서 보통학교 학제가 4년제에서 6년제로 바뀌었다. 경채는 1923년 4월 송정보통학교 6년으로 월반을 하였다. 그는 4학년에 진학할 학년을 2년을 건너편

셈이다. 하지만 백과사전 등에 보면 경채가 다닌 송정보통학교가 6년제로 바뀐 것은 1925년 4월 1일이라 하였다. 1920년 4월 1일 입학생을 기준으로 하면 1925년 4월에 비로소 6년제 학제가 완성되기 때문에 백과사전의 내용대로 1925년에 4월에 6년제가 바뀌었다는 얘기가 옳다. 그렇다면 경채가 6학년으로 월반했다고 하는 1923년에는 6년 과정이 없었던 셈이다. 따라서 6학년으로 월반했다는 후인들의 진술과 배치된다. 좀 더 살펴 보도록 하자.

경채가 1924년 4월에 광주고등보통학교에 입학한 것은 분명하다. 그가 1923년에 6학년으로 월반하였다는 주장도 사실이다. 곧 1925년 6년제 교육과정이 완성되었다는 것은 학칙상의 규정이 제정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이고 실제 학교에서는 1924년부터 5, 6학년 과정을 운영하였다고 하는 것을 알려 준다.

1922년 교육과정이 개편되어 1923년 5, 6학년이 만들어진 학교들은 일정 기준을 통과한 학생들을 월반하게 하는 임시적인 조치가 취해진 것으로 믿어진다.³⁵⁾ 이 시험을 통과한 송정보통학교 학생은 이경채 혼자 뿐



송정동초등학교 개교 100주년 기념탑

이었다. 그리고 이듬해에 광주고등보통학교 입학시험에 합격하였다. 송정보통학교 출신은 이경채를 포함하여 2명이었다고 셋째 아들 이용립은 기억한다. 특히 4학년에서 6년으로 월반하여 합격한 사람은 이경채 혼자 뿐이었다. ‘송정면의 수재’라는 전설이 이경채의 수식어가 되었다.

35) 이 무렵 월반(越班) 시행과 관하여 신문에 보도된 것이 있다. 전북 군산에서 있었던 일인데, 군산보통학교에서 1924년 4월 1일부터 1, 2년에 다니는 학생들 가운데 나이가 많은 학생들을 5, 6학년으로 월반하려 하자 학부모들이 반발하였다.(동아일보, 1924. 3. 28) 4년제가 6년제로 바뀌는 과정에서 나타난 혼란스런 모습이 아닌가 한다.

청년운동과 사회주의 사상 유입

1. 청년운동의 메카 광주

1) 행정·상업의 중심지 광주

경채는 1924년 4월 광주고등보통학교에 입학하였다. 그는, 4학년에서 6학년으로 2학년 월반하여 광주고등보통학교에 입학한 소문난 수재였다. 그런 그가 1926년 5월 독서회라는 사회과학서적을 탐독하는 비밀결사를 조직하여 일제의 식민지 정책의 모순을 논리적으로 공부하기 시작하였다. 그가 조직한 독서회는 당시 학생들이 조직한 독서회로 최초가 아닐까 싶다. 그가 왜 사회주의 이념 서적을 읽는 비밀모임을 만들었을까?

이는 3.1운동 후 일제 식민 정책의 모순을 깨달은 광주 청년들이 본격적으로 전개한 청년운동과 사회주의 사상의 유입에 따른 사회변혁 운동이 활발한 것과 관계가 깊다. 1896년 전남의 도청 소재지가 되어 행정 중심지로 기능이 확대된 광주는, 1910년 국권피탈 후 식민통치와 관련된 기구들이 광주에 집중되면서 더욱 발전하였다. 통일신라 시대 광주는 무진주에 치소(治所)가 설치되어 전남의 중심지 역할을 담당하였지만 고려 건국 후 그 위상을 나주에 빼앗겼던 광주가 새롭게 전남의 중심도시의 위상을 높이는 계기가 되었다. 광주에 행정기구가 집중되고 인구가 늘어나면서 빠른 속도로 상업 도시로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었다.¹⁾

한편 경제가 거주하고 있는 송정면 또한, 1914년 완공된 호남선의 거점 역이 들어서면서 목포항을 통해 유입되거나 수출되는 물산의 집산지가 되어 상업과 무역이 발달하였다. 이들 지역을 중심으로 조선인 지주 자본이 상공업 자본으로 빠른 속도로 전환되어 갔다. 경제 부진이 농기구 제조업을 하게 된 것도 이러한 분위기에 힘입은 바였다.

1917년 광주전등주식회사가 설립되어 동력 문제가 해결된 것도 대규모 공장이 들어설 수 있었던 중요한 원인이었다. 1918년 조선인 자본가가 지배하고 있던 광주농공은행이 식산은행 광주지점으로 개편되면서 일본인이 중역진을 독점하는 등 일본의 금융권 장악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졌다. 1920년대에 들어서면서 일본인 대자본이 제사·방직업 부분에 침투하기 시작했다. 1910년대 후반부터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던 조선인과 일본인 자본의 균형 관계는 서서히 일본인 쪽으로 기울어졌다. 이에 대한 조선인들의 불만이 서서히 나타나기 시작하였다.²⁾

한편 1910년대 말 광주군에는 조선인 교육기관으로 공립중등학교(농업학교), 공립보통학교(광주·송정보통학교), 기독교계 사립학교(송일학교·수피아여학교)가 있었다. 송정보통학교는 1919년 12월에 개교하였기 때문에 1910년대 말의 통계로 삼기에는 망설여진다. 3·1운동 후인 1920년대 중반에는 중등학교 3개소(광주면), 공립보통학교(각 면 소재), 사립학교 3개소(광주면)로 증가하였으나 조선인 1430호당 1교의 비율로 학생을 수용하기에는 절대적으로 부족하였다. 일본인 교육기관은 중등학교 2개소, 소학교 4개소로 일본인 241호당 1교의 비율에 못 미치고 있었다. 이것만 보더라도 교육기회 면에서 우리 민족교육이 심각한 차별을 받았음을 알 수 있다.

조선인 중등 교육기관은 광주면에 집중되어 있었다. 전남지역에 설립된 대부분의 '고등교육기관'을 차지하고 있는 셈이었다. 따라서 도내 각지에서 몰려든 전남의 인재들이 광주의 중심지인 광주면에 집중되어 있

1) 박해현, 『독립운동가 의사 김범수 연구』.

2) 이애숙, 1995, 「1920년대 전남 광주지방의 청년운동」 『한국근현대청년운동사』.

었다. 광주면은 장차 전남의 조선인 사회를 이끌어 나갈 청년 지식층의 배출지 역할을 하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광주면과 인접한 송정면은 1914년 호남선이 개통되면서 광주와 더불어 도시의 기능이 급속히 확대되었다.

2) 청년운동의 메카, 광주

1920년대 초 광주 청년 가운데, 근대적 교육과 문화의 혜택을 받은 소수의 상류층 청년은 사회 변동과 식민지적 근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조선인의 경제적 사회적 활동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였다. 반면, 농민층 해체 과정에서 떨어져 나온 청년층 일부는 행상 혹은 송정리역 부근의 화물 운반 인부 등으로 생계를 유지했고, 일부는 광주면과 송정리의 중소공장, 상점 등지에 분산 고용되었다. 청년 대다수는 농촌에 잔류하였다.³⁾

한편 청년층의 상당수는 학교가 집중되어 있는 광주면에 모여 있었다. 전남의 청년운동은 식민지적 근대화가 진행되고, 교육을 받은 청년의 집중도가 높은 광주면과 송정면으로부터 시작이 되어 확산되고 있었다.

그러나 1910년대의 청년운동은 총독부의 승인을 받아 결성된 일종의 어용 단체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당시는 결사의 자유가 없어 3명 이상의 단체결성은 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학교 동창회 모임은 예외적으로 가능하였다. 따라서 청년들의 모임은 일제의 억압을 피해 보통학교 동창회 차원에서 전개되고 있었다. 광주 최초의 근대학교인 광주보통학교 졸업생들이 1910년대 초부터 동창회를 조직하고, 동창회를 중심으로 강습회나 토론회를 개최하거나 여러 체육 활동을 벌인 것이 대표적 사례이다.

특히 광주 3·1운동을 계획하고 주도한 ‘신문잡지종람소’는 1917년 무렵 광주보통학교 졸업생 동창회 지육부가 중심이 되어 만든 단체라고 알려져 있으나, 이 단체는 독립운동을 위한 비밀결사체였다. 이 단체의 결

3) 이예숙, 「1920년대 전남 광주지방의 청년운동」.

성에 강석봉의 역할이 컸다.⁴⁾

이 단체에서는 청년들이 모여 신문·잡지를 유통하며 우리 역사와 세계정세를 익히고 토론하며 청년운동에 견문을 넓히고 있었다. 그러나 일제의 압박으로 1년 만에 신문잡지종람소 간판을 내리고, 장소를 옮겨 걸으로는 삼합양조장이라는 간판을 내걸고 밤마다 모여 신문 유통과 잡지를 읽으며 민족의식 강화와 더불어 독립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찾고 있었다. 당시 신문잡지종람소 회원이었던 김용규·최한영·한길상·강석봉·김태열·정상호 등은 광주보통학교 출신들로 광주 3·1운동의 주역이 되었고, 1920년대 들어 전개되는 청년·사회 운동의 핵심 인물로 성장하였다.

광주보통학교 졸업생 동창회는 청년들의 결사가 없었던 시기에 지역 청년들의 구심점 역할을 하였다. 그리하여 1920년대 광주는 전남의 조선인 사회를 이끌어 나갈 배출지 역할을 하였다. 이러한 청년운동이 활발하게 일어나게 된 계기는 아무래도 3·1운동이었다. 3·1운동의 성과로 일제의 무단통치에 균열이 생겨 집회·결사의 자유가 허용되는 등 합법적 공간이 확보되자 정의감, 순수성, 행동성을 가지고 있는 청년층들은 그들의 힘을 발현될 기회를 만들었다. 3·1운동 후 각종 사회단체가 급속하게 결성되고, 특히 청년단체는 하루에도 10여 개씩 새롭게 조직되었던 사실이 이를 잘 말해준다.

1920년 말 전국 각지의 청년단체 수는 청년회 251개, 종교 청년회 98개에 달하였다. 1922년에는 그 수가 각각 488개, 271개로 늘어났다. 일반 청년회들은 대체로 지역을 기반으로 하여 이른바 ‘유지’들이 중심이 되어 조직되었다. 1920년 9월까지 전남 각지에서 23개의 청년회가 조직되었다.

3) 계몽운동을 지향한 초기 광주청년회

3·1운동 후 광주에서도 청년단체가 속속 결성되기 시작하였다. 그 가

4) 박해현, 『강석봉 평전』.

운데 1920년 6월 12일 광주면에 거주하는 청년들이 중심이 되어 결성한 ‘광주청년회’가 대표적이다. 이 지역에서 조직된 최초의 자생적인 청년단체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이 단체는 광주면 유지 청년들이 주도하여 결성하였다.

광주청년회의 초기 활동을 보면 광주보통학교 동창회에서 하던 사업을 거의 그대로 이어받았다. 이로 미루어 보통학교 동창회가 청년운동단체로 발전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광주청년회는 회장제를 채택하고 지육·사교·체육·교풍·경리·편집부 등 6개 부서를 두었다. 말하자면 광주청년회는 청년들의 지·덕·체를 함양하고 친선을 도모하는 한편 사회의 잘못된 풍속을 개량하는 데 역점을 두어 활동하였다. 아직 사회변혁을 지향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데까지는 이르지 못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들 청년회는 사회변혁보다는 계몽적인 활동에 치중하고 있었다. 광주청년회를 비롯한 1920년대 초 청년단체의 활동에서 이를 알 수 있다. 1920년부터 1923년까지 전남지방에서 조직된 45개 단체 가운데 17개 단체가 야학 운영, 강연회 등 주로 교육 활동을 하였다. 3·1운동을 통해, “아는 것이 없으면 일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절감”한 청년, 학생들이 청년회를 중심으로 부족한 학교 시설을 확충하려 하였다. 1922년 총독부의 교육령 개정⁵⁾에 따라 취학연령이 낮아지고 자력으로 교육을 받을 수 없는 아이들이 늘어나는 상황도 이러한 활동이 추진된 배경이라 하겠다.

이는 여자 야학을 개설하여 적지 않은 성과를 거둔 광주청년회 사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광주청년회는 1920년 9월 ‘구식 가정부인’에게 신지식을 보급할 목적으로 여자 야학을 개설하였다. 여자 야학이 문을 열자 4백여 여성이 몰려들었다. 가히 폭발적인 여성의 참여는 광주청년회를 크게 고무시켰고 지역 사회에 ‘여자 야학’이 세워지는 기폭체가 되었다. 광주청년회는 일반 학교 과정으로 청년학원도 운영하였다.

1922년 4월에 문을 연 청년학원은 1~2년간 보통학과 수준의 학과를 가르쳤다. 모집인원은 약 200명이었다. 그런데 이러한 교육 사업을 위해

5) 이애숙, 앞의 글.

서는 건물 등 막대한 운영비가 소요되는 것이어서 재력이 있는 간부나 지방 부호의 일시적인 ‘의연’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청년회는 구조적으로 이들 자본가의 영향에서 벗어날 수 없는 한계를 지녔다. 1920년대 초의 청년회 활동이 교육·금연·금주, 민립 대학 설립 운동 등 민족 개량주의적, 계몽주의적 성격을 띠게 되는 중요한 요인이 되었다.

이러한 광주청년회의 성격을 1920년 6월 12일 창립 당시 구성된 임원진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경리부장을 맡은 최선진은, 한 해 6천여 석을 추수하는 대지주이자 광주에서 손꼽히는 대미곡상이며, 호남은행 취체역·호남산업 전무 취체역·최선진 자동차부를 경영하는 문자 그대로 대자본가였다. 회장 최종섭·부회장 정인준·교풍부장 전용기는 1920년 겨울 최선진과 광주상업조합을 발기하였고, 정인준·최종섭은 상조회지회의 회장, 부회장으로 각각 활동하였다. 사교부장 최영육은 서울 세브란스 의학전문학교를 졸업한 의사였으며, 지육부장 양원모는 와세다대학을 졸업하고 숭일학교 교사를 거쳐 동아일보사 간부로 활동하였다. 편집부장 설병호와 회계 최연석은 동아일보 광주지국의 지국장·통신부 주임이었다. 총무를 맡은 최준기는 훗날 광주금융조합 이사를 역임하였다. 참고로 광주금융조합은 1919년에 설립되었는데 조선인은 최준기가 유일하였다.

광주청년회 창립총회에서 임원으로 선출된 청년인사들은 일찍부터 근대 교육을 받은 경제적으로 유복한 집안의 자녀였음을 짐작할 수 있다. 의무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수년, 혹은 십여 년 동안 학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적지 않은 교육비를 감당할 능력이 없으면 불가능하였다. 이들 임원을 맡은 청년들을 통해 알 수 있지만, 당시 청년들이 관직보다는 주로 상공업 분야로 진출하였음을 느낄 수 있다. 그것은 이들 집안의 경제력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었기 때문이기도 하였지만, 이들이 고등교육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식민지 민족이라는 한계로 관직 진출을 거부하였을 것이다. 그들에게 관직 진출은 일제 식민통치에 영합하는 것이라고 인식되고 있었다.

한편 광주청년회는 1921년 9월 1일 임시총회에서 임원진을 개편하였

다. 이때도 총회에서 간부로 선출된 인사들은 여전히 실업가, 상업 및 금융업종사자, 지주, 전문 직업인이었다. 예컨대 1921년 9월 1일 있었던 임시총회와 1922년 7월 15일 정기총회에서 집행위원장으로 연거푸 선출된 이기호는 대지주였다. 다른 임원이었던 백남순은 광주금융조합 및 호남산업주식회사의 중역을 맡는 등 상업에 종사하였다.

광주청년회를 이끈 인사들은 경제적으로 부유한 가문의 자제들이 많았다. 이러한 초기 청년단체의 특징은 광주청년회에만 국한된 것은 아니었다. 1921년 8월 창립된 광주청년회 다음으로 큰 조직인 송정청년회를 이끈 인사들 역시 지역 사회의 실업가들이었다. 초대 회장 변상구, 이사 배현식은 호남물산주식회사 중역이었다.⁶⁾

광주청년회뿐 아니라 다른 청년단체도 그들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는 지역 유지의 출연으로 이루어졌다. 광주 지역 유지들 스스로 광주청년회 찬성부를 조직하여 청년회를 정신적 재정적으로 후원하였다. 광주청년회는 회관 건축비, 운영비 등을 지방 유지의 기부금에 의존하였다.

1921년 5월 5일 동아일보 보도에서 이를 엿볼 수 있다.

“광주청년회에서는 4월 30일 임시총회를 열어 학교의 수용능력 부족으로 학교에 들어가지 못한 아동들을 강습하기 위하여 발족된 학부형회의 요구에 응하여 흥학관과 유지들의 의연금으로 할 것을 결의하였다. 또한, 청년회가 초청한 블라디보스토크 조선 학생음악단 경비도 의연금으로 충당하였다.”

광주청년회가 학생들에게 공부할 공간을 만들어주는 일을 체계적으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심지어 블라디보스토크의 재외 교포 학생음악단 초청 행사까지 추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업을 추진하는데 소요되는 막대한 경비를 대부분 지역 유지 성금으로 의존하고 있음을 살필 수 있다. 실제 광주청년회의 모임 공간인 흥학관은 1921년 광주 실

6) 이애숙, 앞의 글.

업가인 최명구의 기부로 건립되었다.

이것만 보더라도 청년들이 활동하는 데에는 광주의 실업인들이 직, 간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 따라서 청년회 활동에 많은 돈을 기부한 유지(有志)나 그 자제(子弟)가 청년회 간부가 되거나 청년회에 커다란 영향력을 행사하는 구조가 형성되었다. 하지만 이러한 구조는 사회주의 사상이 유입되면서 내부에서 치열한 계급적 갈등을 노출하였다.

4) 활발한 사회운동과 광주청년회의 성격 변화

광주청년회는 학교에 들어가지 못한 학생들의 학습 공간을 마련하기 위한 사업 등 청년회가 필요한 경비를 유지들로부터 모금하여 적극적인 활동을 함으로써, 광주의 가장 대표적인 청년단체로 자리 잡았다.

그러나 광주청년회 주도층이 막대한 경제적 기반과 높은 교육까지 받은 부르주아 계급이었다는 점은, 이들이 일본 식민지 지배체제의 모순을 해결하려는 단계에까지는 나아가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다음을 보자.

표 4. 광주청년회 임원

선출 시기	간부진 명단
1921.9.1. (임시총회)	1. 집행위원장: 이기호 2. 집행위원: 서무부(김유성) 재무부(김복수) 지육부(김인주) 사교부(전용기) 체육부(조용선) 편집부(결원) 교통부(문태곤) 산업부(결원) 3. 의사원: 최흥종, 김기석, 정인준, 설병호, 최준기, 류상원, 강태규, 한용수, 백남순, 문천귀, 정학권, 차순정, 최종륜, 최영운, 문상기
1922.7.15. (정기총회)	1. 집행위원장: 이기호 2. 집행위원: 서무부(전도) 재무부(이기호·전용기) 지육부(최장전) 사교부(문천귀) 체육부(최준영) 편집부(최연석) 교통부(설병호) 산업부(장봉익) 3. 의사원: 최준기, 유상기, 김형운, 김유성, 김인주, 장인영, 김용환, 최영운, 김종삼, 문태곤

1921년 9월에 열린 임시총회와 1922년 열린 정기총회에서 선출된 광주청년회의 간부 명단이다. 이들 명단을 통해 광주청년회 성격 일단을 엿볼 수 있다. 특이하게도 1920년 창립 당시, 그리고 1921년 임시총회, 1922년 정기총회에서 선출된 임원들 가운데 임원이나 집행위원 이상 간부 중에 3·1운동 관련자가 한 명도 없다는 점에 눈에 들어온다. 3·1운동 관련자는 임시총회 때 의사원에 선임된 최홍종과 1922년 정기총회에서 의사원으로 선출된 김종삼 둘 뿐이다. 광주에서 가장 먼저 조직되어 청년운동을 주도한다는 자부심을 지닌 광주청년회로서는 간부들 가운데 독립운동에 뛰어들어 투옥된 인물이 한 명도 없다는 사실은 조직이 지닌 약점으로 인식될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광주청년회는 광주 3·1운동의 주동자로 경성의전 재학생이었던 김범수를 비롯하여 김복현, 최한영을 회원으로 영입하였다. 이렇게 3·1운동 주도 세력이 광주청년회에 합류하면서 광주청년회의 성격에도 변화가 나타났다.

위 <표 4>에서 알 수 있듯이 ‘회장-부회장-부장’으로 이어지는 단일 지도체제가 ‘집행위원장-집행위원-의사원’으로 이어지는 집단지도체제로 바뀌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게다가 아직 집행부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의사원의 구성에 이전의 유지 중심에서 탈피하여 여러 계층이 합류하고 있는 모습이 보인다.

예를 들어 김유성·문태곤(대동상회 공동운영), 최영운(전남학무과고원), 김복수, 최홍중(목사), 김용환, 김종삼(광주 자혜의원 간호인), 전도(노동·농민운동) 등이 그들인데, 계층과 직군이 다양해졌다. 특히 강석봉과 함께 노동자·농민운동을 함께 한 담양 출신 전도가 참여했다는 것은 의미가 있다.⁷⁾ 지역 유지 자체 중심의 청년회 운영이 근본적 변화를 맞이하고 있음을 알려준다.

1920년대 초반 결성된 광주청년회를 비롯한 대부분 청년단체는 지주, 상공인, 지역 최고의 지식인, 기독교계 지도자들이 주도하였다. 다만 지

7) 박해현, 『강석봉 평전』.

주라 하더라도 소작료 수취에만 전적으로 의존하는 옛 봉건적 지주가 아니라 자본주의 경제 체제에 참여하고 있는 지주 겸 상공인이었다. 이들은 식민지 민족으로서의 고통과 불만 때문에 민족의 독립을 지지하였고, 청년운동에 뛰어들었다.

조선노동공제회 광주지회, 조선소작인상조회 전남지회, 송정노동수양회 등의 단체에서 활동한 상당수 지도급 회원들도 노동자와 자본가가 서로 협조하는 분위기에서 활동하고 있었다. 그러나 곧 이들 자본가 계층이 지니는 구조적인 한계는 노동자·농민층이 주도층을 형성한 노동공제회 등과 갈등을 예비하고 있었다.

한편 당시 전남지역이 처한 상황은 심각하였다. 약간 시기가 뒤떨어지는 하였으나 1935년 통계에 의하면 전남지역 총 경지 면적은 전국 총 경지 면적의 9%를 차지하는 것으로 전국 제2위 수준이었다. 하지만 농업 호구가 전국 1위 지역으로 농가 1호당 평균 경지 면적은 전국의 1호당 평균 경지 면적보다 대략 0.5정보나 적다. 전남지방 농민들이 다른 지역보다 토지에의 의존도가 매우 높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그들은 그나마 생존 조건을 유지하기 위해서 지주로부터 가해지는 온갖 불이익, 고율의 소작료와 지세, 공과금 부담 등을 감수해야 했다.

3·1운동 이후 고양된 사회적 분위기는 지주로부터 가해지는 불이익에 맞선 농민들의 투쟁이 강화되는 계기가 되었다. 1923년 압태도에서 전개된 소작쟁의는 그 대표적인 사례라 하겠다. 개인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지던 1920년대 초기의 농민운동은 소작인 조합·농민조합·소작상조회·농우회·농민공제회·작인동맹 등 농민단체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이 단체는 대부분 지주와 소작인이 농사 개량·소작관계 개선·생활개선 등을 목적으로 만들어서 상호 부조 및 계몽적인 성격이 짙었다. 그러나 일제와 지주의 수탈이 심해지고 소작쟁의가 늘어나면서 차츰 농민을 위한 조직으로 바뀌어 갔다.

농민조직은 1922년 23개에서 1923년에는 107개로, 1925년에는 126개로 늘어났다. 소작인 조합이 중심이 되어 “소작인회에 비상사태가 일어

날 경우 인접 면에서 응원할 것” 등을 결정하여 연대 투쟁을 모색하기도 하였다. 지주와 일제를 규탄하는 토론회·집회 등을 열어 농민의 계급의식을 높여 갔다. 1924년 4월에는 사회주의자와 노동단체의 지원을 받아 조선노동총동맹을 결성하여 전국 범위의 중앙조직을 갖게 되었다. ‘소작료 인하, 소작권 박탈 반대, 동척 이민 반대’ 등의 소작쟁의 구호에서 나타나듯이, 농민구성원 대부분은 소작농이었다. 이처럼 농민운동이 조직화하는 과정을 광주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광주청년회와 더불어 광주지방 사회운동 중심에 섰던 단체가 ‘조선노동공제회 광주지회’였다. 광주청년회보다 약간 늦은 1920년 7월 30일 조직된 이 단체는 초기에는 주로 노동야학, 노동합숙소 설치, 환난구제사업 등 주로 노동자에 대한 활동에 주력하였다.

1922년 10월 16일 중앙에서 조선노동공제회가 해체되자 광주지회도 총회(1922. 11. 18)를 열어 ‘광주노동공제회’로 명칭을 바꾸어 독립적 성격의 단체로 전환하였다. 그리고 활동 범위를 농민운동에까지 점차 확대하여 노농연합제적인 성격을 띠어갔다. 1923년 6월 4일 집행위원회를 열고 “각 회의 경과 상황 보고, 신규 소작인 쟁의에 대한 처리 방법” 등을 결의하고 있는 데서 확인된다.

광주노동공제회의 농민운동에 대한 활동은 소작인회 조직으로 구체화되었다. 1923년 봄까지 광주의 15개 면 전체에 소작인회가 조직되었다. 이를 기반으로 1923년 4월 29일 중앙집행기관인 소작인연합회가 조직되었는데, 주요 임원은 광주노동공제회의 간부로 충원되었다. 조선노동공제회 광주지회는 광주노동공제회로 개조된 후 소작인 운동을 투쟁적으로 전개하기 시작하였다.

이에 따라 광주청년회 지도부도 사회문제에 관심을 두었다. 이러한 변화 양상은 조직체계에서 먼저 보인다. 1922년 개편된 8개 부서 가운데 기존의 사교부, 산업부, 교풍부, 편집부 등이 없어지고 사회부가 신설되었다. 사교부, 산업부, 교풍부는 부르주아적·개량주의적 성격이 드러나 있는 기구였다. 이들 부서를 폐지하고 사회부를 신설한 것은 노동자·농

민 계급 등 다른 부문과의 연대를 강화하기 위함이었다.

하지만 그들이 사회변혁에 관심 있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노동자, 농민의 희생에 의존하고 있었다. 이러한 계급적 한계 때문에 광주청년회가 1923년 이후 격화되는 노동·농민 운동에 처음부터 동참하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였다. 광주노동공제회가 소작 운동을 회 차원에서 당면 사업으로 설정하여 조직적으로 꾸려나갔다면, 광주청년회는 회원이 개별적으로 운동에 참여하는 수준이었다. 광주청년회는 물산장려운동이나 민립대학 설립 운동 등을 광주에 정착시키는 데에 주력하고 있었다. 이로 인해 면소작인회는 광주노동공제회와 정치적 행보를 같이하며 광주청년회와 대립의 길을 걷게 되었다.

그러나 1922년 말 광주노동공제회가 출범한 이후 1923년부터 격렬하게 전개되는 노동·농민 운동은 광주청년회 내부의 새로운 변화를 요구하였다. 1923년 이기호가 친일적인 성격을 띤 광주면협의원으로 선출되자, 직전에 집행위원장을 역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간부직에서 배제하였다. 이는 광주청년회의 성격이 차츰 정치적 성격을 띠고 있음을 보여준다. 말하자면 친일적 성향을 보인 인사는 단체의 간부에서 배제하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광주청년회가 일제와의 타협을 거부하고 있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

광주청년회의 이러한 변화는 내외의 상황을 반영하는 것이었다. 강석봉이 귀국하여 노동자, 농민을 위한 사회 건설을 목표로 하는 사회주의 사회를 건설하여야 한다는 주장에 동조하는 청년들이 늘어나고 있었다는 방증이다. 강석봉이 임시의장으로 선출된 것은 부르주아적 성격의 광주청년회가 사회주의적 성격으로 변화되는 신호였다.⁸⁾

8) 박해현, 『독립운동가 의사 김범수 연구』.

5) 송정청년회와 이경채

(1) 송정청년회와 이성방

1920년 9월까지 전남 각지에서는 광주청년회를 비롯하여 24개의 청년회가 조직되었다. 광주에서는 광주청년회와 더불어 송정청년회가 가장 활발히 활동하였다.⁹⁾

1921년 8월에 창립된 송정청년회는 회장제를 채택하였고, 지덕·체육·사교·경리의 부서를 설치하였다. 창립 간부진은 회장 변상구, 총무 이덕희, 각 부 이사 배현식 등 4인이었다. 또한 송정청년회는 풍속개량, 문화선전, 권선징악의 취지 아래 소인(素人)연극단을 조직하려고 설비위원도 선출하였다. 송정청년회도 광주청년회와 마찬가지로 청년의 지·덕·체향상과 친선, 풍속 개량을 통한 문화 진흥을 활동 목표로 정하였다.

변상구는 호남물산 취체역 겸 지배인이었고, 배현식은 같은 회사의 지배인 대리였다. 변상구는 일찍이 송정노동수양회에 참여하여 그 단체의 야학교사로 활동하였다. 창립 직후 송정청년회가 조직한 토론회에서 토론자로 나선 황치영은 원흥운수조를, 이성방은 철품점을 경영하고 있었다. 이경채의 숙부인 이성방이 이 무렵 청년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음이 확인되고 있다. 이경채가 광주고보 재학시절 송정청년회에 참여하고 있었던 것은 숙부의 영향이 어느 정도 작용한 것이라 하겠다. 이 밖에 소인연극단 설비위원인 추영명은 송정면의 대표적 기업인으로 1920년대 중반 미곡·비료 등을 취급하는 추영명 상점을 경영하였고, 송정면협의회원이었다.

송정청년회 회원들도 광주청년회와 마찬가지로 창립 초기에는 지식인, 상공업자 등으로 지역 사회에서 경제적, 사회적 지위가 비교적 높은 계층에 속하였다. 이들은 식민지 민족으로서의 고통과 불만 때문에 민족의 독립을 지지하였고, 청년운동에 뛰어들었다. 이들 가운데 일부는 지주, 자본가 계급이라는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일제에 협조하는 지위에

9) 이에속, 앞의 글.

오르기도 하였다. 송정면협의회원이었던 추영명의 경우가 대표적이다. 하지만 송정노동청년회에서 활동한 이성방처럼 노동자, 농민운동 단체에서 활동한 이도 있었다. 송정면에서 쌍합성주물공장을 운영한 기업인 이성방은, 청년, 노동운동 등 사회변혁에 앞장섰다.

송정청년회는 처음에는 광주청년회와 마찬가지로 대중교육에 주력하여 강습소나 야학을 운영하였다. 송정리에는 야학이 많았다.

표 5. 1926년 송정면 소재 조선인 교육기관 현황¹⁰⁾

학교명	계 (여)
송정공립보통학교	408(61)
사립송정중학원	121
송정노동야학	60(20)
O수 노동야학	20
사O노동 야학	35
신촌강습소	25
선암강습소	40
중보(仲洙)노동야학	30
계	739(81) ¹¹⁾

호남선 철도가 개통되면서 급속히 도시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송정면에 공립학교는 송정공립보통학교 1개소뿐이었다. 그리고 중등학교 과정에 해당하는 공민학교 과정에 해당하는 송정리 사립중학원이 1922년 개설되었다.¹²⁾ 정규학교를 다니지 못하는 경제의 죽마고우로 이경채를 도와 뼈라를 제작하여 살포하였던 박병하, 윤해병¹³⁾도 이 학원 출신이었다. 이처럼 보통학교가 수용하지 못한 학령 학생들의 교육을 야학, 강습

10) 시대일보 1926. 1. 3.

11) 여학생 숫자는 통계보다 더 많을 수 있다. 야학 숫자에 여학생 통계가 잡혀 있지 않기 때문이다.

12) 시대일보 1925. 11. 25.

13) 당시 신문 보도에 윤해병을 부랑아라고 한 것으로 보면 집안이 넉넉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중외일보, 1928.5.2.)

소가 담당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입학난이 사회문제가 될 정도로 학교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하였고, 학령 초과, 학비 사정 등으로 학교에 들어가지 못하는 청소년이 압도적으로 많다는 것을 위 통계에서 알 수 있다. 하지만 강습소, 야학의 교육내용은 보통학교 학과 수준, 혹은 글과 숫자를 깨우치는 정도였다. 하지만 박병하, 윤해병의 예에서 알 수 있듯이 이들은 야학이나 사립학교에서 학습을 통해 사회변혁이 필요함을 느끼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변화에 발맞추어 송정청년회는 연극단을 운영하여 풍속 개량, 문화 진흥을 꾀하였다.

한편 광주 청년들은 1923년 강석봉이 조직한 광주지역 최초의 사회주의 사상을 공부하는 비밀결사인 신우회의 영향을 받고 있었다. 광주청년회의 성격이 변하고 있는 사례를 위에서 보았지만, 송정청년회도 사회주의 영향을 받고 있었다.

송정청년회는 1925년 11월 간부의 피선거권을 35세 미만으로 제한하고 간부진을 개편하였는데, 새로 선출된 간부진은 회장 추영명, 부회장 백운하, 각 부 이사 조래홍, 김영택, 박상효, 이상방, 이수영, 정해구, 간사 나동일·이은규 등이었다.¹⁴⁾ 추영명은 대표적 실업인이고, 백운하는 화물운반 노동자 청부 사업을 맡고 있었다. 추영명은 면협의회장 출신이었다. 광주청년회가 사회주의 세력이 빠른 속도로 주도권을 잡는 것과 달리, 송정청년회는 여전히 개량주의적 인물이 주도권을 잡고 있었다. 이상방은 이경채의 숙부 이성방의 오기로 보인다. 이 무렵 송정청년회는 개량주의적 주장을 한 세력과 성방처럼 사회변혁을 추구한 세력이 서로 공존하는 구도였다.

하지만 송정청년회는 차츰 노동, 농민운동에 관심을 보였다. 이은규와 나동일이 1926년 하반기에 결성된 송정노동청년회에 참여한 것에서 알 수 있다. 1926년 9월 창립된 송정노동청년회는 서무·경리·교양·조사·구호부를 두었으며 김기태, 조칠성, 김강, 오영, 이은규, 나동일 등이 주요 활동가였다. 이들은 “무산계급 해방”을 내걸고 송정청년회와 대립하기도

14) 시대일보, 1925. 11. 21.

하였으나 청년운동의 통합 열기가 높아지던 1927년 8월 송정청년회와 통합하였다.

한편 송정노동청년회는 1926년 12월 19일 송정노동청년회관에서 제1회 임시총회를 열었다.¹⁵⁾ 1926년 9월에 창립되고 나서 불과 3개월도 채 되지 못해 임시회의가 열렸음을 알 수 있다. 이날 회의에 회원 80여 명의 출석과 많은 방청객이 밀려들어 회관이 입추의 여지가 없었다고 한다. 송정노동청년회가 대중적 지지를 받고 있음을 말해준다.

임시총회에서는, 1926년 여름 분쟁을 거듭한 운수노조의 피해 사실과 구제책을 찾았다고 하는 것을 보고하였다. 이날 임시회에서는 회원 강령을 위반한 회원 14명을 제명하는 안건 및 전남청년연맹 가입 문제 등을 논의하였다. 그리고 이날 임원진을 개선하였는데, 위원장으로 김기태, 서무부위원장 홍희준, 이상근, 경리부위원장 양영일, 유병운, 나기영, 조사부위원장 박하연, 장인계, 구호부위원장 이성방¹⁶⁾ 등이었다. 노동청년회의 간부로서 임시회를 통해 이성방의 존재가 새롭게 부각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성방이 사회변혁에 앞장서고 있는 것을 1927년 8월에 일제의 수리조합 결성에 반발하는 운동을 이끌고 있는 사실에서¹⁷⁾ 알 수 있다.

송정노동청년회는 1927년 신간회의 탄생으로 민족의 단결이 공고해지는 분위기 아래에서 기존의 송정청년회와 통합의 길을 걸었다. 1927년 7월 17일 송정청년회가 주관하는 사상토론회가 열리기도 하였다. 그리고 8월 1일 송정청년회와 송정노동청년회가 합동으로 대회를 열었다. 3·1 운동 후 나타난 민족주의를 강조하는 송정청년회와 계급타파를 내세우는 송정노동청년회의 갈등을 극복하려는 취지였다. 이 대회에서 이경채의 숙부인 이성방이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음이 주목된다.¹⁸⁾ 이렇듯 이성방은 송정청년회 및 송정노동청년회를 통해 농민들의 계급적 이익을 위

15) 중외일보 1926. 12. 23.

16) 중외일보 1926. 12. 23.

17) 중외일보 1927. 8. 12.

18) 중외일보 1927. 8. 6.

해 앞장서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념의 차이를 극복하려는 송정청년들의 노력은 이듬해인 1928년 2월 7일 신간회 송정지회 창립으로 이어졌다. 이때 이성방이 총무간사를 맡고 있다.¹⁹⁾ 이렇게 청년, 사회운동에 앞장선 숙부 이성방의 사회변혁 의지가 경채에게 그대로 이어졌다.

(2) 광주청년동맹 송정지부 결성과 이경채

1926년 민족협동전선의 열기가 고조되면서 청년운동에도 방향 전환이 나타났다. 여러 단체로 분화되어 있던 청년운동 단체를 하나로 통합하려는 것이었다. 이 과정에서 광주청년동맹이 결성되었다.²⁰⁾

이 운동을 주도한 이는 광주청년회 활동가이자 조선공산당 전남 책임자인 강석봉과 김재명이었다. 이들은 각 군에 청년동맹을 결성하여 청년들을 지도하려 하였다. 1927년 4월 전국청년동맹이 결성되면서 전남 각지에 군(郡) 단일 청년동맹이 본격적으로 결성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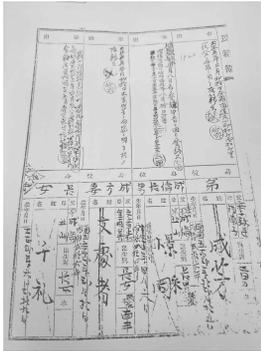
1927년 11월 광주청년동맹 집행위원회는 김재명, 강해석을 집행위원으로 선출하고, 이들이 포함된 11명의 창립준비위원을 선출하였다. 임시 집행부에 김재명, 장석천, 오홍근이 선출되었다. 11월 26일 오후 광주 흥학관에서 광주청년동맹 창립대회가 개최되었다. 의장 김재명이 사회를 보고, 장석천이 취지를 설명하고 김재명이 경과보고를 한 후에 만장일치로 강령과 규약을 통과시켰다. 위원장에 김재명, 위원에 조철성, 박승남, 강영석, 장석천, 강해석, 지창수 등 13명, 감사위원에 김홍선, 최한영, 강석봉을 선출하였다.²¹⁾ 이 가운데 박승남, 조철성은 송정청년회 출신이었다.

한편 광주청년동맹은 면에 지부를 설치하였다. 대표적인 곳이 송정지부인데, 1928년 2월 송정집행위원회는 회무 정리위원 2인을 선출하여 지부 설치 즉시 사무를 인계하기로 하였다. 같은 해 4월 열린 송정청년동맹 정기대회에서는 집행위원장 이성태와 집행위원 10인을 선출하여 조

19) 중외일보 1928. 2. 11.

20) 박해현, 『강석봉 평전』.

21) 중외일보 1927. 11. 29.



이성방 제적등본

직문제, 신간회 지회 지지, 회원모집, 회보발간, 규약 수정 등에 대해 토의, 의결하였다. 당일 강해석이 전남청년동맹 대표 자격으로 축사를 하였다. 1928년 2월 이후 전남청년연맹을 주도한 활동가는 장석천, 강해석이었다. 이미 강해석은 형인 강석봉의 지시로 광주 청년운동을 이끌고 있었다.²²⁾ 강해석이 청년동맹 송정지부를 찾았다는 것은 이곳이 그와 관련이 있음을 알려 준다. 당시 강해석은 청년운동을

넘어 학생층까지도 포섭의 대상으로 삼고 있었다.

이경채는 송정청년회와 연결되어 있었다. 1928년 이경채 사건 판결문에 그가 그 지역의 청년회에 자주 출입하였다고 나와 있다. 그의 숙부 이성방이 송정청년회의 간부로 활동하고 있다는 점도 이경채와 송정청년회의 관련성을 높여준다. 이경채는 광주고등보통학교 다닐 때도 송정청년회에서 주로 활동하면서 사립 송정중학원을 다녔던 박병하, 윤해병 등과 어울렸다.

이경채 사건이 발생하였을 때 일본 경찰이 송정리에서 사회운동을 하는 청년 수십 명을 검거하였다는 당시 신문 보도가 주목된다.

● 광주불온사건

3명만 공판 회부, 광주청년은 관계없어 5명은 면소 출감

한동안 세상의 이목을 놀래인 불온문서 사건으로 인하여 광주와 송정리에서 사회운동을 하는 청년 수십 명을 검거하여 엄중한 죄조를 하여 8명만 광주지방법원 예심에 부치고 나머지는 석방되었다 함은 이미 보도하였거니와 피의자 8명은 지금까지 4개월 동안이나 예심 중에 있는 바 지난 21일에야 광주 청년 등은 그 사건에 관계가 없었다는 것이 판명되어 면소 출옥되고 송정리 청년 3명만 기소되어 공판에 부치게 되었는바 그 이름은 다음과 같다.

22) 박해현, 2021, 『동구의 인물』 2.

면소 출옥자 : 강해석, 한길상, 지창수, 조철성, 박승남

기 소 자 : 이경채, 박병하. 윤해병²³⁾

이경채 사건이 일어나자 수사에 나선 일본 경찰이 광주와 송정리에서 사회운동을 하는 청년 수십 명을 검거했다는 것이다. 사회운동을 하는 청년이라 했으므로 광주청년회나 송정 청년회에서 활동한 인물임을 말한다. 이 사건의 배후에 광주 및 송정청년동맹이 있다고 판단한 일본 경찰은 청년동맹의 핵심 인물들을 체포했다. 한길상을 제외한 강해석, 지창수²⁴⁾, 조철성, 박승남은 광주청년동맹의 핵심 인물이었다.

1928년 3월 말 이경채가 식민지 교육을 비판하는 뼈대를 시내 및 경성에까지 발송하는 운동을 전개하였다. 그가 이러한 큰 사건을 일으킨 것은 그의 내면에 축적된 민족 감정도 중요하게 작용하였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송정청년회, 송정노동청년회, 송정청년동맹에서 활동하며 강석봉, 강해석, 장석천 등 활동가들과 인연을 맺었던 것이 크게 작용하였다. 이경채 사건이 발생했을 때 일본 경찰이 강해석 등을 제일 먼저 조사한 것도 송정청년동맹과 강해석, 송정청년동맹과 이경채의 관계를 의심했기 때문이었다.

2. 사회주의 사상의 유입과 독립운동의 새로운 양상

1) 사회주의 사상 유입과 신우회

1923년 9월 보수적 성격의 인물로 구성된 광주청년회의 지도부에 사회주의 사상을 지닌 강석봉이 임시의장으로 선출되었다. 이는 광주, 전

23) 동아일보 1928. 7. 26.

24) 지창수는 1924년 6월 광주고등보통학교와 광주중학교 학생 사이에 전개된 야구 시합에서 발생한 한, 일 양국 학생들의 충돌에서 광주고보 학생들만 일본 경찰이 구속하는 것에 반발하여 광주고보 학생들의 동맹휴교를 이끌어냈다. 광주 최초의 동맹휴교였다. 이 동맹휴교로 구속된 학생들은 9월에 모두 석방되었으나 동맹휴교의 주동자인 광주고보 4학년인 고평우, 국채진, 최현주, 지창수 등은 퇴학을 당했다. 동맹휴교의 최초의 희생자였다. 지창수는 이후 청년운동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었다.

남의 최대 규모의 청년회인 광주청년회가 사실상 사회주의 사상을 지닌 청년들로 재편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사회주의 사회 건설을 표방하는 학생운동, 농민운동, 노동운동 등도 빠른 속도로 확산되고 있었다. 여기에는 광주지역에 있는 신우회라는 사회주의 사상 연구단체와 그 단체를 결성한 강석봉의 역할이 있었다.²⁵⁾

일본에서 귀국한 강석봉은 동경대학의 ‘신인회’와 같은 단체를 만들어 사회주의 사상을 체계적으로 연구하고 확산시키려 하였다. 신우회의 창립 시기와 초기의 활동 내용을 알려주는 신문 내용이다.

“광주 사상 단체 신우회에서는 창립 이래로 회원 자체의 계급적 단결과 역사적으로 필요성을 가진 신사회를 건설하는데 요소가 되는 유물사관을 중심으로 하고 사상연구를 목적으로 우금(于今) 3개 성상을 매월 4회씩 회합하여 수십 명 회원이 다 각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한 소견과 연구한 바를 발표하는 동시에 현대 조선청년으로써 가질 바 사상과 취할 바 행동을 과학적으로 토론하여 그 내용 충실에 주력하여 오던 바, 최근에는 종래에 불성문법(不成文法)의 해당 회의체를 변경하여 회칙을 제정하는 동시에 노농, 교양, 서무 3부서로 나누어 사상, 청년, 노동 등 실제 운동에 착수하여 대중 본위의 신사회를 목표로 계급전선에 전위(前衛)됨을 바란다는 데 회의체 개혁의 첫소리로 다음과 같이 사상문제 대강연회를 개최하리라.

- 일시 : (1925년) 12월 5일 오후 7시
- 장소 : 흥학관 강당
- 연제 및 연사 :
 - 철학의 파산과 생활의 긍정(김갑수)
 - 자본주의의 사적 발달과 그 필연 붕괴(지용수)
 - 경제적 파멸과 오인(吾人)의 이상(김광진)
 - 노예연구(강석봉)
 - 제목 미정(배고파, 이일선, 기노춘, 최한영)²⁶⁾

25) 박해현, 『강석봉 평전』.

이 기사를 통해 신우회의 창립 시기, 목적, 활동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알 수 있다. 우선 신우회가 1925년 당시 창립된 지 3년이 되었다고 한 데서 1923년에 창립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²⁶⁾

신우회가 창립 당시에는 ‘불성문법(不成文法)’이라 하는 데서 회칙 등이 작성되어 있지 않았음을 알 수 알 수 있다. 일본에서 사회주의 사상에 대한 대대적인 탄압이 이루어지고 있었고, 조선에서도 총독부는 사회주의 사상을 제국주의를 위협하는 것으로 인정하여 탄압하고 있었다. 사회주의 사상이 광주에서는 유입 단계에 있었기 때문에 신우회 창립 초기에는 조직을 철저히 비밀리에 운영하였음을 알 수 있다.

신우회는 매월 4회씩 수십여 명이 참여하여 토론회를 개최하였다고 한다. 신우회가 비록 회칙 등 조직을 문서로 만들지 않았을 뿐, 실제로 상당히 조직적으로 운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1925년 말에 이르러 이 조직 활동을 공개적으로 전환하며 조직을 재정비하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신우회는 강석봉이 지용수와 함께 1923년 조직한 광주 전남 최초의 유물사관 연구단체였다. 창립 당시에는 사회운동에 희생적으로 투쟁하는 순결분자가 18명이 결속하여 조직하였다고 한다. 강석봉을 비롯하여 창립 멤버 18명이 처음에는 사회주의 사상 연구에 치중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들은 외부 활동을 철저히 자제하고 이론 학습을 통한 내부 결속을 강화하여 투쟁의 동력을 확보하고 있었다.

신우회는 조직이 정비되자 중간사제로 운영하였다. 이때가 1925년 무렵인데, 서무, 노농, 교양 등 부서를 두어 적극적인 투쟁 방식으로 나아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강석봉은 핵심세력을 공산당에 가입시키는 등 운동 세력을 정예화하고 있었다.

이 무렵 강석봉이 ‘사상대강연’ 세미나에서 발표한 주제 ‘노예연구’를 통해 그가 자본주의 모순을 냉철히 분석하고, 이 바탕 위에 계급투쟁을

26) 동아일보 1925. 12. 1.

27) 박해현, 2022, 『강석봉평전』.

분명히 하고 있음이 드러난다. 1925년 조선공산당이 창당되자 일제는 사회주의 사상의 확산을 억압하고자 치안유지법을 제정하였다. 그러나 광주에서는 오히려 사회주의 실천가들의 움직임이 활발하였다.

12월 5일 세미나에서 강석봉이 주제 발표를 하였고 이듬해 1926년 10월 2일 강해석, 지용수가 신우회에서 가장 노력하고 있다는 동아일보 보도를 통해 강석봉 형제가 지용수 등과 함께 이 모임을 주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강석봉의 아우 강해석이 신우회의 실무적 일을 맡은 것도 강석봉의 의지가 반영된 것임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이 무렵 신우회에 이경채가 가입하였는지 여부는 알 수 없어도 어떤 형태로든지 이 단체와 관련은 있었다. 1928년 빼라 살포 사건이 발생하자마자 광주경찰이 이들을 의심하여 강해석, 지용수 등을 체포한 사실에서 이를 짐작할 수 있다. 1926년 5월 이경채가 광주고보 친구들 외에도 송정보통학겨 죽마고우들과 사회주의 이념 서적을 읽는 비밀모임을 만든 것도 이러한 추론의 근거이다.

여하튼 처음에 조직을 감춘 채 사회주의 사상만을 연구하던 신우회가 현실정치에 참여하기 시작하자, 일본 경찰은 이들의 활동을 억압하려 하였다. 1926년 7월 26일자 동아일보 보도 내용이다.

“연합토의회를 현지 경찰 금지

광주신우회에서는 오는 8월 2일부터 일본 나가사키에서 개최되는 아시아 민족대회에 대하여 해당 대회를 절대 반대하기로 하고, 이에 대책을 토의하고자 지난 23일 오후 8시부터 광주청년회 흥학관 대강당에서 광주 각 사회단체 연합토의회를 개최하려 하였으나 현지 경찰서에서는 주최 단체 대표자를 불러 해당 집회를 절대로 금지한다 하므로 부득이 중지하였다 하며 광고까지 압수하였다.”

신우회가 여러 사회단체 활동을 하나로 묶는 연합체를 결성하려 하자 일본 경찰이 이를 막으려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제 신우회가 광주지역 사상대강연회주의 활동의 시원일 뿐만 아니라 구심점이 되고 있었다.(동아일보 1925.12.01.) 강석봉은 신우회를 통해 형성된 사회주의 사상

을 바탕으로 항일 운동 세력을 조직화하고 있었다.

2) 청년운동과 광주청년동맹

일본에서 사회주의 사상을 습득하고 귀국한 강석봉은 곧 바로 1923년 사회주의 사상 단체인 신우회를 조직하여 사회주의 이념을 체계화하고 세력을 확산하려 하였다. 그는 동시에 과거의 부르주아 중심의 활동에서 탈피하고 있는 광주지역 최대의 청년운동 조직인 광주청년회를 그의 영향력 아래에 두고자 하였다. 1923년 9월 강석봉이 광주청년회의 임시의장이 된 것은 이러한 의도가 반영된 것이라 하겠다.

그렇다 하더라도 일본에서 귀국한 지 얼마 되지 않아 강석봉이 광주청년회의 임시총회를 주재한다는 사실은 광주청년회의 회원들 가운데 사회주의적 성향을 지닌 세력이 그만큼 성장해 있음을 말해준다. 이제 광주청년회가 자본가 중심의 틀에서 벗어나 노동자·농민 중심으로 방향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

사회주의 사조가 들어오면서 광주청년회에도 조직체계뿐 아니라 지도부의 성격에도 변화가 있었다. 종전의 실업가 중심에서 최한영, 강석봉 등 고학력자, 언론사 기자, 교사 등 지식인 그룹이 다수를 차지하였다. 훗날 신간회 지회에서 간부로 지냈던 청년들이 많았다. 1920년대 중반 들어 광주청년회는 부르주아 중심에서 소부르주아 지식 청년으로 지도부가 변경되어갔음을 알 수 있다.²⁸⁾

1924년 광주청년회는 “계급적 단결로 해방운동의 전위가 되어 민중본위의 신사회 건설”을 목표로 삼는다는 강령을 채택하였다. 광주청년회가 ‘지·덕·체’를 표방했던 창립 초기와 비교하면 상당히 급진적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광주청년회에서 새롭게 내건 ‘신사회 건설’이란 구호는 ‘사회주의 사회’를 완곡하게 표현한 것이다. 청년회 활동에 사회주의적 색채가 차츰 드러나고 있었다.

28) 이에숙, 앞의 글

1925년 9월 개최된 광주청년회 창립 5주년 기념강연회에서 청년의 계급적 단결을 강조하는 주장이 나왔다. 광주청년회의 성격에 사회주의 모습이 드러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광주청년회가 사회주의적 성격으로 바뀌어 가는 데는 청년운동을 조직화한 강석봉의 역할이 있었다. 강석봉은 일종의 이념 학교인 광주청년학원을 운영하였다. 강해석이 청년학교 교사로 있었고, 그의 아우 석원이 청년학원을 다녔다는 사실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²⁹⁾

강석봉의 아우로 광주사범학교를 졸업한 해석은, 형을 도와 청년, 사회주의 항일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석봉의 아우이자 호일의 다섯째 아들인 석원이 1924년 경성의 경신학교 1학년을 다니다 중퇴하고 광주에 내려와 광주 청년학원에 다녔다. 당시 청년학원 교사를 해석이 맡고 있었다. 광주청년학원이 청년, 학생을 의식화하는 강습소였음을 알 수 있다. 이경채 등 광주고등보통학교, 광주농업학교, 광주사범학교 다니는 학생들이 이 단체에서 청년운동 및 사회주의 서적을 읽으며 식민지 조선의 모순을 구조적으로 비판하기 시작하였다.

신우회를 조직한 강석봉은 이와 별도로 기존의 광주청년회 활동을 뒷받침하는 청년운동 전위대를 육성하고자 일종의 강습소격인 광주청년학원을 세워 해석에게 맡겼다. 강해석이 1926년 창립된 광주청년회 연합회, 그리고 1927년 청년회연합회가 발전한 광주청년연맹의 임원을 맡았고, 강석봉 본인과 넷째 아우 영석이 광주청년회연합회의 집행위원으로 참여하였다.

강석봉 3형제가 광주청년연합회를 실질적으로 이끌었음을 알 수 있다. 이들은 이 단체를 발전적으로 해체하여 광주청년연맹을 새롭게 조직하였다. 1927년 11월 26일이었다. 조선청년총동맹 중앙집행위원 전남대표로, 김재명, 강석봉, 한상호가 선출되었다. 앞서 6월 17일 전국적으로 결성된 조선청년동맹의 하부 조직이라고 생각된다. 하지만 광주에서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청년운동이 전국적인 조선청년총동맹 결성에 영향

29) 박해현, 『동구의 인물』 2.

을 주었다고 보는 것이 순리이겠다.

이제 새로 출범한 광주청년동맹은, 김재명이 위원장을 맡고, 위원으로 조철성, 강해석 등 17명, 감사위원으로 김홍선, 최한영, 강석봉이 선출되었다. 이렇게 광주청년동맹이 출범하려 하자 일제는 탄압에 나섰다. 동아일보 보도 내용이다.

“광주청년회원 5명 검속 취조

지난 23일에 광주경찰서 고등계에서는 형사대를 풀어 놓아 광주청년 회원인 강석봉, 김재명, 강해석, 장석천, 강영석 등 다섯 명을 검속하고 엄중히 취조 중인데, 사건의 내용은 절대 비밀에 붙임으로 보도할 자유가 없으며 일반인은 매우 주목하고 있다.”(동아일보 1927. 9. 25)

광주청년동맹 결성이 구체화하자 이를 막으려는 일본 경찰의 모습을 살필 수 있다. 일본의 집요한 훼방에도 불구하고 광주청년동맹은 출범하였다. 이때 검속된 5인 가운데 강석봉, 강해석, 강영석 3형제가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이 주목된다. 광주청년연맹 위원장으로 선출된 김재명은 강석봉의 영향을 받아 공산주의 사상을 학습할 정도로 두 사람은 매우 가까운 사이였다. 나주 농민운동 대회에도 강석봉과 김재명이 함께 참석하였다. 이를 통해 광주청년동맹 결성에 강석봉이 실질적 역할을 하였다.³⁰⁾

한편 강석봉은 지역 봉사활동에도 적극적이었다. 1925년 8월 12일 ‘3천의 청중 광주수해구제음악회’를 주최하여 의연금을 모았다. 강석봉과 함께 최한영, 진동호, 소병호 등이 준비위원이었다. 이것만 보더라도 그가 이념적 한계에 갇혀 있지 않음을 잘 알 수 있다.

3) 노동운동의 확산

광주군의 산업구성은 민중의 존재 형태를 기본적으로 규정하였다.

30) 박해현, 『강석봉 평전』

1897년 개항 후 나주평야를 비롯 곡창 전남에서 생산된 쌀, 면화 등이 일본에 수출되는 항구로서 기능하면서 발전을 거듭한 목포항은, 해운업과 항만업이 발달하여 일제강점기 조선의 3대 항구로 명성을 날렸다.

부두노동자들이 형성되어 있었던 목포항은 일본인·조선인 지주의 토지 침탈로 인해 농토로부터 밀려난 사람들이 도시 지역에서 자유 노동자로 되어가는 과정이 전남에서 근대적인 노동자가 만들어지는 초기 모습이었다.³¹⁾ 제조업·광업 부문의 발전이 미약한 광주지역도 자유 노동 부문에서부터 노동자 집단이 형성되었다. 그들은 송정지역·광주역·시장 주변에서 등짐이나 지게로 화물을 운반하면서 고단한 삶을 이어나갔다.

이미 일제에 국권을 강탈당하기 이전부터 노동자들의 파업이 8차례나 있는 등 노동자 세력이 성장하고 있었던 목포에서는, 국권 피탈 후에는 민족의식까지 보태져 사업주와 노동자 사이의 갈등이 확산되고 있었다.

1925년 12월 목포자유노동조합원들이 임금인상을 요구하다 결렬되자 파업에 들어간 데 이어, 부두를 사용하는 문제를 둘러싸고 전용 인부와 다른 노동자 사이에 충돌이 일어났다. 1920년대 전남에서 일어난 파업 가운데 최대 규모로 평가받은 이 사건은 목포 총동맹의 산하 단체 가운데 가장 낮은 임금으로 고통받던 자유노동조합의 파업을 시작으로 확대되었다.

임금의 통일과 표준 임금의 실현을 요구하며 파업에 돌입한 자유 노조는, 1925년 12월 8일 목포 노동 총동맹의 간부들의 지원 속에 노조원들이 모두 출동하여 목포 노동 총동맹의 깃발을 앞세우고 행진했다. 파업 지도부는 조합원들에게 왼팔에 붉은 휘장을 두르게 하고, 부두의 각 요소에서 고용주의 태도와 비조합원의 행동을 감시하였다.

12월 12일에는 임시총회를 열고 표준 임금을 철저히 실행하며 이를 지키지 않는 고용주에 대해서는 노동력을 제공하지 않을 것을 결의했다. 총회 이후 자유 노조는 시내를 행진하며 표준임금표를 배포했다. 자유 노조의 파업에 선박, 화물 노동자들도 동정 파업에 나섰다. 노동 현장이

31) 정근식·나간채, 1992, 「1920~30년대 광주지역의 노동운동」, 『호남문화연구』 21.

한 곳에 집중되어 있지도 않고, 노동시간도 각각인 자유 노동자들이었으나 놀라운 단결력과 집중력을 발휘한 목포지역의 노동자 임금은 상당한 수준으로 올랐다. 비록 일시적이기는 하지만 표준 임금 제정 이후 목포 자유 노동자들의 임금은 약 50%나 상승하였다.

자유 노조의 파업 투쟁이 성공을 거두자, 목포의 제유공노조도 파업에 돌입하는 등 다른 단체의 노동운동으로 발전하였다. 1896년 목포항 개항과 더불어 부두노동자들이 형성되고, 뒤이어 일본인·조선인 지주의 토지 침탈로 인해 농토로부터 밀려난 사람들이 도시에서 자유 노동자로 되어 갔다.

4) 전남해방자동맹 결성

전남의 여러 지역에서 청년, 노동, 농민운동이 활발하게 일어났다. 먼저 목포에서 그의 활동이 두드러져 보인다. 1897년 개항한 목포항은, 국권 피탈 이전에 부두노동자들의 파업이 8차례나 있을 정도로 노동자 세력이 성장하고 있었다. 국권 피탈 후에는 민족의식까지 보태져 노동운동이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었다.

1925년 12월 목포자유노동조합원들이 임금인상을 요구하다 결렬되자 파업에 들어간 데 이어, 부두를 사용하는 문제를 둘러싸고 전용 인부와 다른 노동자 사이에 충돌이 일어났다. 1920년대 전남에서 일어난 파업 가운데 최대 규모로 평가받은 이 사건은 목포 총동맹의 산하 단체 가운데 가장 낮은 임금으로 고통받던 자유노동조합의 파업을 시작으로 확대되었다.

임금의 통일과 표준 임금의 실현을 요구하며 파업에 돌입한 자유 노조는 1925년 12월 8일 목포 노동 총동맹의 간부들의 지원 속에 노조원들이 모두 출동하여 목포 노동 총동맹의 깃발을 앞세우고 행진했다. 파업 지도부는 조합원들에게 왼팔에 붉은 휘장을 두르게 하고, 부두의 각 요소에서 고용주의 태도와 비조합원의 행동을 감시하였다.

12월 12일에는 임시총회를 열고 표준 임금을 철저히 실행하며 이를

지키지 않는 고용주에 대해서는 노동력을 제공하지 않을 것을 결의했다. 총회 이후 자유 노조는 시내를 행진하며 표준임금표를 배포했다. 자유 노조의 파업에 선박, 화물 노동자들도 동정 파업에 나섰다. 그리하여 비록 일시적이기는 하지만 표준 임금 제정 이후 목포 자유 노동자들의 임금은 약 50%나 상승하였다.

이렇게 목포 자유 노조의 파업이 대규모로 조직적으로 일어난 데는 강석봉의 역할이 컸다. 12월 8일 광주에서 해방운동가 동맹 강석봉, 광주 청년회 한길상, 김재명 3인이 목포에 내려와 현지 노동운동단체와 협력하였다는 기사가 있다. 이는 바로 목포지역 항만 노동자들의 특수성을 잘 아는 강석봉이 이들의 권익을 지켜줌과 동시에 이들을 그의 중요한 세력기반으로 삼으려 하였음을 짐작하게 한다. 그가 1926년 목포에서 공산당 세포조직 야체이키를 목포에서 최초에서 결성할 수 있었던 것은 이러한 배경이 깔려 있다. 말하자면 강석봉은 파업을 지도하며 이곳을 중심으로 사회주의 세력을 거점화하려 하였다.³²⁾

앞서 강석봉은 1924년 9월20일 목포사립회성유치원에서 열린 목포무산청년회의 임시총회에 강사로 참석하여 보천교를 비판하는 특강을 하였다. 목포무산청년회는 강석봉, 배치문, 조극환 등이 주도하여 조직한 단체이다. 강석봉이 사회주의 이념을 목포에까지 확산시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배치문은 1925년 1월 12일 목포에서 무안, 목포지역의 8개 청년운동단체가 모여 결성한 '무목청년동맹'의 의장으로 선출될 정도로 목포지역 내에서 영향력이 큰 인물이다. 이날 회의에 서울청년회에서 축전을 보내고 있는데, 이를 보면 무안, 목포지역 청년단체들도 서울회계와 관련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1925년 11월 나주 공삼면에서 동양척식주식회에 4,500두락의 토지를 빼앗긴 농민들의 항의 시위가 열렸다. 시위는 무려 1만여 명이 참여한 대규모였다. 공삼면에서 농민 항쟁이 일어나기 바로 직전인 1925년 10월

32) 박해현, 『강석봉 평전』.

20일 열린 면민대회가 대규모 시위의 배경이었다. 전남해방운동자 동맹의 강석봉, 광주청년회 김재명, 나주의 농민운동가 이항발이 연설하였다. 이항발 등 나주 농민운동가들이 주관한 면민대회에 강석봉, 김재명이 참석하여 이 대회를 지도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런데 나주지역 청년, 농민운동 활동가들은 서울회계 핵심 인물인 이항발의 영향으로 서울회계와 연결되었다. 나주에서 조선공산당 1차, 2차 사건 때 큰 피해를 입지 않은 것은 청년 운동 세력들이 대부분 서울회계통에 있었기 때문이다.

한편 노동자, 농민운동이 각기 별개로 움직이고 있는 상황에서 통합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바로 해방운동자 동맹이었다. 이 단체는 전남 운동의 제1선에서 뛰고 있는 투사들의 집단 모임이라고 할 수 있는데, 1925년 임민호, 전도, 조극환, 강석봉 등이 발기하여 조직하였다.

이 단체는 전남 노동운동에 대한 전략을 수립하며 이론과 전술을 연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서무, 선전, 조직, 조사, 편집 등의 부서를 설치하여 각기 그 집행위원이 일을 보게 하였다. 전도, 조극환, 강석봉은 모두 수의위친계회원이었다.³³⁾ 이를 보면 수의위친계가 1920년대의 노동, 농민운동의 중심에 있음이 분명해진다.

5) 야체이카 조직과 조선공산당

제1, 2차 조선공산당 사건으로 사회주의 활동이 위축되고 있었다. 특히 화요회계의 타격이 컸으므로, 화요회계와 경쟁하였던 서울회계와 가까운 광주청년회가 주도하는 사회주의 활동은 상대적으로 활발하였다. 강석봉은 서울회계에서 활동한 사회주의자들을 중심으로 공산당 세포조직인 ‘야체이카’를 구축하였다.³⁴⁾

1928년 터진 제4차 조선공산당 사건은 강석봉이 중심이 되어 구축한

33) 『소안면지』, 2019.

34) 박해현, 『강석봉 평전』.

M.L당 조직이 일본 경찰에 노출되어 46명의 조직원이 구속된 사건이다. 이 사건을 통해 강석봉이 결성한 공산당 조직 실체가 드러났다. 2년 가까이 일본 경찰이 수사를 진행하여 기소한 엄청난 사건이었는데, 동아일보 등 국내 신문에는 보도내용이 상세히 나와 있지 않고, 총독부 기관지인 매일신보에만 자세히 나와 있다. 총독부의 보도 통제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신문을 통해 고려공산당원과 고려공산청년회원의 일부를 병합 심리하였음을 알 수 있다. 전자는 화요회계, 후자는 서울회계를 지칭한다. 그리고 M.L당 사건의 핵심인물인 김재명이 강석봉으로부터 공산주의 사상을 배웠다는 사실도 드러나 있다.

사회주의 사상을 이념화하기 위해 1923년 신우회를 결성한 강석봉은 청년, 노동자, 농민, 그리고 학생들을 의식화시키는 활동을 하고 있었다. 김재명, 지용수, 그리고 아우 해석을 확실한 운동가로 육성한 강석봉은 본격적인 공산당 세포조직 건설에 나섰다. '야체이카'는 소련말로 '세포'라는 뜻으로 운동의 가장 하부조직을 의미한다.

강석봉이 가장 먼저 '야체이카'를 건설한 곳이 목포였다. 강석봉이 목포에서 조직한 야체이카를 중심으로 서병인, 김철진, 조극환, 유혁 등이 세력을 키우고 있었고, 조극환이 사회주의 사상을 접한 것은 강석봉에 의해서였다고 판결문에 명확히 나와 있다. 이를 통해 목포에서 해륙물산 중개업 일을 하던 조극환이 1925년 가을 공산주의 사상에 접한 후, 여러 지역을 다니며 이를 전파하러 다녔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강석봉이 목포를 야체이카를 결성할 장소로 가장 먼저 주목한 것은 항운노조와 같은 노동자 조직이 강고하게 형성되어 있었고, 무목청년단체 모임에서 알 수 있듯이 8개에 이르는 청년운동 단체가 있는 등 비교적 농민, 노동자, 청년 운동이 활성화되어 있었기 때문이었다.

여기에서 한일병합 이전부터 이미 부두 노동자의 파업이 있었던 목포를 주목한 강석봉의 영향에 의하였을 가능성이 크다. 목포 사회주의자들의 세력기반인 야체이카 구성에 강석봉이 주도적 역할을 하였음에도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대표적인 것이 『목포시사』

인데, “1926년 9월 결성된 제3차 조선공산당에는 목포의 사회주의자들도 활발히 참가해 목포 지역 세포를 구성했다. 1927년 3월 조극환, 김철진, 서병인 등이 목포 지역 공산당 세포였고 김철진, 설준석, 조문환, 김석순이 청년조직인 고려공산청년회 세포였다. 그러나 목포 세포는 핵심 구성원들이 공개적인 조직인 신간회와 노동연맹에서 극심한 대립을 벌여 지역당 활동도 원활하지 못했고 당 조직이 발각되어 붕괴했다.”라 하였다. 특히 야체이카가 일제의 탄압으로 붕괴된 것을 마치 내부 갈등 탓으로 삼은 것은 재검토되어야 한다.³⁵⁾

목포 다음으로 강석봉이 야체이카 구축에 공을 들인 곳이 제주였다. 제주에 이어 담양, 광주 등에도 야체이카를 조직하였다. 이렇게 공산당 세포조직을 결성하는 과정에 강석봉이 주도적 역할을 하였음이 확인되고 있다. 강석봉이 이들 조직을 결성하면서 들어간 경비가 1만 원이었다. 당시로 말하면 엄청난 거금이었다. 이 비용이 어디에서 나왔을까. 그

강석봉이 사회주의 세력을 구축하는 데 들어간 비용은 그가 1925년 무렵 목포를 왕래할 당시 그곳에 작은 사업처를 운영하며 독자적인 자금을 마련한 것은 아니었을까 추측된다. 이러한 추정은 1934년 귀국하여 이듬해 1935년 목포에 내려갔을 때 강석봉이 바로 사업기반을 가지고 있는데서 짐작할 수 있다. 강석봉이 공산당 조직을 결성하는데 1만 원을 사용하였다는 사실은 1933년 망명지 일본에서 그가 체포되었을 때, 이를 보도한 당시 신문에 나와 있다.

이렇게 강석봉이 엄청난 사재를 투입하면서 혼신을 기울여 야체이카 구축에 노력한 결과 조직이 확장되어 갔다. 광주에서는 강석봉을 비롯하여 김재명, 강영석, 최용운, 한길상, 최창순이 야체이카에, 김재명, 강영석, 지용수, 강해석, 소진호는 고려 공산청년회에 참여하였다. 담양에서는 정병용, 정경인이 야체이카에, 정경인, 김득선, 강원득, 김용표 등이 고려공산청년회에 참여하였다. 목포에서는 조극환, 김철진, 서병인이 야체이카를, 김철진, 설준석, 조문환, 김석순이 고려공산청년회 등에 가담

35) 박해현, 『강석봉 평전』.

하였다. 영광에서는 조용남, 김은환이 야체이카에, 완도에서는 신준희, 최형천, 감사원, 정남국 등이 당의 세포 조직을 구성하였고, 영광회, 위경영, 최평산이 고려공산청년회에 가담하였다.

제1, 2차 조선공산당과 달리 강석봉의 서울회계가 주도한 조선공산당 재건 때는 담양, 장성, 영광, 목포, 완도 등 전남 서부 지역에 야체이카와 고려공산청년회가 주요한 기반이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김재명 등 많은 공산당 관련 인물 체포되었다. 이때 기소된 인물만 46명에 달하고, 김재명은 고문 끝에 옥사하였다. 이 사건은 수사가 마무리되는 데 무려 3년이 걸릴 정도로 파급력이 컸다. 강석봉은 다행히 일본 경찰에 피체를 면한 채 일본 망명길에 나선다.

일제의 식민지 차별 교육과 학생의 저항

1. 민족의식을 자극한 차별교육과 동맹휴학

1) 1920년대 식민지 교육의 실상

조선을 강제로 병합한 조선총독부는 1911년 8월 23일 칙령 제229호로 조선교육령을 공포하였다. 이른바 제1차 조선교육령이다. 교육령은 이후 2차례 더 개정되었다. 식민통치 시작 이후 1년 만에 제정된 제1차 조선교육령은 개별 학교규칙에 근거하여 학교를 운영하던 것에서 벗어나 하나의 교육령으로 종합한 것으로 식민지 시기 조선의 학교 제도의 현실을 규정하는 것이었다.

3·1운동 후 일제는 교육제도 및 교육과정을 개정하였다. 1920년대 국내의 교육체제는 1922년 개정된 제2차 교육령에 기초하였다. 소위 ‘일시동인(一視同仁)’을 내세우며 내지(內地) 연장주의를 채택한 2차 교육령은, 학교 종류 및 수업연한에 있어 일본과 동일한 보통학교 6년제 학제를 채택하고 소위 ‘내선공학(內鮮共學)’을 규정하였다.¹⁾ 그러나 실제에는 ‘국어 상용’과 ‘국어 비상용’으로 구분하여 소학교-중학교(국어 상용)의 계통과 보통학교-고등보통학교(국어 비상용)의 2원적인 체계로 이루어졌다. 보통학교 학제에서는 제1차 교육령에서 4년제의 조선 학생과 6년제

1) 김성민, 2006, 「광주학생운동연구」(국민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의 일본 학생 사이에 두었던 차별을 6년으로 통일하였지만 일인 학교와 한인 학교 사이에 시설, 지원 등에 차별을 가하고 있었다.

1920년대 들어 일제는 3면 1교 정책을 추진하였다. 조선인들의 뜨거운 교육열은 3면 1교 정책을 예정보다 빨리 달성하고, 1면 1교가 가능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보통학교는 1919년 당시 학교 수 517교, 학생은 8만 9천여 명이었으나 1920년부터 학교 및 학생이 급증해 1929년에는 학교 수 1,582교(공립 1,500교, 사립 82교), 학생 수 47만여 명에 달했다.

보통학교의 대부분은 공립 보통학교였다. 전체 보통학교 학생 중 공립 보통학교 비중은 1920년 96%, 1930년 95%였다. 사립학교 비율이 낮은 이유는 일제가 보통학교 설립 인가권을 장악하고 교육의 목적과 교육과정, 교사의 자격 등에 대해 강력한 통제를 가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사립학교는 재정적으로 취약했다. 공립학교의 경우 총독부로부터 국고보조나 지방비 보조를 받았으나 사립학교는 수업료에만 의존해야 했으므로 경영난을 겪는 경우가 많았다.²⁾ 학교 설립의 통제는 중등학교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었다. 중등학교의 설립기준을 강화하여 각종 사립학교의 중등학교 전환을 막았다. 이에 따라 사립학교의 중등학교 전환과 학교 시설개선을 요구하는 맹휴가 빈발하였다.

일제가 겉으로 내선공학(內鮮共學)을 표방하였지만, 조선인과 일본인 사이에는 교육 차별이 심하였다. 취학률에서 현저한 차이가 있었다. 1920년 당시 보통학교의 경우 인구 1만 명 당 조선인 학생이 63명인데 비해, 일본인 학생은 1,265명으로 20배의 차이가 났다. 1920년대 보통학교 증설 운동의 결과로 1929년에는 인구 1만 명 당 한인 학생이 252명으로 늘어났지만 일인 학생은 1,329명으로, 여전히 5배나 격차가 컸다. 이 때문에 조선인들은 보통교육의 의무교육을 강력히 요구하였다.

한편 중등학교의 경우에는 1929년 당시 조선인 학생이 인구 1만 명 당 15명에 불과한 데 비해, 일본인 학생은 3백 명으로 24배 차이가 났다. 고

2) 1922년 설립된 사립 송정중학원도 운영난으로 1927년 문을 닫으려 해 사회문제가 되었다. (동아일보, 1927. 3. 20)

등교육은 인구 1만 명 당 한·일 학생 수 차이가 39배나 되었다.

1928년의 경우, 고등보통학교, 실업학교, 실업보습학교 등 입학 지원자는 31,387명이었지만 입학자는 8,969명으로 합격률이 28.6%에 불과하였다. 하지만 총독부는 중등학교의 신설에 소극적이었다. 이에 조선인들은 중등 및 고등교육 기관의 절대 부족 문제를 들어 총독부 교육정책을 비판하며 중등학교 설립 운동을 전개하였다. 그러나 총독부는 중등, 고등교육의 팽창을 억제하는 ‘우민화’ 정책으로 일관하였다.³⁾

표 6. 보통학교 한일 교육 비교 (1928년)

구분	한인	일인
인구총수	18,667,334	469,043
학교 수	1,581	461
학생 수	466,217	57,432
인구대비 아동수의 비	40	0.8
학령 아동수	2,240,000	57,604
백명 중 취학률	20%	99.7%

표 7. 중등학교 이상 한·일 교육 비교 (1928년)

구분		학교 수	학생 수	
중등학교	한인	남자	24	11,457
		여자	15	3,760
	일인	남자	11	5,860
		여자	23	6,841
각종실업학교	한인	50	8,077	
	일인		3,812	
각종보습학교	한인	69	2,530	
	일인		982	
사범학교	한인	14	1,224	
	일인		617	
전문학교	한인	11 (관 5, 사 6)	1,289(사립 917)	
	일인		981(사립 175)	
대학교	한인	1	275	
	일인		957	

3) 김성민, 위의 논문

한편 한국인 학교의 교육 여건은 열악하였다. 다음은 각급 학교의 한·일 교사 총수 비교표이다.

표 8. 관·공립 각급 학교 한일교사 총수 비교표

학교 구분	일본인	한국인
관공립 보통학교	2,412	6,194
공립고등보통학교	315	50
공립고등여자보통학교	69	19
관공립 사범학교	161	30
각종 실업학교	545	102
공립 보습학교	258	72
관립 전문학교	222	21
경성제대	705	155

출전: 朝鮮總督府 學務局 『朝鮮諸學校 一覽』, 1929년 5월말⁴⁾

위 표에서 보듯이 일본어를 조금도 말하지 못하는 한국인 아동을 가르치기 위해서 보통학교에 조선인 교원이 일본인 교원보다 2배 반 정도 많다. 나머지 학교에서는 모두 일본인 교원이 월등히 많다. 일제의 구분에 따라 ‘국어(한국어)를 상용하지 않는’ 학교로서 한국인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고등보통학교와 여자고등보통학교 경우에도 일본인 교사가 압도적으로 많았다. 이들 다수의 일본인 교사들은 경찰과 긴밀한 연락 하에 학생을 감시하고 탄압을 가했다.

심지어 학생의 블랙 리스트를 만들어 감시하고 상급학교 진학 시에는 진학 사정의 중요한 자료로 활용되었다. 요주의 학생은 상급학교 진학이 사실상 불가능하였다. 학생에 대한 감시는 교사에 의해서만 이루어지지 않았다. 학생들의 학교 외 생활을 감시하고 통제하기 위해 교외 감독이 실시되었는데 이 경우 보조감독을 선임하여 교사를 돕도록 하였다. 보조감독은 학부모 또는 상급생 중에서 선발하였는데 학생의 행위를 조사 보고하는 역할을 맡고 있었다. 이들이 내부 밀고자의 역할을 하고 있었다.

4) 김성민, 위의 논문 재인용.

이렇듯 각급 학교에서 일본인 교사를 채용한 관계로 일본에서 신규 교사를 들여와야 할 형편이었다. 이들은 한국을 처음 구경하고 한국말은 물론 한국의 풍속과 역사를 전혀 모르는 이들로, 자연 교육 현장에서 학생들과 마찰을 빚을 수밖에 없었다. 보통학교의 경우, 교사는 한국인이 일본인보다 많았으나 학교장은 일본인이 많았다. 1927년 당시 전국 1,338개의 보통학교 중에서 한국인 교장은 18명에 불과하였다.

한·일 학교의 차별은 총독부 당국의 지원에서도 두드러졌다. 학교 경비의 보조에도 한·일 학교 간에는 차별이 8배나 되었다. 여기에도 교육 여건, 즉 학교시설 자원에서의 차별도 이어졌다. 한국인들은 일본인보다 시설과 재정이 열악한 학교에서 공부하였다. 일제 식민통치 정책 가운데 교육에서의 차별이 가장 심각했고, 특히 한국인 학생과 일본인 학생에 대한 교육 여건이 비교되기 때문에 차별성이 부각되었다.

1920년대에 ‘조선인 본위의 교육’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던 것도 처음에는 교육 시설에서 일본인 중심주의에 대한 저항의 측면이 강했다고 하겠다. 일반적으로 1920년대 중반까지 제기된 ‘조선인 본위의 교육’은 교과과정 상의 요구보다는 교육 시설·교원 등 외형적 측면에서 한국인을 우선으로 한 교육을 의미하는 경우가 많았다.

한·일 학생의 차별은 이러한 외형적인 지원의 차이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었다. 교육내용에서도 식민교육이 철저히 시행되었다. 1922년에 개정된 제2차 조선교육령 중 보통학교의 교육 목적은 “생활에 필수한 보통의 지식 및 기능을 수여하여 국민으로서의 성격을 함양하고 국어를 습득시킬 것”이었다. 고등보통학교 교육 목적도 이와 유사하여 “국민으로서의 성격을 양성하고 국어에 숙달시킬 것”이었다. 이에 따라 교과과정은 일본어의 습득과 일본 정신의 주입에 맞추어 구성되었다.

고등보통학교 국어의 경우 ‘本語及漢文(본어와 한문)’ 곧 일본어와 한문은 주당 32시간으로 배정되었으나 ‘朝鮮語及漢文(조선어와 한문)’은 12시간에 불과하였다. 한문을 포함함으로써 조선어 교육을 최대한 약화하려는 의도를 알 수 있다. 그나마 조선어 단원이라는 것도 『日鮮兩語 語法

의 비교』 등과 같이 일본문화와 관련되어 ‘內鮮一體’, ‘日鮮同源’을 강조하는 것들이 많았다.⁵⁾

『조선어독본』 교과서가 일본 기원설의 유래를 설명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모든 교과목에 일본의 시정과 일본문화를 선전하는 내용을 삽입하여 일본 정신을 가르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었다. 역사의 경우 제2차 조선교육령에서는 6년제 보통학교 교과 과정에 역사(일본 역사)와 지리 교과가 신설되어 5, 6학년에 각각 주당 2시간씩 배정되었다. 고등보통학교에서는 한국의 「역사 및 지리」는 완전히 배제되었다. 일본사를 가르치는 「역사지리」 과목이 있을 뿐이었다. 일본 역사의 장구함과 위대성을 교수하는 교육내용이었다.⁶⁾

그런데 일본사와 관련된 ‘조선에 관한 사항’은 ‘임나일본부’ ‘신공황후의 신라침공’ 등 식민사관을 강조하는 것 일색이었다. 학생들은 조작된 한국사만을 강제로 배워야 하였고 독자적인 한국사 교육은 전혀 배제되었다. 교과내용 자체가 이러하였으므로 교육과정에서 일본인 교사의 한국인 멸시적 태도는 일상적으로 자연스럽게 표출이 되었다.

이러한 교사의 민족 모멸적 태도는 학생들의 반감을 일으켜 학생 동맹휴학의 큰 요인이 되었다. 동맹휴학이 아니더라도 학생들의 반감은 상존하였다. 일제는 특히 역사, 지리 등을 통해 일본의 위대성과 한일병합의 당위성 등을 강조하려 하였다. 수신·일어·역사·지리 등의 교과목에는 사립고등보통학교에서도 일본인 교원 채용을 강요하였다.

무엇보다도 학생들을 가장 힘들게 한 것은 교수용어가 일본어라는 점이었다. 배우는 내용과 교사의 설명, 학생의 대답이 모두 일본말로 이루어졌다. 따라서 일본어에 익숙하지 않은 보통학교 학생들은 교과과정에서 도태되기 쉬웠다. 그러나 사립학교의 경우는 예외였다. 한인 교원이 다수였으므로 교수용어가 한국어였다.⁷⁾ 민족의식이 강한 학부모들이 사

5) 김성민, 앞의 글.

6) 김성민, 위의 글.

7) 박해현, 『독립운동가 의사 김범수 연구』.

립 고창고등보통학교를 선택한 것은 이러한 이유 때문이었다.

1928년 朝·日 共學의 범제화가 거론될 때 한국인 사회에서 적극적으로 반대한 이유 중 하나가 공학으로 하였을 경우 교수용어를 일본어로 해야 한다는 점이었다. 이러한 일제의 민족 차별과 식민지 교육은 민족 의식이 있는 조선 학생들의 강한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누구보다 민족의식이 강한 이경채가 식민지 교육을 비난한 까닭이 여기에 있었다.

2) 1920년대 동맹휴학의 전국적 양상

일제의 차별화된 교육정책은 어린 조선 학생들의 자존감을 자극하였다. 1919년 전국적으로 일어난 3·1운동으로 독립에 대한 열망과 자신감을 확인한 학생들은 항일운동의 전면에 나섰다.

1920년대 학생운동은 주로 ‘동맹휴학’ 형태로 전개되었다. 학생들은 학교 당국에 일정한 요구조건을 내걸고 등교 거부, 수업 거부, 농성 등을 행하였다. 이 가운데 수업 거부가 일반적인 저항의 형태였다. 학생 맹휴의 연도별 발생 건수는 다음과 같다.

표 9. 1920년대 동맹휴교의 발생 건수⁸⁾

연도	1921	1922	1923	1924	1925	1926	1927	1928	1929	계
건수	23	52	57	14	48	55	72	83	78	482

3·1운동 직후부터 시작된 학생 맹휴는, 1925년을 기점으로 확산되고 있었다. 1927년에는 전국 13도에서 맹휴가 일어났다. 맹휴가 전국적 현상이었다. 1928년에 들어서는 맹휴의 발생 건수뿐만 아니라 참여 학생 숫자도 큰 폭으로 늘어났다. 1928년 4월부터 10월까지의 6개월간 전국 54개 학교에서 맹휴가 일어났고 참가 학생이 1만여 명에 달하였다.⁹⁾ 일본인 학교에서는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다. 맹휴의 성격을 잘 말해주고

8) 조선총독부 경무국, 『最近ニ於テ 朝鮮治安狀況』; 김성민, 위의 글 재인용.

9) 동아일보, 1928. 3. 15.

있다.

학생맹휴의 양적 성장과 더불어 맹휴의 성격도 변화하고 있었다. 1921~1928년 당시 발생한 맹휴의 원인을 총독부 경무국에서 다음의 6가지로 구분하였다.¹⁰⁾

- ① 학교설비, 校規, 校則, 학과 기타 : 232건
- ② 교원 배척 : 434건
- ③ 학교 내부 일 : 44건
- ④ 생도 개인 문제 : 13건
- ⑤ 지방 문제 : 5건
- ⑥ 민족의식 및 좌경사상 : 74건

맹휴 원인으로 ‘교원 배척’ 사유가 가장 많았다. 228건이 일본인 교원, 197건이 한국인 교원, 7건이 외국인 교원 배척이었다. ‘교원 배척’은 1927년을 기점으로 증가하고 있었다.

교원 배척의 원인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인격 및 소행 언행’ 등이 원인인 경우가 123건, ‘교수법에 대한 불만이 120건으로 전체의 반 이상을 차지했다. ‘인격 및 소행 언행’으로 인한 일본인 교원 배척은 1925년 5건, 1926년 10건이었던 것이 1927년에는 22건으로 증가했다. 대부분이 민족 감정을 자극하는 교사의 행위가 원인이었다.

“鮮人は 망국민으로 위험 사상을 포지(抱持)하고 혹은 권리만을 주장하고 의협심을 망각한다는 등 항상 모욕적 언사를 농담하므로 생도의 반발을 사고 있다가 우연히 수업 시간에 지각한 생도를 엄하게 혼내는 것을 동기로 하여 배척하는 맹휴의 전개¹¹⁾”

10) 조선총독부 경무국, 1929, 『朝鮮ニ於ケル同盟休校ノ考察』, 김성민, 위의 글 재인용

11) 조선총독부 경무국, 『朝鮮ニ於ケル同盟休校ノ考察』

1927년에는 맹휴의 성격이 민족 감정적 차원이 강하였다면 1928년에는 식민교육 자체를 정치투쟁의 대상으로 삼고 있었다. 1921~28년간 ‘민족의식 및 좌경사상’에 의한 맹휴는 총 74건이었으며 중등학교에서 65건, 보통학교에서 9건이 전개되었다. 보통학교의 맹휴는 대체로 한국인 차별철폐, 한국인 교원 채용 요구로서 정치적 성격이 약하였다. 반면 ‘민족의식 및 좌경사상’의 경우는 중등학교 학생들이 주로 주도하였다. 1927년에는 학우회, 교우회의 자치문제가 처음으로 제기되었다. 조선어 교육 증가, 조선 역사 교육, 언론 집회 출판의 자유 등도 제기되기 시작하여 1928년에 들어 더욱 확대되었다.

이러한 요구는 식민지 교육 자체에 대한 보다 직접적인 저항으로 표출되면서 정치적 성격을 강화해 갔다. 즉 “조선 교육제도는 일본의 압제 하에서 일본의 신민화(臣民化)하려는 것이므로 조국을 위해 반대해야 한다”는 이유가 8건, “맹휴를 민족운동의 일 수단으로 하여 단체항쟁의 시련으로 삼는다”는 이유가 4건에 달하여 전체 74건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런데 ‘일본 신민화 교육 반대’의 8건 중 6건이 사립 중등학교에서 일어났다. 한국인 교사가 많았던 사립학교에서 신민화 교육 거부 투쟁 즉 식민지 노예교육 거부 투쟁이 많았던 것은 비교적 맹휴 활동이 용이하였기 때문이었다.¹²⁾ 교내 언론, 집회, 결사의 자유 요구 등 교내 활동의 자유를 억압한 맹휴는 대부분 공립학교에서 일어났다. 공립학교가 사립학교보다 훨씬 억압적인 분위기였음을 말해주고 있다.

이처럼 맹휴의 양상이 정치투쟁으로 발전하자 총독부에서는 학생운동 대책을 수립하였다. 1927년 중반까지만 해도 총독부 당국은 맹휴의 원인이 무자격 교원이나 인격, 소양, 지식 등의 소양이 부족한 교원에 대한 저항, 또는 민족적 반감에 의한 일인 교사 배척 등 교사 개인 신상의 문제로 파악하고 있었다. 따라서 총독부의 대책도 문제를 일으킨 학생 개인 관리를 철저히 하는 수준이었다.

12) 대표적인 사립중등학교가 고창고등보통학교였다.

그러나 1927년 중반 이후 맹휴의 요구사항과 투쟁 양상이 정치성을 띠기 시작하자 총독부의 맹휴 대책도 변화하기 시작하였다. 총독부 당국에서는 사상단체나 노동운동 단체가 개최하는 강습회, 연설회 등에 학생들이 참석하지 못하도록 각 도지사에 훈령을 내려 재학생과 사회 인사의 연결을 차단하려 하였다.

맹휴가 끊이지 않자 고보 입학 당시부터 학생의 소질과 가정환경을 엄밀히 조사하여 사상 검증을 거치도록 하였다. 학생의 소행조서는 보통 학교 교장이 작성토록 하였다. 학생 집회를 엄중히 감시하기로 하였다. 사립학교 규칙을 개정하여 교원의 자격에 사상문제를 중시하기로 협의하기도 하였다.

2. 학생운동의 성격 변화

1) 사회주의 사상의 유입과 학생운동

1927년을 계기로 민족운동에서 정치 운동으로 투쟁의 성격이 변화하고 횡수가 늘어나고 있었다. 이처럼 학생운동의 양적, 질적 변화에는 사회주의 영향과 관련이 있다. 1920년대 후반 학생운동은 겉으로는 동맹휴교가 주류를 이루었지만, 이면에는 활발한 사회주의 비밀결사의 활동이 있었다.

서울의 경우 조선학생과학연구회가 직접 각 개별학교에 독서회를 조직하여 맹휴투쟁을 대중 운동화 하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또 개별 학교의 맹휴 활동에도 직접 개입하여 맹휴를 지도하거나 격문을 통해 투쟁 방향, 요구조건 등 이념적 지향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전개되었다.¹³⁾

광주고보, 광주사범, 광주농업학교, 진주고보, 대구고보, 북청고보의 맹휴에는 각 학교의 독서회 조직이 깊이 개입되어 있었다. 여기에 일본 내 사회주의 단체도 국내 학생운동의 전개에 큰 영향을 주었다. 일본 내

13) 이하 서술은 김성민, 위의 글 39~40쪽.

신흥과학연구회, 재일본 조선청년동맹 등에서 국내에 배포한 격문 등은 맹휴투쟁의 방향을 설정하는 데 크게 작용했다. 이는 곧 맹휴의 요구사항이 종래 설비문제, 교원자격 문제 등 개별학교 차원에서 ‘조선인 본위 교육’, ‘자치권 획득’ 등 교과과정이나 식민지 교육 자체에 대한 투쟁으로 발전하였다.

맹휴를 사회주의 비밀결사가 지도하면서 1920년대 초반보다 조직성과 투쟁성이 더욱 강화되었다. 맹휴 전개 과정에서 개별 학교 차원의 맹휴 투쟁본부가 결성되는가 하면 이탈자를 막기 위해 철권단 등 학생결속조직이 생겨나는 등 맹휴 지도 조직이 생겨났다.¹⁴⁾ 이에 따라 맹휴의 투쟁성이 더욱 강화되어 갔다.

1927~1928년에 걸쳐 전개된 함흥고보의 맹휴에는 맹휴 주체들이 사회단체와 전국 중등학교에 “전조선 피압박 동지제군에 격함”이라는 성명서를 우송하여 식민지 교육제도를 통박하고 맹휴의 정당성을 호소하였다. 함흥 고보 맹휴는 동조 맹휴를 촉발하는 등 학생 맹휴의 전국적 확산을 촉발시켰다. 동조맹휴 등 연대 투쟁이 제기되어 개별단위 학교 차원의 맹휴가 지역 차원으로 발전하는 경향을 보였다. 함흥고보와 함흥농교, 함흥상업학교, 진주고보와 진주농업학교의 경우 동조맹휴를 통해 학교·지역 간의 연계가 강화되고 있었다. 함흥고보 맹휴에 대한 재동경신흥과학연구회, 재일본조선청년동맹 등의 지지 격문에 잘 드러나 있다.

一校 一地方의 문제가 아니고 전조선학생, 전조선 민족의 문제이다, 이상의 3 개 학교의 학생은 전조선 학생의 절실한 요구와 이익을 대표하여 싸우고 있다. 그런 고로 전조선 학생은 이들의 용감한 투쟁을 힘있게 지지하지 않으면 안 된다.¹⁵⁾

1929년 4월에는, 오는 6월까지 2개월간 조직적으로 동맹휴학을 단행

14) 김성민, 41~42쪽.

15) 조선총독부 경무국, ‘朝鮮ニ於ケル同盟休校ノ考察’.

할 것을 촉구하는 격문이 서울의 각 중등학교에 배부되기도 하였다. 이러한 동맹휴학의 경향은 맹휴의 이슈가 식민지 교육의 본질적인 문제로 확대되면서 연합시위로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이 되었다.

2) 동맹휴학의 성격 변화

1920년대 맹휴는 1927년을 기점으로 그 성격이 크게 변화하였다. ‘학우회의 자치’, ‘조선인 본위 교육’ 등의 요구가 본격적으로 제기되고 사상적 경향을 띠었다. 1927년 맹휴에서 학우회의 자치 요구가 가장 앞에 있었다.¹⁶⁾

학우회가 학내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개별학교 차원의 유일한 교내 합법조직이자 학생 의사 결집 통로였다. 학우회의 자치회 전환 문제가 1927년 들어 새롭게 부각이 된 데에는 1927년 신간회 창립 등의 사회여건 변화가 작용하였다. 학생을 세력기반으로 삼으려 한 고려 공산청년회의 활동도 적지 않은 영향을 끼쳤다.

조선학생과학연구회에서는 1927년 말~1928년 초 학생운동단체의 통일을 위해 조선학생회와의 통합을 적극적으로 모색하였다. 1928년 4월 15일 고려공산청년당 야제이카를 회원을 중심으로 상무집행위원을 선정하는 조선학생과학연구회의 총회에 학생단체의 통일문제가 의안으로 상정되기도 하였다.

조선인 본위 교육문제는 이미 3·1운동 직후에 나왔다. 1921년 선린 상업학교의 조선인 학생 130여 명이 “조선인을 본위로 하여 교육하여 달라”는 결의문을 제출하고 일제히 동맹휴학을 전개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이 사회적 이슈로 자리 잡지 못하고 오히려 민족적 감정을 자극하는 교사 배척, 학교설비나 교칙 문제 등이 맹휴의 주된 요구사항이었다. 그러다 1926년 6·10만세 운동 당시 조선공산당에서 작성한 격문에 “조선인 본위의 교육”이 제기됨으로써 다시 환기되었다. ‘조

16) 김성민, 앞의 논문.

선인 교육은 조선인 본위로, '보통학교 용어를 조선어로' 등의 요구는 1927년 이후 맹휴의 요구사항으로 이슈화되는 계기가 되었다.

1924년 조선청년총동맹의 임시대회에서도 '교육의 민중본위', '보통교육의 증설', '보통학교에서 조선어 사용', '의무교육의 실시' 등을 교육문제로 논의 한 바 있었다.¹⁷⁾ 1925년 11월에 창립한 조선학생과학연구회의 강령 중에 '인간 본위 교육 실시'가 포함되어 있는 것도 '조선인 본위의 교육' 문제가 당시 학생들에게 심각하게 인식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1926년 6·10만세운동 당시 조선공산당의 격문에서 제기된 학생관련 표어는 대체로 보통학교 교육과 관련된 것이었다. 보통교육의 현장에서 일인 교사들이 일본어로 진행되는 교육은 보통학교 학생들에게는 큰 부담이었을 뿐 아니라 그 자체가 식민지 교육을 강요하는 것이었다. 따라서 교육 용어를 조선어로 하라는 주장은 교육현장의 절실한 요구를 구체적으로 반영한 것이었다.

이러한 이유로 보통학교 교원을 전부 조선인으로 채용하라는 요구, 절대다수가 일본인으로 구성된 학교장을 조선인으로 교체하라는 주장이 끊임없이 나왔다. 이는 '조선인 본위의 교육'이라는 구호로 포괄적으로 제시되었다.

1928년에 일어난 맹휴 배경으로, '조선의 교육제도는 일본의 압박 아래 일본 신민화(臣民化)', '맹휴를 민족운동의 한 수단으로 삼는다는 이유가 크게 대두하였다. 아울러 '학교 내의 집회·언론·출판의 자유'에 대한 요구도 증가하였다. 이는 교내 독서회 결성의 금지, 교우회지 출판의 통제 등에 따른 요구였다.

1927~28년의 맹휴에서 새롭게 제기된 문제가 학원과 경찰의 문제였다. 학교 당국과 경찰이 야합하여 교내 수색과 체포를 자행하는 것에 대한 문제 제기였다. 종래 맹휴가 발생하면 학교 당국에서 경찰에 연락하여 맹휴 학생을 해산하거나 연행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런데 1927~28년에 들면 이러한 행위가 적극적인 성토의 대상이 되고 있었다. 1929년 11

17) 김준엽·김창순, 1990, 『한국공산주의 운동사』 2.

월 19일 목포상업학교 학생들은 광주학생들의 검거에 항의하여 동조시위를 전개할 당시 사전에 전화선을 절단하였다. 이 일을 담당한 박사배는 예심 신문 당시 “언제든지 학교에서 무슨 일이 발생하는 때에 반드시 학교에서 경찰에 전화를 걸어 보고함”이라고 하여 학교와 경찰의 연락을 차단하기 위해 전화선을 절단하였다고 진술한 사실에서 이를 알 수 있다.¹⁸⁾

3) 학생운동 조직의 기반 확대

1920년대 후반에는 맹휴가 전국적으로 확산됨과 아울러 학생운동의 조직화가 빠른 속도로 이루어졌다. 학생운동 조직의 발달은 맹휴의 확산과 상호 보완관계를 이루고 있다. 1920년대 중반 경성에 있는 대표적인 학생운동조직은 조선학생과학연구회와 조선학생회였다.

조선학생회는 1920년대 초 고등보통학교 학생들의 탈퇴로 전문학교 학생들로만 구성되면서 세력이 크게 위축된 가운데 “노골적 행동을 피하고 구체적 주의 선전을 피하는” 경향을 띠고 있었다.¹⁹⁾ 반면, “사회과학 보급, 학생의 사상통일과 상호단결, 인간분위 교육의 실시, 조선학생당면문제의 해결”을 강령으로 1925년 11월에 결성된 조선학생과학연구회는 1926년 화요회계, 고려공산청년회와 연계하여 6·10만세운동을 주도함으로써 학생운동의 주도적 단체로 부상하였다.²⁰⁾ 이로 인해 조선학생과학연구회는 조직 구성원들이 체포되고 한때 조직 자체가 폐쇄되기도 하는 등 활동에 많은 제약을 받아야 했다.

1927년 조선학생과학연구회가 체제를 정비할 때 고려공산청년회의 역할이 있었다. 고려공산청년회에서는 조선학생과학연구회 내 학생 야채이카를 이용하여

18) 소화 5년 형공합 제11호 및 제12호(광주지방법원 형사부 1930. 3. 20).

19) 김성민, 앞의 글.

20) 장석홍, 1994, 「조선학생과학연구회의 초기 조직과 6·10만세운동」, 『한국독립운동사 연구』.

“조선의 교육제도는 제국주의 옹호의 노예교육임을 강조할 것, 조선 민족의 민족적 존엄을 유린하고 민족정신을 마비시키기 위해 조선어 교수를 금지하고 조선역사의 교수를 폐지하고 있는 점, 각 학교의 학생회를 자치회로 할 것”

등을 선전하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조선학생과학연구회내 학생야체이카 회원들은 일본 사회주의 단체에서 작성하여 국내로 우송하는 격문을 각 학교에 배포함으로써 동맹휴학을 촉발하는 역할을 하였다. 그러나 조선학생과학연구회는 개별학교의 맹휴를 직접 지도할 수 없었기 때문에 분산된 학생운동 단체의 활동을 통일시키는 데 집중되었다. 조선학생과학연구회는 이를 위해 전문학교 학생들이 중심이 된 조선학생회와의 연대에 적극 나섰다.

하지만 조선학생과학연구회의 학생운동조직 통일 활동은 1928년 2월 제3차 공산당사건으로 고려공산청년회 간부들이 체포되고 조선학생과학연구회 학생야체이카의 활동이 정지되면서 위축되고 말았다. 1928년 3월 제4차 고려공산청년회의 결성과 동년 4월 조선학생과학연구회의 조직 개편이 맞물리면서 조선학생과학연구회의 활동은 다시 전환점을 맞게 되었다. 제3차 고려공산청년회의 와해 이후 1928년 3월 새로이 고려공산청년회의 책임비서에 선임된 김재명은 학생운동에 주력하기로 하고 고려공산청년회에 학생부를 신설하였다.²¹⁾

고려공청은 학생부를 조직하여 조선학생과학연구회 지도부를 장악하였다. 이들은 각 학교 내에 독서회를 조직하여 사회과학에 관한 지식을 가르친 후 그 중 우수한 학생들을 조선학생과학연구회에 가입시켜 조선학생과학연구회의 세력을 확장하는 한편 이들을 통해 각 학교의 맹휴활동을 지도할 것을 계획하였다.

이러한 조선학생과학연구회의 시도는 학생운동 조직이 1920년대 초반의 표면 단체 중심에서 1920년대 후반의 비밀결사 조직체로 전환하는 단

21) 박해현, 『강석봉 평전』.

면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와 같은 비밀결사는 소규모로 결성된 반면 강한 응집력을 갖고 있어 일제의 감시를 피해 효과적으로 학생운동을 전개할 수 있는 실천조직이었다. 조선학생과학연구회는 지방 학교에도 독서회 결성을 추진하였다. 하계방학을 맞아 귀향하는 회원들이 지방 학생들을 지도하여 해당 지역 학교에 독서회를 조직토록 함으로써 독서회 조직의 전국 확산을 도모하였다.²²⁾

그런데 이경채는, 1926년에 이미 독서회 활동을 하고 있었다.²³⁾ 그가 참여한 독서회는 조선학생과학연구회와 연결된 것이 아니라 사회주의 이념 서적을 읽는 자생적인 독서회의 성격에 가깝다. 곧 독서회 활동을 무조건 조선학생과학연구회와 연결시켜 생각하는 것은 유의해야 한다. 다만, 광주 청년동맹, 송정 청년동맹 등 광주 지역 사회 운동 단체들이 이 지역 사회주의 사상을 뿌리내리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 강석봉, 김재명과 관련을 맺고 있었다.²⁴⁾

조선학생과학연구회는 1926년 6·10만세운동 당시 시위활동의 주체로 부상한 이후 일제의 탄압으로 활동이 위축되었다가 1927년에 들면서 조직을 재정비하였다. 이러한 활동에는 고려공청의 학생 야체이카가 중심이 되었다. 이들은 1927년 말~1928년 초 조선학생과학연구회의 조직 정비와 더불어 전문학교 학생 중심의 조선학생회와 적극적인 통합을 추진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시도는 1928년 2월 고려공청이 발각되며 와해되었다.²⁵⁾

1929년의 조선학생과학연구회 집행위원회에는 다양한 성향의 인물들이 포진하였다. 조선학생과학연구회는 표면단체로 활동하면서 학생운동계 공동의 광장을 마련하였고, 이를 인적 기반으로 각 개별학교에 비밀

22) 김성민, 앞의 글.

23) 이경채는 광주고보 3학년인 1926년부터 사회과학을 공부하는 비밀조직 독서회를 조직하였다고 하였다. (『투쟁경력』)

24) 박해현, 『광주동구인물』 2.

25) 김성민, 앞의 글.

결사가 발달할 수 있는 기초를 제공하고 있었다.

4) 학생 비밀결사의 확산

1926년 6·10 만세운동을 주도했던 조선학생과학연구회는 활동에 많은 제약을 받아 서울에서는 별다른 활동을 하지 못하였다. 반면 6·10 만세 운동 당시 전국적으로 망곡(望哭)을 통해 민족의식이 제고된 지방의 학생들은 독서회를 통해 그들의 의식을 체계화하였다.

독서회에서는 식민지 현실을 과학적으로 비판한 사회주의 서적을 주로 학습하였다. 빈곤의 원인을 과학적으로 설명한 사회주의 이론은 학생들에게 암담한 현실의 원인과 해결책을 동시에 제시해 주는 나침반이었다. 1927~28년 지방에서 결성되는 학생운동 모임의 주류는 사회주의 공부 모임이었다.

이경채가 광주고보 동료 및 지역 청년들과 사회주의 이념 서적을 읽는 모임을 만든 것도 이러한 시대 분위기와 깊이 관련되어 있다. 이경채가 작성한 「투쟁경력」에 당시 사정이 자세히 설명되어 있다.

1926년 5월 전남 광주고등보통학교 3학년 시절부터 독서회를 비밀 조직하여 사회 과학방면 학문을 연구 토론하였다. 이 모임 멤버는 박병하²⁶⁾, 윤해병²⁷⁾, 양태성²⁸⁾, 유병후²⁹⁾, 김무삼³⁰⁾ 등이었다. 당시 광주고등보통학교 내부에는 각 학년마다 독서회가 성행하고 있었다.³¹⁾

26) 박병하는 일본 관서대 중퇴생으로 왜 관헌의 고문과 옥고로 인한 폐병으로 일본에서 사망하였다.(이경채, 「투쟁경력」)

27) 윤해병은 후에 이경채와 거사한 동지로 집행유예 2년 형을 받았다.(이경채, 「투쟁경력」)

28) 양태성은 이경채의 광주고보 동료로, 일본 망명 후 독립운동하다 체포되어 고문으로 인한 정신착란으로 狂人이 되었다.(이경채, 「투쟁경력」)

29) 유병후는 이경채의 광주고보 동료로, 고문으로 사망하였다.(이경채, 「투쟁경력」)

30) 김무삼은 이경채의 광주고보 동료로, 1929년 11월 광주학생운동의 주동자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았다.(이경채, 「투쟁경력」)

31) 이경채, 「투쟁경력」.

이경채의 증언에 따르면 학교 안에 적지 않은 독서회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독서회 명칭이 따로 있는 조직적인 것도 있지만 각 학년에 독서회가 ‘성행’하였다는 표현에서 자생적으로 간단히 ‘스터디’를 하는 모임이 상당수 있음을 알 수 있다.

1929년 사범학교 독서회원으로 광주학생 시위로 구속되어 재판을 받던 강달모³²⁾가 복심법원 재판부에 제출한 진정서에 사회과학 독서회 결성 배경이 잘 나타나 있다.

사회의 생활난의 소리는 우리들의 귀에도 들려온다. 세사에 먼 동정심이 강렬한 시기에 속한 중학생은 곧바로 동정하게 되는 것은 인정의 일상, 한편에서는 사회과학의 책이 홍수처럼 출판되어 새로움을 좋아하는 생도들은 쉽게 손에 들어온다. 3·15사건의 일본 공산당의 총검거는 거의 매일같이 신문에 발표되어 학생의 눈에 들어오고 일체 이 세상중에는 무엇이든 그런 것이다. 사회주의 공산주의라는 것은 어떤 것일까. 계급투쟁이라는 것은 어떤 것일까 하는 의문이 생기는 것은 당연한 이치. 어떤 방법으로 알도록 직접 선생에게 듣고 놀라 선생은 몰라도 된다 한다. 알지 못하면 알려고 하는 것은 인정의 상사이다. 서점에 가면 이러한 책들은 얼마든지 있다. (중략)... 일본 중학생과는 다르니 제1은 환경, 제2는 연령이 크게 다르다. 일본인의 고등전문, 심하게는 대학생과 대개 동년배이고 부모는 생활난에 곤란하고 이것이 조선의 현상이라고 생각한다. 무엇을 위한 ‘生’인가 하는 문제까지도 머리에 떠올라 머리가 아프다. 새로움을 좋아하는 이상의 각 행위가 遠因, 近因이 되어 사회과학의 연구를 목적으로 한 결사가 탄생했다고 생각한다.³³⁾

1910년 일제 식민치하에 들어간 조선은, 1912년 토지조사사업, 1920년 산미증산계획 추진 등으로 농촌사회 붕괴가 급격히 이루어지고 있었다. 1923년 압태도 소작쟁의 외에도 1927~28년 광주 송정면에서 수리조

32) 강달모(1909-1975)는 광주사범학교 독립운동을 이끌었다. 1심에서 징역 3년 6월, 복심에서 징역 2년 확정되었다.

33) 강달모 진정서(대구복심법원 형사부 재판장 1931. 2. 11).

합³⁴⁾ 문제로 일제와 지주와의 충돌 등도 이 지역의 의식이 있는 학생들을 자극하였다. 송정면에 거주한 경채는, 호남선 철도 부설 이후 식민지 침탈 경제의 정거장으로 변하고 있는 자기 지역의 비참한 현실을 직접 느끼고 있었다. 그가 사회주의에 관심을 갖게 된 까닭이다.

1920년대 중반 이후 많은 사회주의 관련 서적이 국내에 소개되었던 것도 사회주의 사상이 확산되는 또 다른 이유였다. 마르크스주의의 여러 저작뿐 아니라 러시아에서 일본을 거쳐 들어 온 레닌, 스탈린, 부하린 등의 원전(原典)들을 학생들이 쉽게 접하였다. 일본을 거쳐 들어오는 서적의 경우에는 검열을 통과하기가 비교적 쉬웠다. 1928년 동아일보 광고면에는 일본 출판사가 펴낸 다양한 사회주의 관련 서적들이 소개될 정도로 사회주의 서적이 범람하였다. 이렇게 사회주의 이념 서적이 홍수를 이루게 된 데는 1910년 대 말부터 일본을 휩쓴 다이쇼크라시와 소련과 국교를 체결한 일본 정부가 소련을 의식하여 사회주의 사상에 대한 억압책을 쓰지 않았기 때문이다.

『자본론』 『사유재산제도와 국가의 기원』 등 마르크스와 엥겔스의 저작을 비롯하여 『인민의 벗이란 누구인가』, 『무엇을 할 것인가』 등 『레닌의 정치 pamphlet』, 『스탈린·부하린 전집』, 『사회사상전집』 등이 그것이다. 이러한 서적들은 대금을 지급하면 일본의 출판사에서 우송되었다. 마르크스나 엥겔스, 레닌의 저작뿐 아니라 일본 맑스주의 학자들의 저서도 많이 읽혔다. 일본어 서적 외에 한국 사회주의자들의 번역서도 많이 소개되었다.

『유물사관대의』(이낙영 번역), 『자본주의의 기교』(박눌원 번역) 『무산계급의 역사적 사명』(이병의 번역) 등이 국내 출판사에서 간행되었다. 비용만 지불하면 저명한 사회주의자의 저서를 비롯한 사회과학 서적을 쉽게 구입할 수 있었다.

1927~28년 3, 4차 조선공산당과 고려공산청년회가 학생운동에 대한 지도방침을 채택하면서 독서회 결성은 더욱 가속화되었다. 1927년 고려

34) 동아일보 1927. 7. 26.

공청은 중등학교 이상의 학생을 당의 정신에 기초하여 지도 훈련할 것을 결정하고 각 도 위원에게 학생에 대한 주의 선전의 방법 등을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사회주의 조직들이 학생의 조직화에 주력하여 독서회 결성이 전국적으로 확산되었다.

이러한 독서 모임이 비밀결사로 조직되었다. 1926년까지 서울 중심의 전국적 학생조직이 소위 '합법적'인 표면 조직이었다면, 지방의 개별 학교 단위 독서회는 비밀결사로 조직되었다. 교내 독서 모임이 불법이었기 때문에 비밀결사의 형태를 띠 수밖에 없었다. 조직 규모도 10여 명 내외였다. 이들은 기존의 사회주의 이념조직인 조선학생과학연구회와 조선학생회의 활동에 비판적이었다. 이들은 전국적으로 각 학교 내에 사회주의 세포조직을 결성한 후 이를 통한 학생세력의 결집을 지향했다.

목포상업학교에 조직된 후서회가 대표적인 예이다. 1929년 11월 광주 학생시위와 대규모 학생 검거에 항의하여 동조시위를 주도함으로써 조직이 발각되었다. 5학년부터 2학년까지 학년별로 조직되어 있었다. 검거된 관련자만 25명에 달했다. 이들은 『개벽(開闢)』 등의 잡지를 회람하며 독후감을 토론하고 일본공산당 기관지인 『적기(赤旗)』를 유통하기도 하였다.

전국의 학교에 이보다 훨씬 많은 독서회가 광범위하게 조직되어 있었다. 같은 학교에서 학년별로 독서회가 조직되기도 하였다.³⁵⁾ 또 독서회라는 결사를 조직하지 않고 몇몇 학생이 사회과학 서적을 읽고 토론하는 형태의 모임도 많았다.

5) 조선공산당 재건운동과의 결합

1929년 당시만 해도 사회주의 각 계파에서 추진한 조공 재조직 활동은 즉각적인 조공 및 공청 재건조직을 결성하여 이를 중심으로 당 세포를 결성하는 방식이었다. 오히려 각 계파 조공재건조직은 행동 전위로서

35) 이경채, 투쟁경력.

학생조직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당 재건의 기반으로 삼으려 했다. 물론 당시에는 조공 재조직 활동이 전국적인 규모로 전개되지는 않았다.

그러나 서울을 비롯하여 일부 지방에서 조공 재조직이 시도되었다. 이들 사회주의 각파의 재건조직은 학생운동 조직을 조공 재건의 기반으로 삼으려 했으며 이를 위해 독서회 등 학생운동 조직의 결성에 나섰다. 1929년의 학생운동 조직은 조선공산당 재건 운동과의 연계 하에 활동하였다는 점에서 이전과는 다른 차별성이 있었다.³⁶⁾ 학생들만의 조직이 아니라 조공 재건조직의 지도를 받는 별동조직의 성격을 띠었다. 따라서 조직의 강령이나 규약도 현실 지향적이었고 학생의 노동운동, 농민운동 참여가 적극적으로 분출되었다.

결국, 조직 기반이 취약한 조공 재건세력이 공산청년회의 재건을 비롯하여 노동, 농민조직 결성의 핵심 주체로서 학생들을 활용하려고 했다. 이는 1928년 초 서울 시내 각 학교 학생들을 중심으로 조직된 7당의 방학 중 활동 계획이 지방 학교 내의 세포조직 결성에 치중되었던 것과 크게 대비되는 점이다.

서울회계에서도 조공 재조직을 추진하였다. 고학당 내에 조직된 조선학생혁명당을 학생행동 조직으로 개편하였다. 조선학생혁명당은 고려공산청년회 학생 야체이카가 발전적으로 개편하여 1927년 2월에 결성된 학생 비밀결사였다.

한편 서울에서는 조선학생연맹, 조선학생과학연구회 회원들을 중심으로 개별학교에 소규모 독서회가 조직되었다. 반면 지방에는 비밀결사 형태의 독서회가 중등학교를 중심으로 조직되었다.³⁷⁾ 독서회는 대부분 사회과학 연구를 위한 모임으로, 비밀결사의 형태였다. 맹휴 당시 언론, 집회, 결사의 자유 요구, 또는 사회과학 연구의 자유 요구 등이 표출되었다. 지역의 사회, 사상단체의 사회과학 연구모임이나 강연회가 학생의 의식화에 기여하였다. 광주 송정면의 경우 송정 청년동맹과 신간회 송정지회

36) 신주백, 2005, 『1930년대 국내민족운동사』.

37) 김성민, 앞의 글.

는 이경채와 같은 젊은 청년·학생들의 활동 공간이었다.

독서회는 개별학교 단위로 조직되기도 하였으나 같은 지역의 중등학교 학생들이 연계한 연합조직 형태로 결성되었다. 광주의 성진회가 대표적인 예이다. 고보, 농업학교, 사범학교 등 각종 중등학교가 설립된 대도시에서는 연합조직으로 발달하였다. 이러한 학생운동 조직·확산과정에는 조선공산당과 고려공산청년회의 배후 역할이 있었다.

1926년 6·10만세운동 당시 2차 조공을 중심으로 학생들의 조직적 역할을 확인한 조공, 공청 등에서는 1927년 이후 학생 세력화에 적극적으로 나섰다. 서울에서는 당시 학생의 표면조직이자 중등학교 학생의 집결지인 조선학생과학연구회 내부에 고려공청 야체이카를 조직하고 이들을 통해 간접 지도의 방식으로 맹휴 지도 및 학생조직통합 등의 활동을 추진하였다.

고려 공청에 학생부가 설치되는 1928년 3월 이후에는 조선학생과학연구회가 중심이 되어 각 학교에 조공의 지도를 받는 독서회를 조직하여 단위 학교별로 조직을 확장하고 있었다. 또한 조선학생과학연구회 차원에서 각 학교의 맹휴에 직접적으로 관여하며 종래 학교설비 개선 등 개별학교 차원의 맹휴의 이슈를 사회문제로 확산시키는 데 기여하였다.

3차 공청의 학생 조직화 방침은 지방 당 및 공청조직을 통해 지방 학생운동 조직의 결성으로 나타났다. 1929년의 학생운동 조직은 조공 재조직운동과 연계되면서 서울회계, ML계 등의 조공재건조직의 지도를 받았다. 서울회계 등이 학생운동의 조직화에 나섬으로써 개별학교에서의 학생 조직화가 활성화되었다. 학생운동이 단순한 맹휴투쟁에 그치지 않고 시위운동이나 대중과의 연계 투쟁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학생운동이 독립운동으로 전환하는 질적인 변화를 의미하는 것이다. 1929년 11월 광주학생운동이 전국적으로 확산될 수 있었던 것은 이러한 학생운동의 질적, 양적 성장의 결과였다.³⁸⁾

38) 김성민, 앞의 글.

광주학생독립운동의 영웅 이경채

1. 광주지역 학생운동 조직의 성장

1) 광주의 교육 여건과 청년, 사회운동

광주는 전남 도청소재지이면서 호남선 철도와 광주선 철도가 일찍부터 개통된 관계로 전남지방의 교통중심지가 되었다. 호남선 철도가 개통되면서 송정면도 교통의 중심지로 급속히 도시화가 진행되고 있었다.

1920년대 후반 광주지역의 중등학교는 인문계 학교로서 광주공립고등보통학교(이하 광주고보)와 광주공립여자고등보통학교, 광주공립농업학교와 전남도립사범학교가 있었다. 일본인 학교로는 광주공립중학교와 광주공립고등여학교가 있었다. 광주지역 최초의 중등교육기관은 1910년에 개교한 광주공립농업학교였다.

광주고보는 1920년 5월 광주지역 유지들이 발의하여 사립 고등보통학교로 설립되었으나 1922년 관립 학교로 전환하였다가 1925년부터는 도비를 보조받는 공립으로 바뀌었다. 일인들이 다니던 광주중학교는 1923년에 개교하였다. 같은 해 전남도립사범학교와 광주공립고등여학교가 설립되어 광주지역은 대표적인 교육도시가 되었다.¹⁾

1) 당시 신문에 “외관상으로 정비된 교육환경이 경성, 평양, 대구를 제외하고는 광주만큼 충실한 곳도 없다.(중외일보 1929. 11. 1.)”라 하여 광주를 교육도시라고 명명하였다.

광주고보, 광주농교, 사범학교, 광주여고보는 전남 도내의 유일한 조선인 중등 교육기관이었고, 일인이 다니는 중등 교육기관으로는 광주중학교와 목포상업학교가 있었다. 조선 학생뿐 아니라 나주, 영산포, 담양 등에 거주하는 일인 학생들도 광주 학교에 진학하였다. 광주고보생 70명, 광주중학교생 1백 명이 통학생이었다. 한·일 통학생 사이에 충돌 가능성이 항상 있었다.

1920년대 후반 광주지역 중등학교에는 일본인 교원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일본인 학교는 말할 것 없고, 심지어 한국 학생만이 다니는 광주고보의 경우 전체 22명의 교직원 중 한국인이 3명에 불과하였다. 광주농교와 전남사범의 경우도 한인 교직원이 3명을 넘지 않는다. 1920년대 후반 관·공립학교에서 맹휴가 활발하게 전개되는 데에는 일본인 교사들이 자행하는 식민교육, 민족 차별 태도 등이 영향을 미쳤다.²⁾

한국인 학교와 일본인 학교에 대한 지원에도 큰 차이가 있었다. 광주고보와 광주중학교의 경비를 비교하면 쉽게 알 수 있다. 1926년의 경우 광주고보는 10개 학급에 경비가 7만 천여 엔인데 반해 광주중학은 6개 학급에 11만여 엔이었다. 1928년 광주고보의 맹휴에서는 열악한 학교시설의 개선을 요구하고 있었다.

또 광주농교는 학급수와 학생 수에서도 광주고보나 광주중학의 절반에 불과하였다. 1928년 광주농교 맹휴에서 시설 확충과 학생 증원이 제기되었다. 1929년에 이르러 광주고보와 광주농교에 대한 지원이 확대된 것은 학교시설의 개선 요구가 반영되었기 때문이었다.

한편 학생들은 경제적 형편 때문에 학업을 다 마치지 못하였다. 1929년 광주고보의 경우 113명(1학년), 109명(2학년), 88명(3학년), 63명(4학년), 38명(5학년)명으로 학년이 올라갈수록 학생 수가 줄어들고 있었다.

한편 광주의 중등학생들은 지역 청년운동 조직과 밀접히 연결되어 있었다. 1920년대 초 광주지역 사회운동은 광주청년회와 광주노동공제회

2) 장석홍, 2001, 「광주학생운동의 사회경제적 배경-영산포를 중심으로」, 『광주학생독립운동과 나주』.

의 두 축을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었다.

1925년을 기점으로 사회주의 청년들이 두 단체의 실권을 장악하면서 광주청년회는 서울청년회계, 광주노동공제회는 화요계가 주도하였다. 서울청년회계는 신우회, 화요회계는 심팔회라는 사상단체를 지도하였다. 화요계는 전남동부청년연맹을 조직하였고, 서울회계는 광주청년회 및 전남해방운동자동맹과 손을 잡았다.³⁾

이러한 과정에서 1926년초 광주청년회원들이 노동공제회관을 습격, 파괴한 일이 있었는데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1926년 2월 서울회계는 전남청년회연합회를 전남청년연맹으로 개편하여 전남 동부 청년연맹과 대립하였다.

그러나 1925년 말과 1926년 6월 1, 2차 조선공산당 탄압으로 인해 광주지역 화요회계 인사들이 체포됨으로써 세력 균형은 서울회계로 급격하게 기울었다. 1926년 가을 이후 서울회계 인사들이 ML과 조선공산당 및 고려공청에 참여함에 따라 광주지역 사회운동의 지형도 복잡하게 변화되었다. 서울회계의 리더인 강석봉은 1927년초 ML과 조공의 전남지역 책임을 맡았고, 김재명은 1926년 8월 고려공산청년회에 참여한 후 1927년 초 고려 공청 전남 책임을 맡았다.⁴⁾

이들의 노력으로 광주, 전남 지역 서울회계 사회운동자들이 고려 공청에 대거 입당하였다. 강석봉, 김재명은 1927년 8월 조선청년총동맹의 집행위원에 선임되어 군 단위 단일 청년동맹 결성에 앞장섰고, 강영석, 강해석, 장석천, 국채진 등이 광주청년동맹의 설립을 주도하였다.⁵⁾

1927년 11월 김재명이 주도한 전남청년연맹과 광주청년동맹에서 신간회 지지 등을 결의한 바 있었다. 그런데 1927년 12월 담양청년동맹 창립 대회에서 강해석은 ML당 지도자인 안광천을 비판하였다. 특히 강해석은 지용수, 소진호와 함께 고려공청의 광주지역 야채이카였음에도 불구하고

3) 박해현, 『독립운동가 의사 김범수 연구』.

4) 박해현, 『강석봉 평전』.

5) 박해현, 『동구의 인물』 2.

고 당 지도부를 공격한 것이다.

장석천의 사회로 진행된 이 회의에서 상경한 김재명의 사표가 수리되고 대신 김인수와 강해석이 상무집행위원으로 보선되었다. 결국 강해석과 장석천이 김재명과 대립되는 입장에 있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강석봉은 1928년초 이후 검거를 피해 일본으로 망명하여 활동을 중단한 상태였다. 광주를 비롯한 전남지역에서 중앙당의 영향력이 제대로 관철되지 못하고 있었다. 고려공청의 책임비서 김재명이 4차 공청의 전남지역 책임자 선정에 어려움을 겪었던 데에서도 짐작할 수 있다.

1928년 1월 김재명이 중앙당 활동을 위해 광주를 떠나자 광주지방의 청년운동은 장석천을 중심으로 재편되었다. 장석천은 동년 4월 서울에서 개최된 조선청년총동맹 집행위원회에 국채진, 나승규와 함께 광주 대표로 참석하여 두각을 나타냈다. 이후 장석천, 강해석 등은 전남청년연맹을 지도하는 데 주력하였다. 1928년 이경채 사건이 일어났을 때 일본 경찰이 강해석 등을 배후로 의심하여 제일 먼저 체포하여 조사에 들어간 것도 이와 관련이 있다.

장석천은 1929년 9월에 개최된 전남청년연맹 정기대회에서 상무집행위원장으로 전남지역 50여 명의 대의원을 주도하였다. 광주교보 졸업 후 장흥에서 농민운동을 전개하던 왕재일이 집행위원 후보인 데 비해 그해 6월 귀국하여 학생 독서회 조직에 나선 장재성이 집행위원에 전격 선임된 것도 장석천의 의중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⁶⁾ 1929년 9월 이후 전남청년연맹은 장석천을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었다. 1929년 11월 3일의 학생 시위운동 이후 11월 12일의 학생시위를 준비한 것도 장석천을 중심한 광주지역의 전남청년연맹이었다.

광주를 비롯한 전남지방의 청년운동 조직에서는 학생층을 적극적으로 견인하고자 하였다. 1925년 3월의 전남지방 청년대회에서는 ‘현 교육제도를 조선인 분위로 주창할 것’을 결의하였다. 1928년 1월에 개최된 전남청년연맹 집행위원회에서는 학생층과의 연대에 노력하고 있었다.

6) 김성민, 앞의 글.

또한 청년, 사상단체가 주최하는 각종 강연회 등은 지식욕이 왕성한 학생들의 사회과학 연구열을 자극하는 것이었다. 서울청년회계의 사상단체인 전남해방운동자동맹에서는 1926년 2월 23일 광주보통학교 대강당에서 연설회를 개최하였다. 농민, 노동, 청년, 종교, 형평, 소년운동 부문으로 나누어 연사들이 민중 본위의 신사회 건설을 위한 사회운동자의 사명을 역설하였다. 2백여 명의 청중이 모여 성황을 이루었다.

전남청년연맹에서는 1927년 7~8월 보름 동안에 걸쳐 광주의 흥학관에서 하기(夏期) 대강좌회를 개최하였다. 조공과 고려공청 전남도당의 지도로 80여 명의 참여하여 이론 통일, 사회과학 학습활동을 전개하였다. 1925년 3월 강석봉 등이 주도한 전남지방의 22개 단체 대표가 참석한 청년대회에서는 사회과학 지식의 함양을 결의하기도 하였다. 1926년 2월 전남해방운동자동맹 정기총회에서도 독서회, 연구회, 토론회, 강습회를 수시로 개최할 것을 결의하였다. 서울청년회계의 사상단체인 신우회에서 자체 교양을 위한 연구회를 개최하고 있었다.⁷⁾

이와 같이 광주 청년단체, 사상단체에서 독서회, 연구회 등을 통해 사회과학을 학습하고 있던 상황은 당시 지식층에 속하는 중등학생의 사회과학 학습열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했을 것이다. 그리고 이는 학생 독서회 결성으로 결실이 나타났다.

반면 신간회 광주지회에는 사회주의 계열 청년 활동가들의 참여가 미약했다. 1927년 10월에 창립된 광주지회는 회장에 최흥중, 부회장에 정수태를 선임하는 등 민족주의계가 주도하였고, 김재명이 서기에 임명되었을 뿐 서울회계 참가가 저조하였다. 1929년 9월 3일 개최된 임시대회에서는 집행위원장에 정수태가 선임되고 위원들 중 서울계가 거의 탈락하고 있었다. 신간회 광주지회도 두드러진 활동을 보이지 못하고 있었다.

2) 학생운동의 저수지, 성진회

성진회원 임주홍은 성진회 결성의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7) 박해현, 『강석봉 평전』.

“(전략) 이런 의미에서 본건의 일부의 주체인 우리 성진회원은 지금에 생각하면 인간의 사회적 생활에서 불가결한 필요물 즉 과학적 지식을 습득하여 동물성적인 생활의 영역에서 이탈하여 인간적인 진정한 의미에서 문화적 생활을 영위할 것을 희망하여 자연과학만이 아니라 사회과학도 포함한 바의 넓은 범위의 과학을 연구할 것을 최상 또 최대의 목적으로 하여 학생 간에 학생 사이에서 독서회인 성진회를 조직한 것으로 느끼고 있다.(하략)”⁸⁾

성진회는 1926년 11월 3일 최규창의 하숙집에서 장재성, 왕재일 등 16명이 결성한 학생 비밀결사로 알려져 있다. 1928년 이경채 사건으로 촉발된 학생 항일운동 에너지는 마침내 1929년 11월 3일 위대한 항일운동으로 이어졌다. 이 운동의 중심에 성진회와 성진회를 계승한 독서회가 있었다.

광주 전남의 학생 항일운동은 1945년 해방되는 그 순간까지 20여 년간 이어졌다. 성진회를 계승한 독서회, 제 2학생운동을 일으킨 무등회, 충청의 임시정부와 연결하여 연합군 상륙작전을 지원하려는 목적으로 결성된 광주사범학교의 무등독서회 등이 빛나는 이름을 올리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학생 항일 운동을 조직적으로 이끈 비밀결사 성진회는 항일운동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크다.

성진회 결성과 관련된 핵심 인물로 ‘제4차 조선공산당’ 중앙 검사위원장 후보로 선출된 강석봉을 비롯하여 강해석, 지용수, 한길상, 장석천, 강영석 등을 들 수 있다. 강석봉은 이보다 앞서 조직된 제3차 ‘조선공산당(소위M.L당)’ 광주 위원장을 맡고 있었다.

당시 광주에서 활동한 M.L당원으로는 위원장 강석봉을 비롯하여 지용수, 강영석, 한길상, 최용운, 강해석, 지방에서 활동한 이로는 유혁(영암), 조용남(영광), 국종덕(담양), 조명철, 주재학(화순) 등이 있었다. M.L당 하부 조직으로 노동부, 농민부, 청년부(Y부) 등이 있었고, 특히 Y부에서

8) 임주홍 진정서(대구복심법원 형사부 재판장 1930. 12. 8) (박해현·김승태 공역, 2021 『관결문으로 본 광주전남 학생운동』).

는 청년 학생 조직이 있었다. Y부가 '성진회'를 지도하였다.

성진회는 조직이 노출되는 것을 염려하여 1927년 3월 해산한 것으로 위장한 후, 1928년 2월 그 핵심 인물들이 지용수 집에 모였다. 이 모임을 강해석이 주관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지용수, 강해석이 이들과 관계를 맺고 있었다는 증거이다.

성진회를 강해석이 이끌었다는 보다 확실한 증거가 있다. 장석천과 강해석이 1927년 3월 성진회원의 졸업을 축하하는 자리를 이용하여 투쟁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장석천은 전남청년연맹 위원장 및 신간회 광주지회 상무간사로 강석봉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인물이다. 이러한 그가 강해석과 더불어 성진회원을 만나고 있는 모습은 이들과 관계가 깊음을 말해준다.

그런데 바로 같은 시각인 1927년 3월 정남균의 집에서 성진회가 형식상 해체되고 있다. 이는 일제의 감시를 피하기 위한 위장 전술의 일환이었을 뿐 실제로는 투쟁 방향성이 구체화되고 있었다. 성진회원들은 이미 신우회를 통해 사회주의 사상을 접하고 있었고, 신우회와 광주청년연합회 활동을 통해 강석봉, 지용수, 강해석 등도 만나고 있었다. 특히 장재성이 일본 주오대학으로 유학을 떠난 것도 강석봉이 주오대학 유학생 출신이라는 점에서 우연으로만 보기 어렵게 한다.

신우회를 통해 사회주의 사상을 체계화하고, 광주청년회를 사회주의 운동 세력의 거점으로 만들려는 강석봉에게는 청년운동은 무엇보다 중요하였다. 그가 광주청년학원을 만들고, 청년연합회, 청년연맹 등 청년단체를 조직화한 것은 조국 독립에 청년의 역할이 중요함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성진회 등 학생운동 조직을 강석봉은 M.L당의 하부 조직으로 편제하였다.

청년운동과 더불어 학생운동을 조직화할 필요성을 느낀 강석봉이 재학생을 중심으로 사회주의 이념 동아리를 결성하려 하였음은 당연하다. 이러한 필요에서 만들어진 조직이 성진회였다. 성진회는 M.L파의 거두인 강석봉의 지도를 받았다. 강석봉의 지시를 받은 강해석과 지용수가 학생

들과 직접 접촉하며 운동을 이끌어 나갔다.

성진회를 지도하던 강해석은, 1928년 4월 광주 학생운동의 전환점을 이루었던 '이경채(李景采) 항일격문배포'에 관련되어 구속되어 3개월 옥고를 치른 후 7월 21일 면소 판결을 받았다. 이경채 사건으로 불리는 이 사건은, 1928년 4월 송정청년회에서 활동하던 광주고보 5학년 이경채가 '조선독립선언문' 등 격문을 제작하여 광주지역 학교에 보내고, 송정리 일대에 격문을 부착했다가 일본 경찰에 구속되고, 학교에서 퇴학 처분을 받았다.

이경채의 퇴학 소식에 광주고보 학생들이 동맹휴학을 결의하자, 학교에서 동맹휴학에 참석한 학생 300여 명 전원에게 퇴학 및 무기정학을 내려 맹휴가 확산되어 광주고보와 광주농업학교의 연합맹휴로 발전하였다. 3·1운동 이후 최대의 민족운동인 광주 학생 독립운동이 그 비등점을 향하고 있었다.

3) 讀書會 중앙부 결성과 학생운동 역량의 성장

학교별로 연구모임이 활발한 가운데 1929년 6월 장재성이 귀국하였다. 그는 일본 주오대학을 중퇴하고 귀국하여 학생 사회과학 연구모임의 조직화에 앞장섰다. 그는 방학이면 귀국하여 후배들을 지도하여 사회과학을 공부하는 후배들로부터 신망이 높았다.

장재성은 귀국 직후인 1929년 9월 전남청년연맹 정기대회에서 집행위원에 선임되어 학생과 청년조직의 가교역할을 맡았다. 전남청년연맹 위원장 장석천의 추천이 작용했다. 이후 전남청년연맹의 장석천, 장재성 등은 적극적으로 학생의 조직화에 나섰다. 각 학교별 사회과학 연구실태를 파악한 장재성은, 학교별로, 개별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모임의 통합을 추진하였다. 그 결과 독서회 중앙부가 결성하였다.

책임비서: 장재성

조사선전부 위원(동지획득, 공산주의 선전 보급) : 김상환, 김보섭

조직교양부 위원(반 편성, 공산주의 연구방법 지도) : 송동식, 김순복
 출판부 위원(인쇄물의 인쇄 반포) : 조길룡
 재정부 위원(회비 징수 회계사무) : 강달모, 윤창하

부원은 매주 1회씩 회합하여 협의할 것, 중앙부에 의해 3개 학교별로 독서회를 조직하고 중앙부에서 연락 통일을 도모할 것, 학교별 결사원에 게는 중앙부의 존재를 비밀로 할 것 등을 협의 결정하였다. 이어 다음 표와 같이 고보, 농교, 사범학교에 각각 개별적으로 독서회가 조직되었다.

표 10. 학교별 독서회 조직 실태

학교	광주고보	광주농업학교	전남사범학교
일시 장소	1929. 6월 하순 무등산	좌동	1929. 7월 초순 수피아여학교 뒷산

성진회가 16명의 전체 모임 중심인 것과 달리 독서회는, 몇 개의 소그룹으로 나누어 사회과학 연구의 밀도를 높였고, 조직교양부, 조사선전부, 재정부 등으로 조직이 세분화되어 있었다. 특히 각 학교별 독서회 중심으로 운영되 이를 통할하는 독서회 중앙부를 설치함으로써 독서회의 통일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한 점이 주목된다.

1928년 맹휴에서 맹휴 중앙본부 결성 경험이 독서회 중앙부 결성으로 이어졌다. 장재성은 독서회 중앙부의 ‘책임비서’에 선임되었다. ‘책임비서’라는 명칭을 통해 공산당 조직을 모방한 것이라고 생각된다.

중앙부를 주도한 장재성은 『공산당선언』을 복사하여 독서회원들에게 나누어 윤독케 하였고, 종전에 계획된 바 있었던 소비조합의 결성도 추진하였다. 소비조합을 통해 동지를 규합하고, 독서회 운영자금을 조달할 목적이었다.

한편 광주고보와 광주농교는 동년 9월, 사범학교는 동년 10월 각각 독서회를 해산하였다. 회원 사이의 내분 때문에 해산하였다고 하나 3곳이 동시에 해산한 사실을 그냥 믿기 어렵다. 일제의 감시를 피하려는 위장

전술이 아닌가 싶다.⁹⁾

이들 세 학교 모두 11월 학생시위 운동이 일어날 때까지 조직을 재건 하지는 못하였다. 그러나 비밀 독서회를 결성한 경험은 유사시 강한 조직력을 발휘하는 근간이 되었다. 11월 3일의 학생시위 이후 독서회원들을 중심으로 11월 12일의 제2차 학생시위 운동을 추진해 갈 수 있었던 것도 이러한 경험이 축적되어 나온 것이다.

2. 광주학생운동의 영웅 이경채

1) 1920년대 전반 광주지역 동맹휴학의 양상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광주지역의 학생들도 여러 차례 동맹휴학 활동을 전개하였다. 학생들은 이러한 맹휴를 통해 민족적 자각을 키워나갔다. 광주고보에서는 1923, 1924, 1927, 1928년에 각각 1회 씩 총 4차례의 맹휴가 있었다. 광주농고는 1923년과 1928년, 광주여고보는 1928년에 맹휴가 있었다. 광주고보는 관공립 중등학교 중 가장 많은 맹휴 횟수를 기록하고, 사립학교를 합쳐도 서울 이외의 지방 학교로서는 송도고보, 고창고보에 이어 맹휴 횟수가 3번째로 많았다.¹⁰⁾

1923년 1월 광주고보에서는 일본인 선생이 학생을 구타한 사건으로 1, 2, 3학년 학생들이 동맹휴학을 하였다. 2월 초 학부형회의의 조정으로 학생들이 등교하였으나 맹휴 주동학생을 처벌하지 않겠다고 학부형회에 약속한 교장이 주동학생 5명을 정학처분하자 교장을 불신하여 정학 처분의 취소를 요구하며 3학년생들이 다시 맹휴를 전개하였다. 광주농고는 1923년 3월 5년제로의 학년 승격을 요구하며 동맹휴학을 전개하였다.

1924년 6월의 맹휴는 광주고보와 재광 일본 선발팀 사이에 벌어진 야

9) 김성민, 앞의 글

10) 4회 이상 맹휴가 발생한 관공립학교는 광주고보가 유일하다. 사립은 보성고보(4회), 송도고보(5회), 고창고보(6회) 휘문고보(6회), 경신학교(5회), 보광학교(원산 4회) 등이었다. 고창고보가 공, 사립 통틀어 가장 많다.

구 시합에서 일본인 의사가 모욕적 언사를 하는 것에 반발한 광주고보 선수들이 구타를 한 것이 계기가 되었다.¹¹⁾ 최동문, 지창수, 윤처서, 김재영 등 고보 선수들을 고보의 일본인 교장이 일본 경찰에 고발하자 분개한 4백 명의 학생들이 17일 강당에 모여 강제로 연행한 학생의 석방과 무책임한 교장의 반성을 촉구하자, 학교 당국은 전교 학생 4백 명의 무기정학을 발표하였다. 그러자 학생들은 교장이 사퇴할 때까지 맹휴할 것을 결정하고 교장의 비행을 들어 총독부 당국에 진정서를 제출하기로 하였다.¹²⁾ 21일 광주에 거주하는 학부형들이 흥학관에서 최상진, 지용수 등의 주도로 긴급회의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학부형들은 무기정학 처분의 취소, 교장의 퇴직, 불응 시에는 도민대회를 개최하고 총독에게 직접 진정할 것 등을 결의하였다.

이에 대해 학교장인 채야(菜野)가 무기정학 처분 취소를 거부하자 격분한 전남 학부형대회 참가자들은 도민대회 개최를 결의하였다. 그러자 학교 측에서는 주동 학생 10여 명을 퇴학 처분하기로 하고 20여 명에게는 “진정하지 아니하면 제명하겠다”는 통지를 발송하였다. 이 맹휴투쟁은 동년 9월 수습되었으나 주도한 4학년 고헤우, 국채덕, 최현주, 지창수 등이 퇴학 처분을 당하였다. 지창수는 이후 광주지역 청년운동의 핵심을 맡아 활동하였고¹³⁾, 이경채 사건에도 제일 먼저 체포되어 조사를 받았다.

2) 독서회 활동과 이경채

독서회는 사회과학연구회와 같은 사회주의 운동 단체의 지시에 의해 만들어지기도 하였지만, 시대 분위기에 따라 자생적으로 세워진 것도 많았다.

이경채의 판결문을 보면, 박병하, 이경채, 양태성, 윤해병 등 사건 관련자들이 소화 2년 즉 1927년 여름부터 공산주의에 흥미를 느껴 이에 관

11) 조선일보 1923. 3. 12.

12) 조선일보 1924. 6. 22.

13) 이애숙, 앞의 글.

한 서적을 탐독하였다고 나와 있다. 곧 1927년 무렵 독서회가 결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¹⁴⁾ 그러나 이경채의 「투쟁경력」에 의하면, 광주고등 보통학교 다니던 3학년 때인 1926년부터 독서회 활동을 하였다고 한다. 곧 이경채 등이 조직한 독서회가 사회과학연구회 등과 무관함을 말한다.

이경채가 사회주의 이념 서적을 읽은 것은 당시의 시대 분위기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의 숙부인 이성방이 사회주의 사상의 영향을 받아 결성된 송정노동청년회 창립 멤버라는 사실도 이경채의 독서회 활동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준다. 곧 이성방의 활발한 청년, 사회운동이 조카인 경채의 의식 형성에 영향을 주었음에 분명하다. 그는 후술할 『사회주의 학설 대요』, 『시험관 속의 사회주의』, 『메이데이』, 『무엇을 할 것인가』 등 당시 인기 있는 사회과학 서적을 읽으며 식민사회의 모순을 구조적으로 이해하게 되었다. 이는 그가 송정면과 광주 등에 뿌린 유인물 내용에서 알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초기 사회주의자 김철수의 회고를 보자.

“1920년 가을에, 사회혁명당을 우리가 비밀결사로 해서, 그것이 이제 우리 조선 안에 공산주의 비밀결사로 처음이여. 바로 남의 뜻도 안비치고 그렇게 해 가지고, 그것이 독서회 모양으로 우리가 가끔 만나서 서로 의견 교환하고 그렇게 하자.

이때 독서회는 의식적인 것은 아니며 사회주의 조직과의 접촉은 우연적인 것으로 여겨진다. 즉 전술한 독서회의 기능도 사회 운동 진화의 산물이며, 조선 사회주의 운동이 자신을 둘러싼 문화적 조건에 적용한 결과가 아닐까. 사회주의가 1920년대 중반 이후 엄밀성을 지닌 근대 과학의 일종으로서의 인식되기 시작하면서, 인텔리 사회주의 조직 내에서의 ‘독서’가 갖는 의미는 달라졌다고 생각된다.”

광주고보 3학년 때부터 독서회 활동을 하고 있던 이경채도 『사회주의

14) 소화3년 예제 11호(광주지방법원 1928.7.21.) (박해현·김승태 공역, 2021 『판결문으로 본 광주전남학생운동』).

학설 개요』, 『시험관 속의 사회주의』, 『메이데이』, 『무엇을 할 것인가』 등 당시 널리 읽혀졌던 사회과학 서적에 빠져들고 있었다. 특히 어린이 날을 제정한 유명한 방정환이 번역한 『사회주의 학설 개요』는 젊은 학생들의 필독서였다.

1920년대 조선총독부의 허가를 받아 출간된 정치·학술·사상 서적은 45종이었다. 이 서적 대부분은 일본 서적을 번역한 것인데, 『노국혁명사와 레닌』(백아덕), 『현대노동문제』(강영영), 『권리쟁투론』(김하형), 『마르크스평전』(이광), 『유물사관 대의』(이낙영), 『무산계급의 역사적 사명』(이병의), 『마르크스론과 다윈설』(차재정), 『계급의식론』(조기영) 등이다. 1920년 대 초 일본 유학시절 사회주의 사상을 담은 우화를 ‘개벽’에 연재한 방정환이 번역한 『사회주의 학설 개요』도 총독부의 출판 허가 목록에 올라 있었다.

1920년대 중반까지 조선총독부는 민족주의 사상을 고취한 서적은 엄격히 통제하였으나 사회주의, 노동운동, 유물론 등 마르크스·레닌 등 관련 책 출판에는 비교적 관대하였다. 총독부가 사회주의 관련 도서의 출판을 허가한 까닭은 1917년 일어난 러시아 혁명과 일본에서 정치·사회·문화 등 각 방면에 나타난 민주주의와 자유주의 영향이 폭발한 다이쇼 데모크라시(大正 Democracy)의 영향이 컸다. 일본 또한 러시아와 국교를 맺고 외교 사절을 교환하여 서울에도 러시아 영사관 설치를 허용하였다. 이에 따라 소련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일본에서 이데올로기 측면이라기 보다 학구적인 측면에서 마르크스와 레닌에 관한 저서를 번역 출판하는 경향이 강해졌다. 1919년부터 1920년에 걸쳐 3종의 『자본론』이 번역 출간될 정도로 관심이 높아졌고, 1924년 일본에서 완역됐다.

3) 동맹휴학을 이끌어낸 빼라 살포 사건

이경채는 1924년 4월 1일 광주고등보통학교에 입학하였다. 광주고등보통학교는 3.1운동 직후인 1919년 7월 고등보통학교의 필요성을 절감한 광주 유지들이 ‘사립광주고등보통학교 설립기성회’를 조직하고 이듬해인



광주고보 재학 당시 이경채

1920년 ‘사립광주고등보통학교’를 당시 광산관(무등극장 자리)에 세웠다. 이렇게 사립 고등보통학교의 설립 운영은 문화 통치를 가장하여 식민통치를 강화하려는 일제 당국에는 장애물이었다.

일제는 1922년 제2차 조선교육령을 반포하면서 사립 광주고등보통학교를 관립 광주고등보통학교로 학교 운영 주체를 사립에서 총독부 직할의 관립으로 변경하였다. 그들이 원하는 식민통치 교육을

하려는 의도였다. 그리고 일제는 현재의 누문동으로 교사 신축하여 이전하였다. 그리고 1925년 설립 주체를 ‘공립’으로 하여 전라남도가 관리, 감독하도록 변경한 광주공립고등보통학교를 1938년 광주서공립중학교로 변경하였다. 한국전쟁 중에 광주서중학교로 명칭의 변화가 있었다. 광주 고등보통학교는 중등교육을 원하는 이 지역 젊은이들이 선호하는 가장 대표적 명문학교였다.

송정보통학교를 4년에서 6년으로 월반한 경채는 전남의 수재들이 가장 선호하는 광주고등보통학교에 입학하였다. 그가 입학하던 해에 송정보통학교 출신은 그와 더불어 2년 선배 한 명이 더 있었다 한다. 송정면에 거주하여 가정형편 때문에 송정중학원에 진학한 박병하, 윤희병 등은 경채의 죽마고우였다.

이들의 관계를 판결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피고인 박병하, 이경채, 윤희병의 3명은 죽마(竹馬) 친구로 피고인 병하는 송정리 보통학교를 거쳐 송정리 중학원에 입학하고 이를 졸업 후에는 병약한 관계로 무위도식하고 있는 자이고, 피고인 윤희병은 송정리 보통학교를 거쳐 송정리 중학원에 입학하였으나 병약한 관계로 중도(中途) 퇴학한 이래 자택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자이고, 피고인 경채는 동

상(同上) 보통학교를 거쳐 광주 공립고등보통학교에 입학하여 5학년에 재학 중인 자이다.¹⁵⁾

‘송정중학원’은 1922년에 세워진 중학교 과정의 미인가의 사립 교육기관이었다. 중학원과 관련한 당시 신문 보도에서 이를 알 수 있다.

광주군 송정면에 있는 사립중학원에서는 지난 25일 오전 10시부터 그 학교 강당 내에서 창립 제3주년 기념식을 거행하였는데 원장의 의미 깊은 개식사를 비롯하여 내빈 중으로 축하 담화가 있었으며 학생 등의 자유 등단을 허락하여 침통한 감정과 원대한 포부를 가진 열혈청년 45명의 통쾌한 감상담이 있는 후, 12시에 폐식하고 오후 1시부터 기념 정구회를 개최하고 대성황리에 그날을 기념하였다.¹⁶⁾

1925년 11월 25일 송정중학원이 졸업식을 거행하였는데 창립 3주년이라고 한 것으로 보아 1922년에 설립된 것임을 알 수 있다. 정식 학제는 3월 31일에 학년을 마쳐야 하나 11월 25일 한 것으로 보아 미인가 단계의 공민학교 수준의 학교가 아닌가 추정된다. 이곳을 졸업한 학생들이 45명이었고¹⁷⁾, 이들이 “침통한 감정과 원대한 포부”를 밝혔다는 부분이 주목된다. 곧 침통함을 드러냈다는 것은 그들의 처지를 비판하였다는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래에 대한 꿈을 지니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경채 판결문과 위 신문 기사를 연결지어 보면, 윤해병과 박병하는 식민지의 침탈기지로 전락한 송정면의 현실과 아직 인가받지 못한 학교를 다닌 그들의 처지를 원망하였을 가능성이 크다. 이들이 이경채와 함께 식민지 현실 및 당시 교육제도의 문제를 정면으로 비판하고 있는 것

15) 소화3년 예제 11호(광주지방법원 1928.7.21.).

16) 동아일보 1925.11.29.

17) 1926년 송정중학원 재학생 통계는 121명으로 나와 있다. 송정중학원의 학제가 몇 년 과정인지 알 수 없다. 1925년에 제3회 졸업생을 배출한 것으로 보아 1년 과정이라고 생각된다. 그렇다면 불과 3년 사이에 거의 3배 가량 학생 수가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은 이러한 현실 인식에서 나온 것이다.

이경채가 광주고보에 입학하던 1924년 무렵, 광주면과 송정면의 학생, 청년들은 사회주의 사상에 깊이 빠져들었다. 1923년에 결성된 신우회가 이들의 지적 욕구를 자극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다음 판결문에도 경채와 병하가 1927년에 공산주의 사상에 심취하였다고 나와 있다.

제1. 피고인 병하, 경채의 2명은 소화(昭和) 2년 여름부터 공산주의에 흥미를 갖게 되어 이에 관한 서적을 탐독하다가 결국 동(同)주의에 심취하여 공산주의의 국가 실현을 희망하기에 이르렀다.(하략)¹⁸⁾

이들이 1927년부터 공산주의에 흥미를 느껴 관련 책에 심취하였음을 알려준다. 이 무렵이면 광주의 여러 학교에 독서회가 결성되기 시작할 무렵이다. 그런데 경채의 자필 이력에는 그가 광주고등보통학교 2학년 때 독서회를 조직하였다고 나와 있다. 곧 1925년에 독서회를 조직하였다는 얘기이다. 성진회가 결성된 것이 1926년이니 이보다 1년 앞서 독서회가 결성된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여러 연구나 판결문에 광주고등보통학교, 광주사범학교, 농업 학교, 광주여자고등보통학교 등에 독서회의 결성은 1928년부터였다고 한다. 그런데 만약 경채의 진술이 진실에 가깝다면 성진회의 후신으로 독서회가 결성되었다는 주장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미 서울에서도 마찬가지로 1920년대 중반에 이르면 각 학교에 자생적인 독서 모임이 나타나고 있었는데 경채가 주도한 독서회도 그러한 성격일 것이다. 독서회 중앙본부와 연결된 조직은 아니라는 얘기이다. 그렇다면 이경채가 추진한 뼈라를 뿌린 사건은 독서회 중앙본부와 연계 속에서 일어난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그의 뼈라 살포 사건이 조직 차원이 아니라 송정면 거주 이경채(학생), 윤해병, 박병하(청년) 등이 주도하여 일으켰다는 점이다.

18) 주74의 판결문.

그런데 다음 판결문은 이경채 등이 사회주의 서적을 탐구했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다.

제1. 피고인 병하, 경채의 2명은 소화(昭和) 2년 여름부터 공산주의에 흥미를 갖게 되어 이에 관한 서적을 탐독하다가 결국 동(同)주의에 심취하여 공산주의의 국가 실현을 희망하기에 이르렀는 바, 소화(昭和) 3년 3월 중, 두 피고인은 여러 차례 교대로 자택에서 만나 위 국가를 실현할 방법에 대하여 협의한 결과 결국 끝내 공산주의에 관한 선전문서를 비밀리에 인쇄하여 이를 일반에게 반포할 것을 계획하고 공모(共謀)한 후, 동년(同年) 4월 1일부터 3일 무렵까지의 기간에 여러 차례 피고인 경채(景采)의 집에서 만나 피고인 등이 소지하고 있던 계리언¹⁹⁾ 저(著)의

(1) '선언서'라는 제목으로 '무산계급 의무 반혁명분자 암살, 무산계급 결사적 단결, 자본주의사회 파괴, 지배계급 파괴, 민족주의 파괴' 등의 불온한 문자를 나열한 것

(2) '건전한 사상을 가지고 있는 학생 제군(諸君)에 고향이라는 제목으로 "인간으로서 사회의 개선에 동의하지 않는 자는 한 사람도 없다. 현재 사회제도는 착취계급【지배계급】과 피착취계급【피지배계급】과의 대립이 있다. 동등한 인간으로 계급이 있다는 것은 모순이다. 천황은 신성(神聖)으로 범해서는 안 된다는 것은 군국주의자의 말이다. 전 세계의 무산계급은 인종, 언어, 풍토를 달리하나, 모두 같은 피가 흐르고, 같은 감격에 가슴을 아파하는 형제이다. 정의가 승리하지 않으면 무엇이 승리하는가. 사회주의야말로 정의이고, 무산계급의 의무이다. 프롤레타리아 제군들이여, 빨리 영원한 잠으로부터 각성하라. 전 세계의 무산계급과 함께 국제적으로 단결하여 해방전쟁의 동맹을 맺는 것은 프롤레타리

19) 사카이도시히코(堺利彦 1871-1933)는 일본의 사회주의 지도자이다. 일본 사회주의 동맹을 결성하는 등 일본 공산당 창립자 중 한 사람으로 원래 교사였다가 신문기자로 활동했다. 1903년 幸徳秋水와 함께 '헤이민 신문 平民新聞'을 발행하였고, 러일 전쟁 직전에는 반전 운동을 전개하였다. 1908년 적기(赤旗) 사건으로 투옥되었고, 1922년 7월 일본 공산당을 재결성할 때 중앙위원회 위원장이었다.

아의 광영이며 특권이다. 부패한 현 사회제도의 문은 우리 무산계급의 단결된 철권(鐵拳)으로 타파되어 자유, 평등의 신세계가 출현하고 세계에 영원한 평화가 성립될 것이다. 무산계급의 해방운동은 지금 국제적으로도, 국내적으로도 가장 중요한 시대를 통과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학생 제군(諸君)은 자본주의 제도 아래에서 부르조아적 교육, 자본주의적 노예양성의 교육을 받고 있다. 교육이야말로 무산계급적 교육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요컨대 현 사회제도의 교육은 자본주의적으로 얼버무린 주의(主義)의 교육이다. 학생 여러분의 건투를 빈다.”는 취지의 문구를 기재한 것

(3) ‘자본주의 계급적 고등 충복(忠僕) 제군(諸君)께 고함’이라는 제목으로 “현 사회제도는 자본주의적 사회제도로 상당히 많은 결함을 가지고 있다. 법률, 정치, 문학, 경제, 도덕, 종교, 철학이 모두 다 그러하다. 가장 좋은 사회제도는 무산계급 제도라는 사실을 고등 충복(忠僕) 제군(諸君)들도 알 것이다. 제군들은 무산계급의 피를 착취하는 자본계급의 고등 충복(忠僕)이다. 자각하라. 그대들의 불합리가 극에 달했다. 황포도 시대의 요구에 의해 파괴된다. 인류 사이에 생존경쟁이 있으면 평화는 성립되지 않는다. 생존경쟁이 없는 무산계급적 사회제도가 성립되는 때에 비로소 영원한 평화는 출현한다. 프롤레타리아야말로 그대들의 구주(救主)이다. 우리 당(黨)은 전 세계의 인류를 위해 희생의 의무를 다할 광영(光榮)이 있다. 특권을 가지고 있는 우리 당에 대하여 방해하는 것은 전 인류 평화를 위해, 신사회 건설을 위해 여의(餘儀) 없이 생명을 바칠 것을 사전에 선언한다.”라는 취지의 문구를 기재한 것의 3종의 문서를 작성하였다.(하략)²⁰⁾

이경채가 당시 젊은 학생들에게 인기가 높던 사회주의 서적을 광주고 보 2학년인 1925년부터 읽었음을 알 수 있다. 그의 유인물에서 주목되는 것은 “천황은 신성(神聖)으로 범해서는 안 된다는 것은 군국주의자의 말

20) 소화3년 예제 11호(광주지방법원 1928.7.21.) (박해현·김승태 공역, 『판결문으로 본 광주전남 학생운동』).

이다.”라 하여 천황제를 비판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불과 10대 중반의 어린 경채가 이러한 생각을 하였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렵다. 당시 사카이 도시히코가 천황제를 비판하고 있는 것과 서로 연결된다는 점에서 유인물의 내용은 그의 영향을 받았다고 하겠다.

유인물의 내용만을 통해 살펴보면, 그가 상당히 사회주의에 경도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가 어떻게 사회주의에 접하게 되었을까? 그것은 1923년 광주에 사회주의 비밀결사인 신우회가 창립되고 그 회원들이 차츰 점조직으로 회원수를 늘려가고 있었다. 이들은 광주의 소년운동, 청년운동, 노동운동 단체와 결합하며 세를 확대하고 있었다.

이미 1923년 광주청년회 임시의장으로 신인회를 창립한 강석봉이 선출되고 있다. 이는 중도적 성격인 광주 청년회가 사회주의 성향이 강한 인물로 채워짐을 말한다. 광주 청년운동의 양대 산맥에 해당하는 송정청년회도 이 무렵 이러한 새로운 사조의 영향을 받고 있었다. 평소 탐만 있으면 송정청년회 사무실을 들렀던 경채도 자연스럽게 사회주의를 접하여 매료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한편 1925년 조선공산당이 창당될 때만 하더라도 사회주의 관련 서적이 금서로 되어 있지 않았다. 일본도 1910년대 다이쇼크라시 영향과 1920년대 소련과의 국교 체결로 공산주의 활동 자체에 대한 탄압이 심하지 않았다. 이 무렵 이경채가 사회주의 서적을 읽었다 하여 공산주의 사상을 가졌다고 단정하는 것은 무리이다. 그는 사회주의 사상을 민족 독립의 수단으로 여기고 있을 따름이었다. 하지만 공산주의 사상이 천황제를 부정한 데다 자본주의의 산물인 제국주의를 비판하고 나온 것에 대한 부담으로 일제는 공산주의 사상을 탄압하기 시작하였다. 곧 조선에서도 1925년 조선공산당이 창당되자 치안유지법을 제정하여 탄압에 나섰다.

한편 경채는 누구보다 당시 식민지 현실에 분노하고 있었다. 필제 선생으로부터 이어진 강건한 가풍과 오성술 선생으로부터 배운 의리정신, 거기다 어등산의 의병, 송정리 3·1운동 등의 항일 운동으로 무장한 이경채의 정체성은 일제강점기의 모순된 현실을 꿰뚫어 보는 눈을 길러주었다.

이미 11세에 비교적 늦은 나이에 보통학교에 입학한 경채는, 학교 교육의 모순을 잘 알고 있었다. 광주고보에 입학하였지만, 조선말이 아닌 일본어로 수업하고, 일본인 교사의 한국인 학생에 대한 차별과 모멸, 일본의 식민지배를 합리화하는 교육내용 등이 더욱 노골화되는 것에 분노는 더욱 쌓여갔다.

그가 광주고보에 입학한 1924년 각 학교에서 일제의 식민지 교육을 비판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었다. 그해에 광주고보에서도 동맹휴학이 있었다. 수학여행 중에 들린 평양고보의 시설이 광주고보보다 훨씬 좋은 것에 충격을 받은 학생들이 이에 항의하였다. 이 운동이 비록 식민지 교육을 비판한 것은 아니었으나 이후의 동맹휴학의 단서를 제공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이경채는 송정리 친구들과 독서모임을 만들어 사회변혁을 도모할 생각을 하였다. 1926년 조선공산당이 창당되고 광주에서 야체이카가 조직되는 등 점차 사회변혁을 꿈꾼 젊은이들의 의식이 깨어나고 있었다. 이 무렵 있는 순종황제의 장례식과 6·10만세운동은 비록 그것이 3·1운동에 비해 규모 면에서 크게 미치지 못하나 소강상태이던 민족운동에 열기를 제공해주었다. 이 운동에는 학생과 사회주의 계열 인사들이 참여하였고, 지방에서도 호곡 등을 통해 나라 잃은 설움을 새삼 확인하였다.

6·10만세운동은 이념적으로 분열되어 있던 민족주의 세력과 사회주의 세력이 연대하는 계기를 제공해주었다. 1927년 신간회가 창립하였다. 신간회는 합법적 단체이다 보니 전국에서 많은 사람이 이 단체에 가입하였다. 광주에서도 신간회가 창립되었고, 청년, 소년운동을 강석봉의 아우인 강해석, 강석원 등이 각각 이끌고 있었다.²¹⁾

이러한 분위기에서 강석봉의 지도를 받아 성진회 및 그 후신 격인 독서회가 조직을 확대하고 있었다. 하지만 아직 이들 단체는 내부적으로 결속을 강화하는 단계였고, 구체적인 행동을 실행하는 단계에는 이르지 못하고 있었다. 하지만 학생들은 일제의 식민지 교육 나아가 식민지 체

21) 박해현, 『동구인물』 2.

제에 대한 불만이 커지고 있었다. 송정리 주민들로부터 촉망받는 아이로 일찍부터 주목을 받은 이경채는 점증하는 식민지배체제의 모순을 공격할 역할을 누군가는 해야 함을 알고 있었다.

다음은 이경채 사건의 판결문이다. 사건의 실체가 정확히 드러나 있다.

(전략) 한편 피고인 경채(景采)는 동년(同年) 3월 28일 밤에 몰래 송정리 보통학교 사무실에 침입하여 학교 비품인 등사판 및 그 부속품인 원지(原紙), 줄판, 인육(印肉: 인주) 【증 제30호, 제40에서 42호】를 훔쳐왔다. 4월 4일 무렵(頃) 두 사람은 피고인 병하의 집에서 위 등사판 및 그 부속품을 사용하여 전기(前記) 3종의 문서 각 수십 통을 적색으로 인쇄한 【증 제1, 2호】 후,

(1) ‘선언서’라는 제목의 인쇄물을 동월(同月) 11일 밤 어둠을 틈타 광주역 앞 경찰관 파출소 게시판, 광주고등보통학교 앞 전주(電柱) 외 광주 읍내 눈에 띄는 장소 6개소의 전주, 판자벽 및 송정리 역 앞 전주(電柱), 송정리 신사(神社)²²⁾ 내 게시판 외 송정리 읍내 눈에 띄는 장소 10개소의 전주와 판자벽에 붙였다. 그리고 동월(同月) 13일 밤 경채(景采) 집에서(2),(3)의 인쇄물을 각 1매씩을 1조로 하여 봉투에 넣어 동월(同月) 14일부터 동월(同月) 17일까지의 기간에 1부는 피고 병하가 송정리 우편소 앞 Post(우체통)에, 나머지는 피고 경채(景采)가 광주역 앞 Post(우체통)에 넣어 전라남도 내, 각 중등학교 및 경찰서, 기타 합계 19개소 앞으로 우송, 반포함으로써 공산주의를 선전, 선동하여 안녕, 질서를 방해하였고,

제2. 피고인 윤해병(尹海炳)은 전기(前記) 피고인 등의 범죄 사정을 알면서도 소화 3년 4월 18일 무렵(頃) 피고인 병하의 의뢰에 의해 피고인 경채(景采) 집에서부터 전기(前記) 인쇄에 사용한 등사판 및 전기(前

22) 일본에서 황실의 조상이나 나라에 공이 큰 사람을 신으로 모셔 놓고 제사 지내는 사당을 말한다. 메이지 정부는 제정일치라는 방침을 세워 신사를 국가의 기간으로 삼았다.

記) 불온문서의 인쇄된 것 20여 통을 받아 동일(同日) 무렵 자택에서 인쇄물을 불태우고 등사판을 파괴하였고, 동일(同日) 밤 피고인 병하 집에 있던 전기(前記) 인쇄에 사용한 등사판의 부속품인 줄판, 주육(朱肉: 인주) 각 1개, 원지(原紙) 수십 매를 받아 피고인 병하의 집으로부터 남방 약 10리 떨어진 야원(野原: 들판)의 도랑 안으로 가지고 가서 던져 버림으로써 전기(前記) 피고인 등의 범죄의 증거를 인멸한 것이다.

위 피고인 박병하, 이경채의 소위(所爲) 중, 국체(國體) 변혁, 사유재산 제도의 부인(否認)의 목적으로 실행에 관하여 협의한 한 점은 치안유지법 제1조에, 정치변혁을 목적으로 다수 공동으로 안녕, 질서를 방해한 점은 대정 8년 제령(制令) 제7호 제1조에, 정체(政體)를 변혁하려 한 문서를 출판한 점은 출판법 제11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고, 피고인 이경채의 절도의 소위(所爲)는 형법 제235조에, 피고인 윤해병의 죄 증인멸의 소위(所爲)는 동법(同法) 제104조에 해당하는 바, 1개의 소위(所爲)로 여러 죄 또는 연속된 관계에 있는 것으로는 동법(同法) 제54조 제1항 전단(前段) 제55조를, 병합죄(竝合罪)에 대해서는 동법(同法) 제45조, 47조를 적용하여 처단할 것으로 공판(公判)에 부치기에 족(足)한 범죄의 혐의가 충분하므로 형사소송법 제 312조에 따라 처단할 것이다.²³⁾

이경채는 박병하와 더불어 유인물을 작성하여 배포하려는 계획을 세웠다. 1928년, 송정면 출신의 학생이 이렇게 위대한 일을 행동에 옮겼을까? 앞서 설명한 학생운동의 배경에서 이러한 까닭을 찾을 수 있다. 하지만 왜, 1928년, 광주 송정면에서, 이경채였을까 하는 것을 밝힐 필요가 있다. 그래야만 역사를 구조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

광주 송정면은 일제강점기 수탈물이 오가는 물산의 집결지로, 어느 지역보다 반일 감정이 높았다. 이경채가 거주한 동부마을이 일본인이 아예 발을 들이지 못할 정도로 항일의식이 뚜렷한 곳이라는 점은 이러한 사정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준다. 또한 이경채 개인적으로도 강렬한 민족의

23) 소화 3년 예제 11호(광주지방법원 1928.7.21.) (박해현·김승태 공역, 『판결문으로 본 광주전남 학생운동』).

식이 형성되어 있었던 데다, 그의 숙부인 이성방이 송정면에서 활발한 청년, 사회운동을 전개하고 있었던 것도 중요한 이유였다. 여기에 1928년 2월 7일 광주 송정면에서 결성된 신간회 송정지부의 창립은 이 지역을 대표하는 수재인 경채의 애국심을 자극하였다. 게다가 학교 안팎을 중심으로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항일운동의 열기는 그를 항일운동사의 찬란한 주역으로 불러냈다.



이경채 공적비 (송정동초등학교)

이경채는 평소 항일의식이 뚜렷한 죽마고우 윤해병, 박병하와 더불어 일제의 식민지 교육을 비난하고 식민지 체제를 비판하는 유인물 제작·살포하려는 계획을 수립하였다.

1928년 3월 28일 이경채는 송정보통학교 사무실에 들어가 학교 비품인 등사판 및 그 부속품인 원지, 줄판, 인주 등을 가져왔다. 신문에는 등사판을 ‘고물 등사판²⁴⁾이라 하였고 이경채가 ‘소사(小使)²⁵⁾’ 모르게 가져왔다고 하였다. 이경채가 사용한 등사판은 학교에서 사용하지 않고 창고에 보관하고 있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만약 학교에서 사용한 것이라면 3월 29일 출근한 교직원이 방학이라 하여도 등사판의 분실 사실을 몰랐을 리 없다.

학교에서 가져온 등사기를 이용하여 이경채는 4월 4일 윤해병과 함께 박병하 집에서 ‘선언서’ 등 3종의 유인물을 수십 통씩 인쇄하였다. 그리고 4월 11일 유인물을 광주역 앞 파출소 게시판, 광주고보 앞 전주, 송정리 신사 내 게시판에 부착하여 행인들이 쉽게 볼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고 이틀 후인 4월 13일 밤 인쇄물을 봉투에 넣어 이튿날인 14일부터 17일까지 우체통에 넣어 발송하였다. 송정면 우체국 앞 우체통에는 박병하

24) 중외일보 1928. 5. 2. 중외일보의 또 다른 기사에는 ‘자가용 등사판’이라고 나와 있다.

25) 학교나 관공서 등에서 잔심부름을 하는 남자를 일컫는다.

가, 광주역 앞 우체통에는 이경채가 넣었다. 이들이 4월 11일 밤에 유인물을 심지어 경찰서 앞 게시판을 비롯하여 시내 요소요소에 부착하고, 그리고 3일 후인 4월 14일부터 17일까지 4일에 걸쳐 우체통에 유인물을 넣은 것은 보통 사람이 할 수 없는 엄청난 대담함을 가졌다고 하겠다. 그리고 4월 18일 윤해병은, 박병하의 부탁으로 이경채 집에 가져온 등사기와 인쇄물을 그의 집에서 파기하고 불태웠다. 출판과 인주, 원지 등은 병하 집에서 약 10리 떨어진 들판의 도랑에 버렸다.²⁶⁾

생전에 이경채는 1977년 무렵 이를 회고하면서 ‘유치한 것²⁷⁾’에 불과하였다고 겸양의 모습을 보였지만, 당시로 돌아가서 판단해보면 어린 학생들의 소행이라고 도저히 믿어지지 않을 정도로 치밀한 준비와 대담성을 보였다. 유인물의 내용도 “선언서”에서 계급주의를 강조하고, “건전한 사상을 가지고 있는 학생 계군에 고향”에서는 천황제를 비판하고, “자본주의 계급적 고등 충복 계군에 고향”이라는 글에서는 자본주의 사회의 모순을 지적하는 등 이경채가 계급주의 일본과 조선 사회가 처한 현실을 정확히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여하튼 4월 12일 아침 광주·송정 여러 곳에 붙은 유인물이 뿌러지자 전국이 발각 뒤집혔다. 게다가 4월 14일부터 배달된 유인물을 보고는 일제 당국은 경악을 금치 못하였다. 특히 천황제를 비판한 내용을 본 일본 당국은 커다란 충격을 받았다. 이 사건을 당시 언론이 대대적으로 보도하고 있는 것에서 이를 짐작할 수 있다.²⁸⁾

일본당국을 두려움에 처하게 한 이 사건의 범인은 오리무중이었다. 일본 경찰은 광주와 송정의 우체통에서 발송이 되고, 두 지역에 유인물이 부착된 것으로 보아 광주 및 송정지역에 범인이 있다고 의심하였다. 1928년 4월 16일 송정리에 파견된 광주경찰서 소속 일본경찰은 당시 신

26) 소화3년 예제11호(광주지방법원 1928. 7. 21).(박해현·김승태 공역, 2021 『판결문으로 본 광주전남 학생운동』).

27) 이경채, 「투쟁경력」.

28) 동아일보 1928. 7. 26. 및 중외일보 1928. 6. 28.

문에 이들이 ‘맹활약’ 하였다고 표현하였을 정도로 송정리 주재소 경찰과 합동 수사본부를 구성하여 범인을 찾으려 혈안이었다.

먼저 광주 청년들을 체포한 합동수사본부는, 송정리 청년들에게도 혐의를 두고 4월 18일 송정 청년회장 이성태, 위원인 양영일, 이상근, 조칠성, 박승남을 구속하였다. 그리고 4월 21일에 경찰은 다시 광주소년연맹 위원인 김관업, 김만년, 광주고보 5년생인 김재천을 이 사건의 관련자로 구속하였다. 이들이 송정 청년회와 광주소년연맹을 제일 먼저 수사 대상으로 삼은 것은 이들이 평소에 이러한 움직임이 보였기 때문이었다.

5월 2일 언론 보도에, 박병하가 진범으로 체포되고, 부랑청년 송정리 윤모, 모학교 재학생 이모라 한 것으로 미루어, 그때에야 일본 경찰은 윤해병과 이경채를 주범으로 특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이경채 등은 아직 체포되지 않고 있었다. 이 사건 직후 이들이 피신한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이 사건을 확대하며 수십 명을 구속하였으나 당시 광주 여론은 진짜 범인은 따로 있다고 경찰 수사를 조롱하였다.²⁹⁾ 이는 처음에 이경채 등이 수사 선상에 올라 있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그러다가 이경채 등을 체포하여 주범으로 특정한 수사 검사 酒井은, 장석천, 장순기, 국채진, 이상근, 양영일, 이성태 등을 석방하고 한길상, 지창수, 강해석(이상 광주청년동맹 출신) 조칠성, 박승남, 박OO(이상 송정동맹출신) 등을 예심 재판에 넘겼다.

이경채는 사건 발생 거의 2개월이 다 된 6월 8일 광주경찰서 경찰에 의해 체포되었다. 그리고 이경채, 박병하, 윤해병 등 모두 8명이 7월 예심 재판에서 공판에 회부되었다. 광주를 비롯하여 전국을 떠들썩하게 한 이경채 사건은 그가 체포됨으로써 일단락된 것 같았다. 하지만 이 사건이 광주를 흔드는 맹휴의 도화선이 되고, 이듬해의 광주학생운동으로 이어지리라고는 아무도 몰랐다.

여하튼 이경채 유인물 사건이 일어나자 일본 경찰이 광주 소년동맹과 송정청년회를 수사 대상으로 삼았다는 것은 이경채가 송정청년회 또는

29) 중외일보 1928. 5. 2.

송정청년동맹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었음을 말해준다.

4) 맹휴중앙본부 결성과 맹휴

이경채가 뼈라 사건의 주동 인물로 밝혀지자 광주고보는 발각 뒤집혔다. 우선 광주고보 학생들은 5학년 선배인 이경채가 이러한 영웅적 행동을 하였다는 점에서 깊은 충격을 받았고, 광주고보 학생이라는 데에 긍지가 생겼다. 독서회원을 비롯한 비밀결사 회원, 그리고 일반 학생들은 이 사건의 전개 방향을 예의주시하고 있었다.

그런데 6월 19일 이경채가 체포된 지 겨우 10일이 되어 수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광주고보 교장 白井은 이경채의 부친인 이성륜을 학교로 불러 퇴학 처분을 통보하였다. 학교 측은 사건의 불뚱이 그들에 미치는 것을 염려하여 선제적으로 퇴학이라는 가장 무거운 처벌을 내렸다. 이성륜은 학교측의 부당함에 강력히 항의하였다. 이 소식을 들은 학생들이 바로 반발하였다. 당시의 사정을 보도한 신문 기사이다.

광주고보 맹휴소동

이십여 요구 조건 내건 사태 비상 협약

광주공립고등보통학교에서는 얼마 전에 동교 5학년생 이경채가 한동안 광주 사회를 놀라게 한 불온문서 배부 사건에 관하여 자가용 등사판을 빌려주었다는 혐의를 받은 광주지방법원 예심에서 취조를 받아온다는 바, 동 학교 당국에서는 아직도 사건의 진상이 판명되기 전에 이경채의 부친되는 이모(某)를 데려다가 말을 한 후 퇴학 처분을 내렸다는 이유로 동교 일반 생도들은 학교 당국의 처치가 너무나도 가혹하다고 분개하여 동 교장 백정(白井)씨에게 여러 가지로 질문서를 제출했는 바, 교장 백정씨는 조금도 반성이 없이 도로 학생들을 폭압하기 위해 학부형회를 소집하고 일반 학부모에게 갖은 위협을 한다 하며 일반 생도들에게 대한 학대의 분개함을 참지 못하여 지난 26일 동교일에도 동교 2,

3, 4, 5학년생 전부 3백여 명이 등교 대강당에 모여 20여 조를 학교당국의 실태를 통렬한 장문의 성명서를 학교 당국에 제출하고 일체 동맹휴학을 단행하였다.³⁰⁾

● 광주교보 400명 돌연히 맹휴

복교 진정에 불응한다고 복잡한 맹휴의 내용

광주고등보통학교 학생 중 1학년을 제외한 2, 3, 4, 5학년 500여 명은 26일 오전 9시부터 돌연히 수업을 거절하고 진정서를 제출 후 동맹휴학을 수행하였으므로 동교의 向井³¹⁾ 교장은 군청 도청에 출두하여 美根 학무과장과 市川 視學으로부터 장시간 협의 후 귀교하였는데 그 원인은 즉 금년 3월에 송정리 공산당 사건이 발생하였을 때에 동교 5학년 이경채가 참가되었다는 혐의로 검속되어 목하 광주지방법원 예심에 있는 바, 동 교장은 학생의 신분으로 부적당하다고 10여 일 전에 퇴학 처분을 하였는바 이에 대하여 동교 5학년생 중에서 아직 기소 여부도 기다리지 않고 퇴학 처분을 함은 너무 가혹한 일이니 출옥하면 복교케 하라고 진정하였으므로 교장은 이를 거절하였는 바 그 후에는 학생 사이에 종종 비밀회의가 중복되고 怠學을 하는 상태이므로 동교에서는 지난 24일에 학부형회의를 소집하여 충분한 양해를 구하였는 바 이번에 돌연히 맹휴까지 하자 말을 안 들으면 단연히 처분.

미근 학무과장 談

이에 대하여 미근 학무과정은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그들의 요구 조건은 아직 발표할 수 없다. 요구의 대개는 전기 이경채 복교의 건, 현 교수 2명 퇴임, 교우회 집회 자유 등인 바 실로 유감이 다. 학생의 신분으로 간섭하지 않을 일까지 간섭하는 것은 부적당한 일인 줄 안다. 처분 방침은 어디까지나 권유해보아서 최후까지 듣지 않으면 그대는 부득이 최후 수단에 이를지도 알 수 없다”며 매우 분주한 태도였다.³²⁾

30) 1928. 6. 28. 중외일보.

31) 白을 ‘향(向)’으로 잘못 기재한 것 같다.



매일신보 (1928. 6. 28.)

이경채 사건을 보도한 당시 신문 보도와 판결문을 통해 상황을 구성할 수 있다. 이경채는 1928년 6월 8일 체포되었다. 학교에서는 기소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6월 19일 이경채를 퇴학시켰다. 그리고 학교 당국은 학생들의 반발이 이어지자 6월 24일 학부형회의를 열어 학생들의 동요를 막으려 하였다. 그러자 학생들은 학교 당국에 이경채의 복학을 주장하며 그들의 요구 조건을 제시하였다.

학교 당국이 이에 대응하지 않고 오히려 학생들을 징계하자 퇴학 사유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던 4, 5학년 학생 대표 11명은 24일 학부형회 석상에 진정서를 배포하였다. 학교에서는 11명의 학생 대표에게 즉시 근신 처분을 내렸다. 이에 6월 26일 2, 3, 4, 5학년 학생들은 교장에게 다음과 같은 진정서를 제출하고 맹휴에 돌입하였다.

학교 당국이 이에 대응하지 않고 오히려 학생들을 징계하자 퇴학 사유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던 4, 5학년 학생 대표 11명은 24일 학부형회 석상에 진정서를 배포하였다. 학교에서는 11명의 학생 대표에게 즉시 근신 처분을 내렸다. 이에 6월 26일 2, 3, 4, 5학년 학생들은 교장에게 다음과 같은 진정서를 제출하고 맹휴에 돌입하였다.

광주고보 맹휴 요구사항

1. 교우회 획득에 관한 건
2. 교 당국 교육 방침에 관한 건
3. 조선인 본위의 교육실현에 관한 건
4. 물리 화학 교실을 신축할 일
5. 교외 일반집회에 생도 자유 참가를 허가할 일
6. 4, 5학년생 급장 11인에게 명한 근신을 즉시 취소할 것

이 조건을 실현할 수 없을 때에는 백정 교장은 책임을 지고 물러날 것을 요구하였다. 그러자 학교에서는 이튿날 27일 맹휴 주동 학생 27명을 퇴학시키고 280명을 무기정학 처분하는 등 강경하게 나오며 학생과 대

32) 매일신보 1928. 6. 28.

립하였다.

학생들의 요구 조건을 통해 식민지 교육 정책에 대한 반발임을 알 수 있다. 1항부터 6항까지의 내용이 대부분 조선 학생들이 총독부의 교육정책에 가졌던 불만이였다.

白井교장은 학생들에게 고압적이였다. 1925년 여름방학 때 소년척후대 주최의 웅변대회에 참가하였다는 이유로 4학년 학생을 퇴학 처분하여 학생들이 반발한 적도 있었다. 그런데 이경채에 대해 퇴학 처분을 내리자 2학년부터 5학년까지 전체 광주고보생이 맹휴에 참여한 것이다. 이렇게 전체 학생이 맹휴에 참여한 것은 이경채가 뼈라를 살포하여 일본의 식민지배 체제를 정면으로 비판한 영웅적인 행동을 하였기 때문이다. 학생들이 한마음이 되어 맹휴에 자발적으로 참여하였다.

그런데 이들의 맹휴 요구조건을 보면 당시 조선 학생들이 가졌던 불만이 모두 압축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교외 일반집회에 생도 자유 참가” 요구를 통해 학생들의 집회의 자유가 제한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물리, 화학 교실의 설치 요구는 일본인 학교인 광주중학교와 비교하여 현저히 시설이 낙후되어 있음을 말해준다. 학생들에게서 거둔 교우회비가 타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아 교우회의 자치적 운영을 요구하였다. 또한, 한국어 문법 교육, 한국사 수업, 한국인 교원의 채용을 요구하였다. “조선인 본위의 교육 실현”을 주장하였다.

광주고보 학생들이 6월 26일 2학년부터 5학년 전원이 맹휴에 들어간 사건은 사실상 전교생이 맹휴에 가담한 것으로 광주 전역에 엄청난 충격을 주었다. 광주고보에서 맹휴가 시작된 3일 후인 6월 29일 농업학교 2, 3, 4학년생 130명도 맹휴에 돌입하였다. 1학년도 맹휴에 참가하였다. 농업학교의 맹휴는 광주고보 맹휴에 대한 동조맹휴의 성격이 강하였다.

맹휴가 일어나자 당황한 광주고보 당국은, 주모자 12명 퇴학, 102명 무기정학, 나머지 참가 학생들에게 근신처분을 내렸다. 학교 당국의 강경한 탄압은 오히려 맹휴 가담 학생들을 자극하였다.

맹휴 직후인 6월 30일 맹휴 결속을 독려하던 허진환, 주재성, 김종호,

조기석, 정재억, 이강오, 이강후 등은 교사를 만나러 간 1학년 흥헌종을 구타 응징하기도 하였다. 7월 10일에는 맹휴 활동을 효율적으로 이끌기 위해 최규창의 하숙집에 임주홍 등이 모여 ‘맹휴중앙본부’를 결성하였다. 중앙본부는 참모부, 통신부, 외교부, 회계부를 설치하여 조직적인 투쟁을 전개하였다. 심지어 지방 학생들의 결속을 위해 지방대표기관을 조직하였다. 맹휴 중앙본부는 학부모에게 통고문을 보내 맹휴의 정당성을 알리고 적극적인 지원을 호소하였다. 맹휴생에게는 끝까지 투쟁할 것을 알리며 결속을 다지고 있었다. 白井 교장에게 보내는 항의문도 작성 배부하였다.

맹휴중앙본부의 결성은 장기적이고 효율적인 투쟁을 가능하게 한 원동력이 되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부여한다. 학부모에게 보낸 맹휴 지도본부의 격문을 통해 맹휴의 성격을 엿볼 수 있다.

한·일합병 후 18년 이래 우리 민족은 일본 제국주의의 철제하에서 극도로 유린당하여왔다. 그들의 가혹한 경제적 착취를 감행하는 데에는 악독한 정치적 압박이 있고 그를 미식(美飾)하는데에는 음험한 문화적 기만이 있었다. 현하의 조선 교육은 그들의 만착(瞞着)³³ 정책의 노골적 전형이다. (중략) 교장 시라이씨는 조선총독부 식민지 노예교육 정책의 전형적 이행자이다.(하략)

맹휴 지도본부의 구성원들은 자신들이 식민지 노예교육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나아가 이들은 맹휴운동을 항일 민족운동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단순히 교육 현실에 대한 항변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한국인 전체가 일제의 압제 아래에 고통받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였다. 식민지 노예교육은 일제의 한국인 전체에 가해진 전반적인 기만정책의 한 형태에 불과하고 민족적 파멸의 경향이 있는 것이라고 보았다. 이들은 “우리들의 맹휴의 자체에만 향한 승리가 아니다. 이 승리는 실로 우리 피압박 민족의 해방의 길이요, 소생의 원천이 되는 것이다”라고 하

33) 만착(瞞着) : 사람의 눈을 속여 넘김.

여 맹휴운동을 민족해방운동으로 간주하고 폐교를 각오한 결사 투쟁을 선언하고 있었다.

광주농업학교 학생들도 이와 유사한 생각이었다. 김재룡, 유상걸 등이 작성한 광주농업학교의 격문에도 “싸우자, 싸우자, 모국을 위하여 최후까지 싸우자, 모국의 생명은 우리들의 활동 여하에 있다. 2천만 동포를 부활시켜 3천리 강산을 빛나게 하는 것은 우리들의 두 어깨에 있다”고 하여 맹휴를 민족적 사명감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일제는 광주고보와 농교 맹휴생에 대해 강도 높게 탄압하였다. 고보생 가운데 배신자인 흥헌종을 응징한 학생을 비롯하여 고보 맹휴 지도본부 성원³⁴⁾과 농교 맹휴의 주동자³⁵⁾들에게 실형을 선고받았다. 다른 학교 맹휴와 비교하여 가혹한 것이었다.

광주고보의 맹휴에 대해 졸업생 대책위, 학부협회 등이 학교와 중재에 나섰다. 특히 광주고보 출신의 동경 유학생들은 대책 강구회를 결성하고 장재성, 최동문, 전창모를 대표로 선정하고 맹휴의 진상 조사와 선후책을 찾도록 하였다. 하지만 맹휴는 학부협회가 학교 당국에 굴복, 타협하여 학교 측의 최후 통첩일인 9월 17일 학생들을 등교시킴으로써 끝났다.

한편 9월 12일 수업을 재개한 농업학교에서는, 등교 후에도 9월 18일 고보 3학년 학생들이 수업을 거부하고 퇴장하였다. 이때 경찰이 학교로 난입하여 주동 학생 여러 명을 검거하기도 하였다. 1929년 학생시위 당시 ‘교내에 경찰관 침입을 절대 반대하자’라는 구호가 나온 배경이다.

맹휴 중앙본부가 결성된 최규창의 하숙은 맹휴 대책강구회 위원인 최동문의 집이었고, 장재성과 최규창은 성진회원이었다. 또 맹휴 지도부에

34) 임주홍(4년, 징역8월), 최규창(3년, 징역8월), 정동화(5년, 징역 10월), 변진설(4년, 징역8월), 박세영(4년, 징역10월), 김기권(3년, 징역6월), 서재호(4년, 징역6월), 서재익(징역6월, 집행유예 2년) 등 징역형을 선고하였다.(소화 3년 형공 제864호, 제891호)(광주지방법원 1928.10.5.)(박해현·김승태 공역, 앞의 책).

35) 송성수(4년, 징역8월), 김재룡(2년, 징역6월), 유상걸(2년, 징역6월), 김윤성(2년, 징역 6월), 나석현(2년, 징역6월)(소화3년 형공 제873호)(광주지방법원 1928.9.28.)(박해현·김승태 공역, 앞의 책).

등사관을 제공한 사람이 광주청년학원 교사 서재익이었다. 이런 면에서 맹휴 지도부가 광주청년연맹과 연계되어 있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고보와 농교의 맹휴 과정에 성진회 등 독서회원들이 주도적으로 활동하고 있음은 맹휴 중앙본부가 성진회원인 최규창의 하숙에서 결성되었고 임주홍 등이 참여한 사실에서 알 수 있다. 농업학교의 맹휴 주동혐의로 실형을 받은 김재룡과 유상결은 1927년 11월에 결성된 연구모임 구성원이었다. 이들은 농교의 맹휴 당시 선언서를 작성하는 등 주도적으로 활동하였다.

‘이경채 사건’을 계기로 촉발된 1928년 고보와 농교의 맹휴는 지도부의 학생 맹휴에 관한 명확한 인식과 강렬한 투쟁 의지를 바탕으로 조직적으로 계획을 수립하여 전개되었다. 이 맹휴는 외견상 일제의 탄압으로 성공하지 못한 것 같았으나 실제로는 맹휴 추진 중앙본부가 본격적인 시위를 준비하고 있었다. 이경채의 「투쟁경력」에 자세히 나와 있다.

“1928년 7월 동맹휴교 때 다수 희생자(구속, 퇴학 학생을 말함)와 재학생 독서회원들과 장기 계획을 모의하였다. 시위할 때 제1선 학생진용이 체포되면, 제2선 학생진용이 앞으로 나가고, 제2선 학생진용이 체포되면 제3선, 그리고 제4선이 항쟁을 계승하는 것으로 계획을 수립하였다.

이러한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이듬해 11월 3일 일어난 시위가 오랜 기간 지속되어 전국적인 시위로 확산될 수 있었다”

그러니까 이경채 사건으로 촉발된 맹휴가 단순 수업 거부가 아니라 ‘맹휴중앙본부’라는 식민 지배체제를 무너뜨리려는 만세 시위를 조직적으로 준비하는 조직체의 결성으로 이어졌고, 이 조직체가 1년 넘게 치밀하게 준비한 것이 이듬해 11월의 광주학생운동이었다. 곧 11월 3일 광주에서 폭발하여 전국으로 확산된 광주학생독립운동은 이경채 사건으로부터 시작되었다. 이경채 사건이 갖는 역사적 의의가 여기에 있다.

한편 1928년 9월 사회과학 연구모임을 결성한 광주고보생 김몽길, 여도현, 김경술, 하길담 등 4명이 학교 규칙을 어겼다는 이유로 1929년 3월

퇴학을 당하였다. 이들은 학교 당국의 부당한 퇴학 조치에 항의하기 위해 선전격문 7백여 매를 작성하였다. 격문에는 1928년 맹휴 주도 학생에 대한 무더기 퇴학에 항거하고 기숙사 입·퇴사의 자유, 스파이 박멸 등을 비롯하여 “교우회 자치, 조선인 본위의 교육 실시, 노예교육에 항쟁, 독서의 자유획득, 학원 내 경찰 투입과 간섭 반대” 등이 들어 있었다.

1929년 3월 23일 졸업식 날 식장, 휴게실 등에 격문을 살포하고 학생들에게 격문의 취지를 연설하였다. 졸업식이 시작되자 김몽길, 여도현 등은 白井 교장에게 퇴학 이유의 설명을 요구하였는데 백정 교장이 이를 거부하고 교장실로 피신하였다. 이에 김몽길, 여도현을 비롯한 2천여 명의 전교생들이 교장실로 몰려가 면담을 요구하며 유리창을 파괴하다가 체포되었다. 이 사건으로 김몽길, 여도현은 징역 6월, 김경술, 하길담이 징역 4월에 처해졌다.³⁶⁾ 이경채 사건의 뜨거운 불길이 이듬해까지 활활 타오르고 있음을 알려준다. 이 불길은 1929년의 광주학생운동으로 이어지는 매개체 역할을 하였다.

한편 이경채 등 3명은 1928년 6월 8일 체포되어 한 달 넘게 광주지방법원 검사국에서 조사를 받고 7월 21일 기소되었다. 이를 보도한 당시 신문기사이다.

광주 불온문서 사건

3명만 공판 회부 광주 청년은 관계가 없어

5명은 면소(免訴) 출감

한동안 세상의 이목을 놀래이던 불온문서 사건으로 인하여 광주와 송정리에서 사회운동을 하는 청년 수십 명을 검거하여 엄중한 취조를 하다가 여덟 명만은 광주지방법원 예심에 부치고 나머지는 석방되었다 함은 이미 보도하였거니와 피의자 여덟명은 우금(于今) 녀달 동안이나 예심 중에 있던 바, 지난 21일야 광주 청년 등은 그 사건에 관계가 없었다는 것이 판명되어 면소 출옥되고 송정리 청년 3명만 기소되어 공판에

36) 소화 4년 형공 제434호(광주지방법원 1929. 4. 24) (박해현·김승태 공역, 앞의 책).

부치게 되었는데, 그 씨명은 다음과 같다.

면소 출옥자 : 강해석, 한길상, 지창수, 조철성, 박승남

기소자 : 이경채 박병하 윤해병³⁷⁾

이경채, 박병하, 윤해병 3인만 기소가 되고 나머지 소년, 청년단체 간부들은 이 사건과 직접 관련이 없다 하여 면소 처리하였다는 내용이다. 이경채 사건이 처음 일어나자 이를 광주 소년·청년동맹, 송정청년회가 이경채 등과 공모한 것으로 의심하였던 수사 당국은 이를 입증할 증거를 찾지 못하자 면소하였다. 광주청년동맹과 송정 청년회를 사건 직후인 4월 중순부터 7월 21일까지 3개월 넘게 구금하여 조사하였음을 알 수 있다.

7월 21일 공판에 넘겨진 이경채 등의 재판을 무려 3개월이나 끌었다. 일제가 이 사건에 받은 충격이 컸음을 말해준다. 단순히 학내 사건에 대한 불만의 표출이 아니라 일본의 국체를 정면으로 비판하고, 천황제까지 공격했다는 것은 엄청난 충격이었기 때문이다. 1928년 10월 12일 광주지방법원은 이경채 등이 만 18세가 되지 않아 소년형무소에 보낼 처지임에도 불구하고 이경채 징역 1년 6월, 박병하 징역 1년, 윤해병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등 중형을 선고하였다. 이들에게 적용된 죄목은 다음과 같다.

박병하와 이경채는 국체변혁과 사유재산제도를 부인하였다 하여 치안유지법 2조에 문서를 출판하였다 하여 출판법 11조 1호, 형법 제 55조 2호에 해당하고, 이경채의 절도 행위는 형법 135조, 윤해병은 형법 104조에 각각 해당한다. 이경채의 절도 행위는 형법 제54조 제1항 전단제10조에 의해 무거운 치안유지법 위반죄에 의해 처단한다. (하략)³⁸⁾

이경채 사건 재판 결과도 당시 주요한 관심사였다. 당시 신문에 보도된 기사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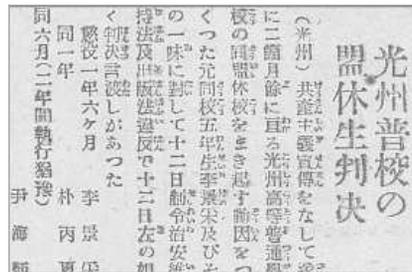
37) 동아일보 1928. 7. 26.

38) 소화 3년 형공 제665호(광주지방법원 1928. 10. 12.)(박해현·김승태 공역, 앞의 책).

광주보교(普校)의 맹휴생 판결

공산주의 선전을 하여 마침내 2개월여 걸친 광주고등보통학교의 동맹휴교를 일으킨 동인(動因)을 제공한 전(元) 동교 5년생 이경채 및 그 일당에 대해 12일 制수 치안유지법 및 출판법 위반으로 12일 다음과 같이 판결하였다. 징역 1년 6개월 이경채, 동 1년 박병하, 동 6월(집행유예 2년) 윤해병³⁹⁾

이경채는 경기도 개성에 있는 소년형무소⁴⁰⁾에서 복역하였다. 그는 형무소 복역 중 식자(植字) 일을 하였다. 이때 배운 植字 작업은 훗날 임시정부에서 한국독립당 기관지 ‘진광’을 발행하는 일에 참여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



광주보교 맹휴생 판결 신문 보도

경채는 거의 1년 가까이 복역하다 1929년 9월 4일 가출옥(假出獄)하였다.⁴¹⁾ 이때 가출옥 사유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소화 국왕의 특사로 형기가 1/3 감경되어 출옥하였다는 의견이 있다.⁴²⁾ 그의 출옥 일을 1929년 10월 20일로 밝힌 글이 많으나⁴³⁾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39) 조선신문, 1928. 10. 16.

40) 개성 소년형무소는 1923년 경성형무소 개성분감이 승격된 것이다. 18세 미만의 남자 소년과 이에 준하는 자를 수용하였다. 1942년 광주사범 재학생들이 조직한 항일 비밀결사인 무등독서회원 홍창기도 개성 소년형무소에 수감되어 있었다.

41) 국가기록원 『가출옥 관련자 명부(관리번호 4404)』.

42) 광주학생독립운동 재경 후손회, 『애국지사 이경채 항일투쟁』.

43) 위의 책.

한·일 학생 충돌과 제1차 시위

1. 명치절 행사와 학생 시위

1) 수기옥정 부근 한일 중학생 충돌

개성 소년형무소에 수감된 이경채는 1929년 9월 4일 가출옥으로 풀려나 광주에 돌아왔다. 그가 고향 광주 송정에 돌아왔을 때 그는 이미 전설적 인물이 되어 있었다. 그러나 일본 경찰이 24시간 감시하고 있어 사람들을 만날 생각도 하지 못하였다. 하지만 그가 뿌린 항일운동의 뜨거운 불길이 비등점을 넘어서고 있었다. 우리 민족 최대의 항일운동인 광주학생운동이 다가오고 있었다.

11월 3일은 일본 최대 명절 중 하나인 명치절이었다. 이날 광주에서는 전남 누에고치 6만석 돌파 경축회가 열려 일찍부터 북적거렸다. 비밀결사인 성진회 결성 3주년이 되는 날이기도 하였다. 학생들은 광주공원에 있는 신사에서 행해진 명치절 의식에 참석했다. 행사 후 시내에서 한, 일 학생들 사이에 충돌이 일어났는데 이른바 수기옥정 충돌사건이라 명명되고 있다.

수기옥정 충돌사건은 오전 11시 무렵 일어났다. 광주고보 7, 8명과 광주중 일본 학생 10여 명이 수기옥정 거리에서 우발적으로 충돌한 사건이다. 이를 계기로 시내 곳곳에서 한·일 학생들 사이에 충돌이 벌어졌다.

이때 수십 명의 광주중학교 학생들이 유도교사를 앞세우고 야구 방망이와 죽검을 들고 광주역으로 몰려왔다. 광주역에는 한국 학생 수십 명이 기차를 기다리던 중이었다. 이 소식을 들은 광주고보 기숙사 학생들이 몽둥이와 야구 방망이를 들고 광주역으로 뛰어갔다. 근처에 있던 광주농업학교 학생도 합세하였다. 일본인 학생들도 광주중학교에 연락해 백여 명 학생들이 달려왔다. 광주역 일대에 한, 일 양국 학생들이 치열한 난투극이 전개되었다.

광주역 대합실은 일본 학생들의 본진이 되었고, 건너편 남철자동차회사 대합실은 한국인 학생의 거점이 되어 일대 혈투가 전개되었다. 그러나 점차 일본 학생들이 밀려 도망가자 한국 학생들은 일본 학생들을 추격했다. 당시 경찰서원과 소방대원, 양교 교직원이 나와 사태를 진정하려 하였지만, 소용이 없었다. 광주고보 학생 200여 명은 학교로 돌아왔다.

2) 무등산의 포효와 제1차 시위

광주고보생들은 학교 강당에 모여 대책을 논의했다. 5학년 을조 급장인 노병주가 의장을 맡았는데, 먼저 수기옥정 싸움에 앞장섰던 최쌍현이 경과보고를 했다. 나주 열차 통학생 오쾌일도 “오늘의 대승리를 신천지의 동포들에게 알리고 일제 타도의 의지를 천명하기 위한 시위를 전개하자”고 제의했다. 학생들의 시가행진도 결정했다.

이때 광주고보에 와 있던 광주농업학교 5학년이자 기차 통학단장 최태주는 “광주 고보생만이 조선 학생이 아니오. 우리 광주농교생도 한 피를 받은 동포이니 생사를 같이하여 시위에 참여하겠습니다”고 말하여 학생들의 박수와 호응을 받았다.

300여 명 학생은 학교 운동장으로 나왔다. 이들은 농기구와 야구 방망이를 하나씩 챙겼다. 와파나베 교감과 교사들이 만류했지만, 학생들을 막기에 역부족이었다. 이때가 오후 2시경이었다. 시위대열은 여덟 명씩 스크럼을 짰다.¹⁾ 학생들은 교가, 운동가, 창가를 소리 높여 외치며 수기옥정을 왼편으로 들고 광주역 - 우편국을 돌아 성저리 거리에서 일본중

학교를 향하다가 다시 경찰의 제지를 받자 이번에는 보통학교 앞에서 우편국으로 꺾어서 본정통으로 나와서 광주 우편국 앞을 지났다. 이들은 도립병원에서 금계리를 지나 부동교를 건너 광주천을 따라 내려오다가 광주교를 건너 수기옥정으로 귀교하여 해산했다.

광주농업학교 학생들도 시위대에 합류했다. 시위대열은 시내를 돌아서 양림리 방향으로 향했고 광주천변을 따라 내려가다 부동교를 건넜다. 이들은 대규모 가두시위를 통해 '조선독립', '총독정치 파괴', '식민교육 철폐' 등과 같은 구호를 외쳤다. 오후 5시 무렵까지 약 3시간 광주 시내를 휘젓고 다녔다. 일본 당국은 당황하여 11월 4일부터 7일까지 한국 학생들이 다니는 중등학교의 3일간 임시 휴교를 결정하였다.

2. 1차 시위와 학생투쟁지도본부 결성

1) 1차 시위와 검거 선포

시위대가 해산한 후 시내 곳곳에 무장경찰이 배치되고, 시위 학생에 대한 대대적인 검거작전이 시작되었다. 11월 3일 오후 5시부터 11월 10일까지 광주고보 48명, 광주중학교 8명, 광주농업학교 11명, 전남사범학교 5명 등 총 72명이 체포되었다. 이 가운데 광주고보생 11명을 기소하고, 60여 명을 검사국으로 송치했다. 일본 중학생 7, 8명은 이틀간 구금했다가 11월 5일 석방했다.

일제는 4일(월)부터 6일(수)까지 3일간 휴교 조치했으나, 다시 11월 9일까지 연장했다. 일제 당국이나 재광 일본인 거류민단은 사태의 원인을 조선 학생의 잘못에서 찾았다. 한국인 학부형들은 한국 학생에 대한 부당한 구속과 검거에 반발하였다.

1) 이경채는 4명이 1조로 스크림을 만들었다고 하였다. 4명, 8명 등으로 나누었다고 본다.

2) 광주 청년연맹과 학생투쟁지도본부

11월 3일 오후에 광주 청년동맹 집행부는 긴급 모임을 갖고 학생투쟁을 항일운동으로 전환하기로 하였다. 첫째, 투쟁대상은 광주중학생이 아닌 일본 제국주의이니 투쟁 방향을 일제로 돌릴 것, 둘째, 광주중학생에 대한 적개심과 투쟁을 일제에 대한 증오와 독립투쟁으로 바꿀 것, 셋째, 대치중인 광주고보생을 해산시키지 말고 광주고보로 집결시켜 식민지 강압정책 반대 시위운동으로 돌릴 것, 넷째, 장재성이 시위운동을 직접 지도할 것, 다섯째, 우리는 다른 동지들과 연락해 다음 투쟁을 준비 계획할 것 등이다.

11월 3일 저녁과 4일 연달아 청년동맹 지도부 회의가 열렸다. 광주신간회 집행위원 겸 광주청년동맹 위원장 장석천, 광주청년동맹 집행위원 및 광주유학생회 간부 장재성, 전남청년동맹 국채진, 광주직공 노동자회 박오봉, 신간회 집행위원 나승규, 광주소년동맹 위원장 강석원, 조선일보 광주지국 최인식, 청년동맹 집행위원 임종근 등 10여 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시위를 전국으로 확산시킬 것을 결정하고, 이를 위해 ‘학생투쟁 지도본부’를 결성하였다. 그리고 다음과 같이 임무를 나누었다.

광주 및 전조선 학생의 지도(장석천), 광주 조선인 학생의 지도(장재성, 전남 도내 지방 학생의 지도(국채진), 직공 및 노동단체의 지도(박오봉), 전남 도내 공립보통학교 교사와의 연락(임종근), 외래동지와의 연락(강석원), 운동자금의 조달(나승규) 등으로 나누었다. 장석천은 상경해 신간회 본부에 광주 상황을 보고하였다.

광주 학생 지도 역할을 한 장재성은, 광주지역 외에도 목포나 나주, 전주, 고창 등의 중등학교 학생들과 연락을 취하여 항일시위를 전개할 계획을 세웠다. 1929년 전남사범학교를 졸업한 후 무안 비금보통학교 교사로 재직하며 사범학교 독서회를 배후에서 도운 임종근은, 광주학생운동이 발발하자 곧바로 학생투쟁 지도본부에 합류하였다. 강영석은 11월 7일 밤 상경하여 광주 사정을 알렸다.

3) 신간회와 광주청년동맹

11월 3일 저녁 신간회 광주지회 간사이자 전남청년연맹 위원장 장석천은 광주의 사정을 신간회 본부에 보고했다. 광주 학생들의 시위는 전국적 반향을 불러 국내 주요 단체와 청년단체들이 광주에 진상조사단을 파견했다.

신간회 본부, 재경법조단조선변호사단체, 조선학생회, 학생과학연구회, 청년총동맹 등과 신문사 특파원들이 사태를 파악하려고 광주에 내려왔다. 신간회 본부는 송정지회, 담양지회, 장성지회, 나주지회 등 4개 지회에 광주 사건의 진상을 파악하여 보고할 것을 지시했다.

11월 9일 오전 10시 진상 조사를 위해 신간회 중앙집행위원장 허헌, 서기장 황상규, 회계부장 김병로 등이 광주에 왔다. 이들은 광주역에서 장석천을 비롯한 4개 지회 간부와 신문지국 기자 등 30여 명을 만났다. 현장에는 30명의 일본 경찰이 감시하고 있었다. 이들은 11월 10일 전남 지사, 경찰부장, 白井 광주고보 교장, 사또 광주중 교장을 찾아갔다.

신간회 본부는 11월 15일, 11월 23일 두 차례의 중앙집행위를 열고 대책회의를 진행하며, 황상규가 광주사건 진상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중앙청년 총동맹과 학생과학연구회도 조사단을 광주에 파견했다. 조선학생전위동맹(조선학생혁명당 개칭)은 광주학생 사건에 대한 진상조사를 마친 후 광주학생 동조시위를 촉구하는 항일격문을 12월 초에 인쇄하여 각 단체와 신문사, 학교에 배포하는 등 이들 단체는 시위의 전국화를 꾀하였다.

3. 제2차 항일시위와 이경채

1) 2차 시위를 주도한 이경채

11월 3일 우발적인 충돌을 대사건으로 발전시킨 학생 지도부는 사전에 계획한 대로 2차 시위를 준비하였다. 2차 시위는 새로 결성된 맹휴중

양본부가 맡았다. 1차 시위 때는 미처 항일격문이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에 2차 시위 때는 투쟁의 목적을 명시한 격문을 만드는 등 철저히 준비하였다. 항일 격문은 “11월 3일 학생총돌사건이 우발적 총돌이 아니라 부당한 압박과 민족차별을 자행해 온 총독 정치에 맞선 광주학생의 정당한 항쟁”임을 분명히 밝혔다.

그런데 2차 시위의 계획 수립에 광주학생운동의 영웅 이경채가 참여하였음이 확인된다. 그는 1년간 옥고를 치르다 9월 4일 형기를 1/3 정도 남기고 가출옥하였다. 고향에 돌아왔을 때, 그는 광주의 독립 영웅으로 광주의 남녀노소 모두 추앙의 대상이었다. 하지만 일본 경찰이 그를 24시간 감시하고 있어 고보 동창이나, 청년운동 단체 선·후배들을 만나지 않고 있었다.

11월 3일 전국을 뒤흔든 광주학생운동이 일어나 모든 경찰력이 시위 진압에 동원되어 그에 대한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2차 시위를 준비하고 있는 대표들을 비밀리에 만났다. 그는 전남도립병원 부근의 낡은 주택에서 열린 비밀 ‘대책회의’에 참석하였다.²⁾ 이경채의 참여는 항쟁 지도부의 사기를 높이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하였다.

2차 시위는 11월 10일 밤 박석기의 집에서 광주고보의 오쾌일, 이영범(李榮範), 광주농업학교 김남철, 정욱, 조길룡, 전남사범학교 이신형과 황상남 등이 회합을 갖고 11월 11일 1교시 종소리를 신호로 각 학교가 동시에 쫓겨하여 격문을 뿌리고 시위하기로 정했다.³⁾ 박석기의 집이 광주 금계리 지금의 금동이였다. 현재의 전남대학교병원인 도립병원 근처이다. 이경채가 도립병원 근처의 낡은 주택에서 지도부들을 만났다고 한 사실과 연결을 지어보면 11월 10일 박석기의 집에서 추진된 2차 시위 계획이 수립될 때에 이경채의 참석이 분명하다. 형(刑)을 살고 나온 지 한 달도 채 안 되었지만, 이를 두려워하지 않고 시위 준비에 앞장을 선 것은

2) 이경채 「투쟁경력」

3) 소화 5년 형공합 제46호(광주지방법원 형사부 1930.10.18.)(박해현·김승태 공역, 앞의 책)

‘광주 영웅’다운 행동이었다.

10일 밤 모임에서 11월 11일보다는 장날인 12일 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 거사일을 변경하였다. 12일 제2차 시위는 조직적으로 광주 시내 전역에서 전개되었다. 그리고 전국으로 확산되는 추진 동력이 되었다.

시위를 지도한 이경채는, 일본 경찰의 추적을 피하다 11월 말 체포되어 1개월간 유치장에 갇혀 물고문을 포함한 온갖 고문을 받았다. 그는 이때의 물고문을 “조타주수(弔打注水)”라는 표현을 썼다. 그는 이러한 고문을 받았지만, 끝까지 비밀을 지켜 ‘증거불충분’으로 풀려났다. 그에게는 ‘요주의’ 인물이라는 낙인이 붙여졌다.

2) 전 세계에 충격을 준 제2차 시위

11월 12일 오전 8시 무렵 오캐일은 통학 길에서 광주고보 김안진에게 유인물 500장, 강민섭에게 200장을 전달하여 각 학급 교실의 학생들에게 전달하고, 광주농업학교 책임을 맡은 조길룡을 만나 300장을 나누어 주었다. 오전 9시 첫 수업을 알리는 종이 울리자 학생들이 학교 창고에 있는 농기구와 운동기구 등을 챙겨 교문 밖으로 나와 시내로 진출했다.

광주농업학교에서도 아침 일찍 조길룡이 3학년 한문옥과 김남철, 2학년 박종주에게 격문을 전달해 배포하도록 했다. 1교시 수업 시작 종소리를 신호 삼아 시위를 시작하였다.

광주농업학교 재학 중인 한국인 학생 전원이 일제히 운동장으로 나왔고, 이들은 대오를 지어 교문을 박차고 나왔다. 교사들의 저지에 막힌 일부 5학년생을 제외한 150여 명이 시위에 참여했다. 광주농업학교 학생들은 광주고보와 연합하여 가두시위를 전개했다. 이경채와 함께 사회과학 공부를 한 김무삼⁴⁾이 시위대의 제일 선두에 섰다. 이들은 스크림을 4명씩 짜서 광주 시내를 누볐다.⁵⁾

4) 김무삼(1908~1970)은 강진 작천 출신으로 제일 선두에서 시위대를 이끌다 체포되어 보안법 위반으로 금고 4월·5년 집행유예를 받았고, 독서회 관원으로 치안유지법·보안법·출판법 위반으로 징역 1년이 확정되어 옥고를 치렀다.

광주고보와 광주농업학교 학생들은 대열을 지어 광주여고보를 지나 전남사범학교로 달려가 사범학교 학생들에게 합류할 것을 촉구했다. 일부 학생들은 사범학교 담장을 넘어가서 실습 중인 30여 명 교생과 2학년 학생들에게 나가자고 외쳤다. 당시 전남사범학교 3학년생들은 부속보통 학교에서 교생실습 중이었다. 교사들이 제지하여 사범학교 2학년 학생들은 시위에 참여하지 못했다. 광주여고보와 사범학교 학생들은 시위에 합류하지 못했지만, 광주형무소 방면으로 행진하여 경찰과 대치하다 190여 명이 연행되었다.

송정리 사립 공민학교⁶⁾ 학생들은 11월 15일 동맹휴학을 추진했다. 하지만 이를 탐지한 학교가 11월 22일까지 1주일간 휴교하여 실천에 옮기지 못했다. 송정리 사립 공민학교 3학년 학생들은 제2차 12월 2일 송정장날을 기해 시위운동을 전개할 계획을 세우고, 격문을 제작하던 중 11월 30일 송정 경찰에 발각되어 뜻을 이루지 못했다.

제2차 시위 후 광주지역 한국인이 다니는 중등학교에 휴교령이 내리고, 무차별적인 검거 선봉이 불어 구속 학생이 300여 명에 달했다. 학생들은 처음에는 무덕전에 갇혔다가 광주형무소로 옮겼다. 11월 중순 광주고보에서는 300여 명의 학생을 무기정학을 시켰고, 광주농업학교에서도 60~70여 명을 무기정학에 처하였다.

광주여고보는 시위에 참여한 17명을 1차로 무기정학을 시켰고, 백지동맹 및 동맹휴학에 참여한 64명을 무기정학을 시켰다. 전남사범학교의 경우 시위 관련 학생 37명을 일시 귀향 조치시켰다가 이듬해 3월에는 1명을 더 추가하여 총 38명을 퇴학 처분했다. 일본으로 밀항했던 오케이일과 임주홍 등은 도쿄에서 1930년 5월 체포되어 광주로 압송되었다.

일제는 학생뿐만 아니라 청년단체들도 탄압하였다. 광주군 소재 청년

5) 이경채, 「투쟁경력」

6) 송정공민학교는 재단법인 전남육영회에서 1927년 5월 5일 개교한 사립학교로, 토목과 30명, 목공과 30명 합 60명을 첫해에 모집하였다. 이 학교는 송정 중학원이 운영난으로 폐교하게 되자 설립되었다.(동아일보 1927. 5. 8.).

단체 간부뿐만 아니라 전남지역 각 군 청년단체 간부 160여 명도 시위 사건으로 체포되었다. 일본 경찰은 성진회, 독서회, 소녀회 관련 학생들을 체포하여 11월 하순부터 이듬해 1930년 1월까지 2개월 넘게 수사하였다.

광주에서의 학생 시위는 단기간에 전국 학생들이 참여한 대규모 시위로 발전하였다. 이는 시위 준비가 사전에 조직화 되었기 때문에 가능하였다. 이후 학생시위를 주도하거나 적극적으로 가담하여 구속, 퇴학 등의 처벌을 받은 학생들이 농촌이나 노동 현장에서, 그리고 임시정부 등 독립운동 단체에서 항일운동을 이끌었다. 그리고 선배들의 영웅적인 항쟁은 전설이 되어 1938년 광주고보 학생들의 무등회 조직, 1942년 광주 사범학교의 무등독서회 조직으로 이어져 광복 그날까지 독립운동의 열기가 활활 타오르는 원동력이 되었다.

이렇게 위대한 항쟁이었던 광주학생운동의 기폭제는 1928년 4월에 있었던 이경채의 뼈라 살포 사건이었다. 이경채 사건의 역사적 의의는 여기에 있다.

일본 망명과 재일 유학생 독립운동 주도

1. 일본 망명과 독립운동

1) 와세다 대학 유학과 독립운동

1928년 빼라 사건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복역 중, 1년만인 1929년 9월 4일 가출옥한 이경채는, 일본 경찰의 감시망을 뚫고 광주 금동 박기석의 집에서 열린 광주 학생 2차 시위지도부 회의에 참여하여 시위를 독려했다. 이로 인해 11월 말 체포되어 광주경찰서 유치장에서 1개월 동안 물고문 등 온갖 고문을 받았으나, 고문을 이겨내 비밀을 지켰기 때문에 증거불충분으로 풀려날 수 있었다.

일본 경찰에게는 중요한 요시찰 인물이 된 이경채는, 국내에서는 활동할 공간이 없었다. 본인 때문에 숙부의 사업도 폐업 단계에 이르고, 연좌제가 적용되어 형제들은 공립학교 진학도 막혀 있었다. 이경채 부친은 아들을 국외로 보내는 것이 그를 살리는 길이라 여겨 일본 유학을 서둘렀다. 일본으로 망명길을 떠났다. 1931년 2월의 일이다.

이경채는 조선 유학생들이 가장 많이 다녔던 와세다대학교 전문학교 야간부 법률과에 입학하였다. 그는 일본에서 신문 배달과 지하철 공사장 인부로 일하며 학비를 벌었다. 광주 송정의 지주 집안의 장남이라고 하지만 그에게 학비를 보내는 것이 여의치 않았음을 짐작하게 한다. 그는

힘든 고향생(苦學生)의 처지나 다름이 없었다.

이경채처럼 1910년 일제에 국권을 빼앗긴 조선의 많은 학생이 적국 일본으로 유학을 떠났다. 국권 피탈 후 일제가 취한 우민화 정책으로 고등교육이 억압되어 있었기 때문이었다. 이들 유학지는 주로 일본, 중국 등이었으나, 서구 문물을 많이 받아들인 일본을 가장 선호하였다.

1881년부터 시작된 조선인의 일본 유학은, 1920년대 들어 급격히 증가하였다. 조선총독부의 통치정책이 문화통치로 바뀌면서 유학생에 대한 규제 완화 및 수업연한의 연장에 따른 입학자격의 충족, 3.1운동 후 전개된 실력양성 운동의 영향으로 고양(高揚)된 교육열이 주로 작용하였다. 조선총독부는 3·1운동의 일본 파급을 염려하여 1919년 4월 경무총감부령 제3호 「조선인의 여행 취체(取締) 관한 건」에 의해서 조선인의 일본 도항(渡航)을 억제하였으나, 일본독점자본의 값싼 조선인의 노동력 도입의 필요에 따라 1922년 12월, 이 규제를 철폐함으로써 조선인의 일본 도항은 어렵지 않았다.¹⁾

1927년 무렵 동경제국대학의 예과 학생 절반이 조선인 유학생이었다. 일본과 조선의 인구비율을 고려한다면 조선인의 일본 대학 입학이 생각보다 어렵지 않음을 알 수 있다.

표 11. 동경제국대학 예과학생 수

연도	1924	1925	1926	1927
조선인	44	91	103	104
일본인	124	228	235	204
계	168	319	338	308

(『한국교육사』, 1993)

재일 조선 유학생은 지주 등 부유한 가정의 출신이 많았다. 하지만 이들은 일본에서의 유학 생활을 통해서 민족의식의 각성 및 새로운 사상을

1) 일본 유학생 관련 서술은 金基旺(1998, 「在日朝鮮留學生の民族解放運動に關する研究」, 神戸大學大學院博士論文)의 글의 도움을 많이 받았다.

습득하여 민족해방 운동에 몸을 던졌다. 특히 전체 유학생의 1/3을 접하는 노동자·농민의 자제인 고헌생(苦學生)도, 노동자 생활을 직접 경험한 현실적인 문제의식 아래에서 민족 해방 운동에 앞장섰다.

2) 유학생 조직 결성과 학우회

유학생이 증가하면서 이들은 단체를 조직하였다. 다음 <표 12>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표 12. 재일 조선인 단체 연도별 추이²⁾

연도	1906	1907	1911	1912	1913	1914	1916	1917
동경	2	1	1	1	2	1	2	1
대판								
기타								
계	2	1	1	1	2	1	2	1

연도	1919	1920	1921	1922	1923	1924	1925	계
동경	1	6	7	4	6	9	6	50
대판			2	8	5	8	22	45
기타			1	2	8	24	31	66
계	1	6	10	14	19	41	59	161

재일본 조선인 유학생들은 표면적으로 친목과 상호부조를 목적으로 조직을 결성하였으나 내면적으로는 민족해방운동을 전개하였다. 1895년 4월에 결성된 조선인 일본 유학생 친목회가 최초의 조직이었다. 윤치오, 어윤적, 박희승, 이승무 등이 주도하여 결성하였으나, 1898년 해산되었다.

이 단체를 계승하여 1898년 9월 제국청년회가 결성되었다. 사비 유학생이 증가함에 따라 1909년 1월 10일 대한흥학회가 출범하였으나 이 단체가 해산된 후에는 출신 도별로 친목향우회가 결성되었다.

1912년 10월 27일 안재홍(와세다대), 최한기(명치대학), 서경묵(명치

2) 경보국 보안과, 1925, 「大正14年中ニ於テ在留朝鮮人の狀況」; 김기왕, 앞의 논문 재 인용.

대) 등은 ‘재동경조선유학생학우회(학우회)’를 결성하였다. 학우회는 사무소를 동경기독교청년회관에 두고 기독교청년회와 밀접한 관계를 맺으며 재일 조선인 전체의 중심적인 존재가 되었다. 학우회는 친목 단체를 위장한 독립운동 단체였다. 당시 일본 경찰의 감시보고서에 잘 드러나 있다.)

“대정 원년(1912년) 동경에서 조선인 유학생 대부분을 망라한 조선 유학생 학우회가 만들어졌는데, 본회는 명실공히 완전한 단체로써 일반 조선인 단체 가운데 중심적인 세력을 유지하고 있는 기독교청년회의 후원에 의해서 독립운동, 기타 각종 불온한 일을 기도하는 데 앞장서 참가하고 그 계획 및 실행을 하고 있다.”

1919년 동경 기독교학생회관에서 있었던 2·8독립선언은 학우회가 주도한 것으로, 3·1운동의 발발에 결정적 영향을 끼쳤다. 3·1운동 후 일본 경찰의 감시에도 활동을 이어가던 학우회는, 1923년 9월 1일의 관동대진재 때 큰 타격을 입었다. 관동대진재 때 희생된 조선인이 6,000여 명이었고, 유학생도 1,000여 명이 포함되어 있었다.)

3) 사회주의 사상의 유입과 학우회

1920년대 들어 일본 유학생의 사회주의화가 급격히 이루어졌다. 일본 사회주의의 사상은 1887년 처음 소개된 후 1910년 ‘대역사건’에 의해서 일시 쇠퇴기를 맞았으나 제1차 세계대전 발발과 더불어 사회주의 운동은 다시 일어나 1920년 12월 사회주의 동맹이 결성되었다.

사회주의 사상이 발흥하면서 1918년 12월 동경제국대학 법과생들이 중심이 되어 신인회를 결성하였다.) 이 단체의 활동으로 사회주의 사상이 급속히 확대되었다. 민인동맹(民人同盟, 1919.2), 건설자동맹(1919.9), 효민회(曉民會 1920.5) 등 학생 사회주의 단체가 결성되어 사회주의 사상

3) 김기왕, 앞의 글.

4) 김기왕, 위의 글.

5) 박해현, 『강석봉 평전』.

연구와 노동자 교육, 농민운동의 지도가 활발히 이루어졌다. 1922년 학생 연합회의 결성은 사회주의 사상을 한층 발전시키는 계기가 되었고, 재일 조선 유학생들에게 영향을 주었다.⁶⁾

사회주의 사상이 조선 유학생에게 쉽게 전이되었던 것은 러시아의 10월 혁명 성공과 식민지 해방운동에 대한 지원이라는 외적 요인이 크게 작용하였다. 유학생 대부분이 경제적으로 고통을 받는 고학생이었다는 점도 일본 유학생들이 사회주의의 영향을 받게 된 까닭이다.

이들은 공산혁명으로 조선 사회가 개조된다는 신념을 가지고 행동하였다. 특히 전 유학생의 1/3을 점하는 고학생의 증가는 사회주의를 수용하기에 좋은 여건이었다. 노동자·농민의 자제인 고학생들은 재일 조선인의 대부분을 점하는 노동자와 함께 생활하면서 계급의식, 민족의식이 깨우쳐졌다. 당시 일본에서 노동운동과 노동조합이 발달하고, 일본노동총동맹 결성도 사회주의 사상 형성에 영향을 주었다.

유학생 중에서도 고학생의 사회주의화의 경향은 두드러졌다. 재일 조선 유학생의 사회주의 운동의 핵심은 거의 고학생이었다. 예컨대 북성회(北星會) 결성을 주도한 후에 조선공산당 중앙집행위원이 된 김약수와 유명한 박열 모두 소작농 출신이었다.

1923년 8월에는 북성회가 조선 국내를 순회강연하는 등 유학생들의 사회주의 운동은 활발하였다. 일반회원뿐만 아니라 학우회를 중심으로 사회주의를 지향하는 이들이 많았다. 예컨대 1920년 학우회장의 임무를 맡은 김준연은 사회주의를 배웠고, 후에 조선공산당의 책임 비서가 되었다. 또한 변희준(1920년 학우회 총무), 이여성(1922년 학우회 평의원) 등의 간부는 동시에 사회주의 조직인 북성회 및 일월회(日月會)의 간부였고, 한위건(1922년 학우회 평의원)은 후에 조선공산당의 중앙검사위원을 맡아 조선사회주의 운동의 최고가 이론가의 한 사람으로 알려졌다. 광주 3·1운동을 계획한 김범수의 경성의전 동기동창인 한위건은, 1919년 3월 1일, 3월 5일 일어난 경성 3·1운동을 주도한 유명한 인물이었다.⁷⁾

6) 김기왕, 앞의 글.

관동대진재 때 학우들이 피살되고, 유학생의 귀국으로 조직에 타격을 입은 학우회는 1924년 2월 총회를 열고 조직을 새롭게 정리하였다. 평의회는 물론 의사결정기구를 간소화하는 한편 대표위원을 중심으로 한 '집행위원' 체제를 채택했다. 집행부는 서무부, 사교부, 재무부, 변론부, 운동부, 편집부 등으로 구성하였다.

학우회는 창립 초기에는 '본회'와 '분회'의 2중 구조의 연합형태로 출발했지만, 점차 통일적인 단일조직으로 발전하여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꾀하였다. 특히 1923년 관동대진재 이후에는 학우회는 유학생뿐만이 아니라 제일 조선인 사회의 구심점으로서의 민족해방운동을 주도하였다.

조선인 유학생은 학우회에 입회 의무가 있었다. 새로 유학한 학생이 학우회 집회에 참석하지 않으면 '나라의 원수', '일본의 개'라고 매도되었다. 1924년에는 회원이 1천여 명으로 학우회는 성장하였는데, 동경유학생 988인보다 많았다. 학우회는 집회를 자주 열었는데, 1918년의 연 52회 내용 가운데 민족문제 40회, 사회문제 4회, 종교철학 3회, 기타 5회 등이었다. 곧 민족의식을 고취하는 주제가 대부분이었다.

한편 1920년대에 유행한 사회주의 사조를 유학생들이 적극적으로 받아들였다. 특히 간부진 대부분을 사회주의자가 차지한 학우회 운영은 '소비에트' 식으로 하였다. 기관지인 '학지광'에는 사회주의 이론이 많은 지면을 차지하였다.

2. 재일유학생 출신의 독립운동

1) 민족주의 계열의 민족운동

(1) 타협적 민족주의 계열

일제강점기(1910~1942)에 조선인 186,321명이 일본에 유학을 왔다. 근대적인 고등교육을 받은 신지식층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조선유학생은

7) 박해현, 『독립운동가 의사 김범수 연구』.

어떤 진로를 걸었을까? 일제강점기 초기 자료를 통해 그 대략을 이해할 수 있다.

표 13. 귀국 후의 취직 상황(1909-1923)⁸⁾

직업	관비	사비	계	%
관공리	14	126	140	10.7
교원	26	149	177	13.5
은행회사	6	113	119	9.1
농업	1	288	289	22.0
공업		2	2	0.2
상업	3	100	103	7.9
변호사	2	14	16	1.2
의사	10	40	50	3.8
기타	3	129	132	10.1
무직		284	284	21.6
합계	67	1,245	1,312	100

일본 유학 경험자 가운데 농업에 종사한 자가 22%로 제일 많았다. 이는 대부분 지주로서 가업을 이어받은 경우였다. 관비 유학생들은 관리나 교원이 많았다. 식민지배체제의 수족이 된 관료와 교원의 양성에 중점을 둔 결과였다. 식민지 시기에 조선총독부에 의해 임용된 조선인 관료 중 군수 이상의 고급관료의 32%가 일본 유학경험자였다.⁹⁾

‘민족개량주의’라고 불린 조선 내의 부르주아 민족주의 우파(동아일보 계열, 천도교신과 수양동우회 등)는 물산장려 운동, 민립대학 설립 운동을 전개했다. 이러한 실력양성 운동은 1920년대 중반부터 일본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자치하자는 자치운동으로 변질되었고, 1930년대 들어 상당수가 친일의 길을 걸었다. 김성수(와세다대), 이광수(와세다대), 최남선(와세다대), 최린(명치대학), 장덕수(와세다대) 등 주로 1910년대 일본

8) 조선총독부조사과, 1924, 「内地免學朝鮮儒學生の歸還後の狀況」, 『調査彙報』 제4호 ; 김기왕, 앞의 글 재인용.

9) 김기왕, 앞의 글.

에 유학한 이들은 1930년대 이후는 친일로, 해방 후에는 한국민주당을 중심으로 우익의 길을 걸으면서 기독교 세력을 형성하였다.

(2) 비타협적 계열의 민족운동

비타협적 민족주의로 알려진 부르주아 민족주의 좌파(조선일보 계열, 천도교 구파 등)는 우파의 타협적인 자치운동을 비판하였다. 이들은 사회주의 세력과 손잡고 협동전선 조직인 신간회를 결성하였다. 그러나 신간회 해소 이후에 민족주의 우파와 비슷한 노선을 걷는 이가 많았다. 신석우(와세다대), 안재홍(와세다대), 백관수(명치대), 이상재 등이 그들이다.

국외의 부르주아 민족주의 운동은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중심으로 전개되었다. 3.1운동 이후 통일적으로 지속적인 민족해방운동을 전개하기 위한 지도기관으로 역할을 하려고 탄생한 임시정부는, 1919년 4월 상해의 프랑스 조계에서 출범하였다.

임시정부는 출범 당시에는 좌우를 떠나 민족해방운동 세력 대부분이 참가하였다. 그러나 출범 당시부터 있었던 외교독립론과 무장독립전쟁론 등 독립운동의 방략을 둘러싼 갈등이 끊이지 않았다. 이를 해결하고자 1923년 국민대표대회를 소집하였으나 성과를 얻지는 못했다.

제일 유학생 상당수는 임시정부의 외교 독립 노선을 지지하였다. 이들이 임시정부에 많이 참여하게 되었다.¹⁰⁾

이 가운데 학우회 회장(1916)을 맡은 신익희(와세다)는 대표적 인물이다. 그는 임시정부 수립 당시에는 내무차장, 외무총장 대리 등을 맡았으나 곧 임시정부를 이탈하여 1929년 한국혁명당, 1935년에는 김원봉 등과 함께 조선민족혁명당을 결성하는 독자 노선을 걸었다. 그러다가 1937년에는 임시정부가 중경으로 이전하였을 때에 복귀하여 내무부장을 맡았다. 임시사료편찬위원을 맡은 이봉수(명치대), 임시정부의 내무위원, 임시의정원의 함경도대의원을 맡은 한위건(와세다대) 등은 사회주의 운동의 지도자가 되었다.¹¹⁾

10) 김기왕, 앞의 글.

표 14. 대한민국임시정부에 참여한 일본 유학 경험자¹²⁾

성 명	출신학교	임시정부와의 관계
신익희	와세다(졸)	법무차장
윤현진	명치대(졸)	재무차장
이춘숙	중앙대(졸)	군무차장
손두환	명치대(졸)	경부부원
주요한	제일고(재)	독립신문기자
안승모	동경고공(재)	경기도대의원
신석우	와세다(졸)	친목회장
장덕수	와세다(졸)	상해청년당원
유경환	중앙대(졸)	청년당총부
홍진희	명치대(졸)	전라도대의원
나용균	와세다(졸)	전라도대의원
이규홍	명치대(졸)	청년단출판부원
윤창만	와세다(재)	청년단원
오의선	명치학원(재)	대한적십자사원
윤보선	명치학원(재)	청년단원
고의풍	정치영어	청년단원
이풍수	명치대(재)	청년단원
황 환	정치영어(재)	청년단원
정근모	정치영어(재)	청년단원
정남모	일본대(재)	청년단원
서성달	일본대(졸)	청년단원

2) 재일유학생 독립운동과 임시정부

재일 유학생들은 학우회와 같은 조직을 통해 친목 도모와 더불어 민족 독립운동의 역량을 키우는 단체도 있었지만, 1930년대 이후 군국주의 일본에 맞서 비밀리에 독립운동 조직을 결성한 이들도 적지 않았다. 시기가 약간 늦지만 ‘라비트 구락부’와 ‘성도회’ 등은 광주, 전남 출신 재일 유학생들이 주축을 이룬 비밀결사였다.¹³⁾

‘라비트 구락부’, 즉 라비트 그룹은 동경에 있는 한인 유학생들이 조직

11) 김기왕, 앞의 글.

12) 경보국 보안과, 1920, 「朝鮮人概況第三」; 김기왕, 앞의 글 재인용.

13) 박해현, 2021. 『독립운동가 교사가 되다』.

한 독립운동 단체로서 표면상 문학을 좋아하는 동지의 모임으로 위장하였다. 회장은 중산(中山)이고, 총무는 조원경, 회원은 손호주, 이종석, 양회중, 안혁주, 백남순, 김강현, 김삼봉 등 33명이었다. 강령에 해당하는 다음과 같은 ‘우리의 신조’가 있다.

회원은 인격 도야, 학술 연마에 힘써 친화 협동한다.

우리 회원은 조상의 명예를 존중, 선양한다.

우리 회원은 민족 정의로 사명을 달성한다

라빛트 구락부는 광주학생독립운동이 일어난 지 10주년이 되던 1939년에 광주에 지부를 두고 라빛트 잡지를 구독하게 하고 친목을 도모하는 한편 지하 활동으로 독립운동을 하도록 몰래 지령을 내렸다. 그러나 라빛트 구락부 사건으로 조직이 탄로되어 지부 책임을 맡고 있던 당시 광주농업학교 재학생 김장곤, 강상술, 한사원, 나재필 등이 양회종과 함께 옥고를 치렀다.

성도회는 1944년 5월 9일 일본 유학생들이 독서회를 가장하여 조직한 항일 비밀단체이다. 이 단체는 화순 출신으로 일본 명치대를 졸업한 양회종이 중심이 되어 만들었다. 회원으로 양회종을 비롯하여 백남식·김병수·박진철·안혁주·이강일·남미숙·박성구·안성순·홍영숙·김강현·손호주 등 12명이 회원이었다. 회장으로 선출된 양회종은 다음과 같이 행동강령을 발표했다.

1. 앞으로 우리 성도회는 독서 친목회를 위장하고 구국 투쟁 활동을 벌인다.
2. 조국 광복을 위한 구국 신념을 굳게 한다.
3. 활동하다가 일본 관헌에게 피검되더라도 끝까지 투쟁한다.

12명 전원은 그 자리에서 단지(斷指)로 피를 뽑아 엄숙히 맹약하였다. 회원들은 결의를 굳게 하고 각자의 역할 수행에 들어갔다. 동경 일대의

대학가를 비롯하여 동포가 경영하는 흥아식당, 산해장 등에서 동포 학생을 상대로 하여 민족 독립사상을 고취시켜 학도병 징발을 거부하도록 하는 선무 운동을 전개하였다.

이러한 비밀 조직들이 1930년을 전후하여 일본에 많았다. 1928년 조선공산당 사건 때 일본으로 망명을 온 강석봉이 재일유학생들을 중심으로 비밀 조직을 만들려다 1933년 일본 경찰에 체포된 것도 이와 관련이 있다.¹⁴⁾

이경채가 일본에 건너온 시기는 1931년 2월이었다. 경채는 일본에서 낮에는 신문 배달과 공사장 인부로 학비를 벌며 야간부에서 공부하는 고학생이었다. 그는 학업에 열중하면서도 민족의 독립을 위해 할 일을 모색하고 있었다. 이 무렵 광주고보 재학 중 항일운동에 앞장섰다 투옥된 문두재¹⁵⁾, 양태성¹⁶⁾, 유병후¹⁷⁾, 윤창하¹⁸⁾, 김보섭¹⁹⁾ 등 그와 가까운 친구

14) 박해현, 『강석봉 평전』.

15) 문두재는 이경채 사건 때 퇴학당했다. 일본에서 공산주의 활동을 하였고, 해방후에는 민주주의민족전선(민전) 활동을 하였다.

16) 양태성(1911-1940)은 나주출신으로 1929년 광주고등보통학교 재학 중 광주학생운동에 참가하였다. 양태성은 학교 내부에서 협청(協靑) 조직을 동원시켜 전국적으로 동맹휴학을 확대 강화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였다. 학교당국으로부터 퇴학처분을 당하고 일본 동경으로 건너갔다.

일본에서 양태성은 노동운동에 참여하면서 일본노동조합전국협의회[全協]에 가입하여 활동하였다. 또한 그는 1932년 7월 일본공산당에 가입하여 북부지구의 책임자가 되었다. 일본에서 노동운동과 항일운동으로 여러 차례나 검거될 뻔하였지만 그럴 때마다 이름을 바꾸어 일제의 검거를 피할 수 있었다.

1933년 말 양태성은 군수공장을 중심으로 동지를 규합하고 있었다. 그런데 일제 특고는 재일 한인 노동운동에 대해 주목을 하고 있다가 1934년 4월 18일 일본공산당 조직원으로 북부지구 책임자인 양태성이 가두에서 연락활동을 하고 있을 때 붙잡았다. 동경 상야경찰서(上野警察署)에 검거된 양태성은 약 5개월 동안 엄혹한 취조를 받고 1934년 8월 15일 검사국에 송치되었다. 그 후 1936년 2월 21일 동경형사지방법판소(東京刑事地方裁判所)에서 소위 치안유지법 위반으로 징역 3년을 받고 옥고를 치른 후 1938년 9월 2일 출옥하였다.

17) 유병후는 1938년 일본 경시청에서 치안유지법 위반으로 체포된 기록이 있다. 이로 미루어 일본에서 계속 양태성 등과 함께 노동운동과 항일운동을 한 것으로 보인다.

18) 윤창하(1908~1984)는 해남출신으로 광주 시위 주동자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그의 행적에 대해 일본에서 활동 내용은 찾아지지 않는다. 다만 이경채의 글에서 확인되고 있다. 앞으로 차분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들이 일본에 와 있었다. 이경채는 이들과 광주에 있을 때부터 같이 독서회 활동도 하였고, 그의 구명을 위해 맹휴를 전개하다 학교에서 퇴학을 당하고 구속되었기 때문에 피를 나는 형제나 다름없었다.

한편 일본은 1929년 세계 공황을 겪으면서 극우 세력이 준동하고 있었다. 일부 군인들이 정치의 전면에 등장하면서 1931년 9월 만주사변이 일어났다. 극동의 정세가 요동을 쳤다. 일본의 무리한 확장정책은 미국, 영국을 긴장시켰고, 만주사변의 당사자인 중국의 반발을 불러 일으켰다. 이러한 국제 정세의 변화는 독립을 쟁취할 절호의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임시정부 등 독립운동 세력이 발 빠르게 움직였다. 곧 서슬하겠지만 중국과 동맹을 맺는 것이 현실적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한 것도 이 무렵이었다.

이러한 상황을 예의주시한 이경채는 전남 출신 유학생들을 중심으로 독립운동의 구심점을 구축하려 하였다. 그는 이를 위해 독립운동을 함께 한 동지와 구체적인 독립운동의 방도를 모색하였다. 양태성처럼 공장에서 노동자로 위장 취업하여 노동운동을 전개하는 등 제국주의 일본을 어떻게 타도할 것인가 고민하는 이도 있었다. 유병후도 양태성처럼 아예 귀국을 단념하고 일본 현지에서 노동운동을 하며 일본의 심장부에 타격을 가할 생각을 하고 있었다.

이때 이경채는 처음에는 양태성처럼 노동운동에 뛰어들어 제국주의 일본을 타도하려고 생각한 것 같다. 그의 3남 용립이 보관한 이경채의 앨범에 시기는 나와 있지만 일본 동경시 내무국 페인트 강습소에서 강습을 마치고 찍은 사진이 하나 있다. 거기에 있는 수료생들 가운데 경채가 가장 나이가 어리다. 당시 동경시 내무국에서는 1929년 세계공황으로 인해 실업자들이 늘어나자 그들의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주기 위해 강습소를 운영하였다. 강습받은 이들의 복장을 보면 사무직 또는 한참 활동할 수 있는 이들의 모습이 많은 것에서 이를 짐작할 수 있다. 이 과정에

19) 김보섭(1911~1942)는 광주학생 시위로 금고 6월, 독서회 사건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았다. 그 역시 일본 유학 사실은 이경채의 글에서 확인되고 있다.



동경사회국 페인트강습소 수료식기념 (뒷줄 맨 왼쪽)

서 일본은 그들의 일자리가 부족하자 조선에서 건너온 많은 노동자를 강제
 제로 본국으로 송환하였다.²⁰⁾ 이러한 상황에서 조선인 이경채가 일본 동
 경시 사회국이 주관한 일자리 강습소에서 교육을 받고 있는 일은 이례적
 이라 하겠다. 이는 경채가 이 강습소에서 교육을 받으려고 나름대로 노
 려를 기울인 결과라 생각된다. 곧 그는 일본에서 장기 체류하며 그곳에
 위장 취업하려 한 것으로 여겨진다.

그런데 일본에서 독립운동 세력을 규합하고 있던 이경채는 상해의 임
 시정부와 접선을 하고 있었다. 대한민국임시정부는 일본에서 공부하는
 애국 청년들을 상해로 불러들여 독립운동의 중추적 인물로 키우려 하고
 있었다. 다음은 이러한 추론을 할 수 있는 좋은 근거이다.

- ① 일본 중앙대학 법과생이며 대한민국 임시정부 요인인 양기탁의 장남
 양효손이 부친과 연락하며 재일 유학생을 상해로 파견하고자 활동하

20) 동아일보, 1929. 9. 15.

다가 일본 경찰에 검거되었다.²¹⁾

- ② 일본경시청 내선과에 명치대 전문부 한장협과 중앙대 법과 양효손을 체포하였는데, 양효손은 작년(1933년)12월 전후하여 3회 동안이나 상해 임시정부 양기탁으로부터 상해에는 투사가 부족하므로 일본 내지에서 투사를 보내달라는 밀서를 발견하여 더 한층 긴장하여 취조를 강하게 하였다. 그 결과 양효손은 적당한 인물을 물색한 결과 한장협을 택하여 상해로 파견할 작정인데, 여비를 조달하기 위해 친구인 명치대 재학생 최연수로부터 30원을 받았다.²²⁾

일본 중앙대 법과에 재학 중인 유명한 독립운동가인 양기탁의 아들 양효손이 임시정부의 명을 받아 제일 유학생을 포섭하여 중국으로 보내려다 일본 경찰의 내선과에 체포되었다는 내용을 보도한 일본과 한국 신문기사이다.

1933년 무렵 중앙대 법과 재학생 양효손과 일본 와세다 대학 법률과 재학생인 이경채가 일본에 있는 시기가 겹친다는 사실이 단순 우연으로만 보이지 않는다. 이경채가 임시정부와 연락을 하고 있었다고 한 점으로 보아 양효손을 만났을 가능성이 크다. 양효손은 투쟁성과 애국심을 겸비한 똑똑한 애국청년을 선발하여 임시정부에 보내는 임무를 띠고 있었다. 광주 전 학생들의 동맹휴학을 일시에 가능하게 한 이경채의 영웅적인 투쟁성은 이미 상해의 임시정부도 잘 알고 있었다. 더구나 이경채가 일본에 와서도 광주 출신 애국청년들과 비밀결사를 조직하여 활동하고 있다는 사실은 임시정부 요인들의 주목을 받았다.

한편 일본 경시청에서는 광주학생운동의 주역인 그가 위장 취업하기 위해 사회국 주관 강습소에서 교육을 받고, 다른 광주학생운동의 핵심 인물과 회합하는 것을 살피고 있었다. 마침 1932년 1월 동경에서 일본 국왕을 폭사시키려 한 이봉창 의사 의거가 일어났다. 이 사건은 임시정부 김

21) 朝日新聞 1934. 6. 17.

22) 동아일보 1934. 6. 17.

구의 지시를 받아 수행된 것으로 전 세계를 깜짝 놀라게 하였다. 이 사건이 일어나자 일본 수사 당국은 감시하고 있던 조선인들을 체포하였다. 이경채도 일본 경시청 내선과(內鮮課)에 곧바로 체포되어 악랄한 고문을 받았다. 그를 취조한 경찰은 악독하기로 소문난 야나세(柳瀬) 경부였다.

상해 임시정부와 재일 유학생의 연결고리를 찾으려 혈안이 된 일본 경찰은 이경채에게 온갖 고문을 가하였다. 앞, 뒤로 합하여 소위 ‘다라이마와시(たらいまわし)’²³⁾를 6개월 동안 4차례나 시켰다. 이미 1931년 9월 18일 일본은 만주사변을 일으키면서 본격적으로 군국주의 길로 들어서고 있었던 일본은 이봉창 의사의 의거를 기회 삼아 일본 유학생과 재일동포 사회에 대한 탄압을 본격적으로 하였다.

양효손과 연결된 이경채는 일본에서의 독립운동 활동을 포기하고 중국으로 망명을 결정하였다. 그런데 그가 중국으로 망명을 결심한 또 다른 까닭은 이념을 둘러싼 유학생 내부의 치열한 갈등에 대한 안타까움도 한몫하였다.²⁴⁾

3) 재일유학생의 이념적 갈등과 학우회 해산

1920년대에 일본 사회에 전파된 사회주의 사상이 재일 유학생 사이에 전이되면서 유학생 단체의 성격을 둘러싸고 이념적 갈등이 이어졌다. 조선 내의 대표적인 사상단체로 신사상연구회(1923.7), 후에 화유회(1924.11), 북풍회(1924.11) 등이 있었다. 이들 단체는 일본 유학경험자가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북성회 계열과는 대립 관계였던 청년회계에도 일본 유학경험자가 많았다.²⁵⁾

23) 일본어로 짜고 차례로 돌린다는 뜻. 여기서는 구류기간이 끝나면 용의자를 다시 다른 경찰서로 돌려서 구속하는 것을 말한다. 이경채의 설명에 따르면, 경찰서장의 권한으로 사상범에게 29일 구류 처분하고 29일이 만료되면 다른 경찰서로 보내어 또 29일 구류시키는 것을 말한다. 1944년 10월 광주사범의 무등독서회도 일본 경찰에 그 조직이 알려졌을 때 전남북의 여러 경찰서에서 돌아가면서 조사하는 돌림방 처분을 하며 조사를 하였다.

24) 이경채, 「투쟁경력」.

1925년 4월 비밀결사로 창립된 조선공산당에도 일본 유학 출신 인물이 다수 참가하였다. 1934년 통계 재일 유학생 총수는 6,093명으로 관립 대학생은 115명, 사립대학생은 1,583명, 고등학교 또는 전문학교생이 711명, 중등학교생이 3,684명이었다. 이 가운데 치안유지법 위반으로 검거된 학생이 134명에 이를 정도로 적지 않았다.

일본 유학생 단체인 학우회 회원 가운데 1928년 8월 조선공산당 일본 총국이 검거될 때 7명이 기소되었고, 1929년 11월에는 고려공산청년회 일본부의 학우회 그룹으로 박노박, 김강, 강춘순 등이 검거되는 등 학우회가 '내지 재류 조선인의 민족 및 공산주의 운동'의 주요한 일익을 담당하였다. 학우회 자체가 완전히 사회주의단체라고 할 수 없지만, 사회주의 계열 유학생이 학우회의 주도권을 장악하면서 민족주의 계열 회원과 마찰이 생겼다.

‘학지광’에 민족주의자와 사회주의와의 사이에 상호 간격이 있어 충돌이 일어났다는 기사가 보이고 있고, 학우회의 해산 성명 가운데는 민족주의 계열을 하등 계급적 의식이 없는 반동적 파벌 개량적인 해당분자라고 간주하여 타도의 대상으로 삼았다는 내용이 있을 정도로 학우회 내부의 파벌 대립이 심각한 문제였다. 학우회 내부의 파벌논쟁 폐해는 사회주의 계열에 의한 학우회 해산의 원인이 되었다.

1930년 12월 24일 정기대회에서 일본대학 조선 유학생 동창회의 제안에 따라 투표를 한 결과 12대 9로 학우회의 해산을 결의하였다. 1931년 2월 1일 해산 성명을 발표하고 18년간에 걸쳐 재일 조선유학생의 대표조직으로서 활동한 학우회는 막을 내렸다.

이경채가 일본에 건너왔을 때 학우회는 이미 해산되었지만, 그 갈등의 여파는 더욱 깊어져 있었다. 특히 같은 사회주의 내부에서 나타난 길등은 한때 사회주의 사상을 공부한 그에게는 실망으로 다가왔다. 특히 같은 민족끼리 이념적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고 서로 싸우고 있는 현실을 이경채는 무척 답답한 심정으로 보고 있었다.

25) 김기왕, 앞의 논문.

학우회 해산 성명은 학우회가 ‘友人적 친목조직’으로서 결성되었지만 제1차 세계대전 후의 세계 피압박 피갈취 대회의 해방적 혁명운동의 영향을 받아서 조선의 민족해방운동을 목표로 양과 질에 의해서 조선민족을 일본제국으로부터 해방시키는 역할을 목표로 하였다고 전제하고, 학우회의 활동이 대중의 계급적 각성과 계급투쟁에 대한 근본이 되는 원인을 주었던 대중의 일상생활을 적으로 삼아 일본 제국주의에 대한 반항력을 추진한 것이라고 학우회 스스로 평가하고 있다.

‘1국1당 원칙’과는 코민테른의 제6회에서 채택된 ‘공산주의 인터네셔널 규약’(1928년 8월 29일)에 규정된 것이기 때문에 이 원칙에 의해서 조선반도 이외의 지역에서 활동한 조선인공산주의자는 스스로 조직을 해산하고, 중국 관내와 만주지역에서 활동한 조선인은 중국공산당에, 일본에 있는 조선인은 일본 공산당에 입당하게 되었다.

이경채는 1928년 송정리에서 뼈리를 제작할 때 철저한 사회주의 사상을 견지하였었다. 그런 그가 일본에 건너와 민족주의 계열과 선명성 논쟁을 하고, 심지어 사회주의 내부의 사소한 이념적 갈등을 극복하지 못한 채 독립운동은 뒷전으로 밀려난 현실을 겪으며 사회주의 사상에 염증을 느꼈다. 곧 그는 사회주의 사상에 기반을 둔 민족주의자였다.²⁶⁾

광주고보 시절 일제의 식민정책을 비판한 사회과학 서적을 섭렵한 이경채는 나름의 이론을 갖춘 투쟁가였다. 그는 사회주의 사상에 매료되었지만, 그에게 사회주의 사상은 독립을 위한 수단이었을 뿐 목적은 아니었다. 그런데 일본에서 유학생들이 이념적 대립을 극복하지 못하고 계속 갈등하고 있는 모습에 크게 실망하였다. 그가 일본을 거점으로 한 독립운동 세력 거점을 확보하려는 생각을 단념하고 상해로의 망명을 결심하려 한 중요한 까닭이다.

26) 박해현, 『독립운동가 의사 김범수 연구』.

대한민국임시정부에서의 독립운동

1. 상해 인성학교 교사 활동

1) 상해 망명과 인성학교 교사

일본 경찰에 체포되어 6개월 동안 무려 4차례나 ‘다라이마와시(たらいまわし)’를 당할 정도로 철저히 일본 경찰의 감시를 받은 데다 민족독립문제보다 내부의 이념투쟁에 매몰된 재일 유학생 단체의 모습에 실망한 이경채는 상해로 떠날 결심을 하였다. 상해 임시정부는 이경채와 같은 젊고 애국심 있는 투사를 찾고 있었다. 이경채는 임시정부에서 민족독립을 위해 모든 것을 바치겠다는 비장한 결심을 하였다.

하지만 일본 경찰이 그를 철저히 감시하고 있어 일본을 벗어나는 것이 생각보다 쉽지 않았다. 이경채는 처음에는 나가사키 항을 통해 상해로 밀항하고자 했으나 감시가 너무 심해 고베항을 선택하였다. 그곳에서 다행스럽게 구주 항로를 오가는 일본 우선(郵船, 우편선)의 고급선원 오가와(小川)의 도움으로 그의 침대 밑에 숨어 무사히 상해로 망명할 수 있었다. 상해까지 도착하는 데 3일 걸렸다. 3일이 한 달 이상이나 된 것처럼 길게 느껴졌다. 1933년 4월 28일이었다.¹⁾

1) 이경채, 「투쟁경력」. 그러나 다음에 설명하는 용의조선인 명부에 이경채는 5월 19일 상해에 도항하였다고 하여 이경채의 증언과 약간 차이가 있다.

일본 정부가 작성한 ‘용의 조선인 명부’을 보면, 이경채가 상해에 도항하여 의열단에 입단한 것으로 나와 있다. 그런데 그 문서가 1933년 무렵 작성된 것으로 나와 있다. 그가 상해에 도착한 날이 4월 28일이니 불과 얼마 되지 않아 도착 사실을 상해 일본 경찰이 파악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우리 내부에 적지 않은 밀정들이 있었다는 의심을 해도 좋을 자료이다.

표 15. 용의조선인 명부

이름	이경채(李景采)
민족구분	한국인
나이	23세(1933년 현재)
출신지	전라남도 광주군 송정리 612
현주소	남경
경력 및 활동	1933년 5월 19일 상해로 도항하여 의열단에 입단함
참고문헌	용의조선인명부, 298

상해에 도착한 이경채는, 임시정부에서의 활동, 의열단, 중국군사위원회 파견 및 중국군 파견근무와 중일전쟁에서 일본군과 전투 등 항일운동의 최전선에서 빛나는 활동을 하였다. 그의 활동 가운데 빛나는 것은 대한민국임시정부와 중국 국민당 정부의 가교역할, 이른바 한중연대의 기틀을 닦았다는 점이다.

그가 1933년 5월에 상해에 도착하였을 때, 임시정부는 1932년에 일어난 윤봉길 의사의 의거로 인해 일본 경찰의 추격을 피해 항주로 이동해 있었다. 이경채의 「투쟁경력」으로 들어가 보자.

“1933년 상해에 도착하였는데 마침 그해가 윤봉길 의사의 의거 익년(翌年)이어서 임정 요인들은 중국 내지로 은둔하고, 일본 영사관원들은 살기충천한 시기였다. 서로 연락도 두절되어 방황하였다.”

그가 상해에 왔을 때 임시정부 인사들과 연락이 두절되어 방황하였다

는 데서, 이미 임시정부와 사전에 어떤 연계가 있었음을 짐작하게 한다. 앞서 양기탁의 아들 양효손을 통해 임시정부와 연결되었을 가능성을 언급한 바 있으나, 그의 이 증언에서 이러한 심증이 확고해진다. 연고가 없는 상해에 온 경채는 끊어진 임시정부와 연결 방법을 찾으면서 은신처를 찾고 있었다. 영어를 어느 정도 할 줄 알고 있었기에 경채는, 독일인 집에서 아이의 영어를 가르치면서 몸을 의탁할 수 있었다.

그러던 중 임시정부 의정원의원으로 있던 함평 출신 김철의 소개로 상해의 프랑스 조계에서 한국 독립운동가 자제를 가르치고 있는 선우혁 인성소학교 교장을 만났다.²⁾ 인성소학교는 임시정부가 운영하는 학교였다. 이곳에서 이경채는 교사로 있으면서 학생들에게 민족의식을 심어주었다. 그때가 1933년 6월이니 그가 상해에 온 지 불과 얼마 후였다. 그는 김판수(金判守)로 이름을 바꾸어 신분을 위장하였다. 전라도 의원을 겸하고 있던 김철이 작명하여 주었다 한다. 당시 일본 경찰의 추적을 피하려고 이름을 바꾸는 경우가 많았다. 이것만 보더라도 이경채의 중국 망명이 임시정부와 연계 속에서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인성학교에는 남, 여 합하여 70명 정도의 학생들이 공부하고 있었다. 그가 근무할 때 교장 선우혁, 서울 출신 안창손, 중국인 鄒子亮, 그리고 이경채 등 4인이 아이들을 교육하고 있었다.³⁾ 잠시 인성학교에 대해 살펴보고자 하자.

2) 상해 인성학교의 역사

일제강점기 재외 한인들은 2세 교육에 앞장섰다. 그들은 온갖 역경에도 불구하고 민족교육을 위해 최선을 다하였다. 이러한 노력이 재외한인

2) 선우혁은 상해를 중심으로 독립운동을 전개한 대표적 인물로 김철과 막역한 관계였다. 이경채가 1977년 서훈 신청할 때 중국에서의 활동을 입증하는 데 어려움에 처해 있었다. 서울에 사는 선우혁의 딸이 증언을 해주어 서훈을 받는 데 도움을 받았다고 한다.

3) 이경채, 「투쟁경력」.

이 공동체를 형성하며 한민족의 정체성을 지켜낼 수 있었다. 이 과정에 세워진 한인 교육기관의 하나가 인성학교였다. 특히 인성학교는 임시정부의 교육기관으로 발전하였는데, 쿠바에도 인성학교가 있는 것으로 보아 재외한인이 인성학교를 임시정부와 연결된 교육기관으로 여겼을 가능성이 있다.

일제강점기 국외 이주 한인들이 만주, 러시아, 중국 관내, 미주, 쿠바 등 여러 곳에 학교를 세워 교육하였지만, 이 가운데 중국 관내에서 이루어진 한인 교육은, 국외 한인 민족교육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다. 1840년 아편전쟁 이래, 외국 조계가 형성된 상해는 각국 혁명 인사의 근거지였다. 망명해온 혁명가들은 상해에서 비록 제한된 범위이기는 하지만, 비교적 자유롭게 혁명운동을 전개하였다. 한국의 혁명가들도 상해로 망명해 독립운동을 전개하였다. 1919년 4월 건국된 대한민국임시정부가 대표적이다.

이 무렵 상해에도 한인사회가 본격적으로 형성되기 시작했다. 직업적인 독립운동가도 있었지만, 생계형 이주자들도 적지 않았다. 그들은 독립운동가, 자영업자, 노동자, 인삼장사, 잡화상, 음식점 등 다양한 직업에 종사하면서 삶을 영위하였다.

상해에 거주하는 한인들이 늘어나면서 자녀 교육문제가 현안으로 떠올랐다. 1916년 교민 숫자가 200명 정도로 늘어나면서 교민자제들을 위한 인성학교가 개교하였다. 인성학교는 한인사회 구성원들과 그들 자녀들의 민족 정체성을 지켜주는 든든한 보루였다.⁴⁾ 특히 한인 자제들에 대한 학교 교육뿐만 아니라 민족의식을 불어넣어 예비독립운동가를 양성하는 목적도 수행하였다. 인성학교는 광복 직후에도 얼마 동안 존속하여 상해의 한인사회의 정신적인 구심점 역할을 하였다.

초기 상해에 이주한 한인들은 대개 공공 조계에 거주하였고, 프랑스조

4) 상해 인성학교에 대해서는 김광재, 2011, 「일제시기 상해 인성학교의 설립과 운영」, 『동국사학』 50. 참조. 김광재에 따르면 상해에는 인성학교가 1916년부터 1935년까지, 광복 이후인 1946년부터 1976년까지 존속하였다고 한다.

계에 거주하는 경우는 그리 많지 않았다. 이러한 거주 분포는 1919년 프랑스 조계에서 임시정부가 수립되면서 달라지기 시작했다. 항일운동의 지휘본부인 임시정부가 수립되면서 상해 일본총영사관은 상해의 한인에 대한 감시와 탄압을 강화하기 시작하였다. 공공 조계에 살던 한인들은 일본이 개입하기 어려운 안전지대인 프랑스 조계로 옮겨왔다.

프랑스 조계에는 현지 중국인 외에도 외국 교민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었다. 구미 교민들은 주로 하비로의 서쪽 지역, 러시아인들은 하비로의 중간지역에 많이 거주하였다. 하비로 동쪽 지역에 주로 거주한 한일들은, 교회를 통해 종교적 신앙심과 더불어 인성학교를 세워 자녀들의 민족의식을 깨웠다.

프랑스 조계의 한인사회는 강한 정치성을 띠고 있었다. 일제는 1921년 현재 프랑스 조계 한인 약 700명 가운데 200명 가량을 직업적인 독립운동가로 파악하였다. 상해 한인사회가 매우 정치적인 성격을 띠고 있는 교민사회였음을 보여준다. 상해 프랑스 조계 한인사회는 그 자체가 독립운동을 수행하거나 임시정부 등 독립운동 진영의 정신적, 물질 기반이었다.

프랑스 조계 한인들은 임시정부가 1932년 4월 윤봉길 의사의 홍구공원 의거로 일본 경찰의 추격을 피해 상해를 떠날 때까지 끈끈한 교민사회를 유지하였다. 1932년까지 상해 한인사회는 대략 600명에서 800명 선을 유지하였다. 1932년 4월 윤봉길의 의거와 그로 인한 일제의 탄압은 프랑스 조계 한인사회를 근본적으로 뒤흔들었다. 한인사회의 구심점인 임시정부가 상해를 떠나자, 프랑스 조계의 한인사회는 결속력이 약화되었다. 1935년에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상해 한인사회의 결속을 위해 노력하던 교민단이 해체되고, 민족교육의 상징적 존재로 외롭게 버티고 있던 인성학교가 일본총영사관의 강압에 의해 문을 닫고 말았다. 이로 인해 프랑스 조계 한인사회는 두 개의 정신적인 구심점을 잃고 말았다.

● 인성학교의 설립과정

국외 한인들은 “교육은 우리 민족의 생명이다”는 신념을 갖고 있었다.

이에 따라 민족의식이 박약해지는 위기감은, 제국주의 국가들의 학교들이 밀집된 상해지역에서 더하였다.

이에 한인교회에서 활동하고 있던 선우혁, 한진교, 김철 등은 교민들의 교육을 담당할 교육기관 설립에 뜻을 모았다. 이에 필요한 경비는 한인교회의 교민들이 낸 비용으로 충당하였다. 해송양행의 한진교가 내놓은 인삼판매자금의 비중이 가장 컸다. 1919년 9월 1일 마침내 공공조계 곧명로 재복리 75호에서 상해한인기독교소학이 개교되었다. 처음 인성학교의 교명은 '상해한인기독교 소학'이었다. 첫 입학생은 4명이었다.

1916년 9월 1일 설립된 기독교소학은, 1918년 9월경 소속과 교명이 바뀌게 되었다. 1918년 9월 상해 고려교민친목회라는 상해 한인사회 최초의 공식적인 교민단체가 조직되자, 기독교소학을 운영하던 한인교회는 학교 경영을 고려교민친목회에 넘겼다. 이때 교명이 '인성학교'로 개칭되었는데, 명칭에서 단순한 지식학습보다는 도덕이나 인격의 조화로운 함양을 강조함을 알 수 있다.

인성학교가 사립에서 공립으로 전환된 것은 상해에 임시정부가 수립된 이후였다. 1919년 4월 상해에 임시정부가 수립되자 그해 9월 기존의 고려교민친목회는 상해대한인민단으로 개칭하고 임시정부 산하단체로 바뀌었다. 민단은 1920년 1월 다시 상해거류민단, 3월에 상해대한인거류민단, 10월에는 대한교민단으로 개편되었다. 교민단의 업무 가운데 한인 자제들의 교육도 있었다. 1920년 3월 임시정부 국무원령으로 '거류민단체'를 공포하여 해외 한인 거주자에 대해 교민단체가 실시되었다. 이제 사립으로 운영되던 인성학교가 임시정부가 인정한 공립학교로 소속이 바뀌게 되었다. 운영은 상해 교민단에서 맡게 되었다.

교육목표

인성학교는 학생들에게 민족의식 즉 '한국혼' 혹은 '조선혼'을 주입하려 하였다. 국권을 상실하고 상해에 망명한 독립운동가들로서는 학생들에게 강렬한 민족의식을 배양하여 장차 독립운동의 인재로 키워내는 것

이 무엇보다도 중요하였다.

인성학교 교장으로서 국어의 중요성을 누구보다도 강조했던 김두봉은 1929년 8월 상해를 방문한 한글학자 이윤재와의 대화에서 인성학교의 정체성을 다음과 같이 피력하고 있다.⁵⁾

“그렇습니다 학교가 창립된 지 10여 년에 요만큼이라도 돼가는 것은 순전히 교민들의 힘이지요. 그리고 상해에 거류하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천여 명이나 됩니다. 아이들만 해도 수백 명이 되는데 아이들을 중국 사람의 소학교에 보내면 중국의 교육을 받게 됨으로 모국 말을 다 이져버리고 중국 말만 하게 됩니다. 어찌 조선 사람의 구실을 할 수 있습니까. 이러한 관계로 해서 더욱이 학교에 힘을 쓰지 아니할 수 없게 됩니다.”

‘조선사람의 구실’을 기르려는 인성학교의 소박한 교육방침은 그 후 1932년과 1933년의 자료에서도 확인되고 있다. 우선 1932년 3월 28일의 ‘상해한문(上海韓聞)’ 제12호에는 ‘인성학교의 위기’라는 제목으로 다음과 같은 글이 게재되어 있는데 인성학교의 교육방침을 비교적 상세하게 알 수 있다.

“인성학교는 상해에 있어서 한국 아동에게 일층 고조한 민족성을 주입하고 이것을 발휘하기 위한 기관이다. 고로 우리들이 인성학교에 대해서 희망하는 것은 여기에서 백만장자나 학사 박사를 양성함이 아니고 우리들 자제로 하여금 이민족의 교양을 받기 전에 공고한 민족의식을 주입하는 데 있다. 환언하면 종족의 보존에 자하는 데 있다.”

그리고 1933년 인성학교 제 19회 졸업식장에서 교장 선우혁은 다음과 같이 훈화하고 있다.

“하나같이 자기의 자제로서 자국의 언어 자국의 역사 자국의 지리 자

5) 김광재, 앞의 논문, 218쪽 재인용.

국의 정신을 다소라도 함양하여 한국인의 후계자를 얻고자 함이다. 금일까지 본교에서 교육하는 바는 장래의 학술상의 하등 비익한 바 없다 하더라도 금일까지 배양한 한국혼을 기초로 한 주춧돌 위에 모두 진로를 구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한국혼을 강조하는 이러한 인성학교의 교육방침은 1935년 11월 폐교 때까지 계속 유지되었다. 인성학교는 7세부터 13세까지의 학령의 아동들이 입학하였다. 인성학교의 초기 학제는 4년제로 운영하다가 1924년에 6년제로 변경하였다. 이후 학교운영의 어려움으로 5년제로 운영되다가 1934년 다시 6년제로 변경되었다.

인성학교에는 유치원 보습과도 설치되어 있었는데, 보습과에서는 중국 중등학교 진학에 필요한 영어 한문 산학 등을 중점적으로 교육하였다. 교과 내용은 한국어, 한국사, 한국지리 등 민족 의식을 배양하는 데 집중하였다. 수업은 한국어로 하고, 일본어는 절대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금지하였다.

교과서는 인성학교에서 직접 등사로 밀어 제본한 교본을 사용하였다. 그러다가 1923년 11월 임시정부 학무부와 인성학교는 임시정부에서 직접 발간한 국정교과서 개발에 착수하였다. 이때 편찬된 교과서는 인성학교를 비롯한 국외 각지의 한인학교에서 사용하기로 하였다. 하지만 이경채가 인성학교 교사로 재직하던 1933년 6월까지도 교과서 문제 등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었다. 이 부분 이경채의 증언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당시 제일 곤란한 것은 혁명가의 자제인 고로 혁명의지가 왕성하고 미래의 혁명투사가 될 수 있는 신교육을 시켜야 하겠는데, 교재가 없어 선우 교장과 함께 매일 밤늦게까지 다음날의 교재를 토론하며 혁명의 기백을 주입시킴과 동시에 한글 신철자법 등을 가르쳤기에 학부모들의 찬사를 받아 흐뭇한 느낌이 들었다.”⁶⁾

6) 이경채, 「투쟁경력」.

④ 교원 학생

인성학교의 교원은 교장, 교감, 학감, 교사, 시간강사 등으로 이루어졌다. 교장으로서는 여운형, 선우혁, 김두봉 등이었는데, 인성학교 교장 및 교사진은 임시정부나 민단의 주요 간부들이다. 특히 민단장이 인성학교 교장을 겸임하기도 했는데 이유필과 여운형이 그들이다. 김태연, 손정도, 윤기섭, 선우혁, 조완구 등은 임시정부의 주요 간부들이었다.

재정이 어려워 대개 월급이 없는 의무 교원이었다. 인성학교의 초대 교장은 선우혁이 역임했다. 인성학교의 초대 교장이 여운형이라는 주장도 있지만, 중국 언론 보도 및 광복 이후 인성학교의 문집에 선우혁이 초대 교장으로 명시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선우혁이 초대 교장을 역임한 사실은 분명하다.

표 16. 인성학교 역대 교장 및 교사⁷⁾

연도	교장	교직원	비고
1916.09.	선우혁		선우혁, 한진교, 김철 상해한일기독교학 설립
1917.02.	여운형		1917.1.남경에서 온 여운형 교장 역임
1919.	김태연	학감 : 주영윤 교사 : 정인파, 김홍서	
1919.10.	손정도	학감 : 김태영 교사 : 윤종식, 정애경, 김연실	
1920.09.	여운홍		
1921.04.	여운홍	교사 : 김원경, 윤종식, 김태연, 김종상, 김예진	
1921.07.	김태연		1921.10사망
1921.11.	안창호		명예교장
1919-1922		교사 : 박영태, 박춘근, 김공준, 유상규, 이병주, 심성운	
1922.	김종상		

7) 김광재, 앞의 논문.

연도	교장	교직원	비고
1922.09.	김인전		
1922.10.	도인권	학감 : 윤기섭	
1923.08.	이유필	학감 : 윤기섭 교사 : 김승학, 백기준, 김종상, 김두봉	
1924.03.	조상섭	학감 : 윤기섭(1924.6.7. 사직) 후임 : 신언준 교사 : 황훈(최중호), 진장권(진해운), 최무아 시간강사 : 나창현, 김두봉	
1924.08.		교사 : 박진(박노영)	요시찰명부 184쪽
1924.12.	여운형		
1926.10.	조상섭	교감 : 강경선 학감 : 황훈	
1928.11.	김두봉	교사 : 윤기섭, 장도선	
1930.	김두봉	교사 : 전창근, 안우생, 박성근, 정해리, 이병훈, 구익균	
1931.06.	김두봉	교사 : 윤기섭, 김빈, 안우생, 박성근, 박영봉	
1932.09.	선우혁	교사 : 박기복, 최대복, 김혜주, 이상규, 구익균, 김근호(김혜일, 김좌경)	
1933.	김두봉	교사 : 윤기섭, 조완구, 김판수(이경채), 그 외 한중 여교원	
1934.	선우혁	교사 : 안창손, 정병순, 박명순, 선우애, 그 외 중국인 교사 2명	
1934.	선우혁	교사 : 박기복, 안창손, 엄상빈, 선우애, 차영애. 소림심(중국인)	

위 표는 인성학교의 모태가 된 상해 한일기독교소학 때부터의 학교장과 교사 명단이다. 1916년 처음 설립 당시부터의 교사진을 소개한 것은 1930년대 인성학교의 모습을 살피는 데 도움을 주기 때문이다. 아울러 이경채의 증언과 위 표의 내용에도 약간의 차이도 있어 사실을 확인하는 데 전체를 다루는 것이 낫겠다는 생각 때문이다. 이경채는 인성학교에서 1933년 6월부터 근무하였다. 이경채가 인성학교 교사로 근무하고 있던 시절 김두봉 등 유명한 독립운동가와 함께 얼굴을 맞대고 있었다는 사실도 확인되고 있다.

이경채가 1933년에 김판수로 개명하여 교사로 지내고 있는 것으로 나

와 있는데, 그의 구술과 일치하고 있다. 그가 개명한 것은, 앞서 언급하였듯이 일본 당국의 집중 감시대상이기 때문이다. 이경채 증언에는, 당시 교직원인 학교장 선우혁, 교사로 안창손, 김판수 그리고 중국인 鄒子亮 등 4인뿐이었다고 하였다.

그런데 안창손은 1934년에 교사로 근무하고 있어 이경채의 증언과 차이가 있다. 곧 이경채의 증언이 1933년과 1934년의 사실이 섞여 있음을 알 수 있다. 아울러 이경채가 1933년에 인성학교 처음 들어갔을 때 학교장이 선우혁이었다고 증언하고 있지만, 위 표에는 김두봉과 차이가 있다. 상해의 인성학교는 1932년 4월 말에 있는 윤봉길 의사의 의거로 잠시 문을 닫았다가 다시 문을 열었다. 그때 교장이 선우혁이었다. 1933년에는 선우혁이 이경채의 증언처럼 교장일 가능성이 크다.

선우혁은 일제강점기 및 광복 이후의 두 인성학교의 설립에 깊이 관여하였다. 1916년 9월 인성학교가 설립될 때 참여하였으며 1930년대 전반기부터 1935년 인성학교가 폐교될 때도 교장으로 있었다. 그리고 1946년 인성학교의 재개교를 직접 주관하고 첫 번째 교장을 역임하였던 인물이다.

여운형은 상해 교민단 단장을 지내면서 인성학교 교장을 역임한 인물로, 1920년대 재정난으로 인성학교가 문을 닫을 위기에 처할 때 학교를 구해냈다. 그의 동생 여운홍도 미국 유학 후 상해로 돌아와 인성학교 교장으로 재직하면서 교사건축 모금 운동을 주도하였으며 국내에 들어가 인성학교 모금 운동을 벌여 상당 액수의 금액을 상해로 보내오기도 하였다.

김태연은 3년 동안 초기 인성학교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여운홍 교장이 사임한 후 교장직에 취임하여 인성학교의 운영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다 1921년 10월 25일 과로로 타계하였다. 그는 인성학교 학생들이 애창한 인성학교 교가를 작사 작곡하기도 하였다. 역대 교장 가운데 인성학교가 철저한 국어 국문교육과 역사 교육을 하게 된 데는 한글학자 김두봉의 공로가 컸다.

1920년대 후반 김두봉이 교장으로 재직하던 시절 그를 한국교포 어린

이들에게 한글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이라고 칭하는 이도 있었다. 그는 상해에 망명한 이후에도 독립운동과 한글 연구를 병행하였다.

표 17. 1926년 10월 현재 인성학교 학생 현황

급	남	여	합
5학년	3	1	4
4학년	8	5	13
3학년	4	4	8
2학년	1	6	7
1학년	7	9	16
계	23	25	48

그러나 이경채가 교사로 재직하던 1933년에는 전년도 윤봉길 의사의 거로 강제로 휴교되었다 다시 문을 열었지만, 학생 수가 남, 여 합하여 70명⁸⁾으로 1926년과 비교하여 크게 늘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1933년에 있는 졸업식의 구체적인 내용이 확인된다. 1932년 4월 윤봉길 의거 이후 프랑스 조계의 한인 집회 금지로 강제 휴교되었다가 그해 월 복교한 후 처음 맞는 졸업식이었으므로 남다른 의미가 있었다. 애국가에 이어 교장 선우혁의 개회사, 학사보고, 졸업증서 수여식이 이어졌다. 졸업가 제창과 우등생 상품 수여를 한 후 내빈으로 송병조와 조상섭이 축사를 하였다. 재학생들의 송별가, 전체 학생들의 교가 제창을 끝으로 졸업식은 끝났다. 이때 졸업생 8명이 배출되었다. 이 무렵 인성학교 교사인 이경채는 이때 학생 수가 70명이라 하였는데, 6년 전체를 포함한다면 학년당 8명이 어느 정도 타당성 있는 숫자라 여겨진다. 인성학교는 1935년 폐교 때까지 소학교 95명 유치원 150여 명, 도합 245여 명의 졸업생을 배출하였다.

1933년 6월부터 인성학교 교사 생활을 한 소감을 앞서 인용한 바 있지만, 이경채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다.

8) 이경채, 「투쟁경력」.

“당시 제일 곤란한 것은 혁명가의 자제인 고로 혁명 의지가 왕성하고 미래의 혁명투사가 될 수 있는 신교육을 시켜야 하겠는데 교재가 없어 선우 교장과 함께 매일 밤늦게까지 다음날의 교재를 토론하며 혁명의 기백을 주입시킴과 동시에 한글 신철자법 등을 가르쳤기에 학부모들의 찬사를 받아 흐뭇한 느낌이 들었다.”⁹⁾

이때 이경채는 매일 학교에서 선우혁 교장과 밤새며 학생들의 교재를 만들어 독립의식을 고취하려 노력하였다. 한글 철자법은 한글학자인 김두봉의 도움을 받았다. 그때 그가 사용한 생활비는 8원 미만이었다고 하니 얼마나 내핍 생활을 하였는가를 알 수 있다.

한편 이경채는 인성학교 교사 시절 김두봉과 함께 생활하였기 때문에 그의 품성 등을 잘 알고 있었다. 이경채에 따르면 김두봉은 민족주의 성향이 강하여 공산주의 사상에 거부감이 있었다 한다. 이 문제는 장을 달리하여 서술하고자 한다.

2. 한·중연대론의 토대 구축과 이경채

1) 한국독립당 활동과 한국독립보 발간 참여

이렇게 인성학교에 교사로 근무하던 이경채는, 함평 출신으로 상해임시정부 국무위원으로 있던 김철의 추천으로 1934년 임시정부 월간 기관지 ‘한국독립보’ 발간에 참여하게 되었다. 임시정부의 최고위층에 속한 대표적 인물인 김철(1886 - 1934. 6. 29)은 특히 임시정부를 찾는 전남 출신에게는 각별하게 하였다. 임시정부 최연소 대의사를 지낸 장성 출신 변극도 김철의 도움을 받았다.¹⁰⁾

상해의 독립운동 조직인 신한청년당을 조직한 김철은, 1919년 4월 대한민국 임시의정원 1회 회의에서 장병준과 함께 전라도 의원에 선출된

9) 이경채, 「투쟁경력」.

10) 박해현, 『독립운동가 교사가 되다』.

데 이어 2회 회의에서 임시정부 재무위원 겸 법무위원이 되었다. 이후 임시정부의 여러 중책을 맡아 활동하다 마침내 1926년 12월에 임시정부 국무위원, 1930년 군무장이 되었다. 1931년 만주사변이 일어나자 그 해 11월 중국과 공동항일전선 구축하려고 중국항일대동맹을 조직하였다. 이 곳에서 그는 조소앙, 중국인 오징천, 서천방 등과 함께 상무위원으로 활약하였다.

김철은 1932년 4월 윤봉길의사 의거로 일본 경찰의 추격을 피하여 항주 등으로 이동하는 임시정부와 함께 여러 지역을 전전하며 독립운동을 하였다. 1930년대 우파 중심의 독립운동 세력 결집체인 한국독립당 14명의 이사 가운데 1인이었다. 프랑스 조계에서 일본 경찰에 체포되었다가 프랑스 당국의 항의로 풀려난 김철은, 고문 후유증으로 1934년 6월 29일 항주의 광제병원에서 순국하였다.¹¹⁾

항주와 상해를 오가며 독립운동의 거점 구축에 심혈을 기울이던 김철은 이경채의 인물됨을 곧바로 알아보고 그에게 한국독립당의 당보 발간 업무에 참여하도록 하였다. 이경채는 곧 한국독립당에도 입당하였고, 기관지 발간에 정성을 기울였다. 이경채는 임시정부 기관지 발행을 하는 일을 하여야 했기 때문에 정든 인성학교 교사를 사직하고 상해를 떠나 임시정부가 있는 항주로 왔다. 그의 신분 노출을 막기 위해 김철은 이경채의 이름을 ‘이중환(李中煥)’으로 개명해주었다. 김철이 이경채를 무척 신임하고 아꼈음을 알겠다.

11) 김철이 항주의 광제병원에서 순국하고, 당의 이름으로 장례가 치러졌다는 등 당시의 상황을 박경순의 조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당시 항주 광제병원에 입원 중인 김철(金徹, 金永鐸)이 6월 29일 오후 6시 사망하였기 때문에 장례 준비를 위하여 이 역시 개최하지 못하였다. 김철 사망 때문에 임시정부에서는 송병조, 양기탁, 박창세 및 남경에서 온 김두봉 등이 모여 협의한 결과 비용 300을 지출하여 당장(黨葬)으로 집행하게 되었고, 항주 법원로 예수교회당 장로 주운장(중국인)에 의뢰하여 7월 2일 오후 5시에 그 병원에서 발인하여 항주 이서호가악비묘 묘지에서 장례식을 거행하였다. 참석자는 송병조, 양기탁, 김사거, 이상일, 나(박경순), 이세창, 김두봉, 차리석 등이었다. 장례식 당일 은 최석순, 한신교, 구익수 등은 시간이 늦어서 장례식에 시간을 맞추지 못하였다.”

한국독립보는 이경채의 증언에 따르면, 월간 소형보 1, 2면은 중국 문자, 2, 3면은 한글판으로 편집하였다.¹²⁾ 문선과 조판을 담당한 이경채는 조판이 완료되면 이세창과 함께 가까운 곳의 중국 인쇄소에 가지고 가서 인쇄하였다. 그가 문선, 조판을 할 수 있었던 것은 1928년 광주고등보통학교 5학년 재학 중 독립 만세 유인물을 배포하다 체포되어 개성 소년형무소에 수감 되어 있을 때 이 일을 배웠기 때문이다. 한국독립보 발간 작업을 절강성 항주시 학사로의 비밀장소에서 발간하였다고 이경채는 증언하고 있으나, 일제는 이미 한국독립보 발간 장소를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한국독립보는 송병조 목사가 주관하고 미국 캘리포니아 출신 김형순의 경제적 후원, 조소앙의 프랑스 지인 등의 경제적 후원으로 간행되고 있었다. 김두봉도 한국독립보 간행에 참여하였다. 이경채의 진술에 따르면 한국독립보 발간에는 모두 12명이 참여하였다고 한다. 편집 총책임자인 조소앙을 비롯하여 양기탁¹³⁾·김두봉¹⁴⁾·김상일 부부¹⁵⁾·김사집¹⁶⁾·박경순 부부¹⁷⁾·김철¹⁸⁾·이세창¹⁹⁾·해공 신익희, 그리고 이경채 자신이었다. 이경채가 김두봉 등 당대의 대표적인 독립운동가들과 함께 독립보 간행

12) 이경채, 「투쟁경력」.

13) 이경채는, 양기탁은 연로하나 기백이 충천하였다고 하였다.

14) 이경채는, 김두봉은, 한글학자로 한글 구리 활자를 자체 제작하였는 데, '타이프라이터' 자형이었다고 한다.

15) 이경채는, 김상일은 청년지도자로 우익이론가이자 투사였고, 항주에서 작고하였다고 하였다.

16) 이경채는, 김사집은 김홍집의 아우로 알고 있다.

17) 이경채는 박경순을 오타인 것 같은 데 '박경수'로 적어 놓았다. 그리고 박경순을 서울 출신으로 미국에 유학하여 영어에 정통(精熟)했다고 하였다. 하지만 그는 미국 유학을 하지 않고 서울의 기독교회관의 부설 영어학원에서 영어 공부를 하였다.

18) 이경채는, 김철은 전남이 본적으로 항주에서 별세했고, 훗날 조소앙이 유골을 가지고 귀국하였다고 적었다.

19) 이경채는, 이세창은 중국 태생으로 중국인을 능가할 정도로 중국어에 능동했다고 하였다. 이경채가 한국독립보 간행하기 위해 상해에서 항주로 왔을 때 함께 온 것으로 보아 두 사람은 각별한 사이였을 것으로 짐작된다.

에 참여하였음을 알 수 있겠다.

1935년 8월 항주 일본 영사관이 중국인 밀정을 시키어 비밀장소를 탐지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한 데다 미국에서의 후원도 여의치 않자, 한국독립보 발간을 주관하고 있는 송병조의 제의로 독립보 발간을 잠시 중단하고 후일을 기약하며 모두 흩어졌다. 그가 항주에 와서 한국독립보 발간에 뛰어든 지 1년쯤 되었을 때였다. 이경채는 다시 상해로 돌아왔다.²⁰⁾

여기서 한국독립보를 발행한 한국독립당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한국독립당은 임시정부의 여당 역할을 하고 있었고, 이경채도 한국독립당의 일원이었기 때문이다. 우익진영의 안창호·이동녕 등 민족주의자들은 상해 한인 반제동맹과 같은 좌익진영의 독자노선에 맞서 독자적인 정당 건설을 추진했다. 1930년 1월 25일 프랑스로계 馬浪路 普慶里 4호 임시정부 청사에서 한국독립당이 결성되었다. 임시정부는 「대한민국임시정부선언」(1931. 4.)을 통해 임시정부는 독립당의 대표기구임을 라고 선언했다.

한국독립당의 黨義는 ‘혁명적 수단’에 의해 일제를 박멸하여 국토·주권을 완전 광복하고, 정치·경제·교육의 균등을 기초로 한 신민주국 건설을 목표로 했다. 黨綱에서는 민족적 혁명역량 총집중과 무력투쟁, 세계 피압박 민족과의 연대 등을 독립운동 방략으로 설정하였다. 한국독립당의 黨綱에서 이미 조소앙의 삼민주의가 들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경채가 한국독립당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실을 당시 일본 경찰은 알고 있었다. 주 상해 주재 일본 총영사가 본국 외무성에 보고한 내용에 잘 드러나 있다. 이경채가 항주에 온 것이 1934년 7월이라고 본인은 기억하고 있으나, 1934년 6월 19일 작성된 일본 상해 영사관 자료는 항주에 이중환이 이미 왔음을 밝히고 있다.

다음 일본 영사관 보고 자료를 통해 한국독립당이 또 다른 기관지인

20) 그런데 이때 한국독립보 간행에 같이 참여한 박경순이 1938년 상해 총영사관 경찰에 체포되어 한국독립당 관계를 모두 자백하였다. <부록>에 자백내용이 있지만 지나칠 정도로 상세하게 정리되어 있다. 박경순의 자백에, 이경채를 일본의 밀정으로 의심하는 부분도 있다. 이와 관한 얘기는 후술되고 있다.

‘진광’을 발간 준비를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보고서에 한국독립당 당원 명단이 있다.

표 18. 한국 독립당 당원 명단(1934.6)

소화 9년(1934) 6월 19일 재 상해 석사(石射) 총영사 발신 내전(內田) 외무대신 씨 보고 적록(摘錄) 상해 및 동 관계 불령선인단체의 건)

단체명 및 소재지	이름	현주소	활동개략
한국독립당 항주학사로 사감방 41호	이사장 송병조	항주장생로 호변촌 23호	密議 임시정부 재흥과 共히 ①본년 1월 중순 독립당이 부활하여 ②종래 金徽(澈)의 보관중이던 기록류를 항주에 옮기고 ③南京으로부터 이상일·김사집, 상해로부터 이중환·이세창 등을 불러 활동을 개시하기에 至하였다. ④ 또 중국측의 원조를 受하여 진광사라는 것을 설치하고 기관지 『震光』 언문·한문 2종을 발행하여. ⑤한문은 주로 지나측에 배포하여 한국독립운동 상황을 선전하고 있는데, 언문은 약 500부 한문은 약 1,000부를 발행한다고 한다. ⑥특무대장 박창세는 독립당 급 임시정부의 사업으로 신공원 사건을 모방하여 3월 3日 강병학·박효경으로 하여금 상해 神社 초혼제식장에 폭탄을 투척시키고 3월 10일부 본당 명의로써 한문선전서를 발표하여 중국측에 배포하여 윤봉길·이봉창에 다음 가는 의거라고 상양(賞揚)하고 당의 사업으로 선전하였다. 일시 지금 난에 합하였으나 ⑥최근 송병조가 어디에선가 자금을 挾출하여 온 듯 목하 사무소 가옥을 구입하고자 물색 중인 모양이다. 타방 광동정부로부터 원조를 얻고자 同地支部 김봉준을 대표로 하고 이경산을 간사에 임명하여 접촉을 거듭하고 있다.
	재무장 김철		
	내무 조소양		
	선전 이상일	항주 학사로 감방40	
	비서장 김두봉	남경중산로 광명리 향측	
	특별대장 박창세	항주 학사로사감방 41호	
	김사집	사무소	
	박경순	동	
	이중환 ²¹⁾	동	
	이창세	동	
	이시영	항주 장경기9호	
	차리석	상해불계노미로	
	장덕로	동	
	이성용	노령 노환용방	
	박용철	하비로389	
조상섭	맥대이제나로24호		
선우혁	거발라사로미화리		
	김양수	미량로	

21) 이중환의 본명은 이경채, 이일휘(李一輝)·김판수(金判洙)라고 불렀다.

1934년 일제가 파악한 한국독립당원 당원 명부 가운데 전남 출신은 재무장 김철과 이경채 뿐이다. 이 기록을 통해 1930년 임시정부의 여당으로 출범한 한국독립당이 1932년 4월 윤봉길 의사 의거로 임시정부가 상해를 떠나면서 당 조직이 주춤거렸으나, 항주에 자리를 잡은 후 임시정부의 조직 정비와 더불어 1934년 1월 한국독립당도 부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과정에서 남경에서 이상일·김사집이, 상해에서 이중환(이경채)·이세창이 한국독립당에 합류하였다.

한국독립당이 한국독립보와 별도로 중국 정부의 지원을 받고자 '진광사'를 세워 '진광' 잡지를 발간하였고, 1934년 3월 3일 강병학과 박효경이 상해의 일본 신사에 폭탄을 투척한 사실이 적혀 있다. 진광 발행에 들어간 비용의 출처 등도 자세히 나와 있다. 1934년 1월 조직을 재정비한 한국독립당이 한중관계 회복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미 김철도 1931년 만주사변이 일어나자 그해 11월 중국과 공동 항일전선을 구축하려고 중국항일대동맹을 조직한 바 있었다. 1930년대 재중 한인 독립운동세력은, 장개석이 이끄는 국민정부와 연합전선을 구축하여 나라의 독립을 찾으려 심혈을 기울였는데, 그 중심에 이경채가 있었다.

2) 중국국민당과 한국독립당

1930년 출범한 한국독립당은, 1920년대 말 중국인의 반한 정서가 남아 있었지만, 출범 당시부터 중국국민당과 우호적인 관계를 형성하였다. 한국 독립운동과 중국과의 인연은 국권 피탈 직후 상해·광주 등지로 망명한 한인 혁명가들에 의해 비롯되었다. 대표적 인물이 신규식인데, 1912년 상하이로 망명한 그는 신해혁명의 주요 인물들과 교분을 확대해 중국 땅에 한국독립운동의 근거지를 마련하였다.

신해혁명 성공을 이끌고 손문을 도와 북경 정부 원세개, 토벌군 총사령으로 활약하였던 陳其美는 상해에서 활동하던 한국·월남·인도의 혁명가들에게 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陳其美는 한국의 독립을 촉진하기 위해 한국 혁명지사들과 상해에서 비밀단체인 '신아동제사'를 조직하

여 활동하였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한국 독립운동에 대한 이해가 깊었다.

1916년 5월 陳其美가 원세개의 하수인에게 피살된 후 한인 지원활동은 조카 陳果夫²²⁾에게 계승되었다. 陳果夫의 각별한 노력으로 孫文이 세운 황포군관학교의 1·2·3·4기 입학생 가운데는 한국 학생이 상당수를 차지하였다.

1920년 광둥에서 호법정부가 수립되고 손문(孫文)이 대총통에 추대되자 대한민국임시정부는 1921년 10월 26일 국무총리 겸 외무총장인 신규식을 정사(正使), 박찬익을 부사(副使), 민필호를 수행으로 하여 국서를 가지고 손문의 총통 취임식에 파견하였다. 이들은 11월 3일 손문과 회담하여 임시정부의 정식승인과 호혜조약 5개조를 제시하였다. 신규식을 옛 동지로서 반갑게 맞이했던 손문은 임시정부가 제안한 호혜조약 5개조를 긍정적으로 수용하면서

“중한 양족은 동문동족(同文同族)으로서 본래가 형제지방(兄弟之邦)이며 유원한 역사관계가 있다. 보거상의(輔車相倚)²³⁾하듯, 순치상의(脣齒相依)하듯 잠시도 분리될 수 없는 것으로서 서양의 영·미와 같은 관계이다. 따라서 한국의 광복운동에 대해 중국은 응당 원조할 의무가 있는 것은 더 말할 나위 없다”

라는 우호적인 의사를 표명하였다. 이후 손문은 대한민국임시정부 주 광주대표(駐 廣州代表)를 호법정부에 상주케 하여 정식으로 한중 외교상의 연락로를 갖게 하였다.

이와 같은 한중연대 관계는 1930년 1월 25일 한국독립당이 결성된 이후에도 중요한 정책적 기초가 되었다. 한국독립당은 당의(黨義)와 당강

22) 진과부(1892-1951) 1912년 상해에서 신규식이 조직한 신아동제사에 참여하고 임시정부에 자금지원을 하였다. 후술할 남경중앙군관학교 한인반 특설반 개설할 때 역할을 하였고, 광복군 창설 등 임시정부의 활동에 커다란 공적을 남겼다. 대한민국정부는 1966년 건국훈장 대한민국장을 추서하였다.

23) 보거상의(輔車相倚) : 서로 돕고 의지함을 일컫는 말

(黨綱)에서 삼균주의(三均主義)를 정치이념으로 삼고, 세계 피압박민족 혁명단체와의 연계 등을 내세웠다.

이는 실질적으로 중국국민당과의 연대를 염두에 둔 것이었다. 한국독립당이 좌익세력의 주도권 장악에 반발하여 결성되었고, 활동의 주무대가 중국 상해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중국국민당과 연락·제휴를 도모”하는 것은 당연한 귀결이었다. 한국독립당 결성 직후인 1930년 2월 20일 무렵 당(黨) 명의로 발표한 「고중국동포서(告中國同胞書)」는 이러한 기초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일본 제국주의에 맞서 한중 양국 민족이 함께 연합전선을 펼칠 것을 호소한 것이다.

중국국민당도 한국독립당에 대한 전폭적인 후원과 연대의 뜻을 공개적으로 피력하였다. 한국독립당이 내세운 한중연대론에 찬동하고, 1929년 11월 광주에서 발생한 광주학생운동을 언급하면서, 여기에서 보여준 한국인의 혁명 의지는 중국인의 반제 투쟁에 있어서 모범이 되는 사례라는 점을 높이 부각하였다.

1930년 2월 초 중국국민당 절강성 집행위원회는 제80차 회의에서 한국독립운동 지사들에게 격려와 위로의 뜻을 담은 전보를 발송하였다. 중국국민당 절강성 집행위원회가 상해 민국일보사(民國日報社)를 통해 한국독립당 전체 지사 앞으로 보낸 전보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한국 내에서 발생한 광주학생운동은 한국의 모든 노동자, 청년과 전체 국민이 한국독립당의 영도 아래 맨손으로 일본제국주의자와 격전을 벌인 것으로 민족독립과 자유를 위해서 세계의 평화를 해치는 공공의 적과 생사를 건 투쟁을 전개한 것은, 실로 세계의 모든 피압박민족과 연합하여 제국주의를 타도하지는 국민당의 주장과도 일치하는 것이어서 중국국민당 절강성 집행위원회는 한국독립당과 한국의 전체 국민이 전개한 영광된 투쟁에 무한한 동정의 뜻을 표한다. 아울러 한국독립운동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을 환기시켜 한국독립운동에 힘을 실어 줄 것을 약속한다.”

중국국민당 상해특별시 제6구집행위원회도 민국일보(民國日報)에 「민중에게 고하는 글」을 발표하여 한국의 대일항전이 손문이 제창한 삼민주의와 맥락을 같이하는 것임을 지적하였다. 그리고 동양과 세계 평화를 위해서 한국의 대일항전을 후원할 뜻을 표명하였다.

“조선 민족의 분투는 민족자결주의의 진정한 정신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조선 민족의 분투는 나라와 세상을 구하려는 삼민주의의 위대한 정신과 맥을 같이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동양의 평화를 위해, 세계 대동의 실현을 위해, 불요불굴의 정신으로 무장하고 적과 피나는 투쟁을 전개하고 있는 조선 혁명에 깊은 동정과 원조의 손길을 보내지 않을 수 없다.”

중·한 두 나라는 유구한 역사적 관계를 맺어 왔고, 제국주의의 침략을 받고 있어 마치 형제와도 같은 관계에 있어 중·한 두 나라는 반드시 연합을 이루어야 한다는 내용이다. 중국국민당 남경 정부에서도 중앙일보(中央日報)를 통해 한국 내 독립운동의 치열함을 찬양하고, 중국 민족이 제국주의 국가의 철제(鐵蹄) 하에서 생활하고 있다는 동병상련에서 한국을 원조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한국원조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으로는 일제의 잔혹한 한반도 정책을 폭로하고 한국인 애국지사의 자제를 중국에 수용하여 고등교육을 받게 하며, 중국에 한글학교를 설립하여 한민족의 후예들을 각성케 하고 부단히 혁명수양을 하게 하며, 한민족의 해방을 위해 최대한의 정신적·물질적 원조를 할 것 등을 제시하였다.

한국독립당은 1930년 10월 남경에서의 국민당 제4차 중앙집행위원회 전체회의 개최와 장학량의 참석을 계기로 한중연대를 본격적으로 모색하였다. 임정은 조소앙을, 한국독립당은 박찬익을 대표로 남경에 파견하여 재만 한인의 지위 개선을 청원하는 소책자 「동삼성한교문제(東三省韓僑問題)」를 전달하면서 교섭을 벌였다. 한편 1930년 11월 3일 한국독립당은 광주학생운동 1주년을 맞이하여 「광주참안(光州慘案)에 관해 중국

동지에게 고하는 서(書)를 발표하였다. 한국독립당은 광주학생운동을 중국 제남사건(濟南事件)²⁴의 유혈참사와 동일한 사건으로 규정하고 일본제국주의를 타도하기 위해서 한중 공동투쟁이 필요함을 역설하였다. 1931년 4월 남경에서 중국국민회의가 개최되자, 5월 12일 안창호는 「대한민국임시정부선언」과 「동삼성한교문제」를 휴대하고 남경으로 가서 한국독립당과 국민당의 연대를 촉구하였다. 그러나 1931년 7월 2일 일제의 한·중 이간책으로 만보산 사건이 발생하자 한·중관계는 다시 악화되었다.

이때 한·중 간의 갈등 상황을 수습하기 위해서 한국독립당에서 발행한 기관지가 바로 한보특간(韓報特刊)이다. 한국독립당은 그 「한보특간사(韓報特刊辭)」에서 일본제국주의에 맞서기 위해서는 한중연대가 중요함을 강조하고, 발행 부수를 늘려 중국 국민정부 산하 관공서·군정기관 및 일반 민중들에게 배포하였다. 때마침 1931년 9.18사변이 발생하자 중국국민당은 진과부(陳果夫)를 앞세워 한국독립당과 구체적인 합작을 시도하였다. 이때 중간 연결통로는 중국인들에게 복정일(溥精一)로 잘 알려진 박찬익(朴贊翊)²⁵이었다. 한국독립당 당원이던 박찬익은 1.28 상해사변 당시 국민당 중앙조직부에 근무하였는데, 진단보(震壇報)를 발행하여 중국 거주 한인들의 의식을 환기시킬 필요성을 제안하였다.

한편 1932년 김구가 이끈 한인애국단원 윤봉길이 상해 홍구공원에서 일으킨 의거가 성공하자 한중 양국 간의 갈등 관계는 새로운 국면으로 전환하였다. 1933년 겨울 장개석이 남경으로 돌아온 뒤 진과부가 김구와 함께 장개석을 찾아감으로써 장개석과 김구와의 만남이 성사되었다. 이로써 중국국민당의 한국독립운동 후원이 급물살을 타게 되었다.

24) 제남사건(濟南事件) : 1928년 5월 일본군이 중국 산둥성 제남에 있는 일본인을 보호한다는 핑계로 군대를 보내 북벌 중이던 장개석의 중국 국민혁명군과 충돌한 사건이다.

25) 박찬익(1884 - 1949) : 경기도 파주출신으로 대종교에 입교하여 활동하였다. 1912년 상해에서 독립운동 단체인 동제사를 조직하였고, 임시정부에서 임시의정원 의원으로 활동하였다. 그는 주로 중국 정부와 접촉을 통해 한중 연합작전을 수행하는 데 앞장섰다. 정부는 1963년 건국훈장 독립장을 추서하였다.

이후 한국독립운동에 필요한 경비는 김구를 단일 수령창구로 소쟁(蕭錚)²⁶⁾의 손을 거쳐 지원되었다. 김구는 처음에는 박찬익을, 나중에는 안공근을 대표로 파견하여 돈을 수령하였다. 본래 국민당 정부는 한인 독립운동가들이 김구를 중심으로 단합하기를 원하였지만, 김구와 김원봉은 서로 연합하기를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국민당 정부는 부득이 한인 독립운동에 대한 지원 계통을 이원화하였다. 따라서 김구에 대한 지원은 중국 국민당 중앙당 조직부장 진과부를 중심으로 진립부(陳立夫)·소쟁(蕭錚)·공패성(貢沛誠) 등이 담당하였고, 김원봉에 대한 지원은 군사위원회 삼민주의 역행사(藍衣社)²⁷⁾의 승걸(滕傑)·간국훈(干國勳) 등이 주관하였다.

3) 한국독립당의 진광(震光) 발행과 국민당 후원

중국에서 활동하던 한국 독립운동가들은 한국인들의 독립운동 활동을 선전하고 한중연대를 유도하기 위해서 신문·잡지 등 여러 가지 문건들을 간행하였다. 이를 통해 한국독립 운동의 당위성과 한중연대의 필요성을 알려 후원세력을 결집하고자 하였다. 진광(震光)은 1934년 1월부터 한국독립당이 발행한 공식 기관지였다.²⁸⁾

1930년 1월 상해에서 대한민국임시정부 인사들이 주축이 되어 결성한 한국독립당은 1945년 8월 15일 광복 때까지 임시정부를 옹호 유지하는 여당(與黨)으로 활동하였다. 이 과정에서 한국독립당은 결당 직후 최초의 기관지로 한보(韓報)와 그 자매지 한보특간(韓報特刊)을 발행하였다. 그리고 이어서 상해신문(上海韓聞)·한성(韓聲)·진광(震光)·한국독립당보(韓國獨立黨黨報)·통고(通告)·독립평론(獨立評論)을 발간하였다. 상해신문(上海韓聞)은 상해에서 한국독립당이 발행한 주간신문, 한성(韓聲)은

26) 蕭錚(샤오징) : 중국국민당 국방위원 및 경제저문위원, 경제부정무처장을 역임했다.

27) 남의사(藍衣社) : 중국국민당 산하의 비밀조직, 삼민주의 역행사라고도 한다. 1931년 국공합작에 반대하는 황포군관학교 출신의 중국국민당 내 우파가 모여 결성하였다.

28) 震光에 대해서는 박경순의 심문조서 및 박성순, 2015, 「항일투쟁기 한국독립당의 '震光' 발간과 한중 연대」, 『동양학』 61.

한국독립당 광동지부에서 발행한 잡지이다. 진광(震光)은 한국독립당 인사들이 윤봉길 의거 이후 상해를 떠나 항주에 집결하여 한국독립당의 활동재개와 더불어 발행한 기관지이다. 한국독립당보(韓國獨立黨黨報)·통고(通告)·독립평론(獨立評論)은 중경에서 결성된 한국독립당이 발행한 것들이다.

상해 한국독립당은 1934년 1월부터 새로운 기관지로 '진광'을 발행하였다. 진광은 국한문 혼용의 '국한문판'과 백화문으로 된 '중문판' 두 종류로 발행되었다. 이경채는 진광 발행에 참여하였다. 국·한문판의 원고는 이상일이, 중문판은 조소앙이 작성하였다. 이중환(李中煥)이 식자조립을, 박경순(朴敬淳)과 김사집(金思濬)이 영문번역을 담당하였다. 이중환은 이경채의 개명 이름이다. 진광의 국한문판은 진광사(震光社) 명의로, 중문판은 한국독립당 선전부 명의로 각각 발행되었다. 그러나 진광사라는 인쇄소는 명목상일 뿐 실제로 진광은 항주 민국일보사에서 인쇄하였다. 진광은 중국국민당 절강성 당부(黨部)으로부터 매달 40원씩의 보조를 받아 발행되었고, 광동지부로부터 약간의 금전적 지원을 받았다.

4) 震光의 발행 배경

진광은 한글 500부, 한문 1000부를 발행되었는데, 중국과의 관계를 개선하려는 임시정부의 의도가 있었다. 윤봉길 의거로 한국독립당이 중국 국민당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게 되었지만, 실제로는 여러 가지 어려움에 봉착해 있었다. 우선 대한민국임시정부를 중심으로 활동하던 독립운동가들이 일제의 검거를 피해 상해를 떠나 뿔뿔이 흩어졌다. 임시정부를 지키던 김구도 1932년 5월 15·16 양 일 간에 걸쳐 항주에서 개최된 국무회의에서 중국 조야로부터 임시정부에 보내진 경제적인 후원금의 행방과 관련된 금전적인 문제로 조소앙·김철 등과 크게 대립하였다.²⁹⁾ 그리고 새로이 임명된 군무장직을 사퇴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하고 이동녕과

29) 프랑스 외무부 문서보관소 소장, 한국독립운동사료 2.

함께 가흥으로 떠났다.

상해 한국독립당은 1934년 1월 말까지 상해에 두고 있던 당 본부를 항주의 학사로 사흙방(思蠡坊) 41호로 이전하고 새로운 진로와 활동 방향을 모색하였다. 새로 이전한 항주에서 한국독립당은 진광의 발행에 진력을 기울였다. 진광은 한국독립당이 항주로 이동하여 활동을 다시 재개하면서 발행한 한국독립당의 공식 기관지이다. 진광은 '새로운 빛'이라는 뜻으로 '대한민국임시정부 존재의 유일한 표시'로 인식되고 있었다.³⁰⁾

진광은 '한보특간'과 '한성'에서 강조된 한중연대론을 계승하였다. 한중 간에 어떤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한중 우의와 연대를 포기하지 않겠다는 한국독립당의 일관된 전략 노선을 표명하였다. 특히 진광 발간 당시 한국독립당에서 김구가 이탈한 상황에서도 한중연대를 중시하는 진광이 발간되었다는 사실은 반제투쟁, 항일투쟁에 있어서 한중연대가 한국독립당의 일관되고도 중요한 정책노선이었다는 점을 잘 보여준다.³¹⁾

한국독립당은 항주로 이전한 이후 기관지로 진광을 발행하는 한편, 1934년 6월까지 조직체제와 간부진에 대한 개편을 단행하였다. 이사장은 송병조로 변함이 없지만, 조소양·김철·이상일 등이 상해 한국독립당의 기관지 진광의 발행을 주도하면서 주요 인물로 떠올랐다.

김구 등의 이탈로 변화가 불가피했던 임시정부는 1933년 말 진강(鎭江)에서 의정원 회의를 개최하고 국무위원을 선정하였다. 1934년 1월 국무회의를 열어 진강에 관공처를 설치하였다. 상무위원 박창세가 주로 집무하고 국무위원 김철·양기탁·송병조 등도 자주 왕래하였다. 그러나 박창세가 특무대장으로 옮겨가면서 관공처를 항주로 이전하고 김철·송병조 등이 주로 집무하였다. 김철·송병조·양기탁은 항주 장생로 호변촌 32호를 거점으로 하여 활동하였다.

한국독립당의 기록물은 원래 한국독립당 이사 김철이 보관하고 있었다. 그러다가 조카 김석이 1933년 12월22일 일본영사관에 검거되자 독립

30) 프랑스 외무부 문서보관소 소장 한국독립운동사료 2.

31) 박성순, 앞의 글.

당 당원 이세창으로 하여금 기록을 항주로 운반하여 용흥로 봉황가 대화리 8호에 은거하도록 하였다. 임시정부 부흥에 분주하였던 양기탁 등은 1934년 1월말 항주 학사로 사흘방 41호로 옮기고, 남경으로부터 이상일·박경순, 상해로부터 이중환·이세창·김사집 등을 불러 같은 장소를 독립당 사무소로 사용하게 하였다. 그리고 양기탁 등은 호변촌 32호에 있던 임시정부 관공처에 은거하면서 기관지 진광 발행에 노력하였다. 양기탁은 아들 양효손을 통해 이미 이중환을 잘 알고 있어 더욱 신뢰하였다.

한국독립당 본부에서는 기관지 진광을 인쇄 배포하는 일과 더불어 필요한 선전인쇄물도 발행하였다. 매월 당비 20전과 수입 연금 1/100을 각출하는 등 상해에 있을 때와 같은 방법으로 당을 운영하였다. 항주 이주 후에도 한국독립당 본부는 광동구(김봉준·양명진·구익균), 남경구(김두봉·최석순·이광제·이운환), 진강(강창제) 등에 있는 지부들과 긴밀히 연락하였다.

상해에서 이주해온 임시정부는 처음에 항주시 호변촌에 관공처를 두었으나 일본 관헌에게 탐지되어 1934년 11월 초순에 항주시 서대가 도화리 12호로 이전하였다. 임시정부 쪽은 김구와 문제 등으로 인원이 줄어들었다. 그러나 임시정부와 한국독립당은 분리될 수 없는 관계에 있었으므로 한국독립당에서 의정원 공보를 발행하였다.

한국독립당은 항주로 이전한 후 공식 기관지로 진광을 발행하였다. 한 인애국단 및 군사행동에 주력하기 위해서 김구파가 이탈한 이후 피난살이 신세를 하게 된 한국독립당으로서는 진광 발행과 같은 선전 활동이 당시에는 가장 중요한 일이었다. 진광은 국한문판·중문판 두 종류로 발행되었다. 중문판은 중국국민당을 시작으로 그 정부, 학교, 도서관, 신문사 등에 선전용으로 배포하기 위하여 제작하였고, 매호 약 1,000부씩 인쇄하였다. 원고 기안과 수집, 교정 등은 주로 조소앙이 담당하였다.³²⁾

32) 한국독립당 및 진광 발간과 관련하여서는 한국독립보의 발간과 진광 발간에 참여한 박경순이 일본 경찰에 체포되어 조사받을 때 작성한 심문조사서에 자세히 드러난다. 이제껏 ‘한국독립당’, ‘진광’ 관련 연구 대부분은 그의 진술을 참고한 것으로 보인다.

진광의 국한문판은 진광사 명의로, 중문판은 한국독립선전부 명의로 발행하였지만, 진광사라는 특별한 인쇄소가 존재했던 것은 아니었다. 국한문판 원고는 이상일, 중문판 원고는 조소앙이 주로 기초하였다. 국한문판은 한국독립당원은 물론 재중국 한국인을 시작으로 한국의 주된 신문사 등에도 배포하여 서울의 동아일보사나 조선일보사 쪽에도 배포되었다. 그 발행 부수는 매호 500부 정도였다.

진광을 발행할 때 인쇄소를 소유하고 있지 않았던 한국독립당은 항주 시 청년로에 있는 동남일보사에 의뢰하여 진광을 인쇄하였다.³³⁾ 동남일보는 국민당 절강성 당부의 기관지 일간 신문이었기 때문에 조소앙이 성당부(省黨部)의 양해를 얻어 그곳에서 인쇄하였다. 그러나 동남일보는 중문판 신문으로서 한글 활자가 없었다. 한글 활자는 원래 중국에는 없기 때문에 국한문판 인쇄에 지장이 있었음은 물론이다. 그런데 다행스럽

박경순은 1920년 대련을 거쳐 상해에 왔다. 그리고 임시정부에 들어가 외무부 참찬을 맡은 후 항주에 와서 이경채와 함께 한국독립당에서 한국독립보 및 진광 발간을 맡았는데 그의 업무는 영문번역 업무를 담당했다. 그는 이러한 공으로 1995년 건국훈장 독립장을 받았다.

그가 영어를 할 줄 안 것은 경성에 있을 때 경성기독교청년회관 야학 영어과에서 14세부터 17세까지 약 4년간 공부하였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경채는 그가 미국 유학을 다녀온 것으로 알고 있다.(이경채 증언) 이는 박경순이 임시정부에서 미국에서 공부하였다고 자신을 과시하였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게 한다.

박경순은 1938년 9월 6일 일본 경찰에 체포되어 조사를 받았다. 그의 심문조서가 현재 남아 있는데, 심문조서를 통해 당시 독립운동의 실상을 살펴볼 수 있다는 점은 의미가 있다. 하지만 그의 진술이 너무나 정확히 임시정부 및 한국독립당의 사정을 상세하게 진술하고 있어 놀랍다. 마치 그가 임시정부와 독립당 자료를 그대로 일본 경찰에 넘겨주지 않았나 하는 의심이 들 정도이다. 그가 임시정부 및 한국독립당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였음에도 형을 살았다는 흔적이 없는 것과 관련은 없는가 하는 생각이 든다. 더구나 그가 이경채를 일본 경찰의 밀정으로 오인하게 하는 진술도 하고 있어 이러한 억측을 하는 까닭이다. 박경순 관련 부분은 차분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33) 진광의 발행 장소는 발행과 관련이 있는 박경순의 진술에 따라 동남일보사라고 알고 있다. 그런데 프랑스 측 보고는 이와 달리 “진광은 난징의 오래된 인쇄소에서 인쇄되었다. 임시정부는 이 인쇄소를 특별히 매입하여 시설을 갖추었다. 이는 1930년 4월 28일 프랑스 경찰에 압류된 지카웨이로 파오정리 27호에 있던 인쇄소를 대체하기 위한 것이다”라고 하여 임시정부가 직접 운영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게도 한국독립당에서는 김두봉에게 한글 활자를 제작하게 한 바 있었기 때문에 그 활자를 사용할 수 있었다. 그리하여 진광 국한문판을 식자할 때는 이 활자를 사용하였다. 한국독립당에서는 본부에 있는 한글 활자를 식자하고 교정까지 하여 동남일보사에서 인쇄한 것을 수령하였다. 이 업무는 주로 박경순이 담당하였다. 식자 조립에는 박경순 외에도 한국독립당 본부에 있는 당원 김사집³⁴⁾과 이중환이 참여하였다.

1934년 3월 25일자 진광 제2·3호 합간(중문판) 발행 때에는 조소앙·김사집·이상일 등이 원고를 집필하였고, 박경순은 영문 번역을 담당하였다. 김사집도 영문 번역을 담당하였다. 한국독립당이 항주에서 진광을 발행하는 데에는 역시 중국 국민당의 원조가 있었다. 중국 국민당은 진광의 발행을 위해서 동남일보사 인쇄소를 사용하게 해주었을 뿐 아니라, 발행 비용을 지원하였다. 절강성 당부(黨部)에서 잡지 발행 원조금으로 매월 40원씩 지원하였다. 진광의 국한문판 약 500부, 중문판 약 1,000부를 인쇄하기 위해서는 총비용 약 70원이 소요되었는데, 나머지 부족분은 광둥 지부에서 보내오는 송금으로 이루어졌다

1934년 11월 현재 한국독립당은 강소성정부 주석인 진과부의 후원과 항주에서 개업하고 있는 변호사 이쟁(李鏞)의 직접 원조에 의존하고 있었다. 절강성 당부(黨部) 위원 나하천(羅霞天)으로부터는 월액 2백~3백 불 가량의 재정 지원을 받고 있었다.

항주 절강성 당부(黨部)와 공안국 측의 비호하에 항주 학사로 사흘방 41호에 본부를 둔 한국독립당은, 이사장 송병조, 재무장 김철, 내무 조소앙, 선전부 이상일 등 21명이 주로 활동하였다. 중국국민당이 진광 발간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것은, 한중 공동 연대가 항일 투쟁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하다는 점을 공감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진광은 민족혁명당 결성 문제로 한국독립당이 일시 해체되면서 발행이 중단되었다가 한국독립당이 '재건' 되면서 속간되었다. 1935년 11월호로 진광 제4·5호 합권(중문판)이 한국독립당 재건파의 기관지로

34) 이경채는 김사집은 김홍집의 아우라고 하였다.

발행되었다.

한국독립당 재건파는 1935년 7월 민족혁명당 결성 후 얼마 지나지 않아 그 지도세력인 김원봉 일파의 공산주의적 이데올로기에 싫증을 느끼고 신당을 탈당한 박창세·조소앙·문일민 등 구 한국독립당에 속하던 일파였다. 이들은 민족주의계로서 한국독립당 재건파 결성 직후 중국 쪽에 대하여 선전하고 이들의 신용을 얻을 필요를 통감했다. 그리하여 한동안 휴간 중이던 구 한국독립당 기관지 진광을 다시 발행하기로 하고 1935년 11월호로 진광 제4·5호 합권(중문판)을 발행하여 각 방면에 우송 배부하였다.

상해 한국독립당의 기관지였던 진광을 재건 한국독립당에서 다시 발행하게 된 것은 진광 발행에 관여했던 주요 인물들이 다시 재건 한국독립당의 결성에 참여하여 그 당원이 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재건 한국독립당이 상해 한국독립당의 후신임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만큼 진광은 한국독립당의 정통성과도 밀접한 연관이 있는 기관지였다. 그러나 이후 진광은 더 발행된 것 같지 않다. 민족혁명당 가입과 탈퇴로 인한 여파로 재건 한국독립당이 겪고 있던 극심한 재정난과 인력난 때문이었다.

한국독립당 재건파 박창세·조소앙·문일민·홍진은 김구 일파와 감정적으로 양립하지 못하였고 민족혁명당과도 서로 대립하였다. 그래서 자금난에 빠진 결과 광동 방면으로 모금을 나갔지만 실패로 끝났다. 겨우 강소성 당부(黨部)로부터 매월 150원(元) 내지 200원의 원조금을 받으면서 가까스로 버티는 실정이 되고 말았다. 재정적인 어려움과 함께 민족운동 진영 내부의 분열도 재건 한국독립당의 운영을 더욱 어렵게 만들었다.

김구의 이탈 이후 한국독립당의 양대 세력으로 부각된 송병조와 조소앙의 갈등이 노골화되었다. 임시정부의 부흥을 위해서는 김구의 재정적 원조와 한인 애국단의 참여가 필수적이라고 생각한 송병조는 김구의 복귀를 반대하는 조소앙 등이 민족혁명당의 밀명을 받고 임시정부를 외해시키려는 것으로 오해하였다.

결국 조소앙·박창세 등 재건 한국독립당 계열을 배제한 채 1935년 11

월 제28회 임시의정원 의회에서 국무위원 보선을 실시하여 조소앙 계열의 임시정부 참여를 좌절시켰다. 그 결과 재건 한국독립당의 입지는 더욱 좁아져 재건 한국독립당 당원의 숫자는 가장 많은 경우에도 20여 명을 넘지 못할 정도였다. 재정적인 곤란, 조직 기반의 취약성 등으로 한국독립당은 1936년에는 한국국민당과의 합당까지 고려할 정도로 곤경에 처해졌다. 따라서 1935년 11월호로 발행된 震光 제4·5호 합권(중문판)은 한국독립당원들의 의지가 무색하게 마지막 기관지가 되고 말았다.

재건 한국독립당은 한국국민당에 재정적인 문제 등을 의존하게 되었고, 3·1절이나 8·29 국치일 등을 맞이하여 간헐적으로 선언문을 발표하는 등의 선전 활동 이외에는 별다른 활동을 전개할 수 없었다. 한국독립당의 공식 기관지로서 한중연대론을 선전했던 진광은 정치 지형의 변동으로 재건 한국독립당이 크게 위축됨에 따라서 그 수명을 다하고 말았다.

5) 한중 연대론을 표방한 진광

진광을 통해서 표방된 한중 연대론은 한국독립당은 물론 중국국민당 인사들의 공통된 항일투쟁 방안이었음을 여실히 보여준다. 비슷한 시기 좌익진영인 조선민족전선연맹에서 간행한 조선민족전선에서도 한중 공동의 항일투쟁이 강조되었다.

1934년 1월 25일자로 창간 제1호(국한문판·중문판)가 출간된 진광은 3월 25일자로 제2·3호 합간호가 발행되었다. 5월 25일자로 제4호, 6월 25일자로 제5호, 9월 25일자로 제6호가 속간되었다. 발행 수량은 국한문판은 약 500부였다. 명부에 있는 상해, 남경, 광둥, 기타 각지의 한국인 앞으로 우송 배포하였다. 진광 중문판은 약 1,000부 인쇄하여 이것 역시 배부처 명부에 따라 중국 요인, 항일분자 및 각처의 학교, 도서관 등에 우송 배포하였다. 진광에 수록된 한중연대론의 시원은 만보산 사건(1931. 7. 2.)으로 인해서 악화된 중국인의 감정을 해소할 목적으로 한국독립당에서 발행한 ‘한보특간’이었다. 진광은 한국독립당 광둥지부에서 발행한 기관지 ‘한성(韓聲 The Voice of Korea)’의 논조에 영향을 받았다. 한성은

한·중 연대론과 관련된 중국국민당 인사들의 입장이 많이 담겨있다.

중국국민당 인사들은 한·중 두 나라가 유구한 관계를 가진 우방이라는 점을 차치하더라도 공동의 적인 일본 제국주의에 맞서 싸우는 동일한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것만으로도 중·한연합전선의 결성은 시대의 요구라고 주장하였다. ‘한성’에서 제시된 한·중연대론의 취지를 그대로 계승한 것이 진광이다.

1935년 11월호로 발행된 震光 제4·5호 합권(중문판)은 한국독립당 재건파의 기관지로 발행된 것이다. 이는 한국국민당이 임시정부 여당으로서 한국독립당을 계승하였지만, 당의 명칭과 기관지(震光)의 연속성 측면에서는 재건 한국독립당이 한국독립당의 명의(名義)와 기관지를 계승했다는 의미를 지닌다. 진광은 한국독립당의 정통성을 입증하는 기관지였다. 진광 제4·5호 합권(중문판)에서 한·중연대의 유구한 역사성과 필연성이 다시금 강조되었다. 한·중연대론은 한국독립당과 중국 국민당 인사들의 공통된 항일투쟁 방안이었다.³⁵⁾

3. 남경 의열단과 무장투쟁

이경채 명치 43년 4월 6일 (본적) 전라남도 광주군 송정리(주소) 상해
광주학생 불온비라 부착 사건으로 징역 2년 6개월³⁶⁾을 복역하고 출옥 후 내지로
건너와 이곳 저곳을 유랑하다가 상해로 건너온 후 군관학교에 입학한 것임³⁷⁾

이경채가 남경 의열단원이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일본 비밀문서이다. 1935년 9월 10일 작성된 이 문서를 통해 이경채가 의열단원으로 활동하였음이 확인되고 있다. 앞서 인용한 조선용의자 명부에도 경채는 1933년

35) 박성순, 앞의 글.

36) 이경채는 1928년 빼라살포 사건으로 징역 1년6월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1년 만에 가출옥하였다. 그가 2년 6월이라 함은 1년 6월을 착오한 것이라 여겨진다.

37) 朝鮮總督府 高等法院 檢事局 思想部 發行, 「資料 義烈團經營の南京軍官學校の全貌」(思想彙報第四號)

상해에 건너오던 해에 의열단에 가입한 것으로 나와 있어 그가 재건된 의열단에 바로 가입한 것은 분명하다.

광주학생운동의 영웅 이경채는 중국에서도 조국의 독립을 위해 혼신을 기울였다. 그의 다양한 이력은 한결같이 제국주의 일본과 맞서 싸우는 데 집중되어 있다. 특히 그가 남경 의열단에서 활동한 사실은 그가 단순히 독립보·진광 발행 등 선무 활동에만 치우치지 않고 무장독립 전쟁에도 깊은 관심을 가졌음을 알려준다. 그가 중국군관학교에 입학하고, 중국군 장교가 되어 항일전의 최선봉에 선 것은 이러한 인식의 반영이다. 이경채가 활동한 남경의열단을 알아보도록 하자.³⁸⁾

1920년 만주 길림에서 김원봉이 세운 의열단은, 동양척식주식회사에 폭탄을 던진 나석주 의사·일본 침략의 상징인 종로경찰서에 폭탄을 던진 김상옥 의사 등 많은 애국지사를 배출하였다. 의열단은 1931년 조선혁명간부학교를 거쳐 남경의열단, 조선의용대 등으로 새롭게 탄생하면서 무장 독립전쟁의 맥을 이었다.

중국의 광활한 대지 위에 조선의 젊은이 행진하네
발 마춰 나가자 다 앞으로 지리한 어둔 밤 지나가고
빛나는 새날이 닥쳐오네 우렁찬 혁명의 함성 속에
의용대 깃발이 휘날린다 나가자 피 끓는 동무야
뚫어라 원수의 철조망 양자와 황하를 뛰어 넘고
피묻은 만주벌 결전에 원수를 동해로 내어 몰자
전진 전진 광명한 저 앞길로

우리에서 낫설지 않은 1938년 조직된 조선의용대 군가이다. 조선의용대는 김원봉이 중심이 되어 조직한 조선민족전선연맹에서 조직한 무장 독립군이다. 조선민족전선연맹의 모체가 조선의열단이다.

1920년 만주 길림에서 김원봉이 조직한 의열단은 폭력혁명을 주창하

38) 프랑스 외무부 문서보관소 소장 한국독립운동사 사료 2 및 2011, 「3. 의열단 - 민족혁명당 - 조선의용군의 발자취」, 『우사조동걸 전집』.

여 일제의 간담을 서늘하게 하였다. 이에 감동한 독립운동가이자 역사학자인 신채호 선생은 조선혁명선언이라는 글로 의열단의 항전을 격려하였다. 다음은 역사 교과서에도 실려 있는 조선혁명선언의 한 구절이다.

민중은 우리 혁명의大本營(大本營)이다. 폭력은 우리 혁명의 유일 무기이다. 우리는 민중 속에 가서 민중과 손을 잡고 끊임없는 폭력-암살· 파괴·폭동으로써, 강도 일본의 통치를 타도하고, 우리 생활에 불합리한 일체 제도를 개조하여, 인류로써 인류를 압박치 못하며, 사회로써 사회를 수탈하지 못하는 이상적 조선을 건설할지니라.
1923년 1월 의열단

신채호는 오직 폭력혁명만이 민족독립의 유일한 수단임을 강조하며 당시 주장되고 있는 외교론, 무장투쟁론, 실력양성론 등 다양한 독립운동 수단을 조목조목 비판하였다. 곧 의열단이 지향하는 방향성을 신채호가 정리한 것이라 하겠다.

의열단의 비밀결사를 통한 암살·파괴활동은 1925~26년을 고비로 방향 전환을 모색하였다. 의열단 활동은 일제 권력의 심장부에 타격을 가한 것은 분명하나, 단원들의 많은 희생이 수반하였다. 의열단장 김원봉은 이러한 투쟁방침이 타당한지 깊이 고민하였다.

더욱 7년간의 끈질긴 폭력도, 구경(究竟), 민중을 깨우치지 못하는 못하였다. 민중을 각오(覺悟)시키는 것은 오직 탁월한 지도이념 및 교육과 선전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몇몇 요인의 암살과 몇 개 기관의 파괴로는 결코, 제도를 변혁할 수 없다고 생각한 김원봉은 자기 자신부터 무장해야 한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김원봉은 1925년 군사교육을 받기 위하여 황포군관학교에 입학하였다.³⁹⁾ 물론 단원 가운데 몇몇 사람의 반대도 있었으나, 단원의 대다수는 그의 주장에 찬성하였다. 김원봉은 최림(崔林)이라는 이름으로

39) 황포군관학교의 한인 입교생은 3기생(1925.7~1926.1) 5명, 4기생(1926.3~1926.10) 24명, 5기생(1926.11~1927.8) 5명, 6기생(1928.4~1929.5) 9명이었다.(장화, 1912, 『일제침략기 한국인의 중국 군관학교 교육과 그 의의』, 『통일인문학논총』54)

장개석이 교장으로 있는 국민혁명군의 군관을 양성하는 황포군관학교를 졸업하였다. 그는 국민혁명군의 군관으로서 많은 의열단원과 함께 북벌에 참여하여 공훈을 세웠다.

당시에 있어서 중국의 내정은 복잡한 혁명 정세 속에 혼란을 거듭하고 있었기 때문에 중국 내의 한국독립운동자의 행동은 사상적 시련과 갈등을 겪었다. 1920년대에 있어서 중국의 정치 상황은 1919년 10월 손문에 의하여 중국 국민당이 성립되고, 1921년에는 중국공산당이 성립된 바 있었다. 그러나 1924년 1월에는 제1차 국공합작으로 반제국주의 통일전선이 형성되고 1926년 7월 북벌이 재개되었다.

이때 황포군관학교 출신의 의열단원들 가운데 상당수는 국민혁명군 소위로 임관되어 북벌에 참가하였다. 1927년 4월에는 장개석에 의한 반공 쿠데타가 일어나 제1차 국공합작이 무너지자 국민당 정부와 깊은 연관을 맺고 있던 김원봉은 무창(武昌)으로 본거지를 옮겼다가 다시 상해로 돌아왔다.

한편 의열단은 국민당 정부와의 연결을 유지하면서 1928년 11월 10일 조선의열단 중앙집행위원회의 이름으로 「창립 9주년을 기념하면서」라는 격문을 발표하면서 항일민족적 협동전선론을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1929년 의열단장 김원봉이 공산주의자와 제휴를 하자 의열단원 중 많은 민족주의자가 반발하면서 단원들이 이탈하는 어려움을 겪었다. 따라서 1929년 12월 2일, “조선의 전 피압박대중이 요구하는 조직은 단순히 어떤 일계급의 전위적 조직이 아닌 대중적 협동전선의 형태인데 본단(本團)은 근본적으로 그 취지에 부응치 못하였다”라는 해체 성명서를 내고 스스로 해체하였다.

1931년 만주사변이 일어나자 김원봉은 북경에서 남경으로 다시 활동 무대를 옮겼다. 이때 중국 관민의 항일감정이 비등해지고 중국 정부도 동북실지회복(東北失地回復)에 힘쓰자, 이 기회를 이용하여 중국과의 합작에 의한 항일독립운동을 달성하려고 의열단을 재건하였다. 바로 ‘남경 의열단’이다.

‘남경 의열단’을 조직한 김원봉은 「중한합작 항일운동에 관한 건의서」, 「한국혁명의 과거에 있어서의 정세와 의열단의 책략」 등을 작성하여 중국 항일운동 단체에 배포하면서 공산주의자와의 관계를 끊고 중국 국민 정부와의 항일공동투쟁을 제의하기에 이르렀다.

이 과정에서 중국국민당 정부의 지원을 받으며 혁명투사 내지 독립운동의 지도자를 양성하기 위하여 1932년 10월 세운 것이 조선혁명간부학교였다. 조선혁명간부학교는 의열단 훈련소였다.⁴⁰⁾ 이미 김원봉은, 1931년부터 ‘중한합작으로써 중국동북 실지회복을 이룩하는 동시에 조선민족혁명을 성취한다’는 명분으로 중국국민당의 요인과 교섭한 결과 1932년 6~7월경 중국군사위원회의 승인 및 국민당 요인의 원조를 얻는 데 성공하였다. 독립운동의 지도자를 양성하여 이를 조선과 만주의 각지에 밀파하여 대중조직을 만들고 반만(反滿) 항일공작에 종사케 하자는 것이었다. 1933년 4월에는 제1기생 26명, 1934년 4월에는 제2기생 34명, 1935년 3월~10월에는 제3기생 36명, 1936년 3월에는 제4기 훈련생 7명의 ‘청년투사’를 양성하였다. 정식명칭은 ‘중국국민정부 군사위원회 간부훈련반 제6대’였다.⁴¹⁾

1933년 10월 18일 조선혁명간부학교 창립기념식을 열었고, 1933년 11월 10일 의열단 창립기념식을 열었다. 학교 창립 기념식에 내빈으로 중국일보 사장, 중국 군인 2명이 열석(列席)하고, 교장 김원봉으로부터 학교 설립 동기와 1년간 경과보고와 격려사, 내빈 축사가 있었다. 교가 및 혁명군가를 합창한 다음, 조선독립만세, 중국해방만세를 삼창하고 폐식했다.

이보다 앞서 1932년 10월 김원봉은 중국국민당 정부의 도움으로 중국 남경 교외에 조선혁명군사정치간부학교를 설립하였다. 일종의 사관학교인 셈이다. ‘의열단 혁명간부학교’로도 약칭된 이 학교의 설립 목적은 ‘한국의 절대 독립’과 ‘만주국의 탈환’이었다. 기수별로 철학·정치학·경제

40) 조동걸, 앞의 글 및 장화, 위의 글

41) 『한국민족운동사료: 중국편』

학·사회학, 그리고 각국의 혁명사 등 혁명 간부로서 갖추어야 할 기본교육 6개월 과정의 교육을 받았다.

혁명간부학교에서는 전술학, 진중요무령, 기관총학, 사격교범, 간이측량법, 축성학, 교통교범, 야간연습, 폭발교범 등을 학습했다. 중국인 교관 왕현지(王現芝)에게서 전진대(戰進隊) 조직방법, 역할, 임무에 관해서 교양을 받고, 이어서 교관 김원봉에게서 유격대 조직방법, 임무, 역할에 관해 특별 교양을 받았다.

혁명간부학교에서는 전진대를 운영하였다.

④ 역할, 임무

전진대는 당에 소속되어 있고, 당의 지휘명령에 따라 혁명의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모든 수단 방법으로써 직접 행동을 감행하고 혁명을 앞당기도록 역할을 다한다. 즉 학교에서 습득한 군사과의 각 방법에 따라 군사적 행동을 하는 것으로 무기, 폭탄 등을 써서 정치, 경제기관의 중요한 건조물, 기타 중대한 건조물 파괴, 요로 대관, 중요인물 및 반동분자의 암살제거 등 직접 행동을 실행하는 것인데 무기와 폭탄 등은 남경의 의열단본부로부터 밀반입이 안 되면 비상수단을 써서 관공서 즉 주재소를 습격해서 탈취하여 쓸 것이며, 폭탄 등은 다이어마이트를 훔쳐서 배운 방법대로 사용하는 것이다.

④ 조직 기구

- 조선 내에서 활동하고 동지를 획득하여 당의 기초를 조직함과 동시에 전진대로 조직하여 군사훈련을 쌓아 점차 실행
- 기관
- 최고지도부 : 남경의열단 본부에 두고,
- 중앙통신부 : 경성에 두며, 각 지방에는 지방부, 지부, 구(區)를 둔다.
- 지방부

- 각 중요 도시에는 특별구를 둠
 - 최고지도부의 지휘명령에 따라 중앙통신부를 통하여 하부에서 정보 수집, 보고, 연락 등 실행 및 직접 행동 실행
 - 경기도를 중심으로 충청도, 강원도 및 황해도의 일부
 - 함경남북도
 - 경상도 전라도
 - 평안남북도 및 황해도 일부
- 구(區) : 특전대 조직의 중추
지부 : 지부 위원회를 설치, 구의 지령에 기초하여 활동, 하부조직 지도 훈련
 - 반(班) : 최하부 조직으로 3~4, 5명 직접 공작

● 강령, 규칙

강령

- 폭력 수단으로써 조선민족의 해방을 기한다.
- 세계대전을 계기로 하여 조선혁명군을 조직한다.
- 당원을 군사적으로 훈련한다.
- 경제적 투쟁에서 정치투쟁을 끌어낼 것.
- 중요한 정치, 경제, 군사기관 및 요로대관을 파괴, 암살한다.

● 남경 의열단 본부와 연락

각각 지령받음

● 유격대 조직 방법 역할, 임무

- 목적 : 유격대는 어떤 결정적 시기 즉 전반적으로 대중혁명이 발발할 때에, 전진대 및 전 당원을 유격대로 개편하여 행동

- 역할, 임무 : 전진대와 같이 폭파, 암살 등 실행

- 조직

남경의 의열단 본부에 있는 최고지도부를 두고, 경성에 중앙부를 두고 그 밑에 대대, 중대, 소대, 분대 편성, 본부의 지휘명령을 중앙에서 받아서 점차 예하 부대에 전령

② 유격대의 강령, 규약 = 전진대와 동일

③ 의열단 본부의 역할

조선공산혁명당이 완전히 결성될 때까지는 의열단이 그 대행자이며, 당이 완성된 경우는 의열단은 자연 해소되는 셈이다. 그래서 조선 내에서 당을 조직하는 과정에서 활동하는 경우는 전진대도 똑같이 조직과정의 임무를 수행하며 완전한 당이 결성되기까지는 의열단본부의 지도를 받아 활동한다.

④ 의열단 창립 기념식(1933년 11월 10일)

내빈, 교관, 직원 등은 전례와 같이 열석하고 개식 후 교가를 합창하고 단장 김원봉이 의열단의 혁명투쟁 역사를 간명히 진술하고, 일동에게 격려사를 진술한 다음 내빈의 간단한 축사가 있었고, 교무주임의 훈화가 있었는데, 어느 것이나 모두 혁명의 희생이 되라는 격려였다. 폐회에 즈음하여 교가와 혁명군가를 일동 합창한 뒤에 만세를 삼창하고 끝났다.

혁명군가

—, 동지들아 굳게굳게 결속해
생사를 같이하자
여하한 박해와 압박에도
끝까지 굴함이 없이
우리들은 피끓는 젊은이
혁명군의 선봉대

- 二, 다가오는 결전은 우리의
 필승을 보여주네
 압박없는 자유의 사회를
 과감히 전취하자
 우리들은 피끓는 젊은이
 혁명군의 선봉대
- 三, 전기를 앞으로 과감히
 적진을 무찔러라
 강도 일본을 소탕해
 개선가를 부를 때까지
 우리들은 피끓는 젊은이
 혁명군의 선봉대

혁명간부학교 교가

- 一, 꽃피는 옛나라에 봄빛이 없고
 물끓듯 대중이 움직인다
 눌러 빼앗긴 저내 살림을
 외침으로 못찾을 것 깨달음이라
 길 몰라 헤매는 참된 동무야
 오너라 여기가 배울 곳이다.
- 二, 저기서 자라난 아들딸들이
 가삼에 불이 붙는 우리 동무야
 울어서 쓸데 없을 눈물을 참고
 주먹을 부르쥐고 일어난다
 한 풀고 뜻 이룰 거룩한 싸움
 승리의 원천이 여기 솟는다
- 三, 총칼과 피없이는 안될 것을
 우리는 쓰라리게 겪어 안다
 피꽃에 피어나는 꽃이야말로
 새 세상 고운 봄을 꾸밀 것이다
- 四, 떨쳐라 참 힘은 우리가 세다
 걸벌이는 저 원수를 무찔러라
 그리고 밝은 빛 큰 땅 위에
 울음을 바꾸어서 웃음을 웃자.

📌 독립운동 기념식

- 일시 : 1934년 3월 1일
- 내빈, 교관, 직원은 전과 같이 열석하였고, 개식 후 일동이三一가를 제창한 뒤에 교장 김원봉이三一운동의 의의와 역사를 간단히 말하고 일동에게 일층 더 분투할 것을 격려했다. 교무주임과 내빈의 축사도 각각 있었는데, 모두 김원봉의 식사 요지와 같았다. 그리고 폐회에 즈음하여三一가 및三一운동 추도가를 합창한 다음 양진곤(楊振崑)의 선창으로 전례대로 만세를 삼창하고 해산했다.

三 - 가

一, 조선의 별판에 불이 붙고
조선의 메뿌리에 불이 붙는다
시뻘건 화염의 그 속에서
흰웃 입은 대중의 함성이 난다
나가라 싸워라. 조선의 대중아
모두 다 전선에 나가 싸워라

二,三一의 반역은 이천만 대중이
반제국주의 전선에 총동원해
원수의 아성을 총공격한
위대한 전투의 첫 시련이다.

◇三一 추도가

一, 가삼쥐고 나무 밑에 쓰러진다 혁명군
가삼에서 솟는 피는 푸른 풀에 즐벼해

二, 산에 나는 까마귀야 시체 보고 우지마라
몸은 비록 죽었으나 혁명정신 살아 있다.

三, 만리전장 외로운 몸 부모형제 이별하고
홀로 섰는 나무 밑에 힘이 없이 쓰러져

四, 나의 사랑 조선 혁명 피를 많이 먹으려나
피를 많이 먹겠거든 나의 피도 먹어라.

1기부터 4기에 걸쳐 모두 130여 명에 이르는 혁명간부학교 출신들 가운데 일부는 중국중앙육군군관학교에 10기(3명), 11기(14명)으로 입교하였다.⁴²⁾ 1, 2기생 중 남경으로 중심으로 활동하던 잔류 인원과 3기생은 조선혁명당 당원으로 편입된 후 조선의용대 대원으로 성장하였다. 중국 군사위원회 소속 일본연구소에 근무하던 이경채는 1936년 중국중앙육군군관학교 13기로 입교한다. 군관학교에서 다시 만난 이들은 서로 격려하며 항일의지를 북돋았다.

한편 중국 내에 있어서 한국인 독립운동단체를 결집하여 대동단결을 목적으로 하는 한국대일전선통일동맹이 1932년 10월 상해에서 성립되었다. 발기인은 이유필·송병조·김두봉 등의 조선독립당, 최동오의 조선혁명당, 윤기섭, 신익희 등의 한국혁명당, 한일래·박건웅 등의 조선의열단, 김규식의 한국광복동지회 등 5당이 참가하여 처음 가맹단체의 협의기관으로 출발하였다.

그러나 한국대일전선통일동맹은 1934년 3월 제2차 대표대회를 거쳐 1935년 6월 20일 남경에서 의열단을 중심으로 한국독립당, 신한독립당, 조선혁명당의 대표 각 3명과 대한독립당 대표 2명 등 함께 14명이 전권 대표가 되어 7월 5일 ‘민족혁명당’이라는 통합정당이 창당됨으로써 남경 의열단은 사실상 해체되었다.⁴³⁾

이후 의열단의 후신 격인 민족혁명당(民族革命黨)을 이끈 김원봉은 1938년 10월 조선의용대(朝鮮義勇隊)를 조직하여 활동하다가 김구와의 합작을 추진하여 1939년 5월 양인 연명으로 「동지 동포에게 보내는 공개통신」이라는 합작성명을 발표하였다.⁴⁴⁾

일본은 처음에는 남경에 의열단이 부활한 것을 몰랐다. 그러다 1934년 3월 국내에 밀사로 파견된 조직원들이 체포되면서 조직의 실체를 알게

42) 한상도, 1994, 『한국독립운동과 군관학교』

43) 이때 김구가 이끄는 임시정부는 이 통일전선 구축에 참여하지 않았다. 김원봉 계열과 노선을 달리하였기 때문이다.

44) 김원봉은 이후 1942년 12월 한국광복군의 부사령이 되고, 1943년에는 임시정부의 국무위원 겸 군무부장으로 취임하였다.

되었다. 당시 남경 의열단의 실체를 보도한 신문 내용이다.

남경, 의열단 내용

김원봉이 부하를 직접 지휘, 조선에 밀사를 보내 무력 행동

최기영 등 검거로 탄로

만주사변 이래 남경정부의 후원으로 O국 O을 획책하고 봉천, 영구, 안산, 대련 등 전 만주 각지에서 비밀결사를 조직하여 만주 교란, 조선 O을 기도한 의열단 일파를 검거하여 그동안 취조하다가 요즈음 예심이 종결되어 모두 유죄로 되어 공판에 회부되었다 함은 이미 보도한 바 있거니와 예심 종결서에 나타난 사건의 전모는 다음과 같다.(하략)⁴⁵⁾

일본 당국에 있어 의열단은 공포의 존재였다. 의열단이 다시 남경에서 중국 정부의 도움으로 부활한 사실을 안 일제는, 관련자를 색출하고 조직의 실체를 밝히려 혈안이 되었다. 마침내 의열단의 실체를 정확히 파악하기에 이르렀다.

이경채가 남경 의열단의 일원이라는 사실은 중요하다. 1933년 중국에 건너오자마자 재건된 남경 의열단에 곧장 가입한 이경채가 1935년에도 여전히 의열단원으로 이름을 올리고 있다. 그는 의열단원으로 활동하면서 항주에서 한국독립보와 진광을 간행하는 일을 맡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주로 한·중 연대와 관련된 일을 맡았던 이경채가 무장투쟁을 강조하는 의열단에서 활동하였다. 이경채가 외교론과 더불어 무장독립전쟁을 독립운동의 방략으로 생각하고 있었다는 증거이다. 이경채의 독립운동 방략은 특정 이념, 노선을 초월하고 있었다.

4. 열렬한 민족주의자, 김두봉

1) 김두봉의 출신

이경채는 진성학교 교사, 임시정부 기관지인 ‘한국독립보’와 ‘진광’을

45) 동아일보, 1936. 2. 21.

발간하며 훌륭한 인물들을 만났다. 그가 남긴 「투쟁경력」에 유독 김두봉에 대한 언급이 자세히 나와 있다. 김두봉에 관한 적지 않은 연구가 있으나 경채가 언급한 얘기는 드러나 있지 않다. 경채는 김두봉과 오랜 세월 같은 공간에 지낸 몇 안 되는 인물 가운데 한 사람으로, 누구보다 김두봉의 인물됨을 잘 알고 있었다. 이경채의 독립운동 노선에 김두봉이 끼친 영향도 꽤 있었다고 여겨진다.

훌륭한 국어학자로 명성이 높았던 그는, 좌익을 싫어한 민족주의자로 청년독립운동가들의 우상이었다고 한다. 그런 그가 연안으로 가서 공산당 계열의 조선독립동맹을 이끌었다는 사실은 이경채뿐만 아니라 대부분 연구자도 믿으려 하지 않는다. 이경채의 구술을 토대로 김두봉의 인물됨과 그가 연안으로 가게 된 배경을 살펴보도록 하겠다.⁴⁶⁾

김두봉은 근대 우리 말과 글의 체계화에 이바지한 학자이자 일본 제국주의의 침략에 직면하여 책을 덮고 항일독립운동의 최전선에 선 독립운동가였다. 해방 후에는 북한 정권에 참여하여 김일성 체제 수립에 공헌하였으나, 끝내 김일성에게 제거된 불운한 정치가였다.

김두봉은 1889년 3월 17일 경남 동래군 기장읍의 한 농가에서 태어났다. 1910년생인 이경채보다 나이가 21세나 많았다. 1908년 서울에 올라와 배제학교에 다니다 가입한 대동청년단이라는 비밀결사가 노출되자 자퇴하였다. 대종교 활동에도 참여한 그는, 국권 피탈 후 우리말의 소중함을 깨닫고 주시경의 지도를 받으며 한글 연구에 매진하였다. 1916년 그가 펴낸 『조선말본』은 당시까지 나온 한글 연구서 가운데 “가장 깊고 넓게 연구된” 책으로 평가받았다. 그는 보성, 휘문, 중앙고등보통학교 등에서 우리 말을 가르치다 3.1운동 후 상해로 망명하였다. 임시정부 의정원 의원을 지낸 그는 주로 독립신문 제작 및 역사편찬 업무를 맡았다. 그가 펴낸 『조선말본』은 국내에서 높이 평가받아 1930년 동아일보사로 부터 공로 표창을 받기도 하였다.

46) 이하 서술은 염인호, 2018, 「김두봉의 재중국 독립운동」, 『내일을 여는 역사』 및 한상도, 2003, 「김두봉의 항일역정과 인생유전」, 건국대인문과학노농 39. 참조.

그는 상해의 인성학교에서 한글 창제의 유래와 문법 등을 가르쳤다. 1924년 상해 한인교민단 학무위원장에 선임되어 한인 자제의 교육과 직접적인 관련을 맺었다. 그는 우리말사전 편찬을 의논하러 상해를 방문한 이운재에게

“상해에 거류하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천여 명이나 됩니다. 아이들만 해도 수백 명이 되는 데 아이들을 중국 사람의 소학교에 보내면 중국의 교육을 받게 되므로 모국말을 다 잊어버리고 중국말만 하게 됩니다. 어찌 조선사람의 구실을 할 수 있습니까. 이러한 관계로 해서 더욱 학교에 힘을 쓰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고 강조하였다.

김두봉은 임시정부에 직접 참여보다 독립운동 세력의 통합에 적극적이었다. 1927년 한국유일독립당 상해축성회 이사, 한국독립당관내축성연합회 상무집행위원으로 활동한 사실에서 이러한 추정이 가능하다. 1930년 1월 상해에서 창당된 한국독립당에서 그는 당의(黨義)·당강(黨綱) 기초작업 할 때 비서장·이사 등의 직책을 맡았다. 또 기관지 ‘진광’ 발행의 중심역할을 맡았다. 이때 그는 식자 업무를 맡은 광주학생독립운동의 영웅 이경채를 무척 아꼈다.

1932년 윤봉길 의거 직후 안창호가 일제에 체포된 후에는 안창호와 함께 추진해왔던 독립운동 세력의 통일운동을 계승하여 1932년 10월 한국 대일전선통일연맹의 결성에 앞장섰다. 일제 말기 국내 콤포그룹의 대표 자격으로 연안에 파견되었다가 일제 패망후 귀국한 김태준이 김두봉을 “안창호의 지도하에 단군교에도 종사한 일이 있는 이론가”로 소개할 만큼 그의 상해 시기 활동은 안창호와 밀접한 관련이 있었다.

2) 김두봉의 정치성향

경채의 증언에 의하면, 김두봉이 1934~35년 항주에서 독립보를 발간

할 당시만 하여도 '타도 좌익'하며 민족주의의 정확성을 예리하고 견의(堅意)한 이론으로 관철 역주하는 등 청렴한 민족주의 이론가로 청년들의 존경을 받았다고 한다. 특히 이경채에게 좌익망국론을 수시로 강조하여 설교하였다. 이경채가 광주고보 시절 사회주의 사상에 경도된 사실을 알고 이를 염려한 것이 아닌가 한다.

이렇게 철저하게 민족주의적 사상으로 무장한 김두봉은 통일동맹의 중앙집행위원 등으로 활동하며, 임정 지지세력과 반대세력을 포함한 모든 독립운동 세력을 망라한 새로운 독립운동의 구심체를 만들고자 하였다. 비록 일부 임정 지지세력이 불참하였지만, 통일 동맹의 '대독립당' 결성 노력은 조선민족혁명당의 창당으로 결실을 맺었다. 그는 '외삼촌과 조카' 사이로 알려져 있는 김원봉을 도와 민족혁명당의 중앙집행위원·조직부장·남경지부장 등 핵심적 역할을 담당하였다. 이 시기 그는 의열단이 운영한 조선혁명군사정치간부학교 교관으로서 제3기 입교생에게 한글, 한국역사, 한국지리를 가르쳤다.

1930년대 중반 재중 한인 독립운동 진영이 김구와 김원봉을 구심점으로 재편성되는 시점에서 그가 김원봉 진영에 가담한 사실은 이 지역 독립운동의 구도에 있어서 적지 않은 의미를 함축한다. 장·노년층 중심의 임정 옹호 세력과 경쟁관계에 있던 민족혁명당이 청년층을 주요 구성원으로 한 사실을 배경으로 그가 '장로' 역할을 맡아줌으로써 민족혁명당의 당력 제고에 기여하였다.

1937년 7월 7일 중일전쟁이 발발하자 김두봉은, 중국 국민당정부의 임시수도인 중경으로 이동하였다. 조선의용대 일부가 화북 지역으로 이동한 것을 계기로 국민당 정부의 지원이 김구와 한국독립당으로 쏠리고 김원봉과 조선민족혁명당의 입지가 약화되고 있었다. 이런 상태에서 그가 홀연히 중경을 떠나 8로군의 근거지가 있는 연안으로 향하였다.

당시 연안에서는 무정이 국민당정부 관할 구역에서 이동해온 조선의용대원, 중국공산당 항일군정대학 졸업생 출신 등을 중심으로 한인 청년을 규합하고 있었다. 1941년 1월 10일 산서성 진동남에서는 화북청년연

합회가 결성되었다. 김두봉이 진동남을 거쳐 연안에 도착한 때는 1942년 4월이었다.

철저한 민족주의자로 공산주의를 싫어하였던 김두봉이 공산당의 항일 운동의 본거지로 들어가게 된 원인에 대해 의견이 분분하다. 첫째 중국 국민당 정부 관할 구역을 떠날 수 없는 김원봉이 조선의용대 화북지대 등에 대한 자신의 지도력을 유지하기 위해 김두봉의 화북행을 지원하였다는 것이다. 이는 김두봉이 딸 상업을 김원봉에 의탁하여 중경에 남겨 두고 간 사실에서 알 수 있다. 둘째, 유물사관과 공산주의에 대한 연구과정에서 '새로운 진리'를 발견하여 국수주의를 버리고 공산주의자가 되었다는 것이다. 셋째 중국 공산당의 초빙에 의한 것이라는 주장이다. 즉 중국 공산당이 국민당 정부와 임정의 관계 등을 염두에 두면서 조선독립동맹의 상징적 인물로서 그를 연안으로 초빙하였다. 넷째 임정 요인의 홀대가 그를 좌경화시켰다는 견해이다. 완고한 임시정부 요인들이 포용력이 부족하였다는 것이다.⁴⁷⁾ 이들 주장 가운데 어느 것이 더 설득력이 있는지 쉽게 단정할 수 없다.

그런데 이경채는 기존 학자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그의 이야기를 들어보기로 한다. 1934년부터 1935년까지 항주에서 한국독립보를 경제와 함께 발간할 당시만 하더라도 김두봉은 '타도좌익'하며 우익 민족주의 입장이었다. 그는 우익의 입장을 정확히 예리하고 견의(堅毅)한 이론으로 관철 역주한 청렴하고 굳건한 민족주의자였다. 특히 25세의 젊은 이경채에 수시로 '좌익망국론'을 설파하였다. 경채는 광주고등보통학교 시절 한때 사회주의 서적을 탐독하는 등 사회주의 사상을 동경한 적도 있었다. 하지만 일본 망명 중 이념을 둘러싼 유학생의 내부 갈등을 보며 공산주의 사상에 경채가 회의적인 생각을 지니고 있다는 사실을 김두봉은 잘 알고 있었기에 더욱 그에게 좌익의 문제점을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철저한 우파 민족주의 사고를 지닌 김두봉이 연안으로 가서 공산당의 신봉자로 변신하게 된 까닭에 대해 이경채의 분석도 설득력 있어

47) 염인호, 2018, 「김두봉의 재중국 독립운동」 『내일을 여는 역사』.

보인다. 이경채는 김두봉과 인성학교 교사 시절부터 관계를 맺은 이래 한국독립보 발간에 이르기까지 만 2년 동안 거의 매일 침식을 하여 누구보다 그의 정치성향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김두봉이 연안으로 떠났다는 사실은 이경채에게도 충격이었다. 이경채는, 후술하겠지만, 중국군 장교로 한구시에 재직하며 일본군과 치열한 전투를 치르는 중이어서 당시 상황을 어느 정도 알고 있었다. 한구시에는 김원봉 산하 민족혁명당 계열의 의용대 약 40명이 와서 중일전쟁 초기부터 제1선에서 중국군을 비무장으로 협력하고 있었다. 조선의용대보다 약간 후에 지청천(이청천)은 임시정부계열로 의용군을 조직한다고 기존 의용대에 속한 청년들을 빼 나가는 작업을 한 것 같다. 이 때문에 의용대원들 분위기가 뒤숭숭해졌다.⁴⁸⁾

이때 김원봉 계열 청년 대부분과 지청천계 청년 소수가 합류하여 “우리는 비무장 상태로 중국군에 협조할 것이 아니라 완전 무장을 요구 관철하여 이름없는 의병(無名義)도 좋으니 왜적과 제1선에서 죽음을 각오하고 싸우자”⁴⁹⁾고 절규하자, 중국 정부는 한국 청년들이 분열을 일으키면 완전 무장시키는 것이 어렵다는 생각에 관망하고 있었다. 이러한 중국정부의 태도에 반발한 청년들의 불만이 김원봉에게 돌아왔다.

청년들은 “무장할 가망이 보이지 않으므로 김원봉이 무능하니 차라리 김원봉을 떠나자!”고 하였다. 이 모습을 본 김두봉이 분산보다는 ‘합심합류(한 덩어리)’를 주장하고 스스로 타협 교섭에 나서 중국 당국과 모종의 타협점에 이르려는 찰나, 청년 측에서 돌연 “그러할 것이 없이 양심가인 김두봉을 영수로 모시고 연안에 가서 무장요구를 하여보자!”고 하였다. 이들은 말끝마다 ‘양심가인 김두봉하며 ‘양심가’를 강조하였다. 그러자 마음이 약한 김두봉은 거절하지 못하고 연안으로 행군하게 되었다고 이

48) 1935년 결성된 중국관내의 한일 통일정당인 조선민족혁명당이 곧 분열되게 된 데는 김원봉(의열단)과 지청천(신한청년당)의 대립, 갈등이 주요인이었다.

49) 이경채는 이 부분을 “생명을 바치는 한이 있더라도 자나 깨나 왜적과 싸워보자는 우리 대한청년의 혁명 기질의 절규”라고 하였다.

경채는 생각하였다.⁵⁰⁾ 곧 이경채는 청년들이 김두봉의 인생을 망쳤다고 여기고 있다.

이경채는 조선의용대가 배치된 중국군 9전구 정치부 장교로 있었기 때문에 조선의용대의 활동을 잘 알고 있었다. 하지만 30여 년이 지나 약간의 기억의 혼돈 내지는 구술할 현재적 상황이 반영되어 역사적 진실과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이경채의 진술을 벗어나 당시로 들어가 보자.

앞서 언급하였지만, 김원봉이 이끄는 조선의용대는 출범 당시부터 중국군 당국이 부여한 주요한 임무는 대적전투가 아니라 정치선전 공작이었다. 중국 대일항전의 국제지원부대의 성격을 띠었다고 하겠다.⁵¹⁾ 하지만 조선의용대는 장사전투 등 구대별 전구 배치가 완료된 1939년 초부터 1940년 초까지 호남·호북 등지에서 기습전, 매복전, 유격전 등 20회 가까운 실제 전투를 치렀다. 이에 자신감을 얻은 조선의용대는 신설 제3지대를 휘양으로 보내 중국군의 화북 적후 공작에 동참하고, 나아가 그곳에서 세력을 구축한 후 만주에 진출하여 국내와 연결하려는 야심 찬 계획을 수립하였다. 이러한 조선의용대의 구상을 중국군사위원회도 승인하였고, 직속 상급부대인 9전구의 사령관을 역임하고 군사위원회 정치부장으로 있던 진성도 동의하였다.

1941년 1월 중국 당국의 환송을 받으며 출발한 조선의용대 3지대는 중국 군사위원회로부터 승인받은 수원성 우위안이 아닌 황하를 도하 후 태항산의 팔로군의 항일 근거지로 목적지를 변경하였다. 중국국민정부의 반공 공세에 위협을 느낀 좌파계열의 조선의용대원들이 태항산으로 진로를 변경한 것이었다. 이들이 태항산에 들어가 1942년 ‘조선의용대’에서 ‘조선의용군’으로 부대 명칭의 승격을 가져왔으나 실제 전투는 호가장 전투와 반소탕전 등 피습 또는 조우 상황에서 방어전 또는 대항전투

50) 김영범, 2019, 「조선의용대의 항일전투(참가) 실적과 화북진출 문제 再論」, 『한국독립운동사연구』 67.

51) 한상도, 2004, 「조선의용대와 재중 일본인 반전 운동집단의 연대」, 『한국민족운동사연구』 38.

에 그치었을 뿐 일본군과 전투를 주도적으로 치른 적은 없었다. 오히려 실제 전투 빈도는 중국 국민당 군대의 지휘하에 있던 화중·화남에 있을 때가 더 많았다.

결국 중국국민정부나 연안의 공산당도 조선의용대가 전투의 주역이 되는 것을 원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전쟁 후의 정치적 상황에 대한 고려를 우선한 까닭이 아닌가 한다. 여하튼 화북을 거쳐 만주로 진출하여 그곳에서 일본군과 결전을 이루려는 김원봉의 의도와 달리, 조선의용대는 진로를 화북의 연안 지방으로 바꾸었다. 조선의용대가 예정에 없이 연안으로 들어가자 김원봉은 무척 당황하였다. 중국 당국도 김원봉이 사전에 이를 의도한 것인가 의심하기도 하였다.

한편 김두봉은 이들 조선의용대보다 늦게 출발하였다. 중국국민당 당국에게는 수원성의 광복군 활동지역으로 가겠다고 하고서는 연안으로 들어간 것이다. 당시 이경채는 중국국민당 군대의 정보분석관을 하고 있어 연안에 간 김두봉과 조선의용대의 소식을 비교적 소상히 알고 있었다. 그가 중국 정보 당국을 통해 들은 바에 의하면, 이들 청년이 연안에 가서도 환영을 받지 못하였다고 한다.⁵²⁾ 다만 김두봉은 중국공산당이 볼 때 이용가치가 있다고 생각해 환대하였다.⁵³⁾ 이경채는 1948년 4월 민족의 분단을 막고자 김구가 북한을 찾아 김두봉을 만난 사실도 김구나 김두봉 모두 성품이 서로 비슷하고 청렴하고 사상 기초가 동일하고, 중국에 있을 때도 기질이나 음성이 비슷하였기 때문에 서로 신뢰한다는 믿음 때문이었다고 여기고 있다. 김구가 1948년 4월 평양에 올라가 김두봉을 만났을 때 이미 김두봉이 김일성의 철저한 감시하에 있다는 사실을 김구는 몰랐다고 이경채는 생각하고 있다.⁵⁴⁾

52) 연안에 있을 때 중국 공산당이 조선의용군을 항쟁의 주체로 인정하지 않았다는 뜻이다.

53) 염인호, 앞의 글.

54) 김두봉 관련 부분을 상세히 그의 견해까지 담아 설명한 까닭을 이경채는 “독립운동 사적의 한 토막” 구성에 중요한 토대가 되리라는 믿음 때문이라 하였다.

대한민국임시정부 지원 활동과 중국군 배속

1. 일본군 첩보 수집 활동과 중국군사위원회 근무

장개석의 국민당 정부는 북벌을 수행하기 위하여 군사위원회를 설치하였다가 북벌이 끝남과 동시에 철폐하였다. 그러나 1931년 만주사변과 1932년 초에 일어난 상해사변으로 일본의 중국 침략이 노골화되자 군사위원회를 다시 설치하였고, 장개석이 위원장으로 선출되었다. 이때 군사위원회의 성격은 “군사위원회의 설립 목적은 외국침략을 방어하여 군사를 정리하는 것이니 항일 군사가 종료되는 대로 즉시 폐지한다”(제1점)에 잘 드러나 있다. 곧 군사위원회가 장개석의 국내정치에 간여하는 것을 견제하고 있었다.

중, 일 관계가 더욱 나빠지자 일본과의 전쟁을 염두에 둔 중국 국민당 정부는, 1935년 10월에 상해에 일본연구소를 조직하였다. 외견상으로는 민간연구소였으나 국민당 군사위원회 직할이었고, 장백리가 주관하였다. 장백리는 일본육군사관학교 및 독일육군사관학교 출신의 엘리트 군인으로 군사이론가였다. 후에 장개석 총통의 군사고문, 중국 육군대학 초대 총장을 역임하였다.

일본연구소에는 일본, 영어, 프랑스 유학생이 12명(일본 육사 출신 2명) 등 모두 22명으로 조직되었다. 이곳에서 일본의 정치, 경제, 문화, 사회 등을 광범위하게 연구하였다. 후에 일본연구소 모든 연구원은 진성

(陳誠) 장군 휘하로 흡수되었다.)¹⁾

이경채는 중국 노혁명가인 장고산(張孤山)의 소개로 일본연구소에 들어갔다. 이때부터 이경채와 임시정부와의 연결은 표면상으로는 끊어진 것처럼 보인다. 일본연구소에 들어갈 때 이일휘(李一輝)로 개명하였다. 그가 이 연구소에 들어간 것은 중국과 일본이 전쟁을 치르고 있었기 때문에 중국군을 돕는 것도 항일의 또 다른 방편이라 생각하였기 때문이다.²⁾ 그는 독립을 이루기 위해서는 중국 국민당정부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곧 한·중연대가 민족독립의 중요한 수단임을 깨달은 이경채는 중국군에 들어가 이를 실천에 옮기고자 하였다.



이경채 중국군관학교 생도시절

일본연구소에서 연구원으로 지내던 이경채는, 1936년 6월에 중국 중앙육군군관학교에서 13기생을 모집한다는 얘기를 듣고 장백리 선생에게 간곡히 청을 하여 그의 추천으로 9월에 남경으로 가서 입교하였다.³⁾ 중앙육군군관학교는 1924년 1월 설립된 황포군관학교 후신이다.

그가 중국군관학교에 들어간 이듬해인 1937년 중, 일 관계가 악화되고 있었다. 국민정부는 경제건설과 군비확충에 주력하여 독일식 군사훈련으로 히틀러와 협력관계를 설정하자 초조해진 일본은 노구교 사건을 일으키며 상해를 포위 공격하였다. 이 무렵 육군 군관학교가 남경에서 사천성 동량으로 옮겨지고 있었다. 7월 7일 노구교 사건이 일어나고 이를 빌미로 일본군은 8월 13일 상해를 공격하였다.

중일전쟁이 일어나자 이경채 등 군관학교 학생들은 졸업도 하지 못한

1) 이경채, 「투쟁경력」.

2) 이경채, 「투쟁경력」.

3) 이경채는 장백리를 무척 존경하였다. 그가 귀국 후 그의 장남 용정에게 아이가 태어나면 이름을 '백리'로 할 것을 당부하였다. 실제 장녀가 태어나자 용정은 부친의 당부대로 '百莉'로 이름을 지었다.

채 호복성 무창에서 특명으로 상해 방면군 전적총사령부(前敵總司令部) 제 15집단군 전담)가 주둔한 곤산의 진성⁴⁾ 휘하에 도착하였다. 이경채 등 일본연구소에 있었던 연구원들 대부분이 진성의 휘하에 배속되었다. 이 무렵이 1937년 10월 초였다.

2. 중국군관학교 한인 특별반 출신 조선의용대와 이경채

일제는 노구교(蘆溝橋) 사건을 기화로 1937년 7월 7일 중일전쟁을 도발한 뒤, ‘거점(據點)과 병참선(兵站線)’으로 이루어지는 대륙 침략작전으로 중국 전역을 공격하였다. 독립운동단체들은 이같은 상황의 전개에 따라 두 갈래로 체제를 정비하여 본격적인 대일항전을 준비하여 갔다. 하나는 1937년 8월 한국국민당(김구)·한국독립당(조소앙)·조선혁명당(이청천) 등의 한국광복운동단체연합회(韓國光復運動團體聯合會, 光復陣線) 결성이었다.

다른 하나는 같은 해 11월 민족혁명당(김원봉)·조선민족해방동맹(김성숙)·조선혁명자연맹(유자명) 등의 조선민족전선연맹(朝鮮民族戰線聯盟, 民族戰線) 결성이었다. 특히 민족혁명당과 민족전선을 이끌고 있던 김원봉은 중국 정부 수뇌부와 한·중 합작에 의한 항일 연합전선의 구상을 협의하였고, 그 결과 재차 한국 청년들을 중국중앙육군군관학교에서 훈련시켜 실전에 배치하기로 하는 결정이 이루어졌다.

이에 따라 같은 해 12월 83명의 민족혁명당 청년당원들은 김원봉에 의해 소집되어 대일항전에서 활용할 특별 공작훈련을 받기 위해 강서성 성자현에 위치한 중국중앙육군군관학교 성자분교(省子分校)의 특별훈련

4) 진성(陳誠)은 절강성 청전(靑田) 사람이다. 1925년 황포군관학교 포병대장이었다. 그는 장개석의 추천으로 장개석의 부인 송미령의 양녀 담상(譚祥)과 결혼할 정도로 신임이 두터웠다. 중앙군 계통의 제2위 1급 상장에 단번에 오를 정도로 초고속 승진하였다. 대만으로 물러난 후에도 장개석 정부의 2인자 역할을 하였다. 그는 중국군 사위원회 정치부장으로 있을 때 조선의용대 결성에 도움을 주었다. 대한민국정부는 1966년 건국훈장 대통령장을 추서하였다.

반에 입학하였다. 그리하여 다음해 5월 소정의 교육을 마친 청년당원들은 김홍일 인솔 아래 무한(武漢)으로 이동하여 거기에 있던 민족전선 본부 요원들과 다시 합류하였다.

이렇게 되자 김원봉은, 성자분교 졸업생들과 민족전선의 청년들로 조선의용대를 조직하여 중국 각 전구(戰區)에 배속시켜 대일항전에 활용할 것을 중국정부에 정식 제안하여 승인받았다. 이로써 1938년 10월 10일 호북성 양자강 연안의 한구(漢口)에서 조선의용대가 창설되었고, 그에 따라 한·중 연합작전을 통한 본격적인 대일 항쟁이 이루어졌다. 물론 처음에는 비전투요원으로의 역할이었다.⁵⁾

결성 당시 조선의용대는 대본부(隊本部)와 2개 구대, 그리고 각 구대는 3개 분대로 조직되었으며, 대장은 김원봉, 제1구대장은 박효삼, 제2구대장은 이익성 등이 선임되었다. 제1구대는 43명의 민족혁명당원들로 구성되었는데, 전원이 중국군 제9전구 사령부 예하에 배속되었다. 10월 23일 제1구대는 한구를 떠나 제9전구 사령부가 있는 호남성 장사로 향하였다.⁶⁾ 중국군 제9전구는 곡창지대인 호남성을 중심으로 호북성의 양자강 이남 지역과 강서성 서북부를 관할하는 가장 중요한 전구로서 여기에는 중국군 최정예부대가 집결해 있었다. 당시 9전구에는 사령관 진성의 신임이 두터운 이경채가 정보분석관으로 있었다. 그가 9전구에 조선의용대가 배치되는 것에 어떤 역할을 하지 않았을까 짐작된다.

이곳에서 제1구대 병력은 그 해 12월 초 일본군이 장사 침공을 개시하자 제9전구 사령부 정치부를 도와 전투 중 화재로 피해를 당한 이재민들의 구호사업 및 도시 복구사업에 참여하였다. 그리고 약 1개월간의 복구사업이 완료되자 제1구대는 1939년 1월 제9전구 예하의 여러 부대에 배속되어 전선에 배치되었다. 호남성 막부산맥 방어선의 오동산(梧桐山) 진지에 배치되어 활동하기도 하였다. 막부산맥 방어선은 호남 곡창지대

5) 僑桂瑾, 2016, 「조선의용대 지도위원회의 중국인 요원들」, 『한국독립운동사연구』 56.

6) 장사는 이경채의 처가가 있는 곳이다. 이경채는 1938년 이곳에서 결혼을 하였다. 그가 9전구 사령부가 장사에 주둔 중일 때 그곳 거주 중국 여인을 만난 것으로 보인다.

를 지키는 곳으로 중국군과 일본군이 가장 치열하게 격돌하였던 전선이기도 하였다.

조선의용대 제1구대 대원들은 1939년 3월부터 5월까지 상봉·석산·질계항(秩桂巷)·새공교(賽公橋) 공격전 등 여러 차례 전투에 직접 참가하였고, 홍산(紅山)·하가(何家)·옥령가(屋領家)·왕가(汪家)·만가반(萬家伴) 습격, 그리고 하동항(下東港)·대사평(大沙坪)·십리시(十里市)·북항(北港) 매복전 등 수시로 안개와 야간을 이용하여 유격전을 구사하였다. 또 파괴 공작에도 참여하여 일본군의 통신시설과 교량, 자동차와 전차까지 폭파하는 전과를 올렸다. 조선의용대가 이처럼 일본군과의 전투에 직접 참여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다른 한편으로 조선의용대는 일본군의 투항을 유도하는 선무공작, 일본군 포로에 대한 심문, 적정 탐지 및 정보수집 활동을 펴기도 하였다. 동시에 조선의용대는 각처에서 한국인 청년들을 모집하여 조직 확대에 노력하였다. 그 결과 조선의용대는 1939년 10월 대본부를 총대(總隊)로, 구대를 지대로 변경하는 조직 개편을 단행하였다. 그리고 같은 해 12월 기존의 제1구대 병력 일부와 그동안 모집한 신입 대원들로 새로이 제3지대를 편성하였다.

이즈음 조선의용대는 그간의 활동에 대한 자체 점검을 통해 종래의 활동 노선과 방식에 일대 전환을 시도하였다. 그것은 1939년 10월 조선의용대 창립 1주년 행사에서 제기된 이후 지속적으로 논의, 추진되어 온 무장투쟁의 강화와 그를 위한 화북·만주 진출의 결정이었다.

이는 그동안 조선의용대의 활동지역이 중국 국민당 정부군의 작전지역으로 한정되어 실제 전투는 물론 적후방(敵後方)공작이 기대에 못 미쳤고, 또 한인 동포들이 거의 살지 않는 지역이라 대원 모집활동에도 어려움이 많았던 탓이었다. 때문에 적후방공작을 본격화하여 일본군 점령지역내에서 항일 근거지를 구축하고, 나아가 조선의용대의 무장투쟁력을 강화하는 한편 독립전투부대로서의 조직 확대를 꾀하기 위해서는 한인 동포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화북·만주지역으로의 진출이 필수적이

었다.

이같은 조선의용대의 북상 계획에 따라 제3지대는 1939년 12월 호남성 형양(衡陽)을 출발하여 10일 만에 강서성 북쪽에 위치한 제9전구 19집단군 사령부 소재지인 분의(分宜)에 도착하였다. 여기에서 이들은 민족혁명당 중앙위원이기도 한 참모장 김홍일의 환영을 받았다. 제3지대 대원들은 12월 중국군과 연합하여 일본군을 야습하였고, 또 길가 촌락의 벽에 분필과 목탄을 사용하여 일어로 선무 표어를 써놓고 전단을 살포하기도 하였다. 여러 차례 일본군에 대한 선무활동을 전개하면서 1940년 10월에는 조선의용대 본부가 있던 중경에 도착하여 체제 정비와 대원 훈련에 힘썼다.

이후 1941년 1월 초 박효삼 지대장의 지휘 아래 제3지대 병력은 화북·만주로 들어가기 위해 중경을 출발하여 호북성 노하구(老河口)를 거쳐 3월 상순에 하남성 낙양에 도착하였다. 그리하여 이미 와 있던 제1·2지대에 더하여 제3지대가 도착함에 따라 같은 해 봄에는 조선의용대의 대부분의 대원들이 낙양에 집결하였다.

조선의용대 병력은 중국 군사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그해 3월 하순 황하를 건넜다. 제1·3지대 대원들은 하남성 북부의 임현(林縣) 일대에서 중국 국민당 정부군 방병훈 부대와 합동으로 2개월 동안 적후(敵後)공작을 수행하였다. 그런데 후술하겠지만 1, 3지대, 그리고 도착한 제2지대까지 합류한 조선의용대 혼성 부대가 이동 경로를 벗어나 태항산의 팔로군 지역으로 이동하여 그해 7월 조선의용대 화북지대로 개편되었다. 그리고 조선의용군으로 명칭의 변화가 일어났다. 이들이 태항산의 중국공산당 본부가 있는 것으로 이동한 것은 중국군사위원회나 김원봉의 의도를 벗어난 것이었다.

조선의용대 화북지대는 호가장 전투와 반소탕전(反掃蕩戰)에서 일본군과 싸워 전과를 올렸다. 반소탕전은 팔로군 소탕작전에 나선 일본군을 팔로군과 함께 역포위작전을 펼쳐 일본군에게 막대한 타격을 가한 전투를 말한다.

3. 중일전쟁에 참전한 중국군 장교 이경채

1) 중일전쟁의 전개

이경채가 1936년 9월 중국 중앙육군군관학교에서 입학하여 교육을 받고 있을 때인 1937년 초부터 중국과 일본의 대립이 점차 표면화하고 있었다. 1931년 만주사변을 일으켜 청나라 마지막 황제를 만주국 황제로 앉히며 만주를 차지한 일본은 화북지방을 차지하려는 계획을 수립하고 있었다. 이를 간파한 장개석의 국민당 정부는 일본의 남하를 막으려고 동분서주하고 있었다. 이렇게 두 세력이 화북지역을 둘러싸고 치열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을 때 유명한 '7.7사건'이 일어났다.

7.7사건은 1937년 7월 7일 일어났다 하여 붙인 이름인데, 곧 중일전쟁의 시작을 알리는 '노구교 사건'의 또 다른 이름이었다. 중일전쟁(1937~1945)은 최종적으로 중국이 전쟁에서 승리함으로써 20세기의 동아시아의 세력 판도를 완전히 바꾼 사건이었다. 곧 한반도와 만주를 차지한 일본이 처음에는 승리하여 전쟁의 주도권을 잡은 듯하였으나 전선이 중국 대륙 전체로 확장되며 발목이 잡힌 일본 육군이 태평양전쟁에 투입되지 못한 결과를 가져와 연합국의 승리의 결정적 계기를 가져왔다. 이러한 점에서 중일전쟁의 의미는 중요하다.

1937년 중일전쟁 발발 당시의 두 나라의 군사력, 경제력, 전쟁의 피해 규모 등을 살필 때는 일본의 우위가 분명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이 전쟁에서의 주도권을 지속하지 못한 데는 장개석이 이끄는 국민당 군대의 처절한 항전 의지가 있었기 때문이었다. 일본의 침략 야욕을 간파한 장개석의 국민당 군대가 나름의 대비를 하였기 때문에 속전속결을 꾀한 일본의 전략이 성공하지 못하고 장기전으로 전개될 수 있었다. 이러한 점에서 당시 장개석의 국민당 군대의 역할을 평가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장개석 국민당 군대의 대일 항전의 중심에 이경채가 있었음을 기억해야 한다.

노구교는 중국 북평 광안문 서남쪽 영정하에 있는 다리로, 노구교의

평한철도는 북평과 내지가 서로 통하는 유일한 교통로로 경제적, 군사적으로 중요한 요충지이다. 만약 일본이 이곳을 점령한다면 중국군은 북평으로 병력을 증원시킬 수 없게 되는 데 비해, 중국이 점령한다면 일본은 이 철로를 이용하여 화북으로 군대를 전개시켜 중국 북서부로의 진출을 용이하게 할 수 없었다. 당시 북평은 일본 관동군이 1936년 9월에 풍대를 점령한 이후 삼면을 일본군이 포위한 형상이었다. 다만 남쪽의 남원과 서남방향의 노구교만이 송철원이 지역 군사령관으로 있는 중국 제29군의 통제 아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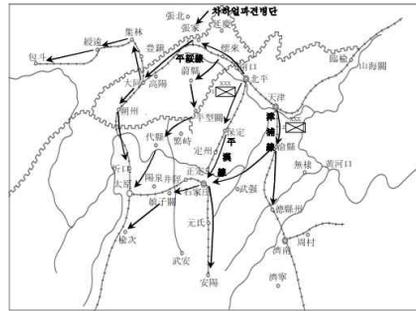
1937년 7월 7일 밤 노구교 부근에서 몇 발의 총성과 함께 훈련 중이던 일본군 병사 1명이 실종되었다. 일본은 이를 빌미로 8일 새벽 노구교 강위의 철교와 주변의 중국군 진지를 기습 공격하였다. 중국군도 이에 대응하여 이날 내내 상호 간 공방전이 계속되었다. 이 사건이 8년간 계속된 중일전쟁의 발단이 된 노구교 사변으로 7월 7일 발생하였다 하여 7·7사변이라 부른다.⁷⁾

이 사건이 발생하였을 때 이 지역을 관할한 제29군 군장 겸 기찰정무위원회 위원장으로 이 지역의 군정을 장악하고 있는 송철원은 일본군과 맞서기보다는 약간의 양보를 하여서라도 평화적으로 해결하고자 하였다. 송철원은 일본에 강하게 맞섰던 제37사를 제38사로 대체하였다. 일본은 송철원의 평화적 제안에 화답한 것 같았지만 내부적으로는 이를 빌미로 중국 본토를 공격할 준비를 서둘렀다. 그리하여 7월 11일 일본 본토 3개 사단, 조선 1개 사단, 만주 2개 여단 등의 투입이 결정되고 최종적으로 17일 일본군 40만 명이 중국 공격에 나섰다.

한편 장개석은 노구교 사건이 일어나자마자 일본군의 중국 본토 공격을 예상하고 대비를 서둘렀다. 1개 사단을 황하 이북으로 이동시키고, 개봉·정주에 있는 2개 사단 이상의 부대가 출동할 태세를 갖추게 하였다. 7월 9일에는 추가로 제26군 2개 사단을 석가장 또는 보정으로 전진 배치시키고

7) 이하 중일전쟁 부분 서술은 기세찬, 2011, 『중일전쟁 초기 국민정부군의 항전전략과 전술 재검토(1937~1938)』, 『軍史』 78 참조.

제 40군 및 제84 고계자 부대는 석가장에 집결하도록 하였다. 사천에 있던 군정부장에게는 즉시 남경으로 돌아가 전면전에 대비하도록 하였다. 서영창, 저잠, 당생지 등에게는 제21, 제25사를 동원 후 출동시켰다. 이를 통해 장개석은 일본의 침략을 예상하고 신속하고 철저하게 대비책을 세웠다고 하겠다.



화북(華北) 전역(戰域)

장개석은 노구교 사건 초기 국민정부군 중앙군을 신속히 북상시키는 한편, 북평방어의 책임을 진 송철원을 설득하여 일본 방어에 적극적으로 나서도록 하였다. 장개석은 이렇게 부대 배치를 함과 동시에 각계의 단결을 도모하기 위해 7월 15일부터 20일까지 유명한 여산회의를 개최하였다. 그는 7월 17일.

“만일 정말 피할 수 없는 최후의 고비에 이르렀다면 우리에게는 당연히 희생만이 있을 뿐이며 항전만이 있을 뿐이다. 그러나 우리의 태도는 단지 응전이지 싸움을 추구하지는 것은 아니다”

라고 하였다. 이때 일본은 7월 20일 무력에 의한 해결을 최종 결정하였다. 하지만 송철원은 중국국민당 군대의 북상을 막으며 북평 방어를 소극적으로 하며 일본을 자극하지 않으려 하였다. 장개석이 7월 22일 송철원에게 “38사단이 진지에서 철수하였고, 북평성 안의 방어공사도 이미 철거하였다고 들었다. 이는 매우 위험한 생각이다”라고 하여 전보를 쳐 적극적인 방어책 수립을 지시한 사실에서 이를 알 수 있다. 그럼에도 송철원은 일본군과 충돌하는 것을 염려하여 머뭇거렸다.

송철원의 의도를 꿰뚫어 본 일본군은, “노구교와 팔보산(八寶山)에 배치된 제36사단을 27일 정오까지 장신점 부근으로 철수시키고, 북평성 내

에 있는 제37사단과 서원(西苑)에 있는 제37사단 부대를 28일 정오까지 영정하 이서 지역으로 이동시키며, 이 부대들을 보정 방면으로 이동시켜야 한다. 만약 이러한 조치들이 취해지지 않는다면 일본군은 독자적 행동을 취하겠다”는 사실상 최후통첩을 송철원에게 보냈다.

이 통보를 받은 송철원은 비로소 일본의 요구를 들어주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일본군과 항전을 결심하였다. 그는 27일 북평 성방사령부를 편성 장유번을 성방사령(城防司令)으로 임명하고, 북평 사수를 결심하였다. 그리고 그날 저녁에 과정원을 보정에 보내어 손연중·만복린 부대의 복상을 도와 작전에 협조토록 하였다.

그러나 이미 현지에 일본군의 화북 증원부대가 거의 도착해 있어 이러한 방어 준비가 허사였다. 송철원의 머뭇거림이 결정적 패착을 가져온 것이다. 화북지역에 진출한 일본군은 마침내 7월 28일 아침을 기해 북평·천진지역의 중국군에 대한 총공격을 개시하였다. 1937년 7월 7일 몇 발의 총성으로 발생한 노구교사변은, 화북에서 전면전으로 확대되기에 이르렀다.

당시 중국군이 북쪽으로부터 밀고 내려오는 일본군을 막는 데 사용하려 한 전법은, 주 전투력을 동적으로 운용하여 적 주력을 계획된 지역으로 유인 격멸하는 방어작전인 ‘기동방어’라기 보다 유리한 지역에 주 전투력을 운용하여 적의 접근을 저지 및 격퇴하는 ‘지역방어’의 성격이 강하였다.⁸⁾ 하지만 이러한 중국군의 화북방어 작전은 계획과 달리 효율적으로 실시되지 못하였다. 그 주된 이유는 중국군이 수적으로 우세하였으나 대부분이 지방군으로써 훈련·장비 면에서 일본군보다 뒤떨어졌고, 일부 지방군 지휘관들이 상부의 지시를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일본이 전황을 유리하게 이끌면서도 전쟁 초기에 그들이 계획한 3개월 만에 중국을 석권하겠다는 계획이 성공하지 못한 것은 장개석의 전략이 어느 정도 성공했기 때문이 아닌가 한다.⁹⁾

8) 기세찬, 위의 논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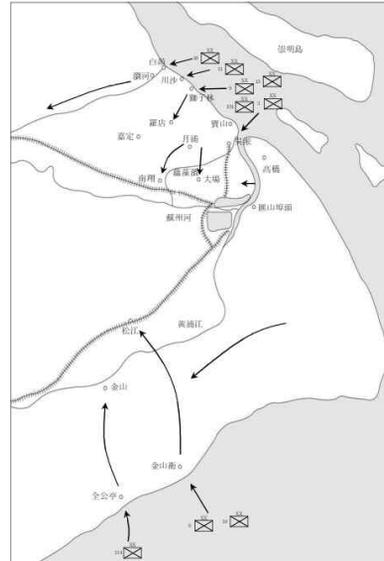
9) 장개석의 상해 전투에 대한 평가에 대해 논란이 많다. 대만으로 밀린 중국국민당

2) 戰史에 빛나는 상해 크리크 전투와 이경채

1937년 7월 7일 노구교 사건이 일어나자 대규모 전쟁을 예측한 장개석은 군사위원회를 열었다. 그리고 8월 11일 국방최고회의를 열어 스스로 군사위원장이 되어 군권을 장악하고, 8월 15일 국가총동원령을 내려 전쟁에 대비하였다. 8월 120일 중국 동부 최전선에 5개 전구를 구분, 편성하였다.¹⁰⁾ 이경채는 3전구에 배속되었다.

한편 화북을 공격하였을 때 3개월 안에 전쟁을 종식한다는 속전속결 전략을 수립한 일본은 그 계획이 성공하지 못하자 남쪽에서 화북을 압박함으로써 남북 양쪽에서 협공하려는 계획을 수립하였다. 상해의 전략적 중요성이 새삼 부가되었다.

이러한 작전계획에 따라 일본은 일본육군 5개 사단을 상해로 파견하여 상해를 확보한 후 남경을 공략하려고 하였다. 이때 상해 방면의 일본군 주둔 병력은 기존의 해군 육전대 5,000명, 재향군인 3,000명, 지원병 3,500명에 일본에서 추가 증파



上海작전

계열과 모택동의 관점에서 분석한 것의 시각 차이가 전혀 다르다. 이러한 논란 가운데 저자가 판단하기에 가장 타당하다고 분석한 논문이 기세찬의 글이어서 이를 토대로 구성하였다. 물론 글의 재구성은 전적으로 저자의 몫이다.

- 10) 중국 국민당 정부는 지역별로 일종의 관구(戰區)를 설치하였는데 처음에는 5개의 관구로 구성하였으나 중일전쟁이 확대되면서 12전구까지 늘어났다. 처음에 구성된 화북에 1전구, 장강 이북에 5전구, 서북 산시에 2전구, 난징 상하이에 3전구를 두었다. 이경채가 중일전쟁 직후 참전하였을 때는 3전구 소속인 11사단에 배속되어 있었을 때였다. 이경채는 이후 전구가 재편되었을 때 9전구와 6전구에서 배속되었는데, 이들 전구에서는 치열한 전투가 치러졌다. 원래 중국에서 전구의 기원은 청일전쟁 이후 특색한 군벌과 관련이 있다.

된 해군 육전대 3,000명이 있었다. 해군 육전대는 지금의 해병대를 말함이다. 아직 일본 본토의 육전대가 도착하지 않은 상태였다.

한편 이러한 상황을 예상한 장개석은 노구교 사변이 일어나자마자 7월 13일 상해시장과 경호 책임자에게 상해 중심지역의 방어진지 공사 구축 상황을 보고하도록 하고, 그 지역 경비사령관 장치중의 예하 부대를 상해 부근으로 이동하여 일본군의 공격에 대비하였다.

8월 13일 일본 해군 육전대의 공격과 동시에 황포강에 정박하여 있던 일본 군함의 함포사격이 시작되었다. 3개월에 걸친 상해 공방전의 서막이 올랐다. 숫자상으로 많은 중국군은 일본군의 공격을 버텨내며 오히려 8월 15일 일본군 진지를 공격하기도 하였다. 하지만 일본군의 방어진지가 견고한 데다 일본 함정의 함포사격으로 중국군의 공격은 성공하지 못하였다. 중국군의 강력한 방어와 역습에 당황한 일본은 상해 파견군 제3, 제11 2개 사단과 여러 부대의 증파를 결정하였다.

장개석도 상해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8월 16일 진성(陳誠)과 웅식회를 현장에 파견하였다. 이들은 현재 중국군이 일본군을 포위하고는 있으나 병력이 충분치 못해 지속적 공격이 어렵다고 보고하였다. 다음은 진성이 장개석에 보고한 내용이다.

“공격할 수 있느냐 공격하지 못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공격이 필요하느냐 필요하지 않느냐의 문제다. 적이 남구를 공격하려 하고 동시에 우리 또한 반드시 방어하고자 하니 화북에서 전투는 확대되어 이미 피할 수 없게 되었다. 만약 적이 화북에서 우세해진다면 반드시 그 기동부대를 이용 평한선을 따라 남하하여 곧바로 무한에 다다르게 될 것이다. 무한을 방어하지 못한다면 중국 전장은 중심이 2개로 끊어져 우리가 불리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만약 송호(淞滬)전장을 확대하여 적을 송호 전장에 끌어들이 수만 있다면 25년(1936년)의 예정된 전략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진성은 상해로 중국군 병력을 증강시켜 일본군과 대규모 전역을 이곳에서 치룬다면, 일본군의 전력을 화북과 화동(상해)으로 분산시켜 국민

정부군이 작전을 유리하게 이끌 수 있다고 보았다.¹¹⁾

한편 일본에서 출발한 일본 육전대 3사단과 제11사단이 8월 23일 상해에 도착하였다. 이들은 홍구, 보산, 나점의 세 곳으로 나누어 상해 이북을 포위하려 하였다. 3사단은 오송 잔교 부근에, 11사단은 오송 서북 15km지점의 천사진 북방에 각각 상륙하여 교두보를 확보하였다. 베르딩 전투¹²⁾ 이래 최대의 격전으로 세계 전쟁사에 길이 남을 ‘오송 전투, 일명 오송 크리크 전투’의 서막이 올랐다. 이때 오송 전투에 참전한 상해 파견 일본군을 독전(督戰)하기 위해 지어진 ‘상해파견군의 노래’가 있다. 당시 전쟁 상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준다.

소화 12년(1937년) 한여름
폭악 무도한 지나를 벌하려고
새벽 어두운 장강에
육박하는 상해 파견군
오송(吳淞) 앞바다에 큰소리로
정의의 방아쇠가 당겨지면
적 앞에 상륙 순간에
나점(羅店)에 울려퍼지는 함성소리
철조망에 토치카에
적이 믿고 있는 진지의 모습
장대비와 피의 폭풍
십자포화 뒤집어쓰며 진격한다.
시체는 **크리크**(クリーク 소운하)를 메울지라도
용맹 과감한 강병은
대장(大場¹³⁾)의 진지 돌파해서
핏줄기를 씻는 소주하(蘇州河)
(하략)

11) 기세찬, 앞의 논문. 한편, 국민정부의 상해 확산 의도가 중국군에게 유리한 동쪽에서 서쪽으로 유도한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何智霖 編輯, 2004, 『陳誠先生回憶錄 (台北: 國史館)』)

12) 베르딩 전투(Battle of Verdun)는 1916년 2월 21일부터 12월 18일까지 프랑스와 독일 사이에 벌어진 전투로 제1차 세계대전에서 가장 거대한 전투 가운데 하나였다. 이 전투에서 독일군과 연합군은 각각 40만 명에 가까운 사상자를 냈다.

상해를 상륙한 일본군이 ‘오송의 크리크(소운하) 전투’를 치르고 있는 장면을 노랫말에서 상상할 수 있다.

국민정부 군사위원회는 중앙군을 포함하여 애초에 섬서(陝西)·사천(四川)·운남(雲南)·귀주(貴州)·광둥(廣東)·광서(廣西) 등에서 화북으로 이동시키려고 했던 부대들을 화동인 상해지역으로 전환시켰다. 이경채가 배속된 상해 제3전구에 할당된 병력은 총 20만 명이었다. 국민정부군의 증원이 이루어지면서 본토에서 증파된 일본군 상륙부대는 중국군의 격렬한 저항을 받아 전진할 수가 없었다.

애초 계획한 상륙 포위 작전이 실패하자 일본군 중앙 통수부는 9월 7일에 重藤지대(1개 여단규모)를 대만에서, 9월 10일에 제9·제13·제101사단과 야전중포병 제5여단 등을 일본 본토에서 추가 증파를 결정하였다.

9월 18일부터 상해사변은 3단계로 진입하였다. 마쓰이 이와네(松井石根) 상해 파견군 사령관은 목표를 대장진(大場鎮) 부근으로 두고 우측부터 제9사단, 제3사단, 제101사단을 배치하고, 제13사단을 군 예비로 하여 10월 8일부터 소주하선(蘇州河線)을 향하여 총공격 명령을 내렸다.

일본이 재차 대규모 병력을 증파하자 장개석도 중국군 제9·제15·제8의 3개 집단군과 제10·제19·제21의 3개 집단군을 상해로 증파시켰다. 바로 이 무렵 중국 군관학교 재학 중이던 이경채도 졸업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동료들과 함께 전선에 투입되었다. 그가 배속된 부대는 제15 집단군이었다. 제15 집단군이 전담한 상해 방면군 진적총사령부는 곤산에 주둔 중이었는데 진성이 지휘하고 있었다.¹³⁾ 진성은 절강성 청천 출신으로 1925년 황포군관학교 포병과 상위 교관 겸 포병대 대장으로 후에 대만정부의 부총통이 될 정도로 장개석의 신임이 두터웠다.

부대에 도착하자마자 바로 유제명 중장이 지휘하는 중국군 11사단에 배속된 이경채는, 상해 부근의 가정현에서 일본군과 전투를 치렀다. 가정현은 오송 전투의 치열한 전장터 가운데 한 곳이었다. 이경채는 세계

13) 오송, 나점, 대장 모두 지명을 일컫는다.

14) 이경채 「투쟁경력」.

전쟁사에 회자되는 ‘상해 크리크 전투’의 한복판에 뛰어난 셈이다,

劉(行)羅(店)도로·蘊藻濱·大場 및 蘇州河 연안에서 중·일 간에 격렬한 전투가 진행되었다. 26일 일본군은 대장을 점령하였고 곧이어 소주하 도하를 강행하였다. 중국군도 강력하게 저항하여 이 지역에서 10여 일간 생탈전이 반복되었다.¹⁵⁾ 이때 각 사단의 방어 정면이 불과 1.3km 정도로 과도하게 밀집된 중국군은 일본군의 집중포화에 막대한 손실을 입었다. 하지만 일본군 또한 중국군의 방어선을 쉽게 돌파하지는 못했다. 중국군은 일본의 공격을 예상한 장개석의 지시로 1935년 견고한 콘크리트 방어진지와 토치카가 구축되어 있었고, 독일에서 수입한 중화기와 기관총이 배치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일본군 중앙통수부는 상해 전선의 교착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10월 20일 제18·제24사단과 화북에서 이동한 제6사단 등을 제10군으로 편성 남하시켜 상해 파견군을 지원토록 함과 동시에 제16사단을 장강 상류의 백묘강 방면에 상륙시켜 상해부근 및 태호(太湖) 부근 소택(沼澤)의 중국군을 세 방향에서 포위 섬멸하도록 지시하였다.

마침내 화북에 투입되었던 일본군 제6·제16사단은 화동으로 전용되어 화북의 일본군은 7개 사단으로 2개 사단이 감소되었고, 오송·상해의 일본군은 9개 사단으로 증강되었다. 따라서 상해 전투를 확대하여 화북의 일본군을 화중으로 끌어들이려 했던 국민정부군의 전략 의도는 일부 달성되었다. 이후 11월 9일까지 상해 전투는 마지막 단계에 도달했다.

11월 5일 여명에 일본의 제10군 예하 제6사단 및 제18사단은 공중 엄호 하에 항주만 북안의 금산위(金山衛) 일대에 상륙했다. 이 지역에 일본군이 상륙하리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한 중국군은 긴급히 지원군을 보냈으나 이미 일본군은 교두보를 구축한 상태였다. 일본군은 신속히 松江·楓涇지역을 점령한 후 황포강을 도하하여, 오송·상해지역에서 소주하를 도하한 일본군과 협조하여 상해를 양측에서 협공하였다. 바로 이때

15) 이경체에 의하면 중, 일 양군이 서로 2중, 3중으로 포위해 공(攻), 수(守)가 셀 수 없이 바뀌었다고 한다.

오송지역에서 일본군의 진격을 막았던 부대가 이경채가 속해 있던 11사단이었다. 가정현의 오송지역은 전략적으로 매우 중요한 곳이어서 상해를 공격하는 일본군이 반드시 점령해야 할 곳이었다. 오송지역이 운하 지역이라 이곳을 크리크라고도 부른다. 바로 이 오송지역에서 전개된 전투가 중일전쟁의 최고의 전투였던 ‘크리크 전투’였다.

이때 이경채도 피아(彼我)가 서로 2중, 3중 포위가 된 상태에 있어 양쪽 피해가 상상을 초월하였다고 하였는데 일본군 병사의 글에서 당시 치열한 전투 양상을 살필 수 있다.

“우쑹의 해안절벽 아래에 펼쳐진, 나의 눈에 들어온 풍경은 마치 지옥의 그림과 같았다. 지옥도 이렇게 심하진 않을 것이다. 해안 벽 아래의 한쪽은 완전히 시체의 산으로, 바닥도 보이지 않을 만큼 차레차레 겹쳐 있었다. 마치 시장통에 쌓인 참치 떼처럼 수천 병사들의 시체가 쌓여 있었던 것이다. 구역질이 나올 만큼 썩은 냄새가 코를 찔렀다. (중략) 이것이 10일 전 상륙했던 나고야 제3사단 병사들의 모습이였다. 그들은 이 땅에 중국군 대부대가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든가, 알지 못했던 것인가. 상륙하자마자 차레차레 죽어간 것이 틀림없었다. 병사들이 뭐가 뭔지도 모른 채 죽어갔다.”

이곳에서 중국군과 일본 육전대가 2중, 3중으로 상호 간에 전개된 치열한 포위 작전이 6일간 전개되었다. 중국군과 일본군 양측이 거의 전멸하는 수준이었다고 한다.¹⁶⁾ 이경채가 속한 11사단의 경우 사단 병력 약 1만 명 가운데 사단장 이하 겨우 200명 그것도 대부분 부상병을 입은 채 탈출하였다. 이경채도 운 좋게 생존한 200명에 포함되었다. 일본군의 포위망을 겨우 탈출한 이경채는 15집단군 사령부로 복귀하였다.

한편, 상황이 악화되자 상해 방어의 책임을 지고 있던 중국 제3전구

16) 이때 일본군은 3사단이 전사자 1,080명, 부상자 3,589명, 11사단은 전사자 1,560명, 부상자 3,980명으로 전체 병력의 1/3을 상실했다. 일본군의 피해가 이 정도였으니 중국군이 입은 피해는 이보다 훨씬 더 컸다고 짐작된다.

지휘부는 11월 8일 야간에 상해를 방어하는 각 부대에 吳(蘇州)-福(山)선으로 방어선을 이동하라고 지시하였다. 그러나 이들 부대는 장기간에 걸친 전투로 소모가 심했고, 이동 시기도 적절하지 않았으며 후퇴할 준비가 미흡해 극히 혼란에 빠졌다. 가령 제3전구의 주력인 제9·제19집단군은 철수 도중에 일본 항공기의 폭격을 받아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

마침내 일본군은 11월 12일 상해를 점령했다. 장개석은 11월 중순 남경에서 3차례의 참모회의를 열어 남경 방어문제를 토론했다. 이때에는 이미 남경의 군사 전략적 가치는 거의 없었다. 하지만 정치적인 측면에서 남경은 국민정부의 수도였으며, 손중산의 묘가 있다는 상징성이 있었다. 만약 아무런 저항없이 남경을 포기한다면 국가를 위해 끝까지 희생해서 싸워야 한다는 장개석의 주장과도 모순되기 때문이었다. 국민정부는 남경이 지형적으로 방어하기에 용이하지 않았음에도 이러한 정치적 이유로 남경 방어를 결정했다. 남경전투는 12월 3일부터 12월 13일까지 약 10일간 진행되었다. 이때 중국군은 남경 방어에 소극적으로 임하다가 충칭으로 이동하였다, 이때 남경(난징)에 입성한 일본군은 크리크 전투 등에서 입은 막대한 손실을 난징 민간인 학살로 보복하였다.(난징대학살¹⁷⁾)

이경체가 참전한 크리크 전투를 중심으로 중국 국민당의 대일 항전의 구체적인 상황을 살폈다. 국민당 정부군이 화동 전역에서 취한 작전은 일종의 방어작전이었으나 화북 전역과는 차이가 있었다. 즉 화북에서 국민정부군은 단계별 전방 방어책을 계획하였지만, 화동에서는 일본군이 상해에서 공격하자 곧바로 반격으로 전환하는 공세적 방어책을 수립하였다. 비록 이러한 공세적 방어 개념을 적용한 국민정부군의 반격작전이

17) 중국의 수도 난징에서 일본군대가 중국인을 무차별 학살한 사건을 말한다. 마쓰이 이와네 대장 휘하의 5만 일본군이 1937년 12월 중국인 포로와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강간·학살·약탈을 자행했고 기관총에 의한 무차별 사격, 생매장, 휘발유를 뿌려 불태워 죽이는 등의 방법으로 학살했다. 극동 국제재판 판결에 따르면, 비전투원 1만 2,000명, 폐잔병 2만 명, 포로 3만 명이 시내에서 살해되었고, 근교에 피난이 있던 시민 5만 7,000명 등 총 12만 9,000명이 살해되었다. 이것은 기록에 남은 최소한의 숫자이며 실제로는 30만 명이 넘을 것으로 추정되었다. (다음 대백과)

완전히 성공하지는 못했지만, 국민정부군이 상해에서 전장의 주도권을 획득할 수 있었다.¹⁸⁾

상해에 총 70만여 명을 투입한 중국군은 27만여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일본군은 총 28만여 명의 병력을 투입해 4만여 명의 사상자가 발생해 중국 공격의 동력을 상실했다. 아울러 중국군이 3개월간 상해를 방어할 수 있는 시간을 벌어주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사실 장개석 자신도 상해에서 일본군을 격멸시킬 수 있으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았고, “지구전과 소모전으로써 적의 속전속결의 기도를 좌절시키는 것”이 상해 수성(守城)의 주목적이라고 하였다.

3) 후방 기지를 구축한 중국군과 이경채

크리크 전투에서 기적적으로 생존한 이경채는, 진성이 지휘하는 제15 집단군 사령부에서 일본군과 전투를 계속 치렀다. 그의 당시 계급은 소교(소령)였다.¹⁹⁾

노구교 사변 후 6개월이 지난 1937년 말에 이르러서는 전쟁은 중국 전역으로 확대되고 있었다. 남경을 빼앗겼지만, 국민정부는 여전히 굴복하지 않았고 3개월이면 전쟁을 끝낼 수 있다던 일본의 환상은 여지없이 깨졌다. 1937년 말 16개 사단 50만의 병력을 중국대륙에 파병한 일본은, 전술적으로는 연속적인 승리를 거두고 있었으나 전략적으로 국민정부군의 주력을 섬멸하지 못했다. 점령지역도 대도시를 중심으로 한 점과 점들이 연결되어 있었기 때문에 일본군은 언제라도 중국군의 유격 전술에 당할 수 있는 위험에 노출되어 있었다. 더구나 난징대학살은 일본의 대외적 이미지를 결정적으로 실추시켰고, 일본 국민 스스로 자괴감에 빠지게 되었다. 일본이 중국 본토 공격에 나선 것은 최악의 선택이었다. 이 때문에 일본 정부 특히 외교부에서는 중국 본토에서의 전쟁을 극력 반대하였으나, 해외 주둔 일본군들이 정부 말을 듣지 않고 무모한 전쟁을 일으키고

18) 기세찬, 앞의 글.

19) 이경채, 「투쟁경력」.

외무성은 뒷수습하기에 전전긍긍하는 형국이었다.

그러나 중국의 상황도 좋은 편은 아니었다. 국민정부가 지구소모전을 통해 얻고자 했던 것은 소련과 미국 등을 포함한 서구 강대국의 개입을 기대한 것이었다. 하지만 전쟁 초기의 국제관계는 오히려 중국에게 불리하게 작용하였다. 아직까지 일본은 소련에 대한 전면전쟁을 시작하지 않았고, 미국·영국 등도 중립정책을 표방하고 있었다. 비록 영국과 미국이 일본의 군사행동을 국제조약과 不戰조약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비난하였지만, 미국과 영국은 전쟁 수행에 필수적인 군수품과 전략자원을 계속 일본에 수출하고 있었다.

1930년대부터 군사적·경제적으로 중국에 접근했던 독일도 일본과의 정치적 이익을 중요시하여 전쟁 개시 후 중국과의 관계를 후퇴시켰다. 당시 국민정부에 우호적이었던 국가는 소련뿐이었다. 소련은 일본이 對中전쟁을 끝낸 후 對蘇작전을 감행할까 우려했기 때문에 일본을 중국에 붙잡아 놓기 위해 중국에 전쟁 물자를 제공해 주고 있었다. 따라서 국민정부는 단독으로 전쟁을 지속할 수밖에 없는 처지였다. 국제환경의 열악함 속에서 전쟁을 지속해야 했던 국민정부는, 전선을 더 확대하지 않으려 한 일본 정부의 정책에 따라 1938년 3월까지 소강상태가 잠시 유지되자 이 기회를 이용하여 전구를 재편하고 전시체제를 정비하고자 했다.²⁰⁾ 이때 재편된 전구 내용이다.

표 20. 중국군 전투편성 및 작전지역

구분	제1전구	제2전구	제3전구	제4전구	제5전구	제8전구
작전지역	平漢線, 隴海線	山西	蘇南 浙江	兩廣	津浦線	甘, 寧, 青
부대규모	27개사단	30개사단	30개사단	11개사단	30개사단	9개사단/4개기병여단

중국군은 화북과 화동의 전투에서 막대한 피해를 입었고 중국의 주요 지역을 상실하였기 때문에 사실 중국군의 전구 및 작전부대의 재배치는

20) 기세찬, 앞의 글.

불가피한 것이었다. 하지만 이러한 부대 재편보다 더 급박한 문제는 지휘체계의 확립이었다.

전쟁 발발 이후 중국군은 육·해·공군을 막론하고 용감하게 전투에 임했다. 그러나 지방군에 대한 국민정부군 중앙지휘부의 통제는 미흡했다. 전쟁 초기 일부 지방군 고위 지휘관들은 자신의 부대 전투력을 보존하고자 중앙의 지시에 불복하고 마음대로 철수하는 등 군기 문란 사태를 가져왔다. 이는 최전방에서 협동 작전을 수행하는 부대에 치명적인 손실을 가져왔고, 전체적인 작전을 지휘하는 중앙지휘부의 입장에서 그냥 놔둘 수는 없었다.

이에 장개석은 1938년 1월 11일 개봉에서 제1·제5전구 단장 이상의 지휘관 회의를 개최하고, 군기 확립 차원에서 한복구를 비롯하여 여장(旅長)급 이상 41명의 고위 장교들을 모두 처형하였다. 군령권도 군사위원장이 그의 휘하로 옮겨 놓았다.

1938년 1월 17일 화중의 무한이 일본군의 공격에 노출되자 중국군은 일본군의 공격을 저지·격퇴하는 것에서 전투력 보존, 시간 획득 그리고 일본군의 유인 등으로 작전을 변경하였다. 무한지역 방어에 전력을 다하였던 국민당 군사위원회는 서주 지역에 60여만 명을 투입하고, 제5전구에 다음과 같은 작전 명령을 하달하였다.

“국군은 서주를 확보할 목적으로 진포철도 및 沂河에서 남하하는 적을 확실하게 저지하는 한편 유력부대로 적의 측후방을 위협하고 臨沂·費縣·滕縣 선상에 상당량의 병력을 집결시킨 이후, 주력을 남쪽으로 전환하여 공세를 취해 적을 섬멸한다. 부득이시에는 축차적으로 저항하면서 洪澤湖·微山湖 중간지역으로 철수하여 방어한다.”

즉 서주작전에서 국민정부군은 우선 북쪽에서 일본군을 견제 및 저지하고 그 사이에 남쪽으로 주력을 집중하여 이 방향의 일본군을 먼저 격멸하려 했다. 이는 상해 학전 당시 진성이 장개석에 건의한 것이었다.

한편 일본은 서주에 있는 중국군 주력부대를 포위 섬멸하기 위해 8개

사단 16만 명의 병력을 복지나 방면군 5개 사단, 중지나 파견군 2개 사단으로 편성하여 출동시켰다. 그리하여 5월 15일 무렵 서주를 포위하는 데 성공하였다.

이에 국민정부 군사위원회는 서주 포기를 결정하고 5전구 사령부는 소부대 단위로 일본군 포위망을 돌파하여 하남·안휘의 산지에 도달하였다. 일부는 강소의 북부·산동의 중남부에 잔류하여 유격전을 전개하였다. 원래 중국은 서주에서 공세적 방어망을 구축하려 하였으나 일본의 진격속도가 빨라 실행하지 못하였으나, 일본 역시 국민정부 주력군을 포위 섬멸하는 작전을 성공하지 못함으로써 점차 장기전으로 들어갔다.

4) 무한 9전구와 이경채

한구·한양·무창 이 3곳을 무한이라고 한다. 지리적으로 한구는 수로와 육로의 교통요충지에 있어 상업이 번성하였고, 한양은 군수산업 중심지로 제철소, 병공창, 화약창이 있었고, 무창은 정치 중심지로 남북을 연결 및 통제하고 있었다. 남경 함락 후 국민정부는 중경으로 천도하였으나, 지리·교통·산업면에서 보았을 때 무한은 사실상 국민정부의 군사·정치·문화 중심지였다. 이 때문에 서주를 차지한 일본은 무한 공략에 나섰다.

국민정부 군사위원회는 무한 주위에 험지가 없어 진지 구축이 여의치 않다는 점을 고려하여 주력을 무한 외곽에 집중하여 鄱陽湖·大別山の 장애물 및 장강 남안의 구릉 및 호수와 늪지대를 이용한 ‘지구전(持久戰)’을 수행하여 일본군의 전력을 최대한 소모시키려 하였다. 이를 위해 군사위원회는 정잠의 제1전구 주력으로 신양 이북·평한선 이서를 방어하고, 이종인의 제5전구 주력으로 무한 이북의 대별산구를 방어하고, 진성의 제9전구로 장강 이남과 무한을 방어하도록 했다. 호남성 장사에 사령부가 있었던 9전구는, 곡창(穀倉) 호남성을 중심으로 호북성의 양자강 이남 지역과 강서성 서북부를 관할하는 가장 중요한 전구로, 중국군 최정예 부대로 편성되었다.²¹⁾ 중국군은 약 47개 군 120개 사단으로 총병력은

100만여 명이었고, 항공기 200여 대, 함정 30여 척이 이 작전에 투입되었고, 일부 소련 공군 지원대도 참가했다

이 무렵 이경채는 진성이 지휘하는 제9전구에 배속되어 있었다. 상해 크리크 전투에서 전공을 세워 능력을 인정받은 이경채는 그동안의 경력까지 인정되어 1938년 1월 소교(소령)로 임명되어 무한위수사령부(제15 집단사령부)에서 근무하며 진성을 지근거리에서 보좌하였다. 그는 1938년 9월에 중국군관학교 명예 졸업장을 사천성 동양에서 받았다. 그리고 일본의 무한 공격이 집중되던 시기인 1938년 9월 진성이 지휘하는 제9전구 위수사령부로 배속되어 일본군과 치열한 전투를 치렀다.

이때 이경채는 전투 최일선에서 부대원을 지휘하며 싸우는 보병 지휘관이 아니라 사령부에서 일본군의 정보를 취득하여 분석하는 정보분석관 임무를 담당하였다. 그가 일본연구소에서 근무한 데다 일본어에 능통한 점이 고려되었기 때문이다. 경채의 아들 용립은 이 때문에 부친이 전쟁에서 생존할 수 있었다고 회고한다.

그러나 그가 비록 일본군과 직접적 전투를 치르지는 않았지만, 계림에 있을 때는 일본군의 공습으로 동굴에 피하지 않았으면 죽을 뻔한 적도 있었고, 비적(匪賊)들의 습격도 여러 차례 받는 등 목숨을 건 생활의 연속이었다. 이때 갓 결혼한 그의 아내도 근무원으로 그와 함께 근무하였다. 그의 유일한 낙은 사랑하는 아내와 전선에 같이 있다는 것이었다.

1939년 10월부터 1940년 3월까지 제6전구 위수사령부 소교로, 1940년 4월에는 중국국민당 군사위원회 정치계림파공처 소령, 1940년 10월부터 제6전구 위수사령부 소교의 직위에 있으며 정보분석관 일을 계속 맡았다. 이 무렵 9전구 사령관이었던 진성이 중국군사위원회 정치부장을 맡고 있었다. 전구 사령부 등에서 정보분석관으로 활약하면서 일본군의 움직임을 정확히 예측하여 국민정부군의 대응 작전을 수립한 이경채는, 진성 등 지휘부의 높은 신뢰를 얻었다. 1940년 9월 중국 국적을 취득한

21) 9전구는, 앞서 언급한 1938년 10월 10일 조직된 조선의용대 대원들이 배치되었던 전구이다.

것도 진성, 장백리 등 중국 최고 지도층의 배려에 의한 것이었다.

처음에는 중국 국적을 취득하려 하지 않았던 경채가 많은 고민 끝에 이를 받아들인 것은 일본과 적극적으로 항전하기 위해서는 국민정부군의 최고 지휘관이 되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 때문이었다. 여기다 1938년 결혼한 중국인 아내에 대한 배려도 또 다른 이유였다. 이경채는 일본의 공세가 주춤하며 소강상태에 빠져 있던 1938년 동료 중국군 장교의 지인인 중국인 아내를 만났다. 그의 나이 28세로 비교적 늦은 나이였는데, 일본, 중국 등지에서 독립운동을 하느라 청춘을 바친 탓이었다.

하남성 장사시 출신인 아내를 처음 만나러 갔을 때 마중 나온 처가 식구에게 큰절을 하자 처가 식구들이 당황하며 웃었다. 큰절은 중국 풍습에 무당(당포)들이 하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결혼식도 전쟁 때라 올리지 못하고 사진관에서 사진 한 장 찍는 것으로 대신하였다.²²⁾

그의 아내는 부친이 작고하고 모친과 단들이 사는 무남독녀 외 딸이었다. 하지만 작고한 장인이 상업을 하여 재력이 꽤 있었다. 경채의 아내는 생전에 그의 아들 용립에게 “우리 집이 얼마나 부자인지 감을 잡지 못할 것이다”고 하였다고 한 것으로 보면, 그 지역의 토호 수준이 아니었을까 싶다. 막대한 토지를 소유한 경채의 처가는 공산정권이 수립된 후 재산을 공산당에 대부분 빼앗겼다고 한다. 경채의 장모는 1948년 12월 경채가 귀국한 후 한국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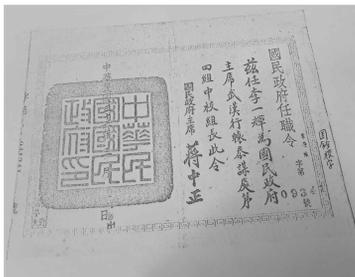
이경채와 아내, 장녀(1943)

22) 이경채의 결혼식 주례를 신익희 선생이 봤다는 얘기도 있으나 전쟁 중인 상황에서 믿기 어렵다.

있는 딸을 생각하다 1962년 작고하였다.

한편 1943년 4월 중교(中校)로 승진한 이경채는 제6전구 사령부에서 참모의 직위에 있었다. 이제 전쟁의 주도권은 점차 일본군에서 국민정부군에게로 넘어오고 있었다. 특히 1941년 12월 태평양전쟁을 일으킨 일본은 중국 전선에서 발을 빼려 하였으나, 미국은 중국 정부가 일본의 발목을 붙잡아 놓기를 바랐다. 사실상 태평양전쟁에서 일본 육군이 미군과의 상륙전투에서 대부분 패한 것은, 일본 육군의 대부분이 중국 본토에서 발목이 잡혀 있었기 때문이었다. 여하튼 중국 본토에서 중국군과 일본군의 전투는 거의 소강상태에 있었다.

이때 경채는 1945년 4월 육군군관학교 군관고등군사반(육군대학 과정)에 11기로 입학하여 1946년 4월 졸업하였다. 이때 교육받은 469명의 장교 가운데 한국인으로는 경채가 유일하였다. 경채가 교육을 받던 1945년 8월 15일 일본의 항복 방송을 통해 꿈에도 그리던 조국의 해방 소식을 들었다. 그는 1946년 3월부터 7월까지 국민당 군사위원회 무한행영 중교를 역임하고, 1946년 8월부터 1947년 5월까지 국민정부 주석 무한행원참모처 중교 조장을 거쳐 1947년 5월부터 1948년 8월까지 제6총청사령부 제4처 중교 참모직을 맡았다. 이 시기 그는 장개석의 신임이 두터운 9전구 사령관 출신 중국군사위원회 정치부장의 직책을 맡았던 진성의 휘하에서 정보분석관을 지내고 있었다. 이경채가 진성의 두터운 심임을 받고 있었다는 징표이다.



중국군 장교 임명장



중국군 고등교육반 11기 명부

천신만고 끝에 귀국한 조국

1. 독립운동 가문의 수난사

이경채가 1928년 6월 광주학생운동을 촉발한 유인물을 배포하다 투옥되어 재판에 넘겨지면서 그의 집안은 풍비박산이 났다. 노동, 사회 운동 등을 하며 고향인 송정리에서 쌍합주물공장을 경영하던 숙부 이성방은 3년 동안 공장 경영을 하지 못하고 폐쇄당하는 불이익을 당하여 경제적으로 완전히 파산 상태에 빠졌다. 특히 일제 말기에는 친일파에게 강제로 공출을 당하는 피해를 입기도 하였다.

이경채의 아우 이경도(2남)와 이경호(3남)는 반일 가족이라는 이유로 ‘공립’ 학교에 아예 입학조차 허가되지 않았다고 한다. 경도는 당시 민족 교육을 시키는 것으로 유명한 사립 고창고등보통학교에 진학하였다. 경채의 부친 성륜의 높은 민족의식을 짐작할 수 있다. 경도는 일본으로 건너가 주오대(中央大)를 졸업한 후 귀국해 숙부가 운영하였던 쌍합주물공장을 이어받았다. 그는 1977년 반공연맹 광산군 지회장을 맡기도 하였다. 셋째 아우 경호는 해방 후 문태고를 졸업하고 해군사관학교 1기로 입학하여 해군 대령으로 예편하였다.

이경채가 출옥 후 일본을 거쳐 상해에서 독립운동을 하고 있는 사실을 일제가 알고 있었기에 그의 가족에 대한 감시가 계속되었다.

2. 광주 영웅 돌아오다

1945년 8월 15일 꿈에도 그리던 조국이 일제의 패망과 더불어 해방이 되자 하루바삐 귀국하려 하였다. 하지만 일본 패망 후 국민당 정부와 중국인민군이 치열한 내전이 전개되고 있어 쉽사리 나올 수 없었다. 특히 동북방면에서 치열한 내전이 전개되고 상태에서 부대 휴가 신청을 한다는 것은 쉽지 않았다. 그러다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 수립은 그의 귀국을 서두르게 하였다. 아울러 그가 따르던 진성이 동북방면에서 인민해방군에게 패퇴하면서 1948년 2월 책임을 지고 사임을 한 것도 그 또한 귀국길에 오르게 한 또 다른 이유였다.

그런데 그의 귀국과 관련하여 중요한 기록을 하나 발견하였다.

발 신 : 외교부 주 상해 번사처
수 신 : 외교부
연월일 : 호동 37자 제 02316호
내 용 : 외교부에 올립니다.

일전 한국외무부 주화연락처에서 “한교의 송환귀국 문제로 연합군총사령부와 협의하였던바 한교들을 태우고 귀국할 立花丸이 12월 4일 상해에 도착하여 12월 6일 한국을 향해 출항할 예정이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현재 이들의 등록 등 송환수속이 진행되고 있으며, 이달 3일경 전체 송환대상자 명단이 작성되면 송부하도록 할 것이니 경찰국과 해관에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는 내용의 공함을 보내왔습니다.

이에 상해시경찰국과 해관 등 유관기관에 송환업무에 협조를 청하는 공함을 발송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상해시경찰국에서 12월 16일 “한교 薛暎淑 등 100명이 본국으로부터 출경비자를 발급받았으며, 이들이 승선 시 본국에서 사람을 보내어 대조하였던바 아무런 문제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이들 한교들은 이미 금년 12월 6일 立花丸에 승선 상해를 떠나 귀국길에 올랐습니다”는 내용의 공함을 보내왔습니다. 이에 그간의 경과를 전하며, 이번에 귀국한 한교명단 1부를 송부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職 鄭康祺.

광주 영웅 이경채의 귀국 관련 외교부 전문으로, 재중 한인의 귀환 관련 귀한 자료이다. 이를 통해 당시 귀환 과정을 엿볼 수 있다. 이에 따르면 한국 교포 일행 100명이 (1948년) 12월 4일에 상해에 도착하여 12월 6일 한국을 향해 출항할 것이라는 내용이 들어 있다. 이를 보면 한국 외교부가 재중 한인들의 귀국 길을 책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곧 이들의 귀국이 대한민국정부 수립 직후에 이루어졌다.

귀국자 명단 100명이 도표로 나와 있다. 이 가운데 이경채의 일가족 부분만 옮겨본다.

표 21. 귀국자 명단

번호	성명	성별	연령	목적지	비고
	-	전략	-		
19	이일휘	남	36	전남·광주	
20	추졸흠	여	30	"	
21	이여홍	여	5	"	
22	이천전	남	2	"	
	-	하략	-		

이일휘는 중국 군사위원회에서 활동할 때 개명한 이름이다. 외교부 문서에 있는 이일휘가 이경채와 동일인이라는 사실은 광주 출신에다 그의 이름 밑에 아내와 자녀 이름이 함께 있기 때문이다. 장녀 여홍은 1943년 생이다.

그런데 경채의 「투쟁경력」에는 그가 1949년 12월 중국 군적을 보유하고 1년간 휴가를 얻어 가족과 동반 귀국하여 전남 광산군의 본적지에서 가족과 19년 만에 상봉하였다고 나와 있어 외교부 기록과 1년 차이가 있다.

하지만 귀국 일시는 경채가 순간 착오한 것으로 보인다. 우선 외교부의 기록은 공식 기록이기 때문에 신빙성이 있고 굳이 경채의 귀국 사실에 착오를 일으킬 이유가 없다. 경채가 귀국한 이듬해인 1949년 3월 10일 호주 승계가 이루어졌다는 점도 주목된다. 만약 1949년 12월에 귀국

하였다면 그 이전에 호주 승계가 이루어진 것이 때문에 시점이 맞지 않는다. 특히 이경채가 귀국할 때 1년간 중국 국민당 정부의 휴가를 얻었다고 하였다. 1949년 12월이라면 그때는 중국 국민당 정부가 모택동의 공산당에 중국 본토를 상실한 이후의 일로 상해에서 출발하였다는 것은 설 명되지 않는다.

3남인 용립의 증언에는 귀국할 때 소송을 소지하고 왔다고 한다. 귀국한 직후 중국 상황이 국민당 정부군에 불리해지자 귀대하라는 전보가 여러 차례 왔다. 하지만 경채는 중국에 들어가지 않았다. 그가 중국에 돌아갈 이유가 없다. 이경채가 귀국한 날은 정확히 특정할 수는 없으나 1948년 12월 6, 7일 어느 날이 아닌가 싶다. 그가 귀국하여 송정리 고향에 돌아왔을 때 환영 인파가 구름 같았다. 1931년 일본으로 망명을 떠난 지 18년 만에¹⁾ 귀환한 광주 독립운동의 전설을 보기 위함이었다.

그가 고향에 돌아오니 안타깝게도 부친은, 그가 귀국하기 불과 며칠 전인 1948년 11월 21일 그토록 기다리던 장남의 귀국을 보지 못한 채 작고한 상태였다. 부친의 무덤 앞에서 경채는 쏟아지는 눈물을 그칠 줄 몰랐다. 1931년 경채가 일본으로 망명을 떠날 때 두 살에 불과한 막내 경호는 해군사관학교 1기생으로 신생 대한민국 해군 장교가 되어 있었다.

3. 조국에서의 은둔과 안타까운 죽음

이경채가 귀국하던 1948년 12월은 대한민국 정부가 불과 4개월 전인 1948년 8월 15일 출범하였으나, 4월 3일 일어난 제주 4·3사건과 그 진압 과정에서 발생한 여수·순천 10·19 사건으로 광주 전남지역이 매우 혼란스런 상황이었다. 그와 가깝게 지낸 항일운동의 영웅들 가운데 상당수는 사회주의 사상을 지녔다 하여 이념적으로 공격받고 있었다. 18년 만에 꿈에도 그리던 조국 대한민국에 발을 내디딘 경채의 마음은 기쁨보다는 착잡한 마음이 더하였다.

1) 이 부분 진술도 경채는 19년이라 하였으나 18년의 착오이다.

그러나 광주학생독립운동의 영웅이라는 타이틀에다 일본, 중국 등지에서 치열한 항일운동을 전개한 이경채는 항일 독립운동의 전설이 되어 있었다. 그가 본명 외에도 ‘판수’, ‘중환’, ‘일취’ 등 여러 가명을 사용한 것은 광주학생독립운동의 영웅이었기에 일본 경찰의 집중적인 감시를 피하기 위함이었다. 그가 독립운동에서 차지하는 비중의 정도를 엿보게 한다.

이렇게 독립운동의 전설이 된 경채를 좌, 우를 떠나 여러 정치세력이 그를 영입하려 했다. 하지만 일본 내에서 이미 좌, 우익의 치열한 싸움을 경험한 데다, 좌우로 분열되어 갈등하고 있는 해방 정국의 현실이 그를 현실정치에 발을 내딛는 데 망설이게 하였다. 특히 여순 사건으로 빛어 진 동족상잔의 비극은 그의 마음을 한없이 아프게 하였다. 그가 일체의 정치 활동에 간여하지 않은 까닭이다.

고향에 돌아온 그는 부친의 묘소를 찾아 한없이 눈물을 흘렸다. 부친 성륜은 1928년 경채가 빠라를 뿌렸을 때 학교에 불려와 학교 당국으로부터 퇴학 처분을 받았을 때도 의연함을 잃지 않았다. 이러한 부친이었기에 부친에 대한 그리움은 더욱 간절하였다. 경채는 1949년 3월 10일 호주 승계를 하였다. 그의 부친은 경채의 귀국을 불과 며칠 앞둔 1948년 11월 21일 사망하였지만, 경채 본가에서는 중국에 있는 경채가 귀국할 때까지 호주 승계를 하지 않고 있었다.

이 무렵 경채를 힘들게 하였던 것은 중국국민당 정부가 공산당에 밀려 대만으로 밀려난 일이다. 그는 귀국 후 아우인 경도가 주물 공장 운영하는 데 부담을 주지 않으려 일체 사업에 관여하지 않았다. 농사도 제대로 지어보지 않았던 그가 농사를 짓는다고 하며 호구지책을 걱정할 처지가 되었다. 그는 귀국 후 창고로 사용되던 적산가옥을 불하받아 새 보금자리를 마련하였다. 현재 광주광역시 광산구 송정2동 848번지이다.²⁾



이경채가 거주한 집

2) 현재 경채가 살았던 집은 낡은 스테이트 건물로 폐허가 되다시피 상태로 있다. 그곳

그가 그 자신뿐만 아니라 민족의 장래 문제를 고민하고 있을 때인 1950년 6월 25일 한국전쟁이 발발하였다. 그의 표현대로 ‘혹동혹서(或東或西)’하며 여러 곳을 전전하며 생명을 부지해야 하는 처지가 되었다. 특히 경제가 중국국민당 정부에서 활동하였고, 경제의 숙부인 성방이 해방 후 우익단체인 광산군 구국회 회장을 역임하는 등 우익색깔이 분명하였기 때문에 경제의 사상을 인민군 당국에서는 의심하기에 충분하였다. 그가 고향 집에 그대로 머물러 있기에는 위험 부담이 컸다.

이때 경제는 인근 임곡의 안전가옥에서 은신하였다. 하지만 그곳도 경제의 표현대로 장소를 전전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신변의 안전을 담보할 수 없었다. 이미 경제의 존재를 인민군은 알고 있었기 때문에 더욱 그러하였다. 이렇게 오지도 가지도 못한 처지에 있던 경제를 이평근이라는 좌익 활동을 한 친척이 숨겨주어 무사할 수 있었다.

그는 한국전쟁 후 고향에서 일체의 정치적 활동 없이 은둔생활을 하고 있었다. 그는 항일운동의 전설이라는 칭호가 붙은 그를 주위에서 이용하려 하는 것을 극도로 경계하였다. 그럼에도 1961년 5·16군사정변이 일어나자 그를 이용하려는 이들이 많았다. 1961년 12월 당시 광산군수의 강권에 ‘재건국민운동 광산군 추진회장’에 추대되었우너 4개월 만에 물러났다. 이후에도 끊임없이 그에게 정계 진출 및 각종 직책 수임 요구 등이 이어지자 1974년 3월 인연이 전혀 없는 경남 양산군 기장면 석산리로 주거를 옮겨 양어장을 운영하였다. 그가 양어장을 운영한 것은 생활을 위해서라기 보다 낚시를 통해 지나온 삶을 반추해보려는 의도가 있었다. 그의 심경을 들어보기로 하자.

“본적 지방 정치단체 및 각 기관에서 때때로 정계 출현 및 모모 직책을 맡을 것을 강권하여 소생은 만사 포기하고 ‘조용한 황혼’을 뜻하면서 여생에 먹칠하지 않으며 정의에 입각하여 집불(草灰) 같이 사라지면(棄世) 다행이라는 생각하고 있다.”³⁾

옆에서 경제의 3남 용립이 ‘용립 주차장’을 운영하고 있다.

한편 이경채는 1962년 독립유공자 관련법이 제정되었을 때 서훈 신청을 처음에는 하지 않았다. 그는, 1928년 4월 광주고등보통학교 5학년 재학 시절 ‘조선독립선언문’ 격문과 유인물을 시내 요소요소에 부착하고, 광주농업학교·광주사범학교·광주여자고등보통학교·광주고등보통학교, 서울 각 학교와 신간회에 우송하는 항일운동을 전개함으로써 당시 침체되어 있던 독립에 대한 열망을 뜨겁게 불리일으켰다는 자부심을 지니고 있었다. 그의 표현대로 “적(敵)과 불대공천(不戴共天)” 한다는 심정이 뼈에 사무쳐 ‘視死如歸’의 결심에서 행동하였을 따름이었다. 이러한 그가 독립유공자를 자처하며 포상 신청을 한다는 것은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다. 더구나 독립유공자 포상 관련 법안을 일본군 장교 출신인 박정희 군사정부가 주도하였다는 점도 경채와 같은 적지 않은 독립운동가들이 서훈 신청을 하지 않은 이유였다.

이렇게 서훈 신청을 하지 않던 이경채가 1977년 서훈 신청을 하였다. 그 까닭을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민족의 후대 사기(士氣)를 왕성(旺盛) 시키기 위해서 그의 공적을 광범하게 조사하여 심사 결과를 발표한 것이 합리적입니다.”

이를 통해 그가 서훈 신청을 한 데는 단순히 서훈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의 삶을 후대의 역사적 교훈으로 남기고자 하는 의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구절에서 그는 빛나는 항일독립운동의 공적을 스스로 낮게 평가하는 인품을 지녔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그가 “공적을 광범하게 조사하여 심사 결과를 발표한 것이 합리적”이라고 하는 데서 정부의 포상 절차에 대해 유감을 표하고 있다. 다음에서 알 수 있다.

“소생은 독립운동 유공자라고는 못하겠습니다. 단 그의 희생자이며 고로자(苦勞者)라고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므로 표창해달라고 하지 않습니다. 포상받기 위하여 무슨 증거(예, 법원 판결문 및 당시의 신문 등 사본)를 제출할 의사조차 없습니다.”

이경채가 생각할 때 목숨 걸고 독립운동을 하였건만, 그 고귀한 희생

3) 이경채, 투쟁경력

에 대한 언급보다 마치 표창을 받으려고 공적을 확인하기 위한 근거를 스스로 찾아 제출하라는 정부의 서훈 정책에 대한 씩씩함을 토로하고 있다. 그가 생각하는 보훈 대상자를 선정하는 방법은

“(공적) 심사위원회가 당사자의 신청을 받지 않고 장기간에 걸쳐, 그리고 광범위하게 조사한 후에 결정 발표” 해야 한다는 것이다. 말하자면 개인의 공적 심사를 위해 자료를 모으고 하는 일을 개인 스스로 하는 일은 그들의 자존감을 해치는 것이라고 일갈(一喝)한 것이다. 그럼에도 그가 공훈 신청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까닭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소생(이경채)의 반일 행적으로 인하여 폐(敝) 가족들까지 박해를 당했어오니 후일에 독립운동사가 계속 편찬될 기회가 있으면 단편적이라도 소생의 비명(鄙名) 세 글자를 기록해 주면 그것으로 만족할 것 같아 신청합니다.”

그는, 그의 항쟁의 기록을 후대의 역사에 남기고자 하였다. 특히 그의 항일운동으로 인하여 그의 숙부, 형제 등 가족들이 겪었던 고통에 대한 미안함도 기록에 남기고자 한 중요한 이유였다.

그는, “일제강점기에는 말할 것도 없고, 해방 후 귀국한 1948년 이후 어떠한 정당이나 권력층에 아첨하지 못한 나의 행동을 걱정하고 있으나 오로지 獨善에 빠져 조용히 여생을 기다리고 있다”고 하였다. 그리고 자손들에게 다음의 말을 남기고 싶다 하였다.

“일제가 패전할 때까지 나는 정면에서 쉬지 않고 투쟁, 전쟁하며 왔었다. 오늘날까지 청렴하며 특히 지조를 지키고 이 세상을 떠난다.”

이경채의 항일운동 과정은 파란만장하다. 학생독립운동으로부터 시작된 그의 삶은 일본 망명, 다시 중국 망명, 그리고 여러 차례의 구속, 중일 전쟁 참전, 국공내전 경험, 좌·우의 갈등, 한국전쟁과 이념적인 충돌, 이승만정부의 장기집권과 4·19혁명과 5·16군사정변 등 격변의 시기를 씩없이

달려왔다. 그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지나온 인생 역정을 살펴보려 하였다.

그가 '투쟁경력'을 작성한 것도 공적서를 작성하여 서훈을 받는 데 목적이 있기보다 그의 삶을 역사에 남기고자 하는 생각 때문이었다. 곧 그의 삶을 통해 민족의 독립을 위해 모든 것을 내던지고 치열하게 투쟁한 많은 독립운동가의 빛나는 역사를 잊어서는 안 된다는 교훈을 우리에게 당부하고자 함이었다.

한편 그의 직계 가족으로는 아내와 3남 2녀가 있다. 1943년 중국 은시에서 태어난 장녀 여홍은, 현재 미국에서 거주하고 있다. 1947년 중국 한구에서 태어난 장남 용정은, 부친이 나온 명문 광주 제일고등학교를 졸업하였다. 차남 용기는 1949년 태어났으나 8세 때 사망하였다. 3남 용립은 1955년생으로, 부친이 살았던 송정리 집 근처에서 주차장을 운영하며 부친의 역사를 증언하고 있다. 차녀 여성은 1968년에 태어났다.

한편 1949년 1월 9일 중국국민당정부의 초대 대사료 부임한 유어만(劉馮萬) 대사가 부임 후 얼마 되지 않아 친구인 이경채를 찾아 송정리에 온 적도 있다고 용립은 증언한다. 경채는 한·중 연대의 상징인 썸이라 하겠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경채는 1978년 3월 26일 오전 11시 그가 거주하던 양산의 삼양 양어장에서 불의의 사고로 사망하였다. 이때 사랑하는 중국인 아내 추수이 여사도 함께 사망하였다. 3남 용립은 군복무 중 부친의 사망 소식을 들었다. 추수이 여사는 국민당정부가 대만으로 옮겨지고, 중국본토가 공산화되면서 대한민국과 관계가 끊어지면서 중국을 다녀올 수 없었다. 더구나 귀국 직후 한국전쟁, 4·19혁명, 5·16군사정변 등 정치, 사회적으로 혼란스런 상황이 계속되면서 한국 국적 신청을 하지 못하였다. 그래서 이경채의 호적에 추수이(鄒粹怡) 여사는 등재될 수 없었다. 그러던 중 김복순이라는 이름을 가진 이의 이름으로 호적에 등재되었다. 1972년 9월 21일 이경채가 김복순과 혼인 신고한 것으로 제적 등본에 나와 있다. 물론 대전현충원의 이경채 묘비에는 중국명 추수이로 적혀 있다.

그가 떠난 지 2년이 지난 1980년 대한민국 정부는 훈장도 아닌 기껏 대통령 표창으로 그의 공적을 평가하였다. 1991년 건국훈장 애국장으로

서훈의 격을 올렸다. 광주학생운동, 중국에서의 독립운동 등 그가 펼친 항일운동의 역정은 건국훈장 ‘독립장’ 이상은 거뜰히 되고도 남음이 있다.

그의 빛나는 항일운동의 여정은 시간이 갈수록 새롭게 평가되고 있다. 국가보훈처와 광복회는 이경채를 2014년 11월 ‘이달의 독립운동가’로 선정하여 그의 공을 기렸다. 그리고 2017년 5월 30일 그의 고향인 송정동 주민들이 모교인 송정동초등학교에 공적비를 세웠다. 그가 사망한 후, 유해는 광산구 평동 용곡동 939-2번지 선산에 안장하였다가 2008년 10월 9일 대전국립현충원에 이장하였다.

■ 이경채 선생 연보

연대 (나이)	활동	시대상황	비고
1910.04.06	출생(7남매의 장남)	국권피탈(8. 29)	
1919.03		광주 송정 3·1운동, 대한민국임시정부 출범	
1920.04	송정보통학교입학	김원봉, 의열단 조직	
1923.04	송정보통학교 6년 월반	광주신우회 결성	
1924.04	광주고등보통학교 입학		
1926	광주고보 3년 독서회 조직	6·10만세 운동	
1928.04	조선독립선언문 비라 살포 주동자	신간회 송정지회 결성 (1928. 2)	
1928.06.08	광주경찰서 체포		
1928.06~07	이경채 석방 주장 대명휴		47명 퇴학 270명 정학
1928.07.21	기소		
1928.10.12	이경채 1심판결 (징역 1년6월)		개성소년형무소 수감
1929.09.04	가출옥	세계공황	
1929.11.03	광주학생운동 발발	1차 시위	경찰 감시로 참여 못함
1929.11.10	2차 시위회의 주도		
1929.11.12	광주학생운동 2차 시위		
1929.11.말	광주학생운동 배후 혐의 체포		물고문 받음 1개월 수감 조사
1931.02	일본 망명		
1931.04	와세다대 야간부 법률과 입학		만주사변
1932~1933	재 동경 유학생 규합 임시정부 연계 독립운동		일본 경시청 내선과 피체 6개월 고문
1933.04.26	상해 망명		4.28 상해도착
1933.06~1934.07	상해 인성학교 교사		임시정부 부설 학교 김판수 개명
1934.07~1935.08	한국독립보·진광 발행(항주)		임시정부 기관지 이중환 개명
1934	남경의열단 가입		
1935.10	중국군사위원회 부설 일본연구소		이일휘 개명
1936.09	중국군관학교 13기 입학		장백리 추천
1937.07.07		중일전쟁 발발	제2차 세계대전 서막
1937.10	상해 집단군 휘하 11사단배속		진성장군과 인연 맺음
1937.10	상해 크리크 전투 참전		2차세계대전 최대의 전투

연대 (나이)	활동	시대상황	비고
1938.01	제15집단사령부 소교		
1938.09	중국군관학교 명예졸업		조선의용대 창설 9전구 활동 지원
1938.09~1939.09	제9전구사령부 소교 (정치부 근무) 결혼(장사출신 추수이 여사)		9전구 사령부 장사주둔
1939.10~1940.03	제6전구사령부소교		
1940.04~1940.09	중국군사위원회 정치부 소교		
1940.09	중국 국적 취득		
1940.10~1943.03	제6전구사령부(소교)		
1943.04~1945.03	제6전구사령부 참모(중교) 장녀 여흥 출생(은시)		
1945.04~1946.04	육군군관학교 고등군사반 교육	1945.8.15. 일본항복, 해방	
1946.03~1946.07	군사위원회 무한행영 중교		
1946.08~1947.05	국민정부주석 무한행할 참모처 중교 장남 용정 출생(항주)		
1947.05~1948.08	제6총청사령부 제4처 중교	1948.8.15.대한민국 정부 수립	
1948.12	귀국(1년 휴가)		18년 만에 가족 상봉
1949.10	차남 용기 출생(일찍 사망)	중국국민정부 대만 천도	
1950.06	한국전쟁		
1955	3남 용립 출생		
1961.05	강원으로 재건국민운동 광산군 촉진회장 취임, 곧 사직	5·16군사정변	
1968	차녀 여성 출생		
1974.03	경남 양산이거		주위의 정계 진출 직책 수임 요구 거절
1977.	독립유공 서훈 신청		
1978.03.26	타계		
1980	대통령 표창 추서		
1991.08.15	건국훈장 애국장 추서		
2014.11	2014년 11월 이달의 독립운동가 선정		애국지사 이경채 항일 투쟁 발간(광주학생독립 운동 재경후손회 발간)
2014.11	광주학생독립운동기념관 이경채 유품 상설전시	중국국민정부	
2017.05.30	독립운동가 이경채 선생 공적비 제막(송정동초등학교)		

부록 1. 박경순, 피의자 진술조서

위 치안유지법 위반 피의사건에 관하여 당부에서 본직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임의 진술하다.

- 一. 본적은 京城府蛤町八四번지
 - 二. 출생지 京城府南大門內(이하 불상)
 - 三. 주거는 上海共同租界安南路慈原南里五七호(중국인 집 二층)
 - 四. 직업은 무직
 - 五. 성명은 朴敬淳
 - 六. 연령은 당 四六세(一월 二九일생)
 - 七. 형벌에 처한 사실이 없다.
 - 八. 위기, 훈장, 기장, 은급, 연금, 또는 공직에 있는 자가 아니다.
 - 九. 종교는 없다.
- 一〇. 별명은 중국인으로 「濮敬純」이라는 별명을 사용하였고, 아호는 「禮川」이다.

一一. 가족상황

이곳에는 내가 一七세 때 결혼한 처 崔志善(당 四六세) 한 사람이 있다. 본적지에는 현재 모친 金氏(당 七四세), 여동생 朴永淳(당 三四세) 두 사람이 살고 있고 내가 조선에 있을 때 출가한 여동생 朴義淳(당 四三세)의 남편으로서 京城府中林町에서 新舊서점을 경영 중인 盧益煥으로부터 생활비 원조를 받아 도식 중인 모양이다. 나는 전기 三인 형제로 부친 朴聖鉉은 一四년 전 六一세로 사망하였고 나도 향리에도 자산은 없다.

一二. 조선에 있어서의 내력은.

朴聖鉉의 장남으로 태어나서 七세부터 一三세까지 서당에서 한문을 배웠고, 一四세부터 一七세까지 京城 鍾路 소재 기독교청년회학관 약학 영어과에서 배웠다. 一七세의 음 八월에 崔志善과 결혼하였기 때문에 퇴학하고, 鍾路通 소재 吳服店 「廣興泰」 기장계에 취직하였다. 동점은 약 二년 후 사직하여 貞

洞 소재 프랑스인 상점 「제네랄 서프라이 컴퍼니」 新昌양행 식료잡화점 기장원으로 취직, 월급 四〇원을 받고 一九一三年 말 즉, 二一세까지 근무하다가 주인이 그만두라고 하기 때문에 그만두었다. 그 이유는 확실하게 기억할 수 없으나 당시 나는 점원인 조선인 二·三名과 여러 차례 중국요리점에서 지내고 있었기 때문에 요리점에 음식 값이 많이 밀려서 마침내 가게 주인 중국인은 우리 가게에서 시간 물품대금을 지불하지 않고 우리들의 음식대와 상쇄감정하자고 하기 때문에 주인이 아는 처지가 되어 그만두게 한 것으로 생각된다. 그 후 도식 중 나는 해외로 나가서 외인상점에라도 취직하려고 생각하였다. 二二세, 즉 一九一四年 四月 무단기출하여 安東縣으로 건너갔다.

一三. 중국으로 건너간 후의 내력 개요

安東縣에 도착 후 怡隆양행에 가서 영국인 쇼씨에게 취직을 시켜 줄 것을 간청한 바, 마침 奉天에서 와 있는 쇼씨의 동생이 「나의 상점에서 사용하자」고 해서 나를 奉天 怡隆양행 기장원으로 채용하여 주었다. 월급은 三〇원이었지만 잠자리만은 점포에서 자도록 하고 식사는 월급에서 지불하게 되었으므로 송금도 할 수 없었다. 奉天 怡隆양행에서 一年 남짓 일하다가 상점주인 쇼씨(동생)의 소개로 하얼빈에서 미국인과 영국인이 공동으로 미국 피혁을 러시아인에 팔아넘기는 상업 매매를 하는 점포의 기장원으로 전직하였다. 각별한 점포 명칭이 없이 당시 세계대전 중이었으므로 미국 피혁을 러시아인에게 팔아넘기고 있었다. 그 곳에서 약 一年 일하다가 러시아인 「킷 쏘르손」이라는 사람이 長春에서 운송점을 경영하고 있기 때문에 서로 이야기를 주고받게 되면서 동 운송점에서 타자 담당으로 一五〇원의 월급을 받게 되었다. 처는 奉天에서 취직 중에 불러 와서 하얼빈에서 長春으로 옮길 때 귀선시켰다. 동 운송점의 일은 長春신시가 소재 英美연초회사의 연초를 하얼빈에 운송하기 때문에 나는 약 一年간 그 점포의 점원으로 근무한 후 독립하여 그 사업을 경영하게 되었다. 그런데 약 半年 후 동 연초회사에서는 나에게 화물운송을 일체 의뢰해 주지 않게 되므로 부득이 폐업하고, 이어 「킷 쏘르손」 쪽에서 이야기하는 모 미국인에게 의뢰하여 동인의 소개로 당시 大連에서 영국인 「담손」, 「헨남」 두 사람이 경영하는 운송점 同興洋行에 월급 二〇〇원으로 취직하여 주로 해관을 통하는 통관수속을 담당하고 있었다. 약 三개월 후 長春 재

류 중국인 林幹宸이라는 자로부터 英美연초회사의 운송점 경영을 공동으로 하자는 상담 통신을 받았기 때문에 長春으로 갔지만 결국 회사에서 승낙해 주지 않아서 성공하지 못하고 끝났고 재차 大連으로 가서 同興洋行에서 일하고 있었다. 한편 長春에서 거주 중 一九一九년(대정 八년)의 독립만세 소요사건이 발생하여 滿洲, 上海 등지에 전입 거주자가 날마다 증가하여 익년인 대정 九년경 上海에는 상당한 다수의 조선인들이 거주하였고 임시정부 등도 설립되어서 활발한 독립운동을 하게 되었다. 당시 나는 大連에 있었는데 최초 월급 二〇〇원이었는데 一五〇원으로 감봉 당하여 불유쾌할 뿐만 아니라 大連에는 조선인과 의논할 사람도 없어 허전한데 上海에는 尹堉(동향인), 玄彰運 등의 이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上海에 가면 이 이상의 높은 월급으로 취직도 할 것이고 또 친구도 있어서 재미있을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一九二〇년 즉, 대정 九년 一二月 同興洋行을 사직하고 단신 上海로 갔다. 당시 尹堉은 佛界福照路愛仁里(번지 불상)에서 가족과 동거하면서 英美연초회사에 통근 중이어서 동인의 집에 기식하면서 취직운동을 했다. 그 결과 대정 一〇년 八月 佛界公館馬路 소재(미곡상) 上海地產公司에 월급 八〇원에 타자수로 취직하였고 계속해서 尹堉 집에서 통근했다. 대정 一一年 여름경 조선에 있는 처를 불러들여 新開路辛家花園二〇호에 거처를 정하였는데 얼마 안가서 佛界愛多亞路天主堂路角 소재(미곡상) 亞細亞汽車公司에 월급 一五〇원에 부기 담당으로 전직하였다. 그 공사에서 약 一年 근무하다가 사정에 따라 주인으로부터 해고당하였기 때문에 약 半年 정도 도식 중 대정 一三年 봄경 다시 앞에서 말한 上海地產公司 타자수로 월급 一〇〇원에 채용하여 주었다.

주소는 亞細亞公司에 통근 중

安南路民厚南里(번지 불상)으로 이전하여

上海地產公司에 다시 취직 후,

佛界福照路愛仁里(번지 불상) 金南植 집 二층으로 이거하였다.

위 공사도 약 一年 후 그만두었고, 무직 중에는 항상 외국잡지의 광고 모집에 착수, 수수료를 받아 생활하고 있었다. 소화 三년경부터 약 一年 반 南京路 소재 「別發公司書舖」에서 통신판매계에 근무하고 월수 一六·七〇원씩 받았다. 한편 上海地產公司에 재취직하고부터 약 半年 후 미국 헛본의 皺延機(나

는 褲夾이란 명칭을 붙임) 一二타를 주문하여 판매하였고, 또 중국인에게 이와 같은 물품을 제작시켜 길거리에서 판매하게 하는 부업을 하여 실직 중에는 이것을 본업으로 하는 등이었고, 그리고 위 서점을 그만둔 후 소화 五年 봄경 이후부터는 중국의 직업인을 고용하여 褲夾제조를 착수하여 나는 이것을 판매하는 본업을 삼았다. 그리하여 주소는 一九三三년(소화 八年) 봄경 佛界巨潑來斯路美華里一〇호에 이전하였으며, 이어서 그 사업에 종사 중 소화 九年 一·二월경 전부터 아는 친구인 李相一로부터 杭州로 옮기도록 종용을 받아 그 해 三월 一〇일 그 곳으로 이거하였다. 그 곳에서는 한국독립당에 기거하면서 당을 위한 활동으로서 당으로부터 숙식의 제공을 받고 있었는데, 그 당도 자금 부족으로 생활이 뜻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작년 六月 중순 다시 上海로 옮겨서 오늘에 이르고 있다.

一四. 불령운동에 참가상황

(가) 대한임시정부 외무부참찬에 취임.

전술한 바와 같이 내가 大連에서 上海에 올 당시 당지에는 다수의 조선독립운동자들이 조선 내 기타 각지에서 모여 대한임시정부 및 동 의정원 등을 설립하여 활발한 운동을 하고 있었다. 나는 上海에 온 후 尹堉 집에서 도식 중이던 바, 一九二一年(대정 一〇년) 三·一기념일을 맞아서 西藏路소재 寧波同鄉會에서 성대한 독립기념식이 거행되었기 때문에 참석하였다. 나도 이 일을 듣고 참가하였는데 참석자는 중국인을 합하여 약 천 명 정도인 것으로 생각한다. 기념 강연은 申奎植(법무총장) 외 수명과 중국인 유지 등으로 식은 三·四시간 계속하였고, 최후에 「일본제국타도, 한국독립만세」를 고창하고 산회하였다. 원래 上海에는 독립운동자도 많고 임시정부 기타 독립운동기관이 있다는 것은 양지한 바인데 三·一기념식 정황을 보고 예상 외로 성대한 것에 놀랐다. 그 후 얼마 안되어 당시 임시정부 외무부차장 朴贊翊이 나를 찾아와서 「외무부는 인원이 부족하고 활동도 되지 않으니 참찬으로 취직하여 사무에 종사하여 달라」는 상의가 있었다. 당시 나는 무직 중이기도 하고 조선인으로서 조선독립운동 기관에 봉직한다는 것은 당연한 의무일 뿐만 아니라 남자의 본심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즉석에서 이 요청을 승낙하고 외무부참찬으로 취임했다. 임시정부는 佛界白爾部路新民里 路次입구에 있었고 간부는

대통령 李承晩

국무총리 申奎植

비서장 申翼熙

내무총장 李東寧

동 차장 趙琬九

외무총장 불명

동 차장 朴贊翊

군무총장 盧伯麟

참모총장 불명

법무총장 申奎植

학무총장 金奎植

재무총장 李始榮

등으로서 외무부는 임시정부(二층 건물) 아래 있었다.

외무차장 朴贊翊

참찬 朴敬淳(나)

동 金모(忠淸道人인가 또는 京城人으로 성명이 기억나지 않음)

동 트인으로서 약 一·二개월 통근 후는 사정상 필요시에만 출근할 것,

二개월 정도 되어 시작하다. 그 동안 사무의 주된 것으로 기억에 남아 있는 것은 한 번 소련 정부(레닌그라드) 앞으로 타전한 일이 있다. 전보 내용은 당시 安恭根 외 한 사람이 소련에 가기 위하여 국경 통과를 허가하도록 말을 전한 것으로서 임시정부 명의로 타전한 것이므로 국무원 비서장 申翼熙와 영문 문안을 상의하였다. 기타의 것으로는 구체적으로 기억할 수 없으나, 또 한 번은 「아스다하우스」에 투숙하고 있는 필리핀총독 「윳도」씨 앞으로 임시정부 선전문서를 지참한 일이 있다. 문서는 독립운동의 정상을 쓴 소책자 三·四종과 독립만세 소요사건 당시의 일본의 포학상태를 선전한 사진들의 인쇄물 등인 것으로 생각된다.

이 때 소화 七년 四월 당 관에서 임시정부 청사 수사 시 압수한 문서 중 영문 「조선독립운동」이라는 제목의 선전인쇄물을 제시하면서 「군이 윳드총독에게 준 문서 중에 이것은 없었는가」라는 물음에 「그것도 한 부 있었다」고

답하므로 증거품으로서 압 제 호를 작성하다. 또 이 선전물을 갖고 아스다하 우스에 총독을 방문하여 면회를 신청한 바, 동 총독은 바쁘다면서 대리인이 나왔기 때문에 그 자에게 수교하면서 총독에게 제출해 주도록 의뢰하였다. 기타는 기억할 수 없는데 약二개월간 임시정부의 목적이 달성되도록 외교사무에 종사한 바 있다. 내가二개월 정도 활동한 후 외교부에서 월급 三〇원을 급여한다고 하명되었는데 나도 조선인으로서 임시정부를 위하여 활동한 것은 당연한 일로서 큰일도 하지 않았는데 보수를 받는 것은 미안스러운 일로 생각했기 때문에 사양하고 받지 않았다. 그 후二개월 정도는 정부에도 너무 일이 없기 때문에 출근하지 않고, 용무가 있어서 호출하여 왔을 때 가서 일할 정도로서 나는 무엇인가 일에 취직하려고 생각하여 운동하고 있었던 바, 開封에 있는 중국인으로부터 성냥공장을 설립하는데 협동하지 않겠는가 하는 상의를 받았기 때문에 그 해 六월경 외무부참찬을 사직하고 開封으로 간 일이 있다. 그런데 그 계획은 결국 성공하지 못하고 上海로 돌아와서 잠시 후 地産公司에 취직하게 되었다.

(나) 한국독립당 입당상황

한국독립당 조직상황에 대하여는 상세하게 기억할 수 없으나 지금 귀하가 조직에 관한 기록을 읽어 듣게 하여 과연 그러하였다고 생각한다. 一九三〇년(소화 五年) 가을경 조직되고 나는 尹琦燮, 趙琬九 두 사람으로부터 조직, 목적, 상황 등을 나의 자택(福興路愛仁里七八一號)에서 듣고 두 사람을 보증인으로 하고 입당하였다. 그 당이 조직된 경위는 재래의 한국유일독립당 上海 축성회가 소화 四年 말에 해산됨과 같이 순공산주의자 具然欽 일당이 재류上海 한국독립운동자동맹조직을 선언하여 세력 부식 책동을 개시하게 됨으로써 임시정부 간부를 중심으로 하는 민족주의파는 「공산주의 분자의 책동은 독립운동을 소멸시키거나, 또는 사로로 인도하는 것이 되므로 이 때 민족주의의 강력한 단체를 조직하여 임시정부를 옹호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하는 것이므로 이의 대책으로서 소화 五年 가을경 安昌浩, 李東寧, 기타 민족과 요인 二五·六명이 馬浪路普慶里四號 임시정부에 회합하여 협의한 결과 재래의 지방적 파벌감정을 버리고 재외 민족파의 투쟁전선을 통일하기 위하여 한국독립당을 조직하고 당헌, 규약 등을 결정한 후 결당식을 거행한 것이다. 나는

그 결당식 직후 전술한 바와 같이 그 강령, 목적인 「본 당은 혁명수단으로써 원수 일본의 모든 침탈세력을 박멸하고 강토와 주권을 완전하게 회복시켜 정치, 경제, 교육의 균등을 기초로 하는 신민주국을 건설하고 그에 의하여 안으로는 국민 각개의 균등생활을 확보하고, 밖으로는 겨레와 겨레, 나라와 나라와의 평등을 실현시키고 나아가서 세계 일가의 진로로 지향하도록 종래의 독립적, 또는 시대적 활동에 만족하지 않고 봉건적, 영웅적 세력을 배제하고, 전민족의 혁명역량을 총집중, 절대적 한국독립의 완성을 기한다」는 것에 찬성하고 입당하였다. 처음二개월은 후보 당원으로서 아무런 회합에도 출석하지 않았는데二개월 후 정식 당원이 되면서 趙琬九를 반장으로 하는 반에 편입된 이래 매월 一·二회씩 佛界亞爾培路等家庫 李始榮 집에서 반회가 개최되었기 때문에 출석하였다. 반회에서는 시사보고, 각자의 견문사항을 의논하고 당의 확대 강화 발전책을 협의하였다. 기타 나는 매월 회비 二〇전과 수입(월급)의 백분의 一, 수입연(收入捐)을 납입하여 당을 위하여 진력하고 있었다. 당시 간부는

간사장 李東寧

간사 趙琬九 趙素昂

安昌浩 金料奉

李裕弼 金徹

金九 尹琦燮

비서 嚴恒燮 李始榮

등인 것으로 생각된다. 또 기관지 「韓報」가 발행되고 있었는데 나도 그것의 배포를 맡고 있었다. 물론 각종 기념일에는 격문, 선전문도 우리에게 배포되고 있었는데 구체적으로는 기억할 수 없다. 이상 외에 여러 차례 각종 회의도 있었던 것으로 생각되는데 나는 단지 하나의 당원이므로 참석한 일도 없고 三·一기념일에는 꼭 기념식이 거행되고 있기 때문에 나는 틈이 있는 한 참석하고 있었다. 그 후 그 곳의 虹口공원에서 폭탄사건(소화 七年 四月)이 발생하여 일본 관헌의 수색이 엄중하였기 때문에 임시정부 및 한국독립당은 杭州로 이전하였는데 나는 소화 九年 二月 동당 간부이며 친구인 京城府 출신 金孝源 가명 金思渠(당 四九세)로부터 杭州로 이전하도록 권유의 통

지가 있기 때문에 杭州로 이전하였다. 杭州에 이전한 것이三月 一〇일로 생각된다. 당시 한국독립당은 杭州市學士路思金坊四一호에 사무실을 두었고 金思渠, 李昌基, 李重煥, 李相一 부부 등 五명이 거주하였고 우리 부처의 도착에 따라 七명이 함께 거주하게 되었다.

당시 임시정부는

杭州市湖邊村二三호에 辦公處를 설치하였고,
宋秉祚, 金徹, 梁起鐸 세 사람이 거주하였다.
趙素昂은 廣福路(이하 불상)에 거주하고 있었다.

(다) 杭州 이거 후 당의 선전활동

나도 杭州 이거 후는 항상 독립당 사무소에 기거하면서 당에서 식사대접을 받고 있었다. 杭州에 정착한 당시 당에서는 기관지 「震光」을 발간 중으로 벌써 창간호는 발행 후였는데 나는 도착과 함께 전기 「震光」 제二호, 三호 합간 활자뽑기에 종사하였고, 조립한 것을 杭州市青年路口에 있는 東南日報社에 가지고 가서 인쇄 제본한 것을 받았다. 수량은 약 五〇〇부, 이것을 배부처 명부에 따라 上海, 南京, 廣東, 기타 각지의 조선인 앞으로 우송 배포하고 있었다. 또 기관지 「震光」은 우리들이 식사 조립한 언문 외에 원고를 東南日報社에 지참하여 한문(중국어)으로 된 것도 약 一,〇〇〇부 인쇄하여 이것 역시 배부처 명부에 따라 중국 요인 항일분자 및 각처의 학교, 도서관 등에 우송 배포하고 있었다. 언문 「震光」은 내가 杭州에 도착한 후,

一九三四年 三月 二五일자 제二·三호 합간,

전기 동년 五月 二五일자 제四호,

一九三四年 六月 二五일자 제五호,

동 九月(九월호) 제六호,

까지이고 중국문 「震光」은

一九三四年 三月 二五일자 제二·三호 합간 뿐인 것으로 생각된다. 이들 기사 원고는 趙素昂, 金思渠, 李相一 등이 집필하였고, 나는 영문으로 번역하여 투고했다. 현재 기억하고 있는 제목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으로서 제 二·三호 합간 제목 중

「조약 이후의 아일랜드」라고 제목한 것,

제四호에서도 전기 속편 및 「진벤당의 약력」이라고 제목한 것, 제五호는 「체코슬로바키아 운동사략」이라고 제목한 것 등은 내가 번역하여 투고한 것이다. 또 서두에서 말한 바와 같이 지금 제시된 기관지, 격문책자 중에 있는,

1. 「四二六七年(소화 九년) 三月 〇일자 한국대일전선통일동맹 제二차대표대회 명의를 한국대일전선통일동맹 제二차대표대회 선언」
2. 「대한민국 一六년 四月 一五일자 임시정부 비서국 명의를 대한민국 임시정부 공보 제五七호」
3. 「건국 四二六七年 九月 一일자 한국독립당 명의를 討崔麟書 격문」
4. 「기원 四二六八年(소화 一〇年) 三月 一일자 한국독립당 대표대회 명의를 제七차대표회의선언」
5. 「대한민국 一七년(소화 一〇년) 三月 一일자 대한민국 임시정부 명의를 제一六주년 三·一절 기념선언」
6. 「위 동일자 한국독립당 명의를 제一六주 三·一절 기념」이라고 제목한 격문」
7. 「위 동일자 중국문, 대한민국 임시정부 명의를 제一六주년 三·一절 기념 선언」
8. 「위 동 上海대한인교민단 명의를 독립선언 제 一六주 기념」이라고 제목한 것
9. 「대한민국 一七년 四月 八일 임시정부 공보 제五九호」
10. 「동년 一一월 二五일자 위 동 공보 제六〇호」 등은 우리들이 활자 조립과 교정을 담당한 것이다. 이것 역시 앞에서 말한 기관지 배포와 같은 방법으로 각처의 동지들에 우송 선전하였다.
11. 「四二六八年(소화 一〇년) 一〇월 二九일자 한국독립당 명의를 건국기념 선언」도 같은 것이다. 또 기타에도 각종 격문을 작성 배포한 것으로 생각되는데 구체적으로는 기억할 수 없다.

(라) 杭州에 있어서의 독립당 특구회원으로 활동

전술한 바와 같이 소화 九년 三月 내가 杭州에 이전 후 얼마 안되어 朴昌世, 車利錫, 文逸民 등도 上海에서 이전하여 왔고, 朴昌世는 타처에 남몰래 집을

마련하여 주었으며, 文逸民과 車利錫은 독립당 사무소에서 우리들과 동거하게 된 것이다. 이로써 杭州에 있어서의 독립당원은 一三·四명이 되었고 이 외에 廣東에는 金明濬, 楊明鎭, 具益均 외에 청년 수명, 南京에는 金料奉, 崔錫淳, 李光濟, 姜昌濟, 李震煥, 기타 청년 수명 등 다수의 당원이 있었기 때문에 杭州는 본부 외에 杭州區라는 分組를 조직하였고 南京, 廣東에도 이와 같은 區를 조직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소속되고 있는 杭州區에서는 매월 一五일과 월말 二회에 걸쳐 구회를 개최하고 당의 발전, 활동 방침 등을 협의 결정하고 있다. 杭州구회는 일명 特區會(杭州特別區會)라고도 하며 특구회의 상황도 상세히 기억되지 않지만, 지금 그 기록을 읽어 들려주어서 생각이 났었다. 소화 九년 六月 一五일 특구회를 개최할 예정이었던 바, 주된 간부 朴昌世, 宋秉祚, 趙素昂이 무엇인가의 형편으로 출석할 수 없어서 중지되었고, 동월 三〇일에는 꼭 개최할 예정이었던바 우연히 당시 杭州廣濟病院에 입원 중인 金徹(金永鐸)이 六月 二九일 오후 六시 사망하였기 때문에 장례 준비를 위하여 이 역시 개최하지 못하였다. 金徹 사망 때문에 임시정부에서는 宋秉祚, 梁起鐸, 朴昌世 및 南京에서 내항 중인 金料奉 등이 모여 협의한 결과 비용 三〇〇원을 지출하여 黨葬으로 집행하게 되었고, 杭州法院路 예수교회당 장로 周允章(중국인)에 의뢰하여 七月 二일 오후 五시에 그 병원에서 출관하여 杭州裏西湖街岳飛廟墓地에서 장례식을 집행하고 오전 九시 종료했다.

참석자는 宋秉祚, 梁起鐸, 金思渠,
李相一, 나(朴敬淳), 李世昌,
金料奉, 車利錫 등으로서

당일 온 崔錫淳, 韓愼教, 具益壽 등은 시간이 늦어서 장례식에는 시간을 맞추지 못하였다.

특구회

그리하여 익일인 七月 一五일 특구회를 개최하였는데 참석자는 宋秉祚, 朴昌世, 梁起鐸, 李相一, 金思渠, 나, 金料奉, 車利錫, 李世昌 등으로 宋秉祚 사회하에 오후 三시경 개회, 동 六시경 끝냈다.

협의내용은

(1) 金思渠로부터 일본 본토 소식 보고에서 「일본 정부는 전쟁준비를 위하여

석유 사용자에 대하여 각종 조사를 진행하였고 한편 석유 저장량 등을 조사 중」이라는 보고가 있었고,

- (2) 李相一로부터 당원과 당과의 관계라는 제목에서 「당원은 끝까지 당을 애호하라」는 의미의 강연을 하였고,
- (3) 宋秉祚로부터 「李中煥(李中煥, 金判守 가명 李景采)은 이상한 행동이 있음을 지적하고 一四일자로 제명처분에 회부했다」고 하는 보고가 있었다. 이상한 행동이란 당의 비밀을 일본관헌에게 밀보한 것이 아닌가 라는 혐의이며 李中煥은 그 때 당 사무소로부터 쫓아내어 어디론가 가버렸다.
- (4) 趙素昂으로부터 「上海의 동지 韓愼教로부터 金徹 사망에 관하여 중국紅十字會 비서 稽蠶青은 임시정부 또는 독립당의 대표자 성명으로서 중국인사들로부터 의연금을 모집하여 비석이라도 건립하고 남은 돈은 유족에게 증정하는 것이 어떤가 라는 상의를 받았는데 어떻게 하겠는가 라는 조희서신이 있는데, 정부 또는 당 명의로서 모집할 것인가 아닌가」의 문제를 제출했기 때문에 토의 결과 현재 정부 및 당의 운동까지 부족한데도 아직 중국인 쪽에서 기부 모집도 하고 있지 않는데 사망자 한 사람의 비석 건립을 위하여 혁명단체명을 사용하는 것은 좋은 계획이 못됨. 만일 모집한다면 개인 명의로 하도록 지시하기로 가결했다.
- (5) 朴昌世로부터 上海佛界 거주 조선인 二명이 싸우다가 쌍방에서 교민단에 고소를 제기하였기 때문에 교민단에서는 쌍방에게 화해를 권고하였는데, 一명은(馬浪路 거주 韓道源) 이에 복종하지 않고 일본총영사관에 고소했다는 것인데 교민단은 무력하고 또 권위도 없으므로 유감일 뿐만 아니라 일본영사관에 고소하는 등 매우 괴심한 놈이다. 특무대에서 처분하는 것으로 원함」이라고 가결하는 등으로 결정하였는데, 당시 한국독립당에는 朴昌世를 대장으로 하는 특무대라는 실력행사 기관도 있었으나 누가 대원인지는 알 수 없다.

(마) 임시정부 판공처 이전과 의정원회의

소화 九년 七月 七日 오후 七시경 宋秉祚는 납량을 위하여 二층 베란다에 나갔던바, 한 사람의 일본인 모양의 남자가 실내를 엿보려는 모양이기 때문에 뒷문으로부터 빠져나와 우리들 독립당 사무소에 이 뜻을 알려 왔기 때문

에 李世昌이 누군가를 중국공안국 파출소에 급보하여 巡捕가 와서 그 용의인 물을 파출소에 연행 조사한 결과, 杭州일본총영사관의 경찰이라는 것이 판명되어 크게 놀라 임시정부를 타처로 이전하게 되었고, 일반 모 여관에 피난하였다가 그 후 一월 초순 杭州市西大街濤桓里一二호에 본거지를 밀설하였다. 또 이전 직전 一〇월 三〇일부터 一十一月 三일까지 임시정부 의정원회의가 개최되었고 나도 참석하였다. 당시 전 임시정부 가옥에서 회의를 개최하는 것은 위험하기 때문에 다른 여관에서 개최하자고 하여 공안국에 보호를 요청한 바, 공안국은 여관에서의 회의 경계는 곤란하다고 해서 결국 앞의 판공처에서 개최하게 되었고, 개최기간 중에는 공안국으로부터 사복경관 五명이 장소 부근에서 경계를 담당하는 외에 長生路, 白得路, 學士路 및 판공처 입구 路次에는 제복경관 二명씩 증원 배치하여 경비하여 주기로 하였다.

公議는 오전 八시부터 一二시까지, 오후 二시부터 동 六시까지

출석자는 宋秉祚, 車利錫, 趙素昂, 朴昌世, 文逸民, 나(傍聽),

廣東에서 金明濬, 楊明鎭,

南京에서 尹琦燮,

上海에서 金弘叙,

방청자는 나, 李始榮, 趙琬九, 梁起鐸

등 회의내용은 전부 잊어 버렸는데 요는 임시정부의 발전 강화책에 관한 것으로서 임시공보 五九호 중에 기재되고 있으며 대한민국 一六년 一〇월 三十一일 임시의정원 정기회의에서 柳東說과 車利錫을 임시정부 국무위원에 선거하다.

- 一. 동 회의에서 趙琬九, 辛公濟, 文逸民 三의원을 임시의정원 상임위원에 선거하다.
 - 一. 대한민국 一六년 一十一月 二일 임시정부 국무회의에서 梁起鐸위원의 군무총장 사임원을 인준하고, 柳東說위원을 임시정부 군무총장에 추천하다.
 - 一. 金徹위원이 겸임하고 있던 직책은 그의 서거로 인하여 결원이 되었고, 車利錫위원은 임시정부 비서장을 겸직하게 되었다고 하는 사항은 그 때의 결한 것으로 五일간의 회의 중 국무회의도 개최되었다.
- 나는 그 후 京畿道の원으로서 의정원 의원에 선출되고 있었던 모양으로 그

후 회의도 없었고 車利錫, 宋秉祚 등이 임시정부와 함께 南京의 金九파(한국 국민당)와 합병할 때, 車利錫이 杭州 출발 즈음 나에 대하여 「군은 의정원의 원으로 되어 있으나 정식으로 된 것은 아니므로 금후로는 관계가 없다」는 것이었다. 또 그 이전 즉, 의정원회의(전술한) 후 車利錫이 上海에 가서 동지와 여러 가지 의논 후 귀향하여 「군과 金思渠는 京畿道の원으로 선출하게 되었다」고 한 일이 있었으므로 기간적으로는 약 一年간 의원이었다. 그런데 그 동안 의정원회의도 개최되지 않아서 참석한 일도 없다.

(바) 한국독립당 사무소 이전

임시정부 이전과 함께 독립당 사무소도 일본관현에 탐지 당하여 위험하므로 소화九년 一一월 중순, 杭州市體育場路三一四호로 이전하였는데 당시 사무소에 기거하는 자는 우리 부부, 金思渠, 梁起鐸 등이었다. 그 후 二·三개월 경과하여 車利錫, 文逸民이 동거하게 되었고 金料奉, 崔錫淳은 때때로 杭州에 와서 숙박하고 있었다.

위 기록을 읽어 들려주었더니 틀림없다는 뜻을 말하고 서명 무인하다.

공술자 朴敬淳

작성일 소화一三년 九월 一九일

부록 2. 臨時政府 獨立黨 所在件에 관한 日本領事館報告

[출전] 昭和九年(一九三四) 五月二十八日附 在上海石射總領事發信 廣田外務大臣
宛 報告要旨

大韓臨時政府 韓國獨立黨의 所在의 件

本件에 關하여 調査한 結果

- 一. 大韓臨時政府辦公處는 杭州長生路湖邊村三二號에 在한 模樣으로 目下 同所에 國務委員 宋秉祚梁起鐸及 金徹(澈)等 起居中인 것
 - 二. 韓國獨立黨事務所는 杭州學士路思鑫坊四十號에 目下 李相一 李世昌(李昌基라는)及 李判守(金中煥이라는) 金思濩朴敬淳等 起居中인 것
 - 三. 韓國獨立黨機關雜誌 震光의 發行所는 따로 實在치 않으나 同誌及 各種宣傳文은 杭州開元路青年□ 民國日報에서 印刷하고 있는 것
- 等 大略 確實하다고 認定한 程度로 判明되었는데 右大韓臨時政府辦公處及 獨立黨事務所에는 從來 同地에 있었던 李始榮趙琬九趙素昂等도 出入하고 있었다 한다 國務委員은 모두 獨立黨幹部로 全然 兩者同一體의 關係에 있어서 最近 獨立黨은 財政難에 陷하여 一時 事務所를 閉鎖하지 않을 수 없는 狀況에 다달았던바 獨立黨理事長兼 國務院首席 宋秉祚의 運動에 依하여 南京方面에서 相當多額의 資金을 얻은 듯하여 目下 奔走中인데 將次 買入한 後는 臨時政府辦公處와 黨事務所는 合併하는 것이 아닌가고 思料된다 그리고 詳細한 狀況은 左와 같다.

記

一. 臨時政府는

客年末 鎮江에서 議政院會議를 開催하고 國務委員을 選定하고 本年 一月 國務會議를 開催하였는데 當時 鎮江에 辦公處를 設하고 常務委員 朴昌世가 主로 執務하고 國務委員 金徹(澈)梁起鐸宋秉祚等도 屢次 來往하고 있는 模樣이었던 바 其後 朴昌世는 特務隊長으로 秘密 「테로」工作(三月三日 上海神社爆彈事件과 如한)에 專從하게 되었던 까닭으로 辦公處를 杭州로 移轉하고 目下 金徹(澈), 宋秉祚等이 主로 執務하고 있는 듯한 所聞을 얻어 極力 內偵中이던바 金

徹(澈)宋秉祚梁起鐸의 三名은 杭州長生路湖邊村三二號에 潛伏中인 것이 判明되었다 同所가 果然 臨時政府辦公處인가는 表面 何等의 表示가 없으므로 的確하지 않으나 從來부터 同地居住中の 趙素昂趙琬九 등이 盛히 出入하고 있을 뿐 아니라 從來 鎮江에 潛伏中の 朴昌世李雲煥도 三月下旬 杭州로 赴하여 「鎮江居住鮮人 方某家에 日本官憲이 來訪하여 危險하다」하고 繼續하여 同地에 潛伏하고 時時로 同所에 出入하고 있는 狀況이다 並 國務委員 某가 우리 密偵에게 漏洩한 말에 依하면 國務會議는 第一回 鎮江 第二回 杭州 第三回 上海 又是 南京 第四回 杭州에서 開催된 模樣인 것 등에 徵하여 同地에 一時的이나 臨時政府辦公處를 設置하였던 것으로 思料되는데 鎮江居住 姜昌濟는 友人에 對하여 「假政府는 依然 鎮江(鎮江의 江 건너 鎮丹을 가리킴)에 있다」고 漏洩한 事實이 있어서 急하게 杭州라고 斷定하기 어려운 點도 있다 要컨대 辦公處라 하나 常時 表現的 事務를 執行하는 것이 아니고 幹部가 多數 潛伏하는 場所가 其 中心이 되어 辦公處라고 認定하는 것이 妥當하다고 思考된다

二. 韓國獨立黨은

從來 同黨理事 金徹(澈)에 있어서 記錄을 保管하고 있었던바 同人의 甥姪 金哲이 客年 十二月二十二日 當館에 檢舉되자 同黨員 李世昌인 李昌基로 하여금 右記錄을 杭州로 運搬시켜 同地 龍興路鳳凰街大和里八號에 潛伏하고 梁起鐸等은 共히 臨時政府 再興에 奔走하여 本年 一月末 同地學士路思鑫坊四十號에 옮기고 南京으로부터 李相一 朴敬淳上海로부터 李中煥이라는 金判守 李世昌이라는 李昌基朴思濩等을 불러 同所를 獨立黨事務所로 하고 自己는 臨時政府辦公處로 認定되는 前記 湖邊村三十二號에 潛伏하여 雜誌 震光 發刊에 努力하고 있었다 그리고 李世昌은 主로 支那側과의 交渉에 當하고 李相一은 宣傳部長으로 震光의 諺文原稿를 趙素昂은 漢文原稿를 起草하고 있고 同地の 黨員은 屢屢히 會合하여 運動方針等 協議하고 있는 模樣으로 最近에 있어서는 四月三十日 五月十五日에 定期會를 開催하였는데 同地 黨員만의 會合은 杭州特區會라 稱하고 있다 그리고 同黨은 從來 財政難에 陷하여 前記 事務所의 家賃支拂조차 停滯할 形편으로 一時는 事務所를 閉鎖하지 아니치 못할 狀況에 다달았던 模樣이나 最近 理事長 宋秉祚는 南京 方面에 旅行하여 相當 多數의 資金을 獲得하여 온 듯하여 黨事務所에 充當하고자 目下 杭州 地方에서 物色中이라 한다.

三. 震光社

不逞鮮人機關紙 震光은 諺文은 震光社 名義로 漢文은 韓國獨立宣傳部 名義로써 發行하고 있는데 內偵한 結果 震光社라는 特別한 印刷所가 存在함이 아니고 前記와 如히 諺文原稿는 李相一 漢文原稿는 趙素昂이 主로 起草하고 李中煥은 植字組立을 當하고 朴敬淳金思溍은 英文翻譯 並 一切의 助力을 하고 있는 模樣이다 當初 此의 印刷할 것을 中國人 活版所에 依賴하였던바 拒絶되었으므로 李世昌이가 各方面과 接衝한 結果 民國日報社에서 印刷를 引受하여 爾來 諺漢文 震光 並 各種傳單 一切를 同 日報社에서 印刷하고 있고 또 浙江省黨部로부터 雜誌發行援助金으로 每月 四十元式 支給을 受하고 있다 한다 그리고 震光은 每號 諺文은 約五百部 漢文은 約千部를 印刷하여 總費用 約七十元을 要하며 資金으로는 廣東支部로부터 屢屢히 送金이 있는 模樣이다

부록 3. 증인 白井規一 심문조서

증인 白井規一

朴炯琦 외四名에 대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건 위반사건에 대하여 소
화 五年 一月二一日 光州지방법원에서
예심계 조선총독부 판사 藤本香藤
조선총독부 재판소 서기 藤井壽熊
열석하여 판사는 위 사람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신문하다.

문 성명, 연령, 직업 및 주거를 말하라.

답 성명은 白井規一

연령은 五二세

직업은 光州고등보통학교장

주거는 光州郡光州面樓門里

판사는 형사소송법 제一八六조 제一항에 기재된 사람인지 아닌지를 물어
그 해당하지 않음을 확인하고 증인으로 신문할 것을 말하고 위증의 벌을
유시하고 선서를 하게 하다.

문 증인은 언제부터 光州고등보통학교장을 하고 있는가.

답 대정 一三년 一二月부터 현재에 이르고 있다.

문 작년 一一월 三일에 고보생, 중학생이 쟁투했을 때 및 고보생의 시위운동
때의 일을 아는가.

답 나는 작년 一〇월 하순부터 전국 중등학교장 회의에 참석하기 위하여 일
본을 여행하고, 一一월 三일의 사건을 전보로 통지 받고 一一월 六일에 귀
교했으므로 사건 당시는 부재중이었으나 귀교 후에 渡邊교무주임, 기타의
직원에게서 사정을 청취하여 대체로 알고 있다.

문 위 쟁투는 어떤 원인에서 일어났는가.

답 고보생과 중학생과는 이전부터 적극적으로 친밀한 것은 아니지만 또 특별히 사이가 나쁜 것도 아니었다. 내가 취임 이래 별로 양자간의 충돌의 사실을 들은 일은 없다. 더구나 기차통학생 사이에는 사고가 일어나기 쉬우므로 고보교나 光중교 모두 기차통학생 사이에 각자 단장, 부단장을 두고 그리고 직원이 이 감독을 위하여 감독부장을 두어 학교에서 기차통학생에 대한 주의서를 배포하여 학년 초에는 감독부장이 통학주의를 훈시한다. 그리고 양교감독부장 사이에 연락을 취하여 사고 발생의 방지에 힘써 각별한 사고는 없었다. 작년 봄쫄靈岩역 부근에서 조선인이 개를 잡아 구워먹는 것을 기차 안에서 보고 중학생이 야만스러운 일을 한다고 말하는 것을 곁에서 듣고 있던 고보생이 야만이란 무엇인가, 취소하라고 하였으나 중학생이 취소하지 않았으므로 서로 싸웠다. 그 돌아오는 기차에서 같은 생도가 위중학생을 때려서 머리에 부상을 입힌 일이 있었다. 그리고 그 해 가을에 중학교 교정에서고보, 光중 대항 야구전이 있었을 때 양교생은 접근해 앉아서 강한 중학생 측에서 조소적인언사를 한 것에 대하여 고보생이 응수하여 직원이 제지한 일이 있었다. 이러한 사실이 양교생 사이에 감정소통을 저해하는 먼 원인이 된 것으로 생각한다. 그리고 중학교에서는 교장이 무저항주의를 고창하여 그 주의를 직원에게 철저히 하고 있어서 생도 사이에는 그것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고 우등 민족으로서 일단 낮은 사람에 대한 태도로 나오는 사람도 있어서 그것이 언어 동작에 나타나 평소 조선민족으로서 빼뜯어진 마음을 가지고 있는 고보생의 반항심을 유발할 우려가 있지 않을까 생각되며, 나도 중학교 쪽에 말한 일도 있다.

문 위 쟁투의 직접 원인은 무엇인가.

답 작년 一〇월 三〇일 羅州역에서 고보생 朴準琛는 그 친족인 여고생에 대하여 중학생 福田모가 二회 정도 그 앞길을 가로막아 모욕적인 태도로 나오는 것을 목격하고 싸움을 시작하여 순사가 제지했다. 헤어질 때 朴은 福田에게 내일 학교를 쉬지 말라고 말하므로 순사가 朴을 때린 일이 있었다. 다음 三一일에 光州松汀里 사이의 기차 안에서 朴과 福田은 또 싸움을 시작하여 차장이 二등실로 양인을 데리고 가서 조사를 하고 양인의 「패스」를

빼앗았다. 그 때 그 칸에 함께 있던 일본인 등이 福田에게 동정하여 朴準琛를 매도했기 때문에 朴은 억울하게 생각한 모양이었다. 다음 一일 아침에 福田이 위 사실을 학교에 보고하였으므로 중학교의 吉田교유가 본교에 보고했다. 朴準琛를 肥田감독부장이 조사하여 전술한 사정을 朴에게서 청취했다. 그 날 방과 후에 渡邊교유 등이 朴準琛를 훈계했다. 그 뒤 四시 三五분 열차에는 학생 감독을 위하여 長谷川교유가 데리고 역에 갔을 때는 이미 대다수의 양교생도가 승차해 있었다. 그 교유도 고보생 사이에 앉아 있었다. 발차하기 직전에 고보 四학년생 鄭世勉이 흥분되어 와서, 오늘은 싸움을 하려면 하자고 했다. 고보생은 일동이 하차했는데 중학생의 일부는 이미 플랫폼에 한패가 모여 있는 것을 보고 長谷川교유는 고보생을 대합실로 들어가게 했다. 그 때 중학교에서 달려온 牟川교유에게 중학생을 인도하고, 고보교에 전화로 보고했다. 그리고 鄭世勉의 말로는 당일 평소 기차통학생이 아닌 중학 五학년생 四·五명이 역에서 鄭世勉에 대하여 어제는 우리 학교 생도가 고보생에게 당했으니 오늘은복수한다고 했다는 것이다. 그러는 중에 고보교에서도, 중학교에서도 다수의 직원이 달려 왔다. 고보생은 대합실에서 역 출구로 돌아서 선로 상에 약 三칸 간격으로 중학생과 대치했는데, 쌍방에서 분리시켜 각자 학교로 돌아가게 했다. 직원과 생도가 말하기로는 그 때 중학생이 계속 도전적인 태도로 나와서 중학교 직원까지 격앙한 태도를 보였다. 고보측은 그것에 응전할 태도를 보였다고 한다. 그리고 고보생측은 졸업생 張載性 등의 힘을 빌려서 학교로 돌아가게 했다. 빈터에 집합하여 張載性 등이 생도의 행동을 훈계하여 달리 아무런 상의도 없이 조금 뒤에 해산했다. 다음 二일에는 별 이상이 없고, 다만 생도 사이에서 중학교에서는 교사가 생도를 응원하는데 고보의 교사는 냉담하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던 것 같다. 다음 三일에도 당시까지는 아무런 이상이 없고 사건 발발의 예감도 없었던 모양이다.

문 一一월 三일의 쟁투로 고보생 사이에서 미리 계획된 것이 아닌가.

답 우리 학교의 조사로는 그런 계획은 없었고 돌발적으로 일어난 것 같다.

문 福田은 여고보생에 대하여 어떤 모욕적인 행동을 했는가.

답 渡邊교유가 朴準琛를 조사했는데, 그것까지에 관해서는 분명한 것을 말하지 않았으므로 잘 모른다.

문 고보생의 학교 및 교사에 대한 태도는 어떤가.

답 내가 부임한 이래 대정 一四, 一五의 二년은 무사 평온하여 생도도 성실하게 수학했다. 그런데 소화 二년 五월 말 양일에 걸쳐 二·三학년생이 동맹휴교를 했는데, 매우 단순한 성질의 것이었으므로 무조건 사죄로 용서했었다. 그리고 소화 三년 六월 二五일, 二六일에 五학년생이 선동하여 四학년 내지 二학년까지를 합하여 또 동맹휴교를 했다. 그것은 五학년생李景杓가 공산주의 선전 뼈라를 살포했기 때문에 검거되었는데 그것에 동정한 것으로 주모자 二七명을 퇴학 처분했다. 그런데 소화 四년 三월 二三日 졸업식 당일에 퇴학된 생도 五인이 식당에 섞여 들어와서 전교생을 선동하여 다수의 낙제생이 있다고 허위선전을 했기 때문에 생도 일동이 나의 방으로 밀려와서 유리창을 깨고 난동을 부렸다. 그리고 六월경부터 二·三학년생이 태업기분이 되어 수업 방해 낙서를 하고, 나의 교탁에 작은 뱀을 놓은 사람도 있었으나, 위는 단순한 장난인 것 같았다. 그런데 七월 중에 二·三학년생이 一·二과 시험과목에 대하여 백지동맹을 했으므로 주모자 一三인을 무기정학에 처했다. 다음으로 一〇월 二〇일 운동회에서 二학년생이 단결하여 출장하지 않은 일이 있었다. 그것을 지금 회고해 보면 독서회라는 비밀결사가 조직된 것이 대정 一五년 一—월 三일이었으므로 위 사상단체의 출현에 따라 학생의 기풍이 점차 악화되고, 날로 학교교사에 반항하는 태도가 농후해진 것 같다. 그리고 고보생은 개인적으로 볼 때는 성실한 것 같으나 이면에 책동자가 있어서 생도가 그것에 부화뇌동하는 것 같다.

문 증인은 작년 一—월 一—일 고보생에 대하여 집단금지의 훈시를 했는가.

답 고보교는 一—월 四일부터 一〇일까지 휴교하고 一—일에 수업을 개시했는데, 一—일아침에 光州경찰서의 谷重경부보가 서장의 명이라고 하면서 고보생이 학교 내외를 불문하고 집단으로 단체적 행동을 하는 것을 당분간 금지하니 그것을 고보생 일반에게 통고하라는 전화가 있었으므로 나는

생도에게 전달할 것을 약속했다. 그 날 조회 때 전체 생도에게 경찰서장이 위와 같이 집단 및 단체행동의 금지명령이 있었다는 것을 알렸다. 그리고 나도 위 명령에 위반하지 않도록 주의를 주었다.

문 위 고지는 모든 생도가 들었는가.

답 당일 조회에 출석한 생도는 전부 들었을 것이다.

문 그 다음 一二일 아침 고보생이 시위운동을 했는가.

답 우리들 직원은 생도들 행동에 주의하고 있었는데, 一二일 조회 후 제一시간째 수업이 시작되자 곧 五학년 을(乙)조 교실에서 金尙南이 돌연 일어서서 조선어로 모두 나가자고 외치자 일동이 일어나 교실을 나가려고 했으므로 담임교유 香川嘉男이 그것을 제지하려 하였으나, 밀어붙이고 金尙南이 선두가 되어 二층 교실을 나와 계단을 내려와 현관으로 나왔다. 이어서 五학년 갑조, 四학년 이하의 생도도 교실을 나왔고, 一학년 갑, 을조는 五학년생 趙備杓가 문을 열고 나오라고 교사하여 출석생도 전부가 나와서 일단 집합했다가 교문 쪽으로 대단한 기세로 달려 나가서 교문을 나와 須寄屋町 쪽으로 달려 나갔으므로 제지할 틈도 없었다. 직원들은 겨우 그 뒤를 따라가니 역전 도로와의 교차점에 경찰의 비상선이 쳐져 있어서 일부 四·五〇명은 그 자리에 막혀서 직원이 학교로 데리고 왔다. 나머지 생도들은 들로 나뉘어 일부는 須寄屋町을 북진하여 弓町에서 사범학교 앞에 이르러 경찰관에게 검속되었다. 일부는 역전으로 향하여 달려갔는데 그들은 어떻게 되었는지 잘 모른다.

문 사범학교까지 행진한 생도의 수효는 어떤가.

답 당일 출석자는 二六〇여 명인데 그 중의 일부가 사범학교에까지 갔으므로 그 수효는 잘 모른다.

문 金尙南은 어떻게 되었는가.

답 그 날 조회가 시작되는 순간에 경찰관이 와서 金尙南이 오늘 시위운동을 선동할 계획이 있는 모양이므로 찾아 달라는 부탁이 있었으나, 그 당시의 형편으로 곧 잡지 못하고, 전술과 같이 그가 교실에서 선두가 되어 계단을 내려와서 현관으로 나가려고 하다가 경찰관에게 체포되었다.

문 생도들은 선전 삐라를 살포했는가.

답 교내에는 살포하는 것을 보지 못했으나 교문을 나가서 네거리 쪽부터 살포하기 시작한 것 같다.

문 생도들은 왜 그런 단체운동을 했는가.

답 모른다. 그리고 실제 운동에 참가한 생도도 대다수는 이유도 모르면서 갔으므로 주모자만 목적을 알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문 一학년 교실 앞에 삐라를 뿌린 사람은 없는가.

답 없는 것으로 생각한다.

진술자 白井規一

위 조서를 진술자에게 읽어 주었더니 틀림없다고 진술하고 서명 날인하다.

작성일 소화 五年 一月 二一일

光州지방법원

신문자 예심계 조선총독부 판사 藤本香藤

서 기 조선총독부 재판소 서기 藤井壽熊

위 등본임.

작성일 소화 五年 八月 二七일

등본인 光州지방법원

조선총독부 재판소 서기 能川藤

證 人 白井規一 訊問調書

부록 4. 이경채 관련 판결문

4-1. 소화3년 형공 제864, 891호

판결(判決)

본적 전라남도 광주군 광주면(光州面) 성저리(城低里) 76번지
주거 동도(同道) 광주군 서방면(瑞坊面) 풍향리(豐鄉里) 117의 6번지
광주고등보통학교 4년생 임주홍(林周弘) 당(當) 21년

본적 동도(同道) 영암군 군서면 동구림리(東鳩林里) 74번지
주거 동도(同道) 광주군 광주면(光州面) 서남리(瑞南里) 157번지
광주고등보통학교 3년생 최규창(崔圭昌) 당(當) 21년(年)

본적 주거 같음 동도(同道) 곡성군 화면(火面) 운곡리(雲谷里) 600번지
무직 정동화(鄭東華) 당(當) 20년(年)

본적 주거 같음 동도(同道) 장성군 장성면 장안리(長安里) 337번지
무직 변진설(邊鎭契) 당(當) 20년(年)

본적 동도(同道) 광주군 광주면(光州面) 양림리(楊林里) 562번지
주거 동도(同道) 광주군 광주면(光州面) 양림리(楊林里) 560번지
광주고등보통학교 4년생 박세영(朴世英) 당(當) 19년(年)

본적 주거 같음 동도(同道) 나주군 봉황면(鳳凰面) 233번지
광주고등보통학교 4년생 이만동(李萬童) 당(當) 21년(年)

【소화 13년 2월 11일 은사(恩赦)에 관한 증서에 의해 복권】

본적 주거 같음 동도(同道) 광주군 효천면 황선리(凰仙里)
광주고등보통학교 3년생 김기권(金基權) 당(當) 21년

본적 주거 같음 동도(同道) 광주군 대촌면(大村面) 칠석리(漆石里) 129번지
광주고등보통학교 4년생 서재호(徐在皓) 당(當) 21년(年)

본적 주거 같음 동도(同道) 광주군 대촌면(大村面) 칠석리(漆石里) 138번지
무직 서재익(徐在益) 이명 서재옥(徐在玉) 당(當) 24년(年)

위 피고 김기권(金基權) 및 기타의 피고 등에 대한 각 출판법(出版法), 보안법(保安法) 및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건 위반 피고 사건에 대하여 조선총독부 검사 주정규부(酒井赳夫)의 관여 후, 병합(併合) 심판함이 다음과 같다.

주문(主文)

피고 정동화(鄭東華), 박세영(朴世英)을 각 징역 10월, 피고 최규창(崔圭昌), 변진설(邊鎭契), 이만동(李萬童), 임주홍(林周弘)을 각 징역 8월, 피고 서재호(徐在皓), 서재익(徐在益), 김기권(金基權)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단 피고 서재익(徐在益)에 대해서는 2년간 위 형(刑)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 물건 중, 증 제6호에서 제11호, 제14호, 제15호, 제20호, 제22호에서 제25호, 제27호에서 제30호, 제32호에서 제34호, 제36호, 제38호, 제39호, 제40호, 제63호, 제67호에서 제71호, 제74호에서 제77호, 제88호, 제94호, 제101호에서 제107호, 제136호, 제139호, 제142호, 제143호, 제146호, 제148호는 이를 몰수한다.

이유(理由)

1. 피고 정동화(鄭東華)는 광주고등보통학교 제5년생, 피고 임주홍(林周弘), 변진설(邊鎭契), 박세영(朴世英), 이만동(李萬童), 서재호(徐在皓)는 동(同) 제4년생, 피고 최규창(崔圭昌), 김기권(金基權)은 동(同) 제3년생이다. 그런데 소화(昭和) 3년 6월 중, 제5학년생 이경채(李景采)가 치안유지법(治安維持法) 위반 사건의 피의자로 검거되어 퇴학 처분에 부처진 후, 그 결과 동(同) 제5년생 일동(一同)은 동교(同校) 백정(白井) 교장에 대해 이경채(李景采)의 복교(復校)

운동을 하였으나 귀담아듣지 않음에 의해 동(同) 교장의 태도에 불평을 품고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동(同) 제2, 3, 4년생과 함께 동맹휴교를 할 것을 계획하였고, 동월(同月) 26일 동(同) 교장에게 동교(同校) 장곡천욱(長谷川旭) 외 6명의 교사의 사직, 또는 반성을 요구하고, 기타 조선인 본위의 교육의 실현 및 이경채(李景采)의 복교 사항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진정서를 제출한 채 동맹휴교를 하기에 이르렀다.

이에 학교 당국에서는 이튿날 27일 피고 정동화(鄭東華), 변진설(邊鎭契) 등 27명을 퇴학 처분, 피고 박세영(朴世英), 이만동(李萬童), 서재호(徐在皓), 김기권(金基權) 등 281명을 무기정학 처분에 부치고, 피고 임주홍(林周弘), 최규창(崔圭昌)에 대해 임시정학을 명(命)하였다. 그러자 피고 등은 다른 동맹휴학생과 함께 그 결과를 더욱 공고히 하고 그 초지(初志)를 관철할 것을 기(期)하였다. 위의 피고 등은 다른 동맹휴학생과 함께 동년(同年) 7월 10일 무렵 피고 최규창(崔圭昌)의 하숙인 광주군 광주면(光州面) 서남리(瑞南里) 최동문(崔東文)의 집에서 회합하여 광주 읍내에 중앙본부를 설치하고, 동맹휴학 운동을 계속하던 중,

피고 정동화(鄭東華), 이만동(李萬童), 박세영(朴世英)은 동맹휴학생인 윤승현(尹昇鉉), 김부득(金富得) 등과 공모 후, 동월(同月) 16일 무렵 광주면(光州面) 누문리(樓門里) 장모(張某) 집에서 몰래 ‘광고보(光高普) 생도 일동(一同) 통고문’이라는 제목으로 ‘학부형 제씨(諸氏), 우리의 동맹휴학은 광고보(光高普) 노예교육 정책의 철채(鐵蹄), 침략자의 탄압이나 전제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아래 극도로 유린(蹂躪)되고 여지없이 기만당하고 있는 300명 노예의 최후의 비명이다. 학교 당국이 하는 바는, 우리들의 진짜 정신을 박탈하여 공허한 육혼(肉魂)을 만드는 가공할 정책이다. 우리들의 요구는 우리의 생명을 걸고 최후까지 투쟁해야 하는 문제라고 믿는다. 학교 당국의 배후에는 도(道) 당국, 경찰 등의 절대적 세력을 가지고 있으나, 우리들의 배후에는 오직 부형(父兄) 제씨(諸氏)만 있을 뿐이다. 제씨(諸氏) 중에는 자제(子弟)를 강압하여 서약서를 제출케 하고, 퇴학을 통쾌하다고 하며 학교 당국과 경찰서에 우리들의 내부 사정을 밀고하는 사람이 있는데 어찌 다음과 같이 우후(牛後 : 소

의 공동이라는 뜻으로 강자의 뒤를 따라 다니며 부림을 당하는 사람)가 되려 하는가. 고려해봐라. 자기 자식의 행복 때문에 우리들 일동(一同)과 투쟁하여 망하는 길로 가고, 민족을 팔고 빼앗겨가는 강산을 팔아 이로써 자기 개인의 향락을 받을 것인가, 자기의 자제(子弟) 개인을 위해 학교, 경찰 당국에 예속되기보다는 오히려 우리들 전체를 위해 분투하자. 이것이 문제를 빨리 해결할 유일한 방침이 있다. 지금 서약서를 제출해도 한 개인만의 통학은 도저히 불가능하다. 타산적으로 비판해봐라. 신조선 건설에 역사적 사명을 가지고 미약한 우리를 지도, 후원하여 용기를 북돋아 주고, 일치, 협력으로 문제의 해결에 노력할 것을 간절히 바란다.’ 운운의 불온문서 【증 제67호】 400통을 등사, 인쇄하여 그 무렵 이를 광주고등보통학교 학부형에게 배부, 반포함으로써 치안을 방해하였고,

2. 피고 이만동(李萬童), 변진설(邊鎭契), 박세영(朴世英), 김기권(金基權)은 전기(前記) 윤승현(尹昇鉉) 등과 함께 공모한 후, 동월(同月) 20일 무렵(頃) 피고인 이만동(李萬童)의 집에서 몰래 ‘집행본부 결과보고’라는 제목으로 ‘400의 용사들이여, 우리들의 전투는 점점 전개되어 간다. 이 투쟁은 광고보 전라도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 전 조선, 전 세계로 전개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전 조선의 수백만의 학생 대중은 우리들의 성공을 눈물로 머금고 갈망하고 있다. 용사들이여, 결사적으로 싸우자. 우리들의 승리는 동맹휴학한 우리들만에 국한된 것이 아니다. 피압박 백의민족의 해방의 초도(初道)이고, 소생의 원천이다. 용감한 투사여, 우리들의 생명이 계속될 때까지 싸우자. 학교 당국에 서약서를 제출하는 자는 역적이다. 박멸(撲滅), 매장(埋葬)하자.’ 운운의 불온문서 【증 제22호】 약 60통을 복사, 인쇄하여 그 무렵 이를 화순군 화순면(和順面) 광덕리(光德里) 동교(同校) 3학년 류기량(柳基亮) 외 수십 명의 학생에게 배부, 반포함으로써 동인(同人) 등을 협박하고 또 치안을 방해하였다.

3. 피고 임주홍(林周弘), 최규창(崔圭昌), 정동화(鄭東華), 변진설(邊鎭契), 이만동(李萬童), 박세영(朴世英), 서재호(徐在皓)는 윤승현(尹昇鉉)과 공모한 후, 동년(同年) 8월 초 무렵, 피고 서재호(徐在皓)의 집에서 몰래 ‘중앙본부의 격(檄)’이라는 제목으로 ‘친애하는 400의 형제들이여, 어떠한 난관을 만나더라도

도 우리들 형제는 단결력으로서 돌진해야 하며, 조선 교육의 소귀(牛耳) 총독부 학무국의 태도를 보라. 우리들의 요구가 정당하는 것을 자인(自認)함에도 불구하고, 본 동맹휴학단의 배후에는 사상의 암중비약(暗中飛躍)이 있다고 가정하고 광고보(光高普)를 폐쇄하려 하였다. 우리들은 폐교를 목표로 하여 투쟁해 왔으므로 폐교한다면 오히려 우리들의 승리이다. 우리들은 구(舊) 광고보(光高普) 노예교육의 쇠사슬을 분쇄한 신흥 학생 대중의 일분자(一分子)이다. 우리는 자유에 굶주린 자들이다. 자유 앞에서 죽음을 결심해야 한다. 금후(今後) 학교 당국으로부터 어떠한 불온문서가 도래하더라도 단연 이를 부정(否定)해야 한다. 그 문서야말로 그대들을 주구(走狗 : 사냥개, 앞잡이)로 만드는 노예교육의 입장권밖에 되지 않는다. 노예가 되는 것을 감수하지 않으려는 자는 단연 이에 반항해야 한다.' 운운(云云)하는 불온문서 【증 제14호】 및 '광고보 동맹휴학단이라 하여 '일한병합 후 이래 18년, 우리 민족은 일본 제국주의의 말발굽 아래에서 극도로 유린(蹂躪)되었다. 그들은 가혹한 경제적 착취를 감행하고, 그 수단으로 악독한 정치적 폭압으로 이를 아름답게 포장(美粧)하여 문화적 기만을 희롱하고 있다. 현재의 조선교육은 그들의 기만적 정책의 노골적인 본보기밖에 되지 않는다. 광고보(光高普) 교장 백정(白井)씨는 조선총동부 식민지 노예교육정책의 전형적 이행자로서 소위(所爲) 자기의 사명을 완수하려는 집 지키는 개일 뿐만 아니라, 소위(所爲) 폭압과 기만으로 자기 계급을 옹호하려는 데 필요한, 충실한 노예와 집 지키는 개, 앞잡이를 양성하는 데 급급함을 보건대, 우리들 400여 명의 형제는 절대절명(絶對絶命)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백정(白井)씨는 악마가 되어 소유한 악랄한 수단을 기탄없이 휘둘러 조선 교육계를 횡행(橫行 : 휘젓고 다님)하였다. 제1회 부형(父兄) 대회가 경과 후 동맹휴학 단행에 이르기까지의 경로를 보라. 우리들이 혈관에 피가 흐르는 이상, 이와 같은 악마를 교장으로 추대하여 수신(修身)을 배우는 것이 가능하겠는가. 우리가 불가피 적(的)으로 동맹휴학을 단행하였다. 제씨(諸氏)는 자제(子弟)를 그들의 노예로 만든다는 것을 감수할지도 모르나, 우리들 자제(子弟)는 죽음을 걸고 노예가 되는 것을 피하지 않으면 안된다. 부형(父兄) 제씨(諸氏)가 어떠한 강제를 당하더라도 우리들의 본래 뜻(素志)을 관철하지 않는 한은 노예 양성소에 입장할 수 없다' 운운(云云)의 불

운문서 【증 제15호】를 각 4백 통을 등사, 인쇄하여 이를 위의 생도 및 그 부형에게 배부, 반포함으로써 치안을 방해하였고,

4. 피고 임주홍(林周弘), 최규창(崔圭昌), 정동화(鄭東華), 변진설(邊鎭契), 이만동(李萬童)은 윤승현(尹昇鉉), 김기권(金基權)과 공모한 후, 동월(同月) 2일 무렵(頃) 최동문의 집에서 몰래 ‘광고보(光高普) 생도 일동(一同) 항의문’이라는 제목으로 각 공립보통학교장들 앞으로 ‘식민지 자제(子弟)의 육심(肉心: 육체와 마음)을 근본으로부터 물어 죽이는 독아적(毒牙的) 교육의 감행에 피로를 느끼고 있습니다. 금반(今般: 이번)에 우리 고보교생(高普校生) 일동(一同)의 동맹휴학 사건에 대한 귀하의 비판이 자주 귀에 전달되어 고고 있는데, 엄밀한 관찰로서 교육자적 온정 있는 비판이라고 생각합니까? 이러한 비과학적 비판은 모름지기 폐기해 주길 바랍니다. 귀교의 졸업생인 귀성(歸省) 중의 동맹휴학생을 경찰과 야합(野合)하여 마음대로 호출하고, 감언이설로 외관을 꾸미고 속마음을 속여 일본 제국주의 국가의 충실한 앞잡이가 될 것을 꾸짖고 유혹하였습니다. 다만, 우리들은 공립보통학교 재적 당시에는 귀교(貴校)의 생도였으나 지금은 완전 타인입니다. 귀하들은 간섭할 권리가 없고, 우리는 간섭을 받을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귀하 측의 일본 제국주의 국가의 앞잡이로 충실한 집 지키는 개가 되라는 이야기를 듣고 참을 수 있겠습니까.’ 운운의 불온문서 【증 제38호】 약 백 매를 복사, 인쇄하고, 그 무렵 광주공립보통학교 교장 외 수십 개 학교의 전남공립보통학교 교장에게 배부, 반포함으로써 치안을 방해하였다.

5. 피고 최규창(崔圭昌), 박세영(朴世英), 서재호(徐在皓) 등은 공모(共謀)한 후, 동월(同月) 5일 무렵 피고 서재호(徐在皓)의 집에서 몰래 ‘중앙본부 통신 경고문’이라는 제목으로 ‘군(君)은 과거에 있어서 우리 동맹휴학단의 열렬한 투사로서 학교 당국으로부터 퇴학이라는 명예의 포상을 받았지 않았는가. 우리들이 어떤 까닭으로 동맹휴학을 단행하였는지를 총괄적으로 말하면, 우리 학원 내의 자유 획득, 바뀌 말하면 피압박 계급의 해방운동밖에 없다. 따라서 우리들은 시종일관 사력을 다해 투쟁하지 않으면 안 된다. 군(君)이 퇴학 처분을 받은 후는 중대한 책임과 의무를 포기하고 투쟁을 회피하는 것은 어떠

한 이유인가. 군(君)의 신호에 지배받는 400명의 의사(義士)를 어떻게 할 셈인가. 억압과 박해로 짓밟힌 전 조선 학생 대중을 보라. 광고보(光高普)의 전적(戰績)을 물을 때는 군(君)은 어떠한 답변을 할 셈인가. 전 조선 학생 대중의 피와 눈물을 군(君)은 잊었는가. 군(君)은 용감히 서서 돌진해야 한다.' 운운(云云) 【증 제70호】의 불온문서 약 30통을 등사, 인쇄하여 이를 전기(前記) 퇴학 처분을 받은 학생 등에게 배부, 반포함으로써 치안을 방해하였고,

6. 피고 임주홍(林周弘), 정동화(鄭東華), 박세영(朴世英), 서재호(徐在晄)는 전기(前記) 윤승현(尹昇鉉) 등과 공모(共謀)한 후, 동월(同月) 24일 무렵, 피고 서재호(徐在晄)의 집에서 몰래 '중앙집행부의 상광(上光) 후의 실행 요목'이라는 제목으로 '동맹휴학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는 다른 학교로의 전교(轉校)를 엄금할 것, 중앙본부의 명령에는 절대로 복종할 것, 반동분자를 박살(撲殺)해야 한다. 우리의 운동을 저해하는 자(者)를 매장해야 한다. 노예교육의 근거지를 분쇄하고 간적(奸賊) 교장을 매장해야 하며, 한국 일본인의 공학(共學)은 절대로 반대한다.' 등의 문구를 기재한 불온문서 【증 33호】 백여 통을 등사, 인쇄하고, 그 무렵 광주면(光州面) 수기옥정(須奇屋町)의 동교(同校) 3년생 강대자(姜大者), 기타 학생에게 배부, 반포함으로써 동인(同人)들을 협박하고, 또한 치안을 방해하였고,

7. 피고 정동화(鄭東華)는 무기정학을 받은 전기(前記) 학생의 부형(父兄)인 광주면(光州面) 수기옥정(須奇屋町)의 송태환(宋台煥)과 이정상(李政相), 김재천(金在千), 강익수(姜益秀), 박계일(朴葵一)이 발기인(發起人)이 되어 서약서를 학교에 제출하고 동맹휴학 사건의 해결을 하도록 부형회(父兄會) 개최 준비 중임을 소문으로 듣고 이를 방해할 것을 계획하고, 피고 서재호(徐在晄), 서재익(徐在益), 서재옥(徐在玉)과 전기(前記) 윤승현(尹昇鉉)과 이대기(李大基), 최규창(崔圭昌) 등과 모의하고, 동인(同人) 등은 공모(共謀)한 후, 동월(同月) 30일 무렵(頃) 광주면(光州面) 서남리(瑞南里) 박만지(朴萬志) 집에서 피고 서재익(徐在益)이 소지한 등사판을 사용하여 멋대로 "광고보(光高普) 부형(父兄)대회 참석자를 박살, 타살하자. 광고보(光高普) 등교하는 자를 박살하자. 간적(奸賊), 요마(妖魔) 강익수(姜益秀), 이정상(李政相), 송태환(宋台煥), 김재

천(金在千), 박계일(朴葵一)이라 적은 불온한 선전 배라 【증 제41호】 약 7,000매를 인쇄하여 동아(同夜) 전기(前記) 송태환 집, 기타에 배부하고, 또 광주 읍내의 눈에 띄는 길가에 살포함으로써 동인(同人) 등을 협박하였다.

법률의 적용(法律 適用)

피고 정동화(鄭東華), 최규창(崔圭昌), 변진설(邊鎭契), 이만동(李萬童), 임주홍(林周弘), 박세영(朴世英), 서재호(徐在皓), 김기권(金基權)에 대해서는 보안법(保安法), 출판법(出版法) 제11조 제1항 제3호, 폭력행위 처벌에 관한 건 제1조, 형법(刑法) 제55조, 제54조 전단(前段) 제10조, 그리고 피고 정동화(鄭東華)에 대해서는 형법(刑法) 제222조 제1항, 제54조 전단(前段) 제10조, 제45조, 제47조, 제10조, 피고 서재익(徐在益)에 대해서는 출판법(出版法) 제11조 제1항, 제3호, 보안법(保安法) 제7조, 형법(刑法) 제25조, 형법(刑法) 제19조 제1항 제2호

소화(昭和) 3년 10월 5일

광주지방법원 조선총독부 판사 금자수현(金子秀顯)

4-2. 소화 3년 형공공 제573호

판결(判決)

전라남도 광주군 서방면(瑞坊面) 풍향리(豊鄉里)

광주고등보통학교 4년생 임주홍(林周弘) 당(當) 21년(年)

동도(同道) 장성군 장성면(長城面) 장안리(長安里)

무직 변진설(邊鎭契) 당(當) 20년(年)

위 보안법(保安法), 출판법(出版法),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건 등 위반

피고사건에 대해 광주지방법원이 언도한 각 징역 8월에 처한다는 판결에 대해 피고인으로부터 공소(控訴· 항소)가 신청되었으므로 당(當) 원(院)은 조선총독부 검사 대원용삼(大原龍三)의 관여, 심리를 마치고 판결함이 다음과 같다.

주문(主文)

피고인 임주홍(林周弘), 피고인 변진설(邊鎭契)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단 모두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 물건 중, 증 제14, 15, 22, 38호는 피고인 변진설(邊鎭契)에게 관계가 있고, 증 제33호는 피고인 임주홍(林周弘)에게 관계에 있어 모두 이를 몰수한다.

【임주홍(林周弘)에게 본형에 통 산입한 법정 미결구류일수 56일이다. 대구복심법원 검사】

이유(理由)

피고인 변진설(邊鎭契)은 광주공립고등보통학교 4학년에 재학 중이었던 자, 피고인 임주홍(林周弘)은 동교(同校) 4학년에 재학 중인 자이다. 소화(昭和) 3년(1928년) 6월 중, 당시 그는 5학년에 재학 중인 이경채(李景采)가 치안유지법(治安維持法) 위반 피의자로서 검거되어 광주지방법원에 기소되었기 때문에 (학)교 당국으로부터 퇴학 처분에 부쳐지게 된 결과, 5년생 일동(一同)은 동교(同校) 교장 백정규일(白井規一)에게 위 이경채(李景采)의 복교(復校)운동을 하였으나, 그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음에 의해, 동(同) 교장의 태도에 불평을 말하고, 끝내 동월(同月) 26일 동(同) 교장에게 미리 그 교수(教授) 상(上)의 태도에 대해 불만을 품고 있었던 동교(同校) 교사 장곡천옥(長谷川旭)의 6명의 사직과 선인(鮮人) 본위의 교육 실현 등의 희망 사항을 위 이경채(李景采)의 복교(復校) 사항과 함께 적은 진정서를 제출하였다. 그 후 교장의 유지(諭旨)를 받아들이지 않고 피고인 등을 시초로 2, 3, 4년생 일동(一同)과 함께 동맹휴교(同盟休校)를 하기에 이름으로써 (학)교 당국에서는 이튿날 27일

변진설(邊鎭契) 외 28명을 퇴학, 원심(原審) 상(相)⁴⁾ 피고인 박세영(朴世英) 외 284명을 무기징학, 피고인 임주홍(林周弘) 외 1명을 임시징학 처분에 부침에 의해 피고인 등은 더욱 이의 결속을 견고히 하여 그 소지(素地)를 관철할 것을 기(期)하고, 동년(同年) 7월 10일 무렵(頃) 밤, 원심(原審) 상(相) 피고인 최규창(崔圭昌)의 하숙집(下宿先)인 광주군 광주면(光州面) 서남리(瑞南里) 최동문(崔東文)의 집에 원심(原審) 상(相) 피고인 정동화(鄭東華), 최규창(崔圭昌), 이만동(李萬童), 박세영(朴世英), 서재호(徐在皓) 및 현재 도피 중인 윤승현(尹昇鉉) 등과 회합하여 광주 읍내에 중앙본부를 두고 일부의 사람은 통신서류를 기안(起案)하고 일부의 사람은 이를 인쇄 또는 반포하는 임무를 담당했고, 또 생도와 부형(父兄) 등의 행동을 탐사할 것과 광주 이외에는 지방대표를 설치하여 본부와 귀성(歸省)한 생도와의 연락을 도모하여 끝까지 (학)교 당국과 항쟁할 것을 협의하였고, 이후 맹휴 운동을 계속하고 있는 중,

제1. 피고인 임주홍(林周弘)은

(1) 동년(同年) 8월 24일 무렵 위의 협의에 기초하여 광주군 대촌면(大村面) 칠석리(漆石里) 229번지 원심(原審) 상(相) 피고인 서재호(徐在皓)의 집에서, 당해(當該)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반포의 목적으로 '상광(上光) 후의 실행 요목'이라는 제목의 "동맹휴학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는 다른 학교로의 전교(轉校)를 엄금할 것, 중앙본부의 명령에는 절대로 복종할 것, 반동분자를 박살해야 한다. 우리의 운동을 저해하는 자(者)를 매장해야 한다. 노예교육의 아성(牙城)을 분쇄하고 간적(奸賊) 교장을 매장해야 한다. 한국 일본인의 공학(共學)은 절대 반대한다. 【증 제33호】"라는 취지의 불온문서를 저작(著作)하였고,

(2) 원심(原審) 상(相) 피고인 정동화(鄭東華) 및 판시(判示) 윤승현(尹昇鉉)이 위와 같은 날 무렵, 원심(原審) 상(相) 피고인 박세영(朴世英) 등이 동소(同所)에서 등사판을 사용하여 해(該) 문서를 등사한 것 백여 통 가운데 30통을

4) 상(相) 피고인 '상(相)'은 여러 피고인 중 한 사람의 피고인에 대한 나머지 다른 피고인을 지칭함.

광주면(光州面) 수기옥정(須奇屋町) 강대자(姜大者), 기타에 배포함으로써 정치에 관하여 불온한 동작을 함으로 인하여 치안을 방해한 범행을 방조한 것이다.

제2. 피고인 변진설(邊鎭契)은

(1) 동년(同年) 7월 20일 무렵(頃) 윤승현(尹昇鉉)이 기안(起案)한 ‘경과보고’라는 제목의 “4백의 용사들이여, 우리들의 전투는 점점 전개되어 간다. 이 투쟁은 광고보(光高普), 전라도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다. 전 조선, 전 세계로 전개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전 선(鮮)의 수백만의 학생 대중은 우리들의 성공을 눈물로 머금고 갈망하고 있다. 용사여, 결사적으로 싸우자. 우리들의 승리는 맹휴한 우리들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다. 피압박 백의민족 해방의 초도(初道)이고, 소생의 원천인 용감한 투사여, 우리들의 생명이 계속될 때까지 싸우자. 학교 당국에 서약서를 제출하는 자는 역적이다. 박멸하여 매장하자. 운운(云云)” 【증 제22호】 라는 불온문서 약 20매를 불특정 다수의 사람에게 배포하려는 사정을 알면서도 원심(原審) 상(相) 피고인 이만동(李萬童)의 집에서 복사지를 사용하여 적었다. 동지(同志)인 원심(原審) 상(相) 피고인 이만동(李萬童), 박세영(朴世英)이 그 무렵 이를 광주 읍내의 다수의 학생 및 그 부형(父兄)에게 배포함으로써 정치에 관한 불온한 동작을 함으로 인하여 치안을 방해한 범행을 방조하였고,

(2) 동월(同月) 하순 무렵, 전기(前記) 윤승현(尹昇鉉)이 기안(起案)한 ‘항의문’이라는 제목의 “식민지 자제(子弟)의 육심(肉心)을 근본으로부터 물어 죽이는 독아적(毒牙的) 교육의 감행에 피로를 느끼고 있다. 금반(今般) 우리 고보교생 일동(一同)의 동맹휴학 사건에 대한 귀하의 비판이 귀에 들렸는데 엄밀한 관찰로서 한 교육자적 온정이 있는 비판이라고 생각하는가. 이러한 비과학적 비판은 모름지기 폐기해 주길 바란다. 귀교의 졸업생인 귀성(歸省) 중의 동맹휴학생을 경찰과 야합(野合)하여 제멋대로 호출하고, 감언이설로 외관을 꾸미고 속마음을 속여 일본 제국주의 국가의 충실한 주구(走狗)가 될 것을 꾸짖고 유혹하였다. 우리들은 공립보통학교 재적 당시에는 귀교(貴校)의 생도였

으나 지금은 또한 타인이다. 귀하들은 간섭할 권리가 없고 우리들은 간섭을 받을 필요도 없다. 귀하 측의 일본 제국주의 국가의 앞잡이로 충실한 집 지키는 개가 되라는 이야기를 듣고 참을 수 있겠는가. 운운(云云)” 【증 제38호】 라는 불온 문서를 불특정 다수의 사람에게 배포하려는 사정을 알면서도 당시 동(同) 피고인이 하숙하고 있던 광주면(光州面) 향사리(鄕社里) 정수태(丁秀泰)의 집에서 약 20매를 복사했고, 동년(同年) 8월 하순 무렵 원심(原審) 상(相) 피고인 정동화(鄭東華)가 곡성, 순천 등의 공립고등보통학교장 외 다수의 학교장에게 배포함으로써 치안을 방해한 범행을 방조하였고,

(3) 동년(同年) 8월 초순 무렵(頃) 전기(前記) 윤승현(尹昇鉉)이 당(當) 해(該)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배포의 목적으로서 기안(起案)한 ‘격(檄)’이라는 제목의 “친애하는 4백의 형제들이여, 어떤 난관을 만나더라도 우리들의 형제는 단결력으로 돌진해야 한다. 조선 교육의 쇠귀(牛耳) 총독부 학무국의 태도를 보라. 우리들의 요구가 정당하다는 것을 자인(自認)함에도 불구하고, 동맹 휴학단의 배후에는 사상의 암중비약(暗中飛躍)이 있다고 가정하고, 광고보(光高普)를 폐쇄하려 하였다. 우리들은 폐교를 목표로 하여 투쟁해 왔으므로 폐교한다면 오히려 우리들의 승리이다. 우리들은 구(舊) 광보(光普) 노예교육의 쇠사슬을 분쇄한 신흥 학생 대중의 일분자(一分子)이다. 우리들은 자유에 굶주린 자(者)이다. 자유 앞에서 죽음을 결심해야 한다. 이후 학교 당국으로부터 어떠한 불온문서가 도래하더라도 단연 이를 부정해야 한다. 그 문서야말로 군(君) 등을 주구(走狗)로 만든 노예 교육장의 입장권 밖에 되지 않는다. 노예가 되는 것을 감수하지 않으려는 자는 단연 이에 반항해야 한다. 운운(云云)” 【증 제14호】, “일한(日韓) 병합 후 이래 18년 우리 민족은 일본 제국주의의 말발굽 아래에서 극도로 유린(蹂躪)되었다. 그들은 가혹한 경제적 착취를 감행하고, 이것이 수단으로 악독한 정치적 폭압으로 이를 아름답게 꾸며 문화적 기만을 희롱하고 있다. 현재의 조선 교육은 그들의 기만적 정책의 노골적인 본보기밖에 되지 않는다. 광고보(光高普) 교장 백정(白井)씨는 조선총독부 식민지 노예교육정책의 전형적 이행자로서 소위(所爲) 자기의 사명을 완수하려는 집 지키는 개일 뿐만 아니라, 소위(所爲) 폭압과 기만으로 자기

계급을 옹호하는 데 필요한 충실한 노예와 집 지키는 개, 주구(走狗)를 양성하는 데 급급함을 보건대, 우리들 4백여 명의 형제는 절대절명(絶對絶命)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백정(白井)씨는 악마가 되어 소유하고 있던 악랄한 수단을 기탄없이 휘둘러 조선 교육계에 횡행(橫行: 휘젓고 다님)하여, 제1회의 부형(父兄) 대회가 경과 후 동맹휴학의 단행에 이르기까지의 경로를 보라. 우리들이 혈관에 피가 흐르는 이상은 이와 같은 악마를 교장으로 모시고 수신(修身)을 배우는 것이 가능하겠는가. 우리들은 불가피적으로 동맹휴교를 단행하였다. 제씨(諸氏)는 자제(子弟)를 저들의 노예로 만든다는 것을 감수할지도 모르지만, 우리들의 자제(子弟)는 죽음을 걸고 노예가 되는 것을 피하지 않으면 안 된다. 부형(父兄) 제씨(諸氏)가 어떻게 강제해도 우리들의 소지(素地)를 관철하지 않는 한은 노예 양성소에 입장할 수 없다. 운운(云云)”【증 제15호】이라는 불운문서를 그 사정을 알면서도 원심(原審) 상(相) 피고인 서재호(徐在皓)의 집에서 등사원지에 적었다. 동지(同志)인 윤승현(尹昇鉉), 원심(原審) 상(相) 피고인 박세영(朴世英)이 그 무렵 전개(前掲) 서재호(徐在皓)의 집에서 등사관을 사용하여 각 약 3백 통을 인쇄한 행위를 방조한 것이다.

자세히 살펴보면, 판시(判示) 앞부분에서 설명한 것과 같은 사유로, 광주 공립고등보통학교 제2, 3, 4, 5년생 일동(一同)이 소화(昭和) 3년 6월 26일부터 동맹휴교를 하게 된 것은 원심(原審) 공판(公判) 조서 소재 원심(原審) 상(相) 피고인 정동화(鄭東華) 및 피고인 변진설(邊鎭契)의 각 공술(供述)에 의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 등이 모두 당시 동교(同校) 제4학년생으로 해(該) 맹휴에 가입한 사실 및 (학)교 당국에서 동월(同月) 27일 동맹휴교를 한 생도에 대하여 판시(判示)와 같은 처분을 하였기에 피고인 등은 더욱 이것이 결속을 굳게 하고 그 소지(素地)를 관철할 것을 기(期)하고, 동년(同年) 7월 10일 무렵 밤, 판시(判示) 최동문의 집에서 윤승현(尹昇鉉) 및 원심(原審) 상(相) 피고인 정동화(鄭東華), 최규창(崔圭昌), 이만동(李萬童), 박세영(朴世英), 서재호(徐在皓), 김기권(金基權) 외 십 수 명이 회합하여 판시(判示)와 같은 사항을 의결한 사실은

피고인 임주홍(林周弘)에 대한 검사 신문(訊問) 조서 【569쪽(丁) 이하】에 그 취지의 공술(供述) 기재가 있고, 원심(原審) 공판(公判) 조서에 피고인 변진설(邊鎭契) 및 원심(原審) 상(相) 피고인 정동화(鄭東華), 최규창(崔圭昌), 이만동(李萬童), 박세영(朴世英)이 모두 당일(當日) 동(同) 회의에 열석(列席)하여 판시(判示)와 같은 사항을 의결하였다는 취지의 각 공술(供述) 기재가 있음에 의해 명백하고,

피고인 등 동맹휴학생이 위에 서술한 것과 같은 방법을 획책하여 오로지 동맹휴학 운동을 계속하는 중에 피고인 임주홍(林周弘)이 판시(判示)와 같은 범행을 감행한 것을 동(同) 피고인은 당(當) 공판정에서 이를 부인(否認)하고, 판시(判示)와 같이 문서를 기안(起案)한 것은 윤승현(尹昇鉉)이라는 취지로 변명하였으나, 원심(原審) 상(相) 피고인 박세영(朴世英)의 원심(原審) 공판(公判) 조서에 판시(判示)와 같은 문구의 기재가 있는 원고는 판시(判示)의 일시(日時) 무렵, 임주홍(林周弘)으로부터 교부를 받았다는 취지, 동인(同人)에 대한 검사 신문(訊問) 조서에 판시(判示) 증 제33호의 원고(原稿)는 판시(判示) 서재호(徐在皓)의 집에서 임주홍(林周弘)으로부터 교부받았다는 취지의 각 공술(供述) 기재, 원심(原審) 상(相) 피고인 정동화(鄭東華)에 대한 검사 신문(訊問) 조서와 같은 박세영(朴世英), 최규창(崔圭昌)에 대한 사법경찰관의 신문(訊問) 조서 【118쪽(丁) 이하, 94쪽(丁) 이하】에 있는 각 공술(供述) 기재에 비추어 인정할 수 있고,

임주홍(林周弘)은 최규창(崔圭昌) 등과 함께 오로지 각 문서의 원고 작성의 임무를 맡고 있었다는 사실 및 압수에 관계된 증 제33호의 기재 내용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判示)와 같은 문서를 기안(起案)한 사실을 살펴 알 수 있는데, 위와 서술한 바와 같은 취지의 문언(文言)은 보안법(保安法)에 소위(所爲) 정치에 관하여 불온한 언론으로 현재 조선에서의 사회의 안녕, 질서를 방해하기에 족한 것이라고 인정하는 것을 타당하다. 그리고 해(該) 문서가 인쇄되었다는 것은 전개(前掲) 박세영(朴世英)의 원심(原審) 공판(公判) 조서 중, 자신은 임주홍(林周弘)으로부터 이를 받아 서재호(徐在皓)와 함께 이를 인쇄하였다는 취지, 동인(同人)에 대한 사법경찰관의 신문(訊問) 조서 【118쪽(丁)

이하】에 자신은 등사판을 사용하여 이를 등사하였다는 취지의 각 공술(供述) 기재가 있음에 의해, 해(該) 인쇄가 동(同) 피고인의 인식에 기초하여 이루어졌다는 사실과 해(該) 문서는 이를 반포할 목적 아래 기안(起案)된 것은 전개(前揭) 동(同) 피고인에 대한 검사 신문(訊問) 조서에 7월 10일 최동문의 집에 자신 및 박세영(朴世英) 외 20명 정도가 집합하였을 때, 동맹휴학생도 사이의 결속을 공고히 하고, 그 소지(素地)를 관철시키기 위해 동맹휴학생의 일부의 사람은 각종의 문서를 기안(起案)하고, 일부의 사람은 이를 인쇄 또는 반포하는 임무를 맡을 것을 협의하였다는 취지, 전개(前揭) 박세영(朴世英)에 대한 사법경찰관의 신문(訊問) 조서에 자신이 인쇄한 것은 임주홍(林周弘)의 의뢰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취지의 각 공술(供述) 기재에 증 제33호 【해(該) 문서가 인쇄된 것】의 기재 내용이 동맹휴학생도 사이의 결속을 공고히 하고 그 소지(素地)를 관철해야 한다는 취지인 등의 사실을 참작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고, 해(該) 문서의 출판에 대하여 허가가 없었다는 것은 동(同) 피고인의 당(當) 공판정에서 한 공술(供述) 자체에 비추어 명백하므로, 동(同) 피고인에 대한 판시(判示)와 같이 저작자의 죄(罪)를 인정한 까닭(所以)이다.

그리고 전개(前揭) 정동화(鄭東華)에 대한 검사 신문(訊問) 조서 【693쪽(丁) 이하】에 증 제33호는 100부 정도 자신의 집으로 배포되었으므로 그중 30부를 판시(判示) 강대자에게 생도에 배포하라고 말하고 교부하였다는 취지, 전개(前揭) 이만동(李萬童)에 대한 동(同) 관(官)의 신문(訊問) 조서 【702쪽(丁) 이하】에 증 33호와 같은 것은 윤승현(尹昇鉉) 등이 생도 및 부형(父兄)에 배포하였다는 취지의 공술(供述) 기재, 전단(前段) 인정한 바와 같이 해(該) 인쇄물의 내용이 정치에 관하여 불온한 언론을 포함하고 있는 사실을 종합하면, 원심(原審) 상(相) 피고인 정동화(鄭東華), 윤승현(尹昇鉉) 등은 해당 인쇄물을 판시(判示) 강대자 등 불특정 다수인의 시청(視聽)에 접촉시킨 것으로 즉, 정치에 관하여 불온한 동작을 함으로 인해 치안을 방해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바, 해(該) 인쇄물의 내용은 동(同) 피고인이 반포할 목적으로 작위(作爲)한 것이라는 사실은 전단(前段)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동(同) 피고인이 정동화(鄭東華) 등의 위 범행을 용이하게 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따라서 동(同) 피고인의 변명을 배척하고 판시(判示)와 같이 인정하는 이유이다.

이어서 피고인 변진설(邊鎭契)의 범죄 사실에 살펴보건대, 동(同) 피고인이 판시(判示) (1) 및 (2)와 같은 취지의 문서를 판시의 각 일시(日時), 장소(場所)에서 불특정 다수인에 배포된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판시(判示)와 같이 복사한 사실은 동(同) 피고인의 당(當) 공판정에서 한 그러한 내용의 공술(供述), 압수한 증 제22, 38호의 각 기재 내용을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는데, 위와 같은 문서는 모두 보안법(保安法)에 소위(所爲) 정치에 관한 불온한 언론이라고 인정함이 타당하다.

그리고 원심(原審) 상(相) 피고인 박세영(朴世英)에 대한 검사 신문(訊問) 조서에 증 제22호와 동일한 것을 50-60장 판시(判示) 일시(日時) 무렵에 광주 읍내의 생도 다수에게 배포하였다는 내용, 동(同) 이만동(李萬童)에 대한 동(同) 관(官)의 신문(訊問) 조서 【596쪽(丁) 이하】에 증 제22호와 동일(同一)한 것을 자신은 생도 및 부형(父兄)에게 우송(郵送)하였다는 내용, 위의 정동화(鄭東華)에 대한 검사 신문(訊問) 조서 【593쪽(丁) 이하】에 증 제38호와 동일(同日)한 것을 동년(同年) 8월 상순(上旬) 무렵 곡성, 순천 등의 보통학교에 우송(郵送)하고 또한 지방대표인 유병후(柳炳厚), 전정남(田正南) 등에게 다른 사람에게 배포하라고 말하고 다수를 송부하였다는 내용의 각 공술(供述) 기재에 의하면, 원심(原審) 상(相) 피고인 박세영(朴世英), 이만동(李萬童), 정동화(鄭東華) 등은 위와 같은 불온문서를 불특정 다수인의 시청(視聽)에 접촉시킨 것으로 즉, 정치에 관하여 불온한 동작을 함으로써 치안방해를 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고,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인은 해당 문서를 복사하였으므로 위의 이만동(李萬童) 등의 위 범행을 용이하게 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리고 동(同) 피고인이 판시(判示) 윤승현(尹昇鉉)이 당해(當該)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반포의 목적으로 기안(起案)한 것이라는 사정을 알고 판시(判示) (3)과 같은 문서를 판시(判示)의 일시(日時), 장소(場所)에서 등사할 용도로 사용할 원지에 적은 사실은 동(同) 피고인의 당(當) 공판정에서 한 그러한 내용의 공술(供述), 증 제14, 15의 기재 내용을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는데, 위와 같은 취지의 문서는 현재 조선에서의 사회의 안녕, 질서를 방해하기에 충분하다고 인정함이 타당하다.

그리고 위 윤승현(尹昇鉉) 및 박세영(朴世英)이 이를 등사판을 사용하여 등사한 사실은 원심(原審) 상(相) 피고인 박세영(朴世英)에 대한 검사 신문(訊問) 조서에 자신은 판시(判示) 장소(場所)에서 윤승현(尹昇鉉)과 함께 증 제14, 15와 동일(同一)한 것을 등사판으로 각 300통씩 등사하였다는 내용의 공술(供述) 기재에 의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은 위 윤승현(尹昇鉉), 박세영(朴世英)의 인쇄행위를 용이하게 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으므로 판시(判示)와 같이 인정한 것이다.

법에 비추어 보건대, 피고인 임주홍(林周弘)의 판시(判示) 소위(所爲) 중에 출판법(出版法) 위반의 점(點)은 출판법(出版法) 제11조 제1항 제3호에, 보안법(保安法) 위반 방조의 점은 각 보안법(保安法) 제7조, 형법(刑法) 제62조 제1항에 해당하므로 형사령 제42조를 적용하고, 후자(後者)에 대하여는 그 징역형을 선택한다. 그리고 형법(刑法) 제63조, 제68조 제3호에 의해 법정(法定)의 감형을 한다. 이상 병합죄(竝合罪)이므로 동법(同法) 제45조, 제47조, 제10조에 따라 그 가운데 무거운 판시(判示) 윤승현(尹昇鉉)의 보안법(保安法) 위반 방조죄의 형(刑)에 법정(法定)의 가중을 한다. 피고인 변진설(邊鎭契)의 판시(判示) 소위(所爲) 중에 출판법 위반 방조의 점은 각 출판법(出版法) 제11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刑法) 제62조 제1항에, 보안법(保安法) 방조의 점은 각 보안법(保安法) 제7조, 형법(刑法) 제62조 제1항에 각 해당하므로 모두 형사령 제42조를 적용하고 후자에 대하여는 그 징역형을 선택한다. 그리고 모두 형법(刑法) 제63조 제68조 제3호에 의해 법정(法定)의 감형을 한다.

이상 모두 병합죄(竝合罪)이므로 동법(同法) 제45조, 제47조, 제10조를 적용하여 그 가운데 무거운 판시(判示) 이만동(李萬童)의 보안법(保安法) 위반 행위 방조죄의 형(刑)에 법정의 가중을 하여 피고인들에게 각각 주문의 형(刑)을 양정(量定)하여 처단할 것이나, 피고인들의 연령, 경우, 동기 및 그 개전(改愾)의 정 등을 참작하여 형법(刑法) 제25조를 적용하여 모두 4년간 위 형(刑)의 집행유예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한다.

그리고 압수한 주문 기기(摺記)의 물건 중에 증 제14, 15호는 피고인 변진

설(邊鎮契)의 판시(判示) 범행에서부터, 제33호는 피고인 임주홍(林周弘)의 판시(判示) 범행에서부터 각 발생한 것이고, 그 나머지 물건은 피고인 변진설(邊鎮契)의 판시(判示) 범행에 이용된 것으로 피고인 또는 그들의 공범자 이외의 사람에게 속하지 않으므로 동법(同法) 제19조에 의해 이를 몰수할 것이다.

공소(公訴) 사실 중,

제1. 피고인 임주홍(林周弘)이 다른 여러 명과 공모한 끝에,

(1) 소화(昭和) 3년 8월 초순 무렵(頃) 서재호(徐在皓)의 집에서 당해(當該)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반포의 목적으로 판시(判示) 증 제 14, 15와 같은 불온문서를 저작, 인쇄하여 이를 광주공립고등보통학교 생도 및 그 부형에게 배포, 반포함으로써 치안을 방해하고,

(2) 동월(同月) 2일 무렵(頃) 최동문의 집에서 판시(判示) 증 제38호와 같은 불온문서를 광주공립보통학교장 외 수십 개의 학교의 전남공립보통학교장에 배포함으로써 치안을 방해하고,

(3) 동월(同月) 24일 무렵(頃) 서재호(徐在皓)의 집에서 판시(判示) 증 제33호와 같은 불온문서를 인쇄하여 이를 동교(同校) 3년생 강대자, 기타에게 배포, 반포함으로써 동인(同人)들을 협박하고,

제2. 피고인 변진설(邊鎮契)이 판시(判示) 증 제14, 15와 같은 불온문서를 저작하여 반포하고, 증 제22호와 같은 문서를 소화(昭和) 3년 7월 20일 무렵 유기량(柳基亮) 외 다수의 사람에게 배포함으로써 동인(同人)들을 협박하였다는 점에 대하여는 모두 이를 인정할 범죄의 증거가 없다.

제3. 피고인 두 사람이 다른 여러 명과 공모한 후 동년(同年) 8월 2일 무렵 최동문의 집에서 판시(判示) 증 제38호와 같은 불온문서를 저작, 인쇄하여 이를 배포하였다는 점,

제4. 피고인 변진설(邊鎭契)이 다른 여러 명과 공모한 후 동년(同年) 7월 20일 이만동(李萬童)의 집에서 판시(判示) 증 제22호와 같은 불온문서를 저작, 인쇄하여 이를 반포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위의 증 제38호, 증 제22호 같은 것은 복사지에 의해 복사된 것이라는 사실은 당(當) 공판정에서 한 변진설(邊鎭契)의 공술(供述) 및 동(同) 호(號) 증거 자체에 비추어 명백하지만, 복사지를 사용하여 골필(骨筆: 먹지를 대고 복사할 때 쓰는 필기도구)의 운용에 의해 문서를 복사하는 것은 출판법(出版法)에 소위(所爲) 인쇄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를 저작하여 반포하였더라도 조금도 출판법(出版法)에 위반된다고 말할 수 없다. 그러므로 이상 제1에서 제4의 공소(公訴) 사실은 모두 무죄로 할 것이나, 위는 모두 위의 유죄로 인정된 피고인들의 소위(所爲)와 결국 연속 또는 견련(牽聯)⁵⁾된 1죄로서 기소된 것이라 인정할 수 있으므로 특별히 무죄의 언도를 하지 않는다.

이에 본건 공소(控訴)를 이유 있다고 보고 주문과 같이 판결하였다.

소화(昭和) 3년 11월 29일

대구복심법원 형사부

재판장 조선총독부 판사 김응모(金膺模)

조선총독부 판사 장기상(張基相)

조선총독부 판사 촌전좌문(村田左文)

5) 서로 얽히어 관계를 가지게 되는 하나의 죄.

4-3. 임주홍 진정서(대구복심법원 형사부 1930.12.8.)

진정서(陳情書)

대구형무소

치안유지법 위반 피고인 임주홍(林周弘)

이유(理由)

사의(私儀)

치안유지법 위반 피고사건에 대하여 제가 잠깐 진술합니다. 대저 인간은 사회적 동물일 뿐만 아니라 사회 안에서만 존립할 수 있기 때문에, 고독한 생존 즉 사회를 떠나서는 존재할 수 없는 동시에 사회 그 자체도 인간을 제외하면 결코 성립될 수 없습니다. 또 인간적인 것으로서 인간에게 관계가 없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때문에 사회는 개인의 유기적 결합에 의하여만 성립 존재할 수 있는 것이요, 개인은 사회 조직의 구성적 한 요소로서만 자기 존재권을 향유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회와 개인은 생존상에서 어떤 일정한 목적 하에 통일된 일체이어서 그곳에 하등 개인으로서 개성을 인정하여 사회와 떨어져 구별하여 고찰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은 없는 것입니다. 가장 엄밀한 구체적 의미로 말하자면 인간의 생존을 위한 권리는 한편으로는 그것이 생성과정에 있음과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는 행사과정에 있기 때문에 인간의 존재권 향유는 개인의 생존과정임과 동시에 사회의 형성과정이라고 하여도 타당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사회적 생활에서 빈부귀천 그 누구를 불문하고 현실적 생활에서도 보다 선한 생활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 사회의 역사는 사회조직에서 경제적 생산력 및 문화의 보다 낮은 단계로부터 보다 높은 단계로 진화 발전하고 현재도 역시 발전하고 있는 것을 웅변으로 이야기할 뿐만 아니라 학문적으로는 현대 자연과학 및 사회과학이 사실에서 우리 환경을 형성하고 있는 바의 현실 그 자체가 우리에게

게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역사 앞에서 인간은 어떻게 하여도 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역사는 인간을 떠나서는 있을 수 없는 것이요, 따라서 인간은 어떤 일정한 조건 하에 자기의 역사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즉 역사적 그 시대의 객관적 정세 하에서만 자기의 역사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역사적 산물임과 동시에 역사의 창조주입니다. 그리하여 인간의 동물적 생활의 영역으로부터 인간성으로의 해방은 인간 사회진화 법칙의 역사적 필연이라는 인식에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역사적 필연의 인식에서만 필연으로부터 자유로의 발전이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이러한 필연성을 인식할 수 없는 한 우리의 동물성으로부터 인간성으로의 해방 즉 자유는 하나의 허구요 가공적인 것에 불과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유라는 것은 필연의 인식이요, 그것이 인식되지 않는 한 필연은 맹목(盲目)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인간은 그것을 인식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음과 동시에 자신의 활동 여하에 따라 필연의 인식을 위한 힘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점이 인간이 만물의 영장인 까닭이요, 진정한 가치가 있는 것이며, 이러한 의미에서 모든 과학은 역사적 필연의 인식을 위한 탐조등이요, 인간의 동물성으로부터 인간성으로의 해방 즉 필연으로부터 자유로의 발전을 위한 나침반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과학은 인간의 그 진정한 의미에서의 사회적 생활에서 불가결한 필요물일뿐만 아니라 본래 의미에서 과학의 역사적 가치가 있고, 그 위대한 힘이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물은 그 현상 형태와 본질이 전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태양이 동에서 떠올라서 서쪽으로 지는 것처럼 보이는 것 같이, 또 술을 마실 경우에 과학적 의미의 실제에서는 체온이 내려감에도 불구하고 열을 느끼는 것 같은 것도 모두 그런 것입니다. 이것이 보통 우리가 말하는 바의 상식이라고 하지만 비과학적인 고찰에서 일어난 자연 및 사회상의 일반적인 착각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의미에서는 과학은 상식과 투쟁해야 할 숙명을 가지고 있다고 해야 할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본건의 일부의 주체인 우리 성진회원(暉進會員)은 지금에 생각하면 인간의 사회적 생활에서 불가결한 필요물 즉 과학적 지식을 습득하여 동물성적인 생활의 영역에서 이탈하여 인간적인 진정한 의미에서 문화적 생

활을 영위할 것을 희망하여 자연과학만 아니라 사회과학도 포함한 바의 넓은 범위의 과학을 연구할 것을 최상 또 최대의 목적으로 하여 학생 사이에서 독서회인 성진회를 조직한 것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 회의 성질상에서 본다면 차라리 단순 또 완전히 조직했다고 말하기보다는 성진회를 조직하려 합의한 발기인회 같은 것이라고 말하는 편이 타당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1심 재판장에게 제출한 진술서의 내용은 이 회(會) 조직을 위한 촉진적 사항의 일면은 있었지만, 그 진술서와 같은 사실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 회를 조직할 것을 합의하자, 혹은 또 조직하자, 아무튼 우리가 과학연구의 목적으로 성진회(暎進會)라는 명칭 아래 조직할 것 및 형식상만 아니라 실질상에서도 (그것을) 해산한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예심종결결정서 및 제1심 판결서 이유에 성진회의 목적이던 제1과 같은 목적은 그 목적으로 비밀결사적인 사상단체를 조직하고자 하였다는 것은 물론 조금도 본 피고인에게는 50일생의 거의 반평생 가까이 이르러서도 아직 꿈꿔보지 못한 사상의 사항입니다. 이를 증거하자면 많은 이유가 있고, 다양한 사실도 있지만, 한 예를 들자면 이 회의 조직 당시의 우리 교육 및 학문상에서 지식범위의 좁은 것 및 사회에 대한 의식적 이해가 천박함을 들어 미루어 생각할 수 있지만, 생각하는 절반은 지나친 것이 있을 것입니다. 즉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사유재산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며, 그 제도라는 것은 어떠한고, 공산주의라는 것은 어떠한 것이냐에 대하여 전혀 무지 맹목이었던 우리들이 한 나라의 공산주의적 사회운동을 지도하는 전위(前衛)로서 공산당이 가진 목적을 어떻게 가질 수 있겠는가?

또 일본제국의 통치권을 비난하여 조선을 독립시킬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지만, 이에 대하여도 전혀 문제될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가령 우리가 소위 민족적 의식이 강렬하여 순수한 조선의 민족적 독립운동을 일으킬 것을 희망하여도 조선은 일본의 지배 아래 있을 뿐만 아니라 일본과 조선과는 사회상의 현실적 세력 문제에서 비교할 정도가 도저히 되지 못하고, 또 민족적 통일을 기대하려는 나머지 미약하고 무기력하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자본주의 사회 안에서 일국의 경제적 정치적 이해의 상반 관계로부터 대립적 입

장에 있는 부르주아계급과 프롤레타리아계급과의 사이에 계급투쟁에서 그 한편인 프롤레타리아계급의 이해를 대표하여 전위당(前衛黨)으로서 경제적 혹은 정치적 계급투쟁을 지도 수행할 바의 소위 공산당이라는 것은 엄격한 규율하에 일국일당(一國一黨)주의를 관철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한 나라 안에서 노동계급의 전위대라고 하는 공산당이 계급의 해방적 투쟁에서 그 계급의 경제적 정치적 이해의 대표 기관으로서 존재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국제 공산당 즉 제3인터네셔널의 엄밀한 지령이 없으면 안 되고 또 그 지도하에서 만 공산당이라는 자격으로 존립할 수 있는 것이요, 본래 의미에서 공산주의적 사회운동을 수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는 지식 문건이 낮은 본 피고인이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차라리 재판장께서 상세히 알고 계실 것으로 생각하지만, 감히 쓸데없는 말씀을 드리거니와 이러한 이유로부터 미루어 생각하더라도 크나 큰 이러한 목적을 아무것도 평소부터 가진 것이 아닙니다.

다음으로 제3의 범죄사실인데 이 사실에 대하여는 검사국 및 예심 법정에서 진술과 제1심 재판장에게 제출한 진술서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본 피고인이 두암리(斗岩里) 지용수(池龍洙) 집에 간 것은 사실이지만, 어떤 사정이 있었는지는 기억이 없지만, 나의 사정이 있어서 곧바로 돌아온 것으로 과연 강해석(姜海錫, 지용수(池龍洙)같은 자들의 선동에 따라 그들과 함께 제3의 목적으로 노력할 것을 합의함으로써 그 목적 사항의 실행에 관하여 협의했다고 하지만,

아무튼 본 피고인이 평소에 가지고 있는 바로는 그런 일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전문적 법률 또는 과학적 지식을 떠나 단순한 상식으로 생각해 보더라도 이러한 사실로 처형할 사실적 근거로서는 상당히 미약하고 지나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비밀결사적인 사상단체로서 한 나라의 공산주의적 사회운동을 수행하기에는 엄격한 규율하에 통일적으로 조직하는 바의 공고한 조직체를 절대적으로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령 동(同) 피고인들이 오합지중과 같이 모여 범죄사실 제3과 같은 목적으로 노력하려는 것을 합의함으로써 그 목적 사항의 실행에 관하여 협의를 했다고 하더라도 그 목적 수행의 기관을 통제할 합법적이나 혹은 비합법적인 소위 결사를 조

직하지 않는 한 사상 이외의 사항은 각별 사상 상의 사항에서는 절대적으로 문제일 수 없습니다. 그리하여 강해석(姜海錫), 지용수(池龍洙)의 이야기를 혹 들은 것이 있더라도 함께 혐의를 할 만한 지능적 여유가 있는 자가 아닙니다.

과연 그렇다면 왜 우리가 꿈에도 상상할 수 없는 상기의 목적을 성진회의 목적으로 하여 제3의 범죄사실로서 예심종결결정서 및 제1심 판결서의 이유로 쓰여 있는 것이 그런즉 본건 성진회의 초점ियो 또 우리의 사활문제입니다.

본 건의 일부인 성진회 및 제3의 범죄사실에 적용된 법조문을 보니 현구(現舊) 어떤 치안유지법에서도 국체를 변혁하고 또는 사유재산제도를 부인할 것을 목적으로 하여 결사를 조직하고 또는 사정을 알면서 가입한 자는 법정형량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한다고 하였기 때문에 목적죄가 분명합니다. 그러므로 가령 비밀결사를 조직한 것만으로도 법정 목적인 이상 보안법의 적용을 받을 것이지만, 본 법의 적용을 받을 것이 결코 없고 또 개개인에게서 이러한 법정의 목적을 가지고 또는 일시적으로 모여 그 목적의 실현을 위하여 노력하기로 합의하여 그 목적인 사항의 실현에 관하여 혐의를 했다고 하더라도 결사를 조직하지 않는 한 보안법의 적용을 강제로 받는 일이 있더라도 결코 본 법의 적용을 받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과연 그렇다면 본 건 성진회와 같은 조직은 했다고 하는 법정의 목적을 가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형식상 및 실질상으로 의식적으로 해산하고 또 제3의 범죄사실과 같은 가령 그것을 진실한 사실로 가정하여 그 목적 실현을 위하여 노력하기로 합의함으로써 목적인 사항의 실행에 관하여 협의한 것 만으로도 그 실행 수단으로서 결사를 조직하지 않는 이상 우리의 행위로 치안을 방해한 것으로 하여 본법의 적용 처분을 받은 것은 분명히 억울한 죄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물며 우리에게 이러한 범죄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본법의 적용 처분을 받았습니다.

끝으로 한마디 말씀드리면 적어도 사회 또는 영향을 끼치는 사건은 전면적으로 고찰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일면적 고찰로는 그것에 대한 정당한 정당한 판단을 내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초등학교 시대부터 일선융화(日鮮融和), 일선인 대우평등(日鮮人待遇平等) 등의 말을 들었을뿐만 아

나라 일한병합(日韓併合) 당시 이래 관부민간(官府民間) 일선(日鮮)을 묻지 않는다고 선전하는 표어가 있고, 또 현재 신문지상 기타 문장에서 누누이 견문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에서는 모든 언론 기관을 통하여 대화혼(大和魂)을 부르짖고 대화민족을 고취하지만 그것을 처벌하는 바가 적법행위로서 정부에서 보호 장려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왜 같은 일본제국의 통치권의 지배하에서 정치를 하는 조선에서는 조선민 운운하는 것은 곧바로 체포 감금하고 치안유지법 기타 법률의 적용 처분을 받지 않으면 안되고, 또 정부로서도 보호하는 바가 도리어 처벌하는 것입니까.

그래도 우리 행위로서 강제적으로 범죄행위라고 하여 치안을 방해한 행위로서 처벌하는 것은 경찰관서에서 검사국에서 예심 및 공판정에서 모두 국가의 법률로 금지한 범외의 행위를 한 것을 감히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따라서 형사피고사건을 취조할 때의 사법관 및 행정관의 형사 피고인에 대한 태도나 행위를 상당히 잔학하기 때문에 무어라 말씀드려야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특히 경찰관서에서 가장 비인간적이고 야수성적인 폭악한 고문에 대하여는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행위를 치안을 방해한 범죄행위라고 하여 법률을 적용 처분하기 때문에 스스로 법률을 유린한다고 해도 좋을지 혹은 법률위반이 법률의 실현이라고 해도 좋을지. 말하고자 하면 입을 열어서 그렇게 할뿐, 예심종결결정서 및 제1심 판결서에서 우리 행위를 범죄행위로 하여 기소하고 판결한 범죄 사실은 우리의 자유의지에 기초하여 한 행위가 아닌 경찰관서, 검사국 및 예심법정에서 행한 고문 그 자체입니다.

그래도 우리의 행위로 법률을 적용하지 않고 법률에 우리 행위를 적용시킨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자 혹은 불경이요 허위를 신청한다고 하지만, 인간이 죽을 때 그 마음이 선량한 것으로 제1심에서 무거운 징역형을 언도받은 우리로서는 가장 먼저 허위를 신청할 여지가 없습니다. 이를 증명하려면 시험적으로 본건 피고인 전부 혹은 일부에 대하여 같은 사항에 관한 일문일답에서 곧바로 수궁할 것입니다. 과연 그렇다면 국가가 범죄행위에 대하여 형벌을 부과하는 목적이 어디에 있는지 따라서 형행 형법의 채택하는 바 범죄법정주의의 정신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래도 법률은 연구의 자유를 인정하는 것이

아닌가. 이에 본 피고의 우리 행위를 범죄행위로서 강제하여 법률적용을 받는다면 보안법 혹은 출판법의 적용 처분을 받더라도 결코 치안유지법의 적용 처분을 받는 것은 원통한 죄인 것과 무죄방면을 주장하고 인하여 진술하는 바입니다.

소화(昭和) 5년 12월 8일

피고인 임주홍(林周弘)
복심법원 형사부 재판장 전(殿)

4-4. 소화3년 형공 제661호

판결(判決)

본적 곡성군 옥과면(玉果面) 죽림리(竹林里) 135
주거 광주군 광주면(光州面) 향사리(鄕社里) 정용태 집(丁溶泰 方)
광주공립고등보통학교 제3년생 허진환(許振煥) 당(當) 18년(年)

본적 화순군 능주면(綾州面) 잠정리(蠶亭里) 102
주거 광주군 광주면(光州面) 향사리(鄕社里) 정용태 집(丁溶泰 方)
광주공립고등보통학교 제3년생 주재성(朱在性) 당(當) 17년(年)

본적 주거 같음 광주군 광주면(光州面) 향사리(鄕社里) 164
광주공립고등보통학교 제5년생 김종호(金鍾浩) 당(當) 19년(年)

본적 주거 같음 광주군 광주면(光州面) 양림리(楊林里) 242
광주공립고등보통학교 제5년생 조기석(趙璣錫) 당(當) 21년(年)

본적 경기도 수원군 송산면(松山面) 지화리(芝花里)
주거 광주군 광주면(光州面) 서남리(瑞南里) 147
광주공립고등보통학교 제2년생 정재억(鄭載億) 당(當) 19년(年)

본적 주거 같음 광주군 광주면(光州面) 향사리(香社里)
광주공립고등보통학교 제3년생 이강후(李康厚) 당(當) 18년(年)

본적 주거 같음 광주군 광주면(光州面) 향사리(香社里)
광주공립고등보통학교 제2년생 이강오(李康午) 당(當) 19년(年)

위 자에 대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건 위반 및 상해 피고 사건에 대하여 조선총독부 검사 주정규부(酒井赳夫)의 관여로 심리, 판결함이 다음과 같다.

주문(主文)

피고 허진환(許振煥), 조기석(趙璣錫), 김종호(金鍾浩)를 각 징역 8월에, 피고 정재억(鄭載億), 주재성(朱在性), 이강후(李康厚), 이강오(李康午)를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단 피고 주재성(朱在性), 이강후(李康厚), 이강오(李康午)에 대해서는 2년간 위 형(刑)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理由)

피고 김종호(金鍾浩), 조기석(趙璣錫)은 광주고등보통학교 제5학년생, 피고 허진환(許振煥), 주재성(朱在性)은 동교(同校) 제2학년생, 기타의 피고 등은 동교(同校) 제1학년생이다. 소화(昭和) 3년 6월 8일 동교(同校) 제5학년생 이경채(李景采)가 치안유지법(治安維持法) 위반 등의 사건 피의자로, 광주 예심(豫審) 판사의 영장에 의해 인치(引致)됨에 따라 동교(同校)에서는 동월(同月) 19일 동인(同人)을 유지(諭旨) 퇴학시켰다. 동교(同校) 제5학년 생도는 위 이경채(李景采)가 무죄가 될 경우에 복교(復校) 하도록 교장에게 간청하였으나 귀담아 듣지 않음에 의해 동(同) 교장의 태도를 분개하고, 동(同) 제4학년생과 모의하여 대표자를 뽑아 동월(同月) 24일 동교(同校)에서 개최된 부형회(父兄會)에 돌연 참석하여 부형(父兄)에게 교장의 태도를 비난하는 문구를 기재한 문서를 낭독한 후, 동(同) 개최의 취지를 이루지 못하게 하기에 이르렀다. 다시 이튿날 25일 전기(前記) 생도 등은 동(同) 교장에게

동(同) 교장 및 교직원 여러 명에게 반성 또는 해직을 촉구한다는 취지

1. 전개(前掲) 이경채(李景采)의 복교(復校)에 관한 사항, 기타의 무도장의 확장,

조선인 본위의 교육 실현에 관한 사항 등을 기재한 진정서를 제출할 것 및 해당 진정서의 목적을 관철하기 위해 동맹휴교를 한다는 취지의 결의를 하였는데 이를 알게 된 제1, 2학년 생도 일동(一同)도 이에 참가하였고, 이튿날 26일 위 진정서를 동(同) 교장의 허락으로 제출한 후 위 생도 등은 휴교를 함으

로써 교장은 이튿날 27일 해당 생도 중 주모자라 인정되는 자 27명을 퇴학, 기타 280명을 무기징역 처분에 붙였다. 이에 해당하는 생도들은 위 동맹의 결과를 더욱 굳건히 하려고 그 동맹결속을 위반하는 자를 감시하며 이를 위반하는 자에게 제재를 가하는 합의를 하였다. 동월(同月) 30일 밤 동교(同校) 제1학년 생 홍헌중(洪憲鍾)이 전교(轉校: 전학) 희망의 용건으로 동교(同校) 교사 광주군 광주면(光州面) 부동정(不動町) 복중중행(福重重行)의 집을 방문하는 것을 피고들 외 여러 명의 생도가 발견하고 부동정(不動町) 부동교(不動橋) 옆에서 그가 돌아가는 길을 요격하였다. 그리고 홍헌중에게 그 방문의 사유를 힐문(詰問)하고, 위 사정을 말하자 그것은 거짓말이라고 하며 피고인들은 그 자리에서 동인(同人)의 얼굴, 기타를 구타하였다. 다시 동인(同人)을 광주면(光州面) 향사리(鄉社里) 양파정(揚波亭) 대밭 부근으로 납치하여 피고 정재억(鄭載億) 이외의 피고는 손 또는 몽둥이로 동인(同人)의 머리 부분, 기타를 구타하여 그의 머리 부분 외 여러 곳에 치료 1주간을 요하는 상해를 입힌 것이다.

법률에 비추어 보건대 피고 등의 소위(所爲)는 대정(大正) 15년 법률 제60호 제1조 제1항, 형법(刑法) 204조, 제207조에 각 해당한다. 상해죄(傷害罪)의 대해서는 유기징역 형(刑)을 선택한다. 위 각 소위(所爲)는 1개의 소위(所爲)로 여러 개의 죄명(罪名)에 저촉되므로 형법(刑法) 제54조 제1항 전단(前段) 제10조에 따라 그 무거운 상해죄(傷害罪)의 형(刑)에 따라 그 소정(所定) 형기(刑期) 범위 안에서 각각 주문의 형(刑)을 양형(量刑)하여 처단한다.

동(同) 피고 이강오(李康午), 이강후(李康厚), 주재성(朱在性)에 대해서는 범죄의 정황에 불쌍히 여길만한 것이 있다고 인정하여 동법(同法) 제25조에 따라 2년간 형(刑)의 집행을 유예할 것이다. 이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소화(昭和) 3년 8월 13일

광주지방법원 형사부

조선총독부 판사 금자수현(金子秀顯)

4-5. 소화3년 형공 제661호

판결(判決)

본적 곡성군 옥과면(玉果面) 죽림리(竹林里) 135
주거 광주군 광주면(光州面) 향사리(鄕社里) 정용태 집(丁溶泰 方)
광주공립고등보통학교 제3년생 허진환(許振煥) 당(當) 18년(年)

본적 화순군 능주면(綾州面) 잠정리(蠶亭里) 102
주거 광주군 광주면(光州面) 향사리(鄕社里) 정용태 집(丁溶泰 方)
광주공립고등보통학교 제3년생 주재성(朱在性) 당(當) 17년(年)

본적 주거 같음 광주군 광주면(光州面) 향사리(鄕社里) 164
광주공립고등보통학교 제5년생 김종호(金鍾浩) 당(當) 19년(年)

본적 주거 같음 광주군 광주면(光州面) 양림리(楊林里) 242
광주공립고등보통학교 제5년생 조기석(趙璣錫) 당(當) 21년(年)

본적 경기도 수원군 송산면(松山面) 지화리(芝花里)
주거 광주군 광주면(光州面) 서남리(瑞南里) 147
광주공립고등보통학교 제2년생 정재억(鄭載億) 당(當) 19년(年)

본적 주거 같음 광주군 광주면(光州面) 향사리(香社里)
광주공립고등보통학교 제3년생 이강후(李康厚) 당(當) 18년(年)

본적 주거 같음 광주군 광주면(光州面) 향사리(香社里)
광주공립고등보통학교 제2년생 이강오(李康午) 당(當) 19년(年)

위 자에 대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건 위반 및 상해 피고 사건에 대하여 조선총독부 검사 주정규부(酒井昶夫)의 관여로 심리, 판결함이 다음과 같다.

주문(主文)

피고 허진환(許振煥), 조기석(趙璣錫), 김종호(金鍾浩)를 각 징역 8월에, 피고 정재억(鄭載億), 주재성(朱在性), 이강후(李康厚), 이강오(李康午)를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단 피고 주재성(朱在性), 이강후(李康厚), 이강오(李康午)에 대해서는 2년간 위 형(刑)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理由)

피고 김종호(金鍾浩), 조기석(趙璣錫)은 광주고등보통학교 제5학년생, 피고 허진환(許振煥), 주재성(朱在性)은 동교(同校) 제2학년생, 기타의 피고 등은 동교(同校) 제1학년생이다. 소화(昭和) 3년 6월 8일 동교(同校) 제5학년생 이경채(李景采)가 치안유지법(治安維持法) 위반 등의 사건 피의자로, 광주 예심(豫審) 판사의 영장에 의해 인치(引致)됨에 따라 동교(同校)에서는 동월(同月) 19일 동인(同人)을 유지(諭旨) 퇴학시켰다. 동교(同校) 제5학년 생도는 위 이경채(李景采)가 무죄가 될 경우에 복교(復校) 하도록 교장에게 간청하였으나 귀담아 듣지 않음에 의해 동(同) 교장의 태도를 분개하고, 동(同) 제4학년생과 모의하여 대표자를 뽑아 동월(同月) 24일 동교(同校)에서 개최된 부형회(父兄會)에 돌연 참석하여 부형(父兄)에게 교장의 태도를 비난하는 문구를 기재한 문서를 낭독한 후, 동(同) 개최의 취지를 이루지 못하게 하기에 이르렀다. 다시 이튿날 25일 전기(前記) 생도 등은 동(同) 교장에게

동(同) 교장 및 교직원 여러 명에게 반성 또는 해직을 촉구한다는 취지

1. 전개(前掲) 이경채(李景采)의 복교(復校)에 관한 사항, 기타의 무도장의 확장,

조선인 본위의 교육 실현에 관한 사항 등을 기재한 진정서를 제출할 것 및 해당 진정서의 목적을 관철하기 위해 동맹휴교를 한다는 취지의 결의를 하였는데 이를 알게 된 제1, 2학년 생도 일동(一同)도 이에 참가하였고, 이튿날 26일 위 진정서를 동(同) 교장의 허락으로 제출한 후 위 생도 등은 휴교를 함으

로써 교장은 이튿날 27일 해당 생도 중 주모자라 인정되는 자 27명을 퇴학, 기타 280명을 무기정학 처분에 붙였다. 이에 해당하는 생도등은 위 동맹의 결과를 더욱 굳건히 하려고 그 동맹결속을 위반하는 자를 감시하며 이를 위반하는 자에게 제재를 가하는 합의를 하였다. 동월(同月) 30일 밤 동교(同校) 제 1학년 생 홍헌중(洪憲鍾)이 전교(轉校: 전학) 희망의 용건으로 동교(同校) 교사 광주군 광주면(光州面) 부동정(不動町) 복중중행(福重重行)의 집을 방문하는 것을 피고들 외 여러 명의 생도가 발견하고 부동정(不動町) 부동교(不動橋) 앞에서 그가 돌아가는 길을 요격하였다. 그리고 홍헌중에게 그 방문의 사유를 힐문(詰問)하고, 위 사정을 말하자 그것은 거짓말이라고 하며 피고인들은 그 자리에서 동인(同人)의 얼굴, 기타를 구타하였다. 다시 동인(同人)을 광주면(光州面) 향사리(鄉社里) 양파정(揚波亭) 대밭 부근으로 납치하여 피고 정재억(鄭載億) 이외의 피고는 손 또는 몽둥이로 동인(同人)의 머리 부분, 기타를 구타하여 그의 머리 부분 외 여러 곳에 치료 1주간을 요하는 상해를 입힌 것이다.

법률에 비추어 보건대 피고 등의 소위(所爲)는 대정(大正) 15년 법률 제60호 제1조 제1항, 형법(刑法) 204조, 제207조에 각 해당한다. 상해죄(傷害罪)의 대해서는 유기징역 형(刑)을 선택한다. 위 각 소위(所爲)는 1개의 소위(所爲)로 여러 개의 죄명(罪名)에 저촉되므로 형법(刑法) 제54조 제1항 전단(前段) 제10조에 따라 그 무거운 상해죄(傷害罪)의 형(刑)에 따라 그 소정(所定) 형기(刑期) 범위 안에서 각각 주문의 형(刑)을 양형(量刑)하여 처단한다.

동(同) 피고 이강오(李康午), 이강후(李康厚), 주재성(朱在性)에 대해서는 범죄의 정황에 불쌍히 여길만한 것이 있다고 인정하여 동법(同法) 제25조에 따라 2년간 형(刑)의 집행유예할 것이다. 이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소화(昭和) 3년 8월 13일

광주지방법원 형사부

조선총독부 판사 금자수현(金子秀顯)

4-6. 소화3년 예제 11호

예심종결결정(豫審終結決定)

본적 전라남도 광주군 광주면(光州面) 궁정(弓町) 48번지
주거 동도(同道) 광주군 광주면(光州面) 부동정(不動町) 164번지
잡곡상 한길상(韓吉祥) 당(當) 33년(年)

본적 주거 같음 동도(同道) 광주군 광주면(光州面) 교사리(校社里) 119번지
사립학교 강사 지창수(池昌洙) 당(當) 22년(年)

본적 주거 같음 동도(同道) 광주군 광주면(光州面) 수기옥적 170번지
사립학교 교사 강해석(姜海錫) 당(當) 25년(年)

본적 주거 같음 동도(同道) 광주군 송정면(松汀面) 송정리(松汀里) 432번지
농업 조칠성(曹七成) 당(當) 24년(年)

본적 주거 같음 동도(同道) 광주군 송정면(松汀面) 송정리(松汀里) 248번지
신문기자 박승남(朴承南) 당(當) 24년(年)

본적 동도(同道) 나주군 영산면(榮山面) 산정리(山亭里) 번지불상(番地不詳)
주거 동도(同道) 광주군 송정면(松汀面) 송정면(松汀里) 622번지
무직 박병하(朴柳夏) 당(當) 23년(年)

본적 주거 같음 동도(同道) 광주군 송정면(松汀面) 송정면(松汀里) 655번지
무직 윤해병(尹海炳) 당(當) 23년(年)

본적 주거 같음 동도(同道) 광주군 송정면(松汀面) 송정면(松汀里) 659번지
생도 이경채(李景采) 당(當) 18년(年)

위 윤해병(尹海炳) 이외의 자(者)에 대한 대정(大正) 8년(1919년) 제령(制令) 제7호 위반, 치안유지법(治安維持法) 위반, 출판법(出版法) 위반, 윤해병(尹海

炳)에 대한 증거인멸 각 피고사건에 대하여 예심(豫審)을 마치고 결정을 함이 다음과 같다.

주문(主文)

다음 사유로 인하여 피고인 박병하(朴邴夏), 이경채(李景采), 윤해병(尹海炳)을 광주지방법원 합의부의 공판에 부친다. 피고인 한길상(韓吉祥), 지창수(池昌洙), 강해석(姜海錫), 조칠성(曹七成), 박승남(朴承南)을 면소한다.

이유(理由)

피고인 박병하(朴邴夏), 이경채(李景采), 윤해병(尹海炳)의 3명은 죽마(竹馬) 친구로 피고인 병하는 송정리 보통학교를 거쳐 송정리 중학원(中學院)에 입학하고 이를 졸업 후에는 병약한 관계로 무위도식(無爲徒食)하고 있는 자이고, 피고인 해병은 송정리 보통학교를 거쳐 송정리 중학원에 입학하였으나 병약한 관계로 중도(中途) 퇴학한 이래 자택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자이고, 피고인 경채는 동상(同上) 보통학교를 거쳐 광주 공립고등보통학교에 입학하여 5학년에 재학 중인 자이다.

제1. 피고인 병하, 경채의 2명은 소화(昭和) 2년 여름부터 공산주의에 흥미를 갖게 되어 이에 관한 서적을 탐독하다가 결국 동(同)주의에 심취하여 공산주의의 국가 실현을 희망하기에 이르렀는 바, 소화(昭和) 3년 3월 중, 두 피고인은 여러 차례 교대로 자택에서 만나 위 국가를 실현할 방법에 대하여 협의한 결과 결국 끝내 공산주의에 관한 선전문서를 비밀리에 인쇄하여 이를 일반에게 반포할 것을 계획하고 공모(共謀)한 후, 동년(同年) 4월 1일부터 3일 무렵까지의 기간에 여러 차례 피고인 경채(景采)의 집에서 만나 피고인 등이 소지하고 있던 계리언(사카이 도시히코) 저(著)의 '사회주의 학설대요, 산기순산(山崎郁山) 저(著)의 시험관 속의 사회주의', '메이데이' 레닌 저(著)의 무엇을 할 것인가 등의 서적을 참고로 하여 공산당 이름으로

(1) ‘선언서’라는 제목으로 ‘무산계급 의무 반혁명분자 암살, 무산계급 결사적 단결, 자본주의사회 파괴, 지배계급 파괴, 민족주의 파괴’ 등의 불온한 문자를 나열한 것

(2) ‘건전한 사상을 가지고 있는 학생 제군(諸君)에 고향’이라는 제목으로 “인간으로서 사회의 개선에 동의하지 않는 자는 한 사람도 없다. 현재 사회제도는 착취계급【지배계급】과 피착취계급【피지배계급】과의 대립이 있다. 동등한 인간으로 계급이 있다는 것은 모순이다. 천황은 신성(神聖)으로 범해서는 안 된다는 것은 군국주의자의 말이다. 전 세계의 무산계급은 인종, 언어, 풍토를 달리하나, 모두 같은 피가 흐르고, 같은 감격에 가슴을 아파하는 형제이다. 정의가 승리하지 않으면 무엇이 승리하는가. 사회주의야말로 정의이고, 무산계급의 의무이다. 프롤레타리아 제군들이여, 빨리 영원한 잠으로부터 각성하라. 전 세계의 무산계급과 함께 국제적으로 단결하여 해방전쟁의 동맹을 맺는 것은 프롤레타리아의 광영이며 특권이다. 부패한 현 사회제도의 문은 우리 무산계급의 단결된 철권(鐵拳)으로 타파되어 자유, 평등의 신세계가 출현하고 세계에 영원한 평화가 성립될 것이다. 무산계급의 해방운동은 지금 국제적으로도, 국내적으로도 가장 중요한 시대를 통과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학생 제군(諸君)은 자본주의 제도 아래에서 부르조아적 교육, 자본주의적 노예양성의 교육을 받고 있다. 교육이야말로 무산계급적 교육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요컨대 현 사회제도의 교육은 자본주의적으로 얼버무린 주의(主義)의 교육이다. 학생 여러분의 건투를 빈다.”는 취지의 문구를 기재한 것

(3) ‘자본주의 계급적 고등 충복(忠僕) 제군(諸君)께 고향’이라는 제목으로 “현 사회제도는 자본주의적 사회제도로 상당히 많은 결함을 가지고 있다. 법률, 정치, 문학, 경제, 도덕, 종교, 철학이 모두 다 그러하다. 가장 좋은 사회제도는 무산계급 제도라는 사실을 고등 충복(忠僕) 제군(諸君)들도 알 것이다. 제군들은 무산계급의 피를 착취하는 자본계급의 고등 충복(忠僕)이다. 자각하라. 그대들의 불합리가 극에 달했다. 황포도 시대의 요구에 의해 파괴된다. 인류 사이에 생존경쟁이 있으면 평화는 성립되지 않는다. 생존경쟁이 없는 무산계급적 사회제도가 성립되는 때에 비로소 영원한 평화는 출현한다. 프롤레

타리아야말로 그대들의 구주(救主)이다. 우리 당(黨)은 전 세계의 인류를 위해 희생의 의무를 다할 광영(光榮)이 있다. 특권을 가지고 있는 우리 당에 대하여 방해하는 것은 전 인류 평화를 위해, 신사회 건설을 위해 여의(餘儀) 없이 생명을 바칠 것을 사전에 선언한다.”라는 취지의 문구를 기재한 것의 3종의 문서를 작성하였고,

한편 피고인 경채(景采)는 동년(同年) 3월 28일 밤에 몰래 송정리 보통학교 사무실에 침입하여 학교 비품인 등사판 및 그 부속품인 원지(原紙), 줄판, 인육(印肉: 인주) 【증 제30호, 제40에서 42호】를 훔쳐 왔다. 4월 4일 무렵(頃) 두 사람은 피고인 병하의 집에서 위 등사판 및 그 부속품을 사용하여 전기(前記) 3종의 문서 각 수십 통을 적색으로 인쇄한 【증 제1, 2호】

(1) ‘선언서’라는 제목의 인쇄물을 동월(同月) 11일 밤 어둠을 틈타 광주역 앞 경찰관 파출소 게시판, 광주고등보통학교 앞 전주(電柱) 외 광주 읍내 눈에 띄는 장소 6개소의 전주, 판자벽 및 송정리 역 앞 전주(電柱), 송정리 신사(神社)⁶⁾ 내 게시판 외 송정리 읍내 눈에 띄는 장소 10개 소의 전주와 판자벽에 붙였다. 그리고 동월(同月) 13일 밤 경채(景采) 집에서 (2), (3)의 인쇄물을 각 1매씩을 1조로 하여 봉투에 넣어 동월(同月) 14일부터 동월(同月) 17일까지의 기간에 1부는 피고 병하가 송정리 우편소 앞 Post(우체통)에, 나머지는 피고 경채(景采)가 광주역 앞 Post(우체통)에 넣어 전라남도 내, 각 중등학교 및 경찰서, 기타 합계 19개소 앞으로 우송, 반포함으로써 공산주의를 선전, 선동하여 안녕, 질서를 방해하였고,

제2. 피고인 윤해병(尹海炳)은 전기(前記) 피고인 등의 범죄 사정을 알면서도 소화(昭和) 3년 4월 18일 무렵(頃) 피고인 병하의 의뢰에 의해 피고인 경채(景采) 집에서부터 전기(前記) 인쇄에 사용한 등사판 및 전기(前記) 불온문서의 인쇄된 것 20여 통을 받아 동일(同日) 무렵 자택에서 인쇄물을 불태우고

6) 일본에서 황실의 조상이나 나라에 공이 큰 사람을 신으로 모셔 놓고 제사 지내는 사당을 말한다. 매이지 정부는 제정일치라는 방침을 세워 신사를 국가의 기간으로 삼았다.

등사판을 파기하였고, 동일(同日) 밤 피고인 병하 집에 있던 전기(前記) 인쇄에 사용한 등사판의 부속품인 출판, 주육(朱肉: 인주) 각 1개, 원지(原紙) 수십매를 받아 피고인 병하의 집으로부터 남방(南方) 약 10리(里) 떨어진 야원(野原: 들판)의 도랑 안으로 가지고 가서 던져버림으로써 전기(前記) 피고인 등의 범죄의 증거를 인멸한 것이다.

위 피고인 박병하(朴邴夏), 이경채(李景采)의 소위(所爲) 중, 국체(國體) 변혁, 사유재산제도(私有財産制度)의 부인(否認)의 목적으로 실행에 관하여 협의한 점은 치안유지법(治安維持法) 제1조에, 정치변혁을 목적으로 다수 공동으로 안녕, 질서를 방해한 점은 대정(大正) 8년 제령(制令) 제7호 제1조에, 정체(政體)를 변혁하려 한 문서를 출판한 점은 출판법(出版法) 제11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고, 피고인 이경채(李景采)의 절도의 소위(所爲)는 형법(刑法) 제235조에, 피고인 윤해병(尹海炳)의 죄 증인멸의 소위(所爲)는 동법(同法) 제104조에 해당하는 바, 1개의 소위(所爲)로 여러 죄 또는 연속범(連續犯) 관계에 있는 것으로는 동법(同法) 제54조 제1항 전단(前段) 제55조를, 병합죄(並合罪)에 대해서는 동법(同法) 제45조, 47조를 적용하여 처단할 것으로 공판(公判)에 부치기에 족(足)한 범죄의 혐의가 충분하므로 형사소송법(刑事訴訟法) 제312조에 따라 처단할 것이다.

피고인 한길상(韓吉祥), 지창수(池昌洙), 강해석(姜海錫), 박승남(朴承南), 조칠성(曹七成)이 피고인 박병하(朴邴夏), 이경채(李景采)의 전기(前記) 범행에 공모(共謀), 가담하였다는 것의 공소(公訴)사실은 범죄 혐의가 없으므로 동법(同法) 제313조에 따라 면소의 언도를 할 것이다.

이에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소화(昭和) 3년 7월 21일

광주지방법원

조선총독부판사 등본향등(藤本香藤)

부록 5. 1930년 신년초 광주전남 학생계의 반응

5-1. 1930년 1월 광주고보 백지동맹과 동맹휴학

1929년 11월 2차례 학생시위와 백지동맹, 동맹휴학의 여파로 광주지역 학교들은 1929년 연말까지 무기한 휴교상태에 있었다. 그 후 1930년 초 가 되면서 학교는 1930년 1월 7일 개학했다. 이날은 학교에서 개학식만 마치고 학생들을 하교시켰다. 당시 학교는 장기간의 휴교로 치르지 못한 2학기 시험을 다음날인 1월 8일 치른다고 통보했다. 당시에는 3학기제라 2학기 시험을 치르지 않고는 3학기로 들어갈 수 없었다. 그러 나 1월 8일 시험에 대해 학생들은 반발했다. 2백 명의 학생들이 감옥에 있는데 어떻게 자신들만 시험을 치를 수 있는냐는 것이었다. 광주고보 2학년생은 당시 갑조 56명, 을조 57명으로 110명 가량이었다. 시험을 거부하는 백지동맹이 결의되면서 을조의 반장 이기홍, 갑조 반장 강문영, 유기량 등 17명이 시험을 거부하고 교실 밖으로 나갔고, 나머지 65명도 백지로 답안지를 제출했는데, 학교당국은 이들을 퇴학처분했다. 그 후 분위기가 흥흥해지자 자연스럽게 휴교 상태가 되버렸다. 특히 1월 15일 출석 학생들이 너무 적어 수업을 진행할 수 없자 광주고보에서는 교사들에게 그날부터 3일간 가정방문을 실시하도록 하여, 2.3.4학년 학생들에게 출석을 종용했다. 1월 18일에도 광주고보생 24명이 전교생 퇴학계를 제안했다가 경찰에 검거되었다.

5-2. 광주농업학교 학생들의 제3차 항일시위

1930년 1월 초 개학과 함께 광주농업학교 독서회원 안중변, 이수동 등 10여 명의 학생들은 서울만세운동과 호응하여 다시 광주학생운동을 전개하지는 결의를 했다. 1월 20일 수감학생 석방을 요구하는 진정서를 학교 교장에게 제출하고 학교전화선을 절단하고, ‘월기하자, 학생 만세’ 등을 쓴 붉은 깃발을 들고 격문을 살포할 계획을 추진하다 체포 된다. 한편 사범학교는 1930년 초에는 항일운동을 전개할 여건이 거의 없었다. 다수 사범학교 학생들이 검거되었고, 1929년 신입생 모집이 중단되어 실질적으로 폐교를 앞두고 있었기 때문이다.

5-3. 광주여고보의 2차 백지동맹

장재성을 도와 2차 시위운동에 가담했던 장매성은 경찰의 감시를 받았지만 곧바로 체포되지 않았다. 오빠 장재성이 11월 13일 현재의 사동 부근에서 먼저 체포되었고, 그 후 장매성도 장재성 빵집 등에서 학생비밀결사 관련 인물로 지목되면서 체포되었다가, 1930년 1월 광주여고보 백지동맹 발발이후 비밀결사와 관련 인물들을 비롯하여 나머지 소녀회 학생들과 함께 구치소에 유치된다. 한 1929년 11월 11일 광주 여고보 독서회원이자 1차 백지동맹을 주도하고 친구 박지의 집에서 백지동맹을 권고한 격문을 만들었던 최순덕은 친척집에 피신한 후 퇴학 했다.

1930년 1월 광주여고보에서도 3학년 이광춘은 1월 9일 개학후 이튿날 시험이 치러지자 백지답안을 제출하며 항거한 후 귀가했다. 그 후 1월 13일 광주여고보 학생들은 백지동맹을 호소하는 이광춘의 호소에 동조해 백지동맹을 전개한다. 이날 이광춘은 자신이 모든 것을 책임질 것을 외치며 다른 학생들의 선처를 요구했다. 그러나 백지동맹으로 이광춘, 권순례 등 15명이 퇴학당했다. 이광춘은 1월 13일에 자택으로 쳐들어온 나주경찰에 의해 구속된다. 한편 이 과정에서 백지동맹의 배후 조직으로 암성금자가 체포되면서 소녀회가 발각된다. (조선일보 1930. 1. 15)

원래 일제 당국은 장매성이 이끄는 소녀회 조직을 감지했으나 미미하다 보고 검거를 유예했으나 백지동맹 사건을 계기로 1월 15일을 기해 소녀회에 가담했던 여학생 전원을 체포하기 시작한다. 소녀회 사건으로 구속되었던 장매성, 암성금자(이금자), 박계남, 장경례, 남협협, 고순려, 박채희, 박현숙, 김금련, 김귀선 등도 퇴학당한다.

5-4 광주수피아학교 여학생 만세운동 추진

광주수피아여학에서는 (1월) 27일 대규모의 맹휴와 시위운동을 일으키고자 암암리에 계획을 진행 중인 바 27일 당일에 발각된 바 이미 학생 가운데 주도자로서 심옥순·심만 2명이 검속되어 일반 시민은 긴장된 가운데 앞으로 사건의 전개를 주목한다고 하더라.(중외일보 1930. 1. 29)

5-5. 함평청년동맹 간부의 3.1절 광주학생운동

1930년 3.1절 11주년을 맞아 함평청년동맹위원장겸 신간회 함평지회 선전부장 이현일은 10여명의 청년들과 함께 함평장날 시위운동을 기획하고, ‘궐기하라 조선청년대 중이며, 일본제국주의의 강도를 학살하라’는 등의 격문을 준비하고 항일시위를 준비하다 발각되었다. 그 후 3월 3일에는 광주교보 3학년 이삼희(李三喜), 함평농잠보습학교 이재연(李載澗) 등은 함평보통학교 학생들과 시위운동을 촉구하는 격문을 함평읍내에 살포했다. (대구복심법원 1930. 5. 29)

5-6. 나주농업 보습학교 학생들의 장날시위

1930년 2월 10일 나주장날을 기해 나주공립보습학교 2학년 이창신의 지도로 나주농업보습학교와 나주공립보통학교 5~6학년 300여 명이 교정에 모여 “광주학생 동정만세”, “학생만세” 등을 고창하며 나주 시내로 진출하여 시위를 진행하다가 해산했다. (조선일보 1930. 2. 12)

5-7. 정명여학교 여학생 만세운동

광주학생운동이 촉발되자 목포 정명학교에서도 목포상업학교 항일 시위에 자극을 받아 항일운동이 전개된다. 그러나 당국의 통제와 감시가 강화되면서 시점을 잡지 못했다. 그러나 1930년 서울여학생 시위와 광주학생 재판소식이 들리자 고등과 4학년 최이선, 강안식, 서금복, 박덕순과 1학년 송영은 등이 구금된 목포상업학교 학생의 석방을 요구하고, 목포상업학교 학생 정병철의 지도를 받아 대형 적기와 격문 수천 장을 만들어 시위운동을 계획했다가 2월 9일 주동자 8명이 체포되었다. (동아일보 1930. 2. 12~19), 1주일만인 2월 15일경 대부분 석방되었다.

5-8. 강진, 담양, 곡성 등지의 보통학교 학생의 항일운동

광주학생독립운동 이후 다수학생들이 검거되고, 사범학교 출신의 보통학교 교사들이 잡자기 구속되는 등의 사태가 심각해지면서 전남지방의 공립보

통학교 학생들도 항일운동에 동참한다. 1월 18일 강진군 대구공립보통학교 5,6학년 학생들과 졸업생인 윤가현이 강진군 8개 보통학교와 면내 각 구장으로 광주고보 학생들에 호응하라는 항일 격문을 발송한다. 이 결과 대구면 군동보통학교, 강진보통학교, 독천보통학교, 성전보통학교 학생들에게 격문을 보내 항일시위를 촉구했다. 이런 가운데 윤가현과 강원태는 대구공립보통학교 학생들을 규합해 동맹휴학을 전개했고, 92명이 격문을 배포하고 맹휴를 전개했다.(광주지법 장흥지청 1930. 3. 14) 한편 1월 18일 창평공립보통학교 6학년생 박모가 교실에서 광주학생투쟁 희생자를 찬양하는 격문을 학생들에게 회람하며 항일투쟁을 추진하자고 계획을 세우던 중 체포되기도 했다. 2월 2일 담양공립보통학교 6학년 김영순 등 9명은 각 학년별로 책임을 맡아 일본국가의 합창 거부를 맹세하고, 만세를 고창한 후 시위를 전개하다 발각된다. 곡성군 옥과면에서도 옥과공립보통학교 이근만 등이 1월 27일 장날시위를 추진하다가 발각되기도 했다.

5-9. 여수와 보성 등지에서 보통학교 및 여수수산학교 항일운동

광주고보생들이 귀향해 고향의 학생들과 연계하여 항일운동이 일어나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광주고보생 김기수는 학교에서 퇴학당해 귀향했는데, 광주학생사건에 대해 소식을 전하며 보성공립보통학교 학생들을 자극했으며, 그 결과 2월 18일 보성공립보통학교 학생들이 학교 조회시간을 이용하여 만세운동을 전개할 것을 계획하였다가 사전에 발각되어 실패한다. 여수에서는 여도현이 광주고보 맹휴로 퇴학당한 후 청년운동을 전개 중이었다. 그는 친동생인 여운종과 김용환 등 여수청년학생들을 이끌며 항일운동을 준비한다. 이들은 1930년 1월 25일 여수공립보통학교 교정과 교실에 “학생제군이여, 광주사건에 동정하라”는 시위운동을 촉구하는 격문 80여장을 살포하였다. 한편 1930년 1월 28일 여수수산학교 2학년 중심으로 검거된 학생의 석방을 요구하는 맹휴운동이 전개되며, 이에 1학년과 3학년들이 동참한다. 이보다 앞서 여수경찰서는 1월 25일, 여수수산학교 몇몇의 학생들의 자택을 수색하고, 교과서 및 문학서적을 압수했다. 이 과정에서 이용기(李龍基) 등 7명을 검거했다. 그러나 일본 경찰은 물증이 없는데 석방하지 않았고, 이런 사실을 학교에 통

보하여 여수수산학교는 이 사건으로 1학년 9명을 퇴학시켰고, 3명을 정학 처분했다. 2학년 3명도 퇴학시키고, 6명을 무기정학시켰다. 이같은 조치가 부당하다며 여수수산학교 한인 학생들이 1월 28일 집단행동을 진행한다. 이들은 ① 금번 퇴학시킨 생도와 무기정학시킨 생도를 전부 복교시킬 것, ② 경찰서에 검거된 학생을 전부 석방할 것 등의 요구 조건을 내어걸고 동맹휴학을 단행하였다. 일경은 이러한 항일운동 배후로 광주고보 출신의 여도현을 주목했다. 2월 1일 여도현(呂道鉉)의 집을 급습하여 체포하고 가택을 수색했다. 여도현은 1928년 광주고보 재학 중 맹휴에 참석했다가 퇴학당했다 복귀했으나 1929년 3월경 종업식을 앞두고 유시퇴학 명단에 올랐다. 이를 항의하기 위해 여도현, 김몽길, 하길담 등이 광주고보 교장실에 다가가 교장실문을 부수는 사건이 일어나는데 이를 계기로 퇴학당했다. 그 후 고향에 내려온 여도현은 광주에서 항일학생운동이 발발하자 여수수산학교 학생을 규합하여 학생궐기에 동조시키고자 격문을 준비하고, 수산학교, 보통학교 학생 주동자들과 긴밀한 연락을 취한 혐의를 받았다. 그러나 물증이 없어서 여도현을 제외한 나머지 수산학교 학생들은 대부분 검거 후 얼마 뒤에 석방된다. 그 후 학생들은 1930년 3월 여수수산학교 독서회를 조직한다. 광주학생 궐기 당시에는 여수수산학교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동조시위를 조직하지는 못했으나 1930년 9월 학생비밀 조직인 여수수산학교 독서회가 발각되어 다음과 같은 학생이 재판에 회부되었다. 이 사건으로 윤경현(尹吳敍), 이용기(李容起), 정학조(鄭學朝), 오놀보, 곽재석(郭在石), 진자미(秦者味), 정낭호(鄭謨治), 백인열(伯仁烈), 조병호(趙 納治), 박창래(朴昌來), 김재근(金載神), 김봉칠(金奉七), 차용헌(車用憲), 정보한(鄭補漢), 정임구(鄭林求), 이검용(李齡轉), 박경임(朴景任), 이창용(李彭第), 강탁오(姜折五), 고자화(高子華), 손대형(孫大?), 강임룡(姜任龍) 등 22명이 구속되며, 이중에서 14명은 실형을 받지만 고자화, 강임룡 등 8명은 형사사건부에 불기소 처분 되지만 미결상태로 3달 가까이 투옥된다. 이들 학생들은 최고 2년 최하 3년간 집행유예의 연도를 받았다. 한편 여수수산학교 학생들은 광주학생운동 1주년을 맞아 1930년 11월 11일부터 ① 교사 배척, ② 제도 개선을 요구하고 전교생이 동맹 휴학을 전개하기도 했다.

5-10. 광주학생사건 법정투쟁과 옥중투쟁

1) 광주학생시위사건 재판공판과정과 법정풍경

광주에서 일어난 두 차례 시위운동으로 검거된 학생들로 인해 광주형무소는 초만원이었다. 11월 3일 학생총돌사건과 1차 시위 이후 약 70여 명이 체포되었다가 그중 10여명이 풀려나지만, 11월 12일 2차시위로 다시 수백 명이 체포되었다. 그 후 11월 하순과 12월 초, 전남지방보통학교 교사로 있던 전남사범학교 출신들도 검거되어 송국되었다. 이밖에도 1930년 1월과 2월경에 맹휴참여자 및 성진회, 독서회중앙부, 소녀회 및 청년동맹 등 관련자들이 연달아 체포되면서 구속자는 260명에 달했다. 그 결과 총 188명 이상이 학생총돌사건 및 1,2차 맹휴시위운동 및 성진회와 독서회 사건 등에 회부되면서 각 사건별 예심종결도 장기화되었다.

(1) 변호인단 선임과 재감학부형회의 대응

① 재감학부형회의 결성

많은 학생들이 희생되고 구속되자 사대수습을 위해 나선 학부형들은 공동소송을 목적으로 하는 재감학생학부형회(在監學生父兄會)를 결성한다. 재감학부형회는 최영렬(崔泳烈) 외에도 김용환(金容煥), 장석지(張錫之)는 김용준과 장석진 친형이다. 이들은 회비 10원 이상 부담, 공판준비기구로 출범했지만 처지가 어려운 재감학생의 부모나 가족의 옥바라지 활동을 돕고 지방에서 올라온 이들의 숙소를 제공하는 등 상호부조도 진행했다.

② 전국적 관심을 모은 광주학생사건 변호인단

재판이 시작되자 재감학부형회는 광주지방 변호사단의 서광설, 김재천, 송화식, 류복영, 어운빈, 이정상, 지영구, 송태환 등에게 변호를 요청했고 이들은 법정에서 변론계를 제출했다. 2월 19일 제2회 공판이 되자 김병로(金炳魯), 권승렬(權承烈), 이인(李仁), 김용무(金用茂), 이창휘(李昌歸), 강세성, 한상억, 김광섭, 정문모 등 20여명의 대표적인 거물급 변호사들이 서울, 대구 등지에서 광주로 내려와 법정에서 변호를 자청하며 변론계를 제출했다. 1930년 2월에서 8월 사이에 미결상태로 수감된 광주학생운동 관련자는 188명이었다. 그

중 49명은 보안법 위반, 치안유지법 위반 관련 성진회 관계자 38명, 독서회관계자 90명, 광주여고보 소녀회 관련자 11명이다. 가장 먼저 재판이 시작된 것은 광주학생운동(1차, 2차 시위)에 참여한 보안법 위반 49명에 대한 재판이었다. 이 재판은 많은 사회적 관심을 받았는데 일단 재판이 시작되면서 많은 논란이 불거지자 빠르게 예심을 종결시킨다.

③ 광주학생시위사건 관련 광주지방법원 예심

1930년 2월 12일 전국적인 관심을 모았던 광주학생시위운동에 대한 첫 공판이 시작된다. 이 소식이 들리자 당일 광주시내는 일제경찰이 시내를 순찰하고 각 단체와 요시찰 조선인 감시를 강화하는 등 긴장이 고조되었다. 제1회 재판이 열린 광주지방법원 형사 제1호 법정에는 많은 방청객, 기자, 형무소 간수와 일경 등으로 가득 찼고 긴장된 분위기가 감돌았다. 특히 전남도청 학무국 및 광주고보, 광주농업학교 등의 학교 당국자들, 현지의 경찰서원이 먼저 방청석을 차지했고, 법원주변에는 재판을 보기 위해 나온 학부형들과 특별방청 신청자 등으로 북적였다. 광주형무소장 야촌(野村)을 비롯해 형무소 간수 20여명과, 정사복경관이 나와 경계가 삼엄했다. 재판은 기무라(木村) 재판장과 사카이(酒井) 검사가 참여했고, 재판관은 피고 학생 46명을 일일이 불러 인적 사항 등을 확인하는 수준에서 종료되었다. 제2차 공판은 2월 19일 열렸는데 본격 심리와 관련해 관심이 높았다. 제2회 재판을 앞두고 전날부터 광주에는 거물급 변호사들이 대거 내려왔고, 광주경찰은 전날부터 시가지 전체에 비상경계를 펼치고, 각급 학교까지도 엄중경계했다. 이날 법정에는 광주지방법원이 생긴 이래 가장 많은 변호인들이 공판에 참석하게 된다. 재판은 광주학생시위 사건의 초기 발생과정에 대한 심문으로 진행되었다. 이날 재판에서 재판장은 예심을 거친 피고인 중에서 김상환, 김보섭, 윤창하, 김대원, 김무삼, 박석훈, 문학연, 윤재병, 김용준, 강민섭, 김홍남, 이형우 외 3명을 포함 총 14명에 대해서는 치안유지법 위반죄가 별도로 있다고 밝히고, 이번 재판에는 이들에 대해 보안법만 심리하고 나머지 죄목은 분리 심리하여 별도의 재판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권승렬, 김병로, 이인 변호사 등은 이는 이중재판으로 부당하며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항변했다. 즉 동일한 사건에 대해 두 가지 죄목을 물어 두 번의 재판을 하게 할 수는 없다는 입장이었다. 오후 2시 경에 잠시

휴정했던 법정은 2시 35분경에 다시 재개되자 이인 변호사는 발언권을 얻어 광주고보에 있던 독서회 관계 피고인들이 아직 예심중인 것에 있음에도 어린 학생들이 이중으로 형을 받아 가령 상해죄로 10년 이하, 치안유지법으로 5, 6년이라고 하면 형법 제6조에 의한 형이 정한 바에 따라 선택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재판소가 편의로 혹은 검사의 편의에 의해 분리하는 것은 묵과할 수 없다며 항의했다. 변호인단은 분리심리 대신 병합심리를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장 기무라(木材)은 “고집대로 하겠다”는 주장을 폈고, 입회한 검사 사카이(酒井) 검사는 “이것은 전혀 별개다”며 공판이 진행되었다. 이에 대해 방청석과 피고인석에 있던 최희선(崔照善) 등이 항의하면서 이날 심리는 49명의 피고인 중 16명에 대한 심리를 진행하다가 중단되었다. 다음 날인 2월 20일 제3회 공판이 열리자 이번에도 학무국, 광주고 보, 광주농업학교, 광주여고보 등 학교관계자 등이 우선적으로 방청석을 배정받아 많은 학부모들은 입실하지 못했다. 재판관은 조선학생 측 변호인들의 보충신문 질의를 전부 묵살하고 빠르게 심리를 진행했다. 이에 대해 항변하며 피고들이 발언할 기회도 거의 주지 않았다. 이에 대해 권승렬(權承烈) 변호사는 재판장이 공술할 자유도 주지 않고, 범죄사실에 있어 범죄 기간을 적시하지 않고 재판장 혼자서 자문자답식으로 범죄 사실에 필요한 것만 공술만 허용한다며 따지고, 피고들에게 6가지 보충신문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이를 재판장이 거부하자 이런 분위기에서 변호가 불가능하다고 항의하고 법정에서 퇴정해 버렸다. 한편 이인변호사는 광주고보의 교감 와따나베(渡邊), 이종묵(李鍾默), 후쿠시케(福重), 송홍(宋滿) 교사, 동아일보 광주 지국장 김용환(金容煥) 등 7명을 증인으로 신청했으나 기각당했다. 이처럼 재판관은 변호인이나 피고인측 주장이나 요청을 전혀 받아주지 않고, 일방적으로 진행했다. 2월 20일 이날 검사는 장황스럽게 논고를 읽고, 김향남, 노병주, 김안진, 이형우, 조길룡, 김보섭, 김상환, 최태주, 정주영, 최상을 김삼석, 김동섭, 송만수, 김홍남, 강민섭, 김철근 강운석, 김병기, 박형기, 오종필, 민영홍, 채규호, 문학연, 차세영, 길기남, 최희선, 황남옥, 고광신, 정상렬, 임한길, 구용우, 김의원, 김무삼, 장석진, 정석규, 윤창하, 김대원, 김시황, 이인규, 박석훈, 위종렬, 박인철, 이준범, 윤재병, 기희준, 최가봉, 정태린, 김용준 등에 실형을 구형했다. 이인 변호사 등

변호인단은 범죄요건이 부적합하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학생시위 및 격문 내용이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불온격문이라 말하나, 일본무산정당의 표어보다 온건한 주장으로 어찌 출판법이나 보안법 위반을 적용할 수 있느냐며 반박했다. 이인변호사는 1차 재판 이후 공판에서 제외된 피고 15인들의 치안유지법 위반 관련 별건 심리는 취소되어야 하며 병합심리를 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재판장은 변호사의 요구를 기각하고 일심 공판을 종결시키고 말았다(동아일보 1930. 2. 22), 이날 재판이 끝난 후 광주지방 유지들과 학부형들 100여명은 광주학생운동 담당 변호인들을 광주시내 음식점인 신광원(新光園)에 초청하여 위로연을 개최해 감사의 뜻을 전했다. (동아일보, 1930. 2. 25)

④ 광주학생시위사건 재판에 대한 전남도평의회 한인 의원들의 발언

재판 시작과 함께 대중적 관심이 고조된 가운데 전남도 평의원들도 전남도청과 학무당국에게 ‘광주학생의 진상’을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전남도청은 “광주의 중등학교 생도 투쟁사건 및 생도 망동 사건 전말서”라는 인쇄물을 평의원에 배부하고 답변을 대신했다. 이날 손영이나 박이규 등의 전남도 평의원들이 학생총동사건이 확대된 원인을 자세하게 질문했다(동아일보 1930. 2. 26), 손영(孫英) 의원은 ‘한 순사가 박준채의 뺨을 때렸다고 하는데 사실 여부?’ ‘11월 1일 광주역에서 광주고보-중학생 대치 시 광주중학교 유도선생이 학생들을 부추켜 선동했다는데 사실여부?’ ‘11월 3일 중학교는 부상자를 도립병원에서 치료하도록 하고, 고보 학생들은 외면 방임했다는 비판이 있으니 광주고보 당국자의 책임은 없는가?’, ‘학생사건 발생 당시 광주 일본인 시민들은 전보로써 군사령부에 청병한 것이 사실인가?’ ‘광주고보에서 연중행사처럼 맹휴가 발생하고 있는데 학교 당국자의 처치문제는?’ 는 등을 질의했다. 박이규 朴珽圭)는 전남도청 학무국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질의했다. ‘11월 3일 시위 행렬을 하기 전에 고보 강당에서 회의하는 걸 교직원과 경찰이 알았으면서 왜 방지하지 않았는가’, ‘왜 행렬을 방임해놓고 다수 조선학생을 검거한 것은 무슨 의미인가?’, ‘다수 학생을 검거해서 전조선적 사건 확대한 것은 그 누구 책임인가?’, ‘학생시위 행진은 싸움의 연장인데 그렇게 중시할 필요가 있는가.’ ‘학교직원들과 경찰로도 충분한데 경중을 난타하여 소방대를 출동시켜 인심을 요란하게 한 책임은 어디에 있는가?’ ‘학생사건의 이면에 선

동자가 있다고 하지만, 다수 학생을 검거하지 않았다면 그들도 싱거워서 포기했을 텐데, 공연히 아이들 싸움을 중대한 것으로 키워 12일 사건을 야기시킨 것이 아닌가? 그 책임은 어디에 있는가 등이다. 이런 여론 악화를 염두에 두면서 재판을 빠르게 진척시켜, 광주지방법원은 1930년 2월 26일 49명의 재판을 빠르게 종결시켰다. 광주학생사건 49명에 대한 재판은 원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건, 상해, 가옥 침입, 보안법 및 출판법 위반 등이 각각 적용되었다.

2) 구속 학생들의 재감상황과 광주형무소내 옥중분투

(1) 광주형무소내 구속학생들의 재감상황

광주학생운동의 여파로 각지에서 학생들이 시위나 격문 등에 연루되어 검거되면서 많은 일제관헌들이 총동원되었다. 광주학생사건 재판이 진행되던 시기에도 일부 시위 가담자들에 대한 검거와 수배가 진행되고 있었다. 이 때문에 광주학생운동 이후 그해 5월까지도 퇴학생이 꾸준히 늘어났다. 동아일보 보는 전남, 경북, 황해도를 제외하고 가장 많은 구속자는 서울 경기가 223명, 평남 60명, 평북 3명, 충북 23명, 충남 25명, 전북 12명, 경남 30명, 강원 14명, 함남 39명, 함북 28명 등이라고 중간집계를 한 결과 496명이 집계되었다(동아일보 1930. 3. 29), 서울이나 평양, 함경도 일대를 제외하면, 일부 주동자들을 제외하면 대다수의 학생들은 단순가담자로 분류되어 석방되는 경우가 많았다. 반면 광주나 목포에서는 단순 참여자들도 조사과정에서 지독한 폭력에 시달렸다. 당초에 전남지방 검사국은 광주학생운동을 단순 사건으로 취급했으나 총독부와 일본내지에서도 관심이 높아지자 한일학생들 간 충돌 등 폭력행위자에 대한 처벌 대신에 항일시위 배후 조직 규명으로 초점이 변경된다. 이 방향으로 수사와 심문이 진행되자 중요 피고인들은 치안유지법 위반사건과 별건으로 조사를 받게 된다. 일제 경찰은 시위운동 배후에 관여된 사회단체나 각종 청년단체 및 비밀단체의 규명을 위해 단순 시위참여자들마저 가혹하게 조사했다. 일제 고등계 경찰들은 조사에 불응하거나 저항하는 학생에게 가혹한 구타와 무자비한 폭력, 고문을 자행했다. 이 때문에 많은 학생들이 고문에 시달려 오랫동안 그 후유증을 앓게 되었다. 광주학생사건 당시 검거된

학생들의 재판 중 비밀결사 독서회 사건의 치안유지법 위반 피고인 백여 명에 대한 조사가 장기화된다. 그 결과 학생시위자들의 재판도 5개월 가까이 걸렸고, 독서회 및 성진회 병합재판의 경우에는 광주지방법원 예심이 거의 10개월이나 지연된다. 이에 따라 재감학생들은 예심재판이 늦어지는 것에 대해 여러 차례 항의했다. 한편 나주 공립보통학교 학생시위나 목포상업학교 독서회나 여수 수산학교 시위운동 광주학생 옹호운동에 대해서도 그 배후 조직을 규명하는 과정에서 다수의 학생들이 폭력과 고문에 시달렸다.

(2) 광주형무소 재감학생들의 옥중 투쟁

학생들은 일반 범죄자들과 달리 정의감에 불타던 청년들로 형무소에 갇힌 몸이지만 기회가 있을 때마다 조선독립을 외치고 일제 당국이나 부당한 행위를 일삼는 간수를 규탄했다. 이들은 또한 교도소에서의 처우개선을 위한 옥중투쟁도 전개했다. 학생들은 1930년 3.1운동 기념일을 맞아 감방의 벽을 두드리며, 독립 만세를 외쳤다. 이로 인해 형무소 전체가 발칵 뒤집어졌다. 그 후 3월 17일에도 특정한 기념식이라 하여 학생들이 대대적으로 소동을 일으켰다. (조선일보 1930. 3. 24)

1930년 6월 23일 오전에 장재성이 돌연 검사국에 호출되자, 120여명의 청년과 학생들이 일제히 창문을 두드리는 감옥 소동을 일으켰다. 이에 영목(餘木) 간수장은 일반 간수를 전부 비상소집한 한편 저녁 9시경에는 안도(安東) 형무소 의사까지 불러들였다. 감방 내에서는 계속하여 격렬한 소리로 고향을 높이 지르고 있어 형무소가 떠나가는 듯했고, 구외까지 요란하게 들려왔다. 형무소에서는 일체 외부의 사람을 멀리하고, 경찰까지 동원하여 엄중한 경계를 하고 있는데, 이 소문을 들은 피고의 가족들과 친지동문들은 형무소 부근으로 모여들어 근심스러운 얼굴로 부근을 방황하였다. 이런 가운데 형무소 내에서는 계속하여 고향소리와 발을 구르는 소리, 담벽을 차는 소리가 요란히 들렸다(중외일보, 1930. 6. 25) 이 날 저녁 광주형무소 제1감방에 수감되어 있던 김보섭은 간수의 취침 지시가 내린 후에도 콧노래를 흥얼거리다가 코보 간수장으로 불리던 일본인 간수가 휘두른 흥기에 피가 나는 상처를 입었다. 이를 김상환 등을 통해 감옥 전체로 알려지자 형무소내 5개사 감방의 수백 명의 학생들과 일반인 복역수들까지 합세하여 일제히 함성을 지르고 벽을 치며

마루를 구르며 항의했다. 이같은 소동에 일제당국은 재소자들에게 곤봉을 휘두르며 잔혹하게 진압했다. 학생들은 기세를 늦추지 않아 형무소 소동은 3일이나 지속되었다. 이러한 소식에 형무소 주변에서도 “형무소를 부셔라, 학생들 석방하라” 호응했다. 이에 광주형무소 간수와 경찰, 소방서, 헌병대까지 총동원하여 이중 삼중으로 경계를 강화했다. 6월 23일 저녁에는 미결수와 간수 간 다툼을 계기로 미결수 300여명과 기결수 500여명이 대소동을 일으킨다. 여감방의 수감자를 제외한 학생들이 고함을 치고 항의하자, 다른 감방의 재소자들도 발로 담벽을 차고, 문을 발로차 문짝 10여 개가 파손되었다. 이날 농성은 6월 24일 새벽이 되어서야 진정되었다.(조선일보 1930. 6. 25) 광주형무소 재소자 소동사건은 당국의 주목을 받았다. 당시 광주형무소는 소동의 가장 큰 이유는 예심이 늦어진 까닭이지만, 김보섭이 간수의 취침명령을 따르지 않자, 간수가 패검으로 때린 것에 격분하여 일어났다. 이런 소동과정에서 박오봉의 코가 한치나 찢어졌다는 소식도 들렸다. 이런 소식이 들리자 6월 25일 전남청년동맹은 정동화와 서재 익을 파견해 광주형무소에 사건진상과 금후 개선방향을 요구했다. 형무소 당국은 주모자는 법률에 따라 처벌할 것이라 말했다(중외일보 1930. 6. 25) 그 후 광주형무소 당국자들은 ‘피고 대우개선’, ‘간수소질 조사 등 선후책을 강구하는 긴급회의를 열기도 했다. 학생들은 성진회, 독서회 재판 지연으로 투옥기간이 길어지자 각종 옥중투쟁을 벌인다. 1930년 7월 7일 저녁 8시 반부터 광주학생사건 피고들은 예심 지연에 대한 항의소동을 벌이는 등 옥중항쟁을 전개했다. 그해 8월 제2사 독방에 수감되어 있던 유치오는 심한 피부병을 앓았다. 그는 교도관에게 치료를 위해 다른 감방으로 옮겨줄 것을 요청하고, 치료약도 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일본간수는 유치오와 수명의 학생들을 정신이 잃을 정도로 몽둥이로 구타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학생들은 격분하여 일제히 형무소 당국의 만행에 대해 규탄하며 고함을 지르고 벽을 치며 항의했다. 그러나 수감된 학생들에게는 가차없는 폭력이 잇따랐다. 형무소에서는 옥중소란 행위에 대해 간수들이 잔혹한 체형을 일삼았다. 학생들이 소리를 못내도록 마스크를 씌우고, 손을 등뒤로 수갑을 채우고 가죽조끼 혁대를 등에 채워 고통을 가했다. 이같은 교도소내의 간수들에 가혹행위는 유치오, 김보섭, 김상환 뿐만 아니라 강석원과 박오

봉 등의 항일 청년들도 당했다. 일부 학생들은 10여 일 간을 단식하다 죽을 고비를 넘긴 경우도 있었다. 9월에는 전남사범학교 성진회원 박무길이 며칠 간 사경을 헤맸다. 9월 22일 도립병원에서 문진을 나온 의사 안도(安東)는 학질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나 한국인 의사 권계수는 맹장염이 번진 급성 복막염이라고 보고 급히 수술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형무소당국은 그 다음날 도립병원 평퇴원장의 진찰로 복막염임이 확인되자, 9월 24일 새벽에 간수장의 대동하에 박무길을 도립병원에 이송하여 수술을 진행했다. (1930. 9. 29) 이처럼 광주형무소 당국은 강력한 체형을 가한 후에 학생들의 요구조건을 들어주는 유화책도 썼다.

中国老革命家인 張旅山氏의紹介로此에
 (日本研究所) 参市하게되어, 此後로는臨政과
 事實上斷縁하게되었고 小生는李一輝로改名
 하게되었음.

小生의思考方式도若干變化가있어 — 中國은
 日本과敵對國인故로 日本을打倒하라며
 中國에助力하는것이 韓國獨立의捷徑이될것
 으로著落着眉하게되고 全力을다하여中國에奉
 仕하기로決定하였음.

註二 日本研究所의는 美英法
 日本士官出身(二名) 大分교授三名, 長岡宗永
 三名等共二十二名으로된 相當規模의政治
 (日政党内會) 經濟, 軍事, 文化社會等 著廣範圍
 圍繞고 小生는 日語能熟하게하여 文の上으로 疑
 訝無及分類に従事。事後該日本研究所全職
 員는 陳誠將軍麾下로 吸收되었음(小生는其中一員
 不例外)

續

一九三七年十月初
 在侍中 陸軍十一師 (師長柳階明中將) 三陽營
 配屬 三陽師也 嘉定縣外國 陸軍크리크作戰에參
 右倭軍陸戰隊과 三重三重包圍作戰에參
 右激戰九日續 全隊及陣亡 敵我傷亡巨重
 (相中八九陣亡) 中口軍例以下者數
 約二百名程度(大部傷者僅) 生累(後良) 脫出

後 小生는 陸司令部로復歸 — 以來
 日軍欲北進할외 中日戰爭이 終了
 其後 以後一九四九年까지 口政府에서 陸軍
 士將에對 中榜까지 進級服務
 此期間中(一) 小生는 中華長口에入籍(口籍)手續
 完了補給(二) 再次陸軍士官學校에 進級(口
 班(四年)卒業(在四川成都) (三) 中口口長虎入黨
 註: 口政府에서 中央軍에 服務中各項
 任命狀, 卒業證, 入籍證, 口長虎證書全部所持
 하고 口長虎에 要한 口長虎 提示하였음. 此中 湯君
 의 惡義對는 意圖離離 離譜日것. 口長虎 未提出

審査先生任의 佳言

一. 過去에도 老同志들로 부터 獨立運動有功者 褒賞申請

도 받았으나 그때마다 先生은 拒絕하고

良心을 차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까

例를 드리

『나 倭政時, 이러한 反日

救國行動을 하였으며, 日誌에

이러하고 이러한 證據가 있습니까

褒賞하며 주십시오

良心이 眞實 愛國者 精神 이 소리를

을 말할 것입니까

二. 倭政時, 反旗를 들고 抗拒하신 份들은

後日에 褒賞받을 라고 하는 사람은

一人도 없습니까

오직 正義感과 亡國의 徹天之恨은 胸中

시고 怒髮冲冠, 가진 拷問과 犧牲은 甘受

하면 再 接 再 屬! 敵愾心이 山積.

審査先生任의 佳言

一. 過去에도 老同志들로 부터 獨立運動有功者 褒賞申請

은 하라고 數次勸告 받았으나 先生은 拒絕하고 良心

을 차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까

『나 倭政時, 이러한 獨立運動은

하였으나 先生은 이와 같은 證據를 提示하지

않았습니까

良心이 正常的인 抗日份子라면 이러한 소리를

말하고, 오직 羞恥感을 느낄 것입니까

倭政에 反旗를 들고 抗拒하신 份들은 後日에

褒賞받을 라고 하였는 사람은 一人도 없습니까

오직

하기始作

不才의 少年이 当年 二八年 六月 被捕收監되니

光村萬善校全校友生이 李景采는 敬狀放

하라 하되 同盟休校로 對立, 四十七名의 犧牲者

(匡學處分) 만 남기고 보니 全校生은 이로부터

反抗의 意識과 組織의 힘은 알게 되며 翌年

(三九) 學生運動의 基動力이 되었음

生은 二八年 十月 二十日 光村地方法院에서 懲役一年

六個月의 言渡, 南城少年刑務所에서 服役中

倭昭和登極典特赦令(少年三令二) 減刑되어 一九二九年 十月 二十日 出獄

立証資料科 : 當時 二八年 四月부터 七月까지

東不重日報, 朝鮮日報, 中外日報等에 不檢文章

或別件은 不斷의 運載되었음, 光村地方法院

判決文綴外 光村學生獨立運動史(現光村

學生會館에 保管中) 에 記載되어 있음은 二五 史料에 의하면 少年이 自進 提供한 關係는

어는 面力氣 全無

三, 一九二九年 十月 三日 所謂 光村學生獨立運動大規

模 또는 總起

註 : 二八年 七月 同盟休校의 多數犧牲者外

在 校中 謗者令은 二八年 長期策謀中

十月 三日 倭明治節, 倭中學生과 些少年

口爭의 事은 二條의 關係에서 內容은 二八年 期

許副中이 있고 事前에 有一線이 被捕

되던 事은 二條의 關係에서 內容은 二八年 期

한 事은 二條의 關係에서 內容은 二八年 期

化되니 外 口爭의 事은 二條의 關係에서 內容은 二八年 期

主導者

前記(心)項에 記載(金武三)이 大은 先頭 四人스고 其中

一二人이 되어 光村市內은 二條이고 다니는 事은

當時 少年은 出獄不久(十月 二十日 出獄) 直接 參考書

는 讀아 從은 二條 秘密會合에 參考 事後

對策等 論議한 事은 十一月末에 被捕되어

拷問을 受았은 二條 証狀未備은 三月 中旬 被狀

其後는 重要視察이 되어 行動制限中

審查 先生任의 進言

一. 過去에 老同志들은 부러 獨立運動 勳有功者
 廣徵員申請을 하라고 數次 勸告를 하였으나
 先生은 拒絕하고 南心조차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까?

「나는 倭政時, 미러하고 미러한 獨立運動
 은 하였으며 茲에 이와 같은 證據를
 提示하고서 獨立을 하며 주시십시오」

良心의 正當的인 抗白을 하라 하면 이러한 소리는
 吳 抗白을 하라 하면 抗白을 하라 하면 이러한 소리는
 吳 抗白을 하라 하면 抗白을 하라 하면 이러한 소리는

二. 倭政에 反族은 듣고 抗拒하신 份는 倭日에
 獨立을 바를라고 하는 사람은 一人도 없었는지
 임니까?

오직 民族正氣와 國의 徵天之恨은 吾人으로서
 怒髮衝冠, 肉袒請罪, 甘受其刑의
 再按再勵! 敵愾心이 사무치고 敵과 不戴
 其天!! 그 氣節이 卍(卍)에 抗하여 卍(卍)
 여 視死如歸의 決心下에서 行動하시었는지
 卍(卍)이겠지요

三. 그리하시었는 份言이 모랄 나는 獨立을 하며
 구시라고 나오실 사람이 어디 있었습니까?
 四. 民族의 後代士氣를 旺盛시키기 위하여 勳
 爲를 하신다면 審查委員會가 長期그리고
 廣徵員로 索出하시며 주시겠습니까? 하고 싶은
 9가

五. 이에 對하여 先生의 極正直한 心情을 明白하였
 습니까?
 先生은 獨立運動有功者라고는 吳抗
 9가 但 그의 犧牲者이며 苦勞者라고는
 할 수는 없습니다 하거나 하거나 哀悼하시며 구시라고
 9가

獨立을 바를라고 하는 사람은 一人도 없었는지
 임니까?
 獨立을 바를라고 하는 사람은 一人도 없었는지
 임니까?

威古時 新開(茅寫本)을 提出한 志思은 否하
 9가 立証資料를 對하여 除外되므로 9가
 文. 그러면 의? 申請書를 提出하시나? 그
 9가 反對하시면
 先生의 反日行跡으로 因하여 敵族 全體까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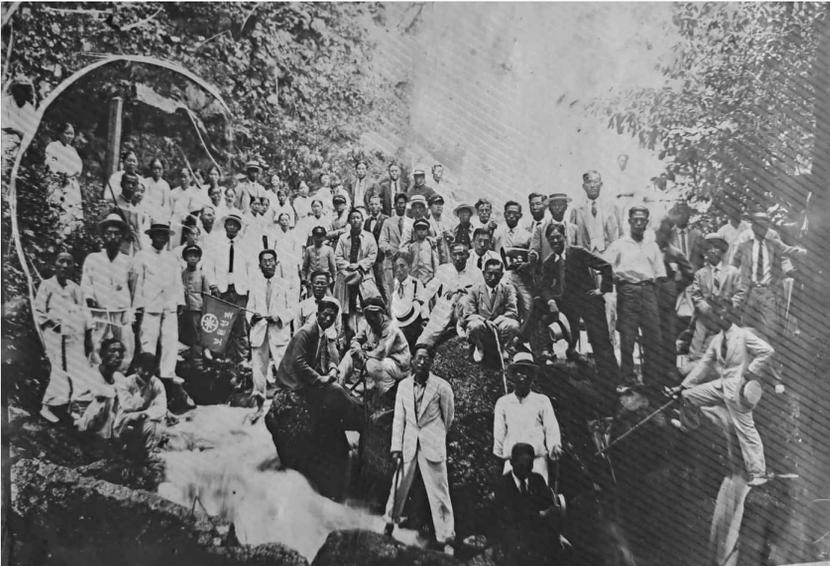
부록 7. 이경채 유품 사진



결혼사진 (193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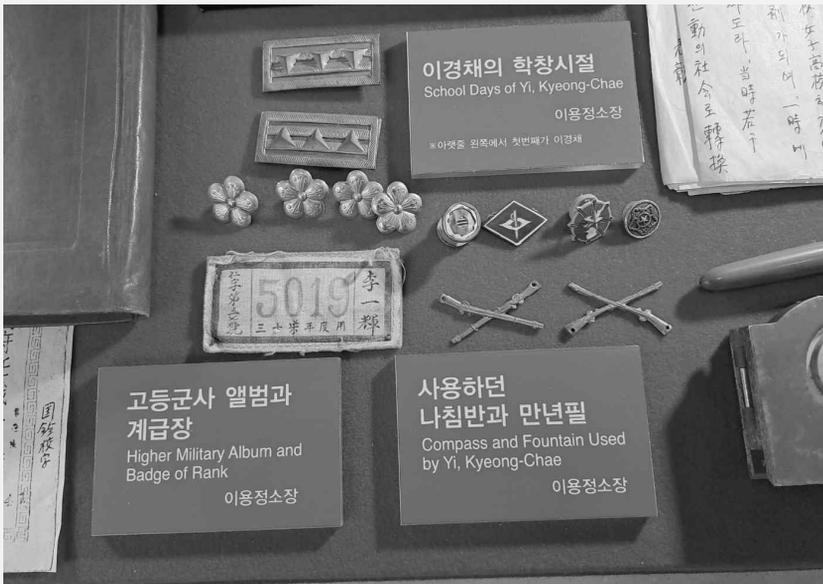
중국군 장교시절 처가 식구 (오른쪽 아내, 장녀 여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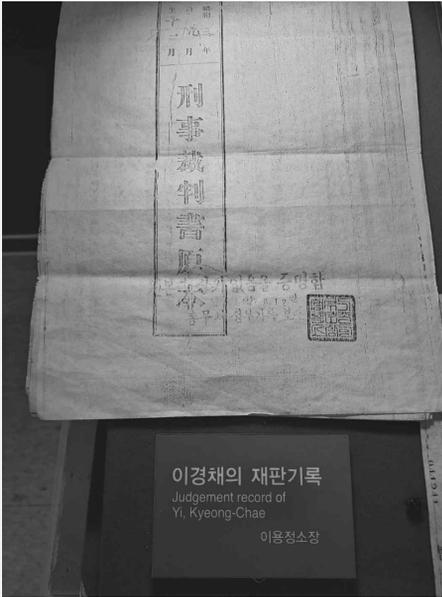
일본 망명 직전 금강산 여행 (1930~31년 무렵)



이경채 유품 전시실(광주학생독립기념관)



이경채 중국군 장교시절 유품(광주학생독립기념관 전시실)



이경채 재판 기록 원본(광주학생독립운동기념관) 중국 한구(漢口)에서 장모, 아내, 장녀 여흥



회갑사진 (1971)



독립운동 동지회 전남지부결성 (1966)

참 고 문 헌

- 매일신보
동아일보
조선일보
시대일보
중외일보
朝日新聞
朝鮮總督府 高等法院 檢事局 思想部 發行, 1935, 「資料 義烈團經營の南京
軍官學校の全貌」(思想彙報第四號)
프랑스 외무부 문서보관소 소장 한국독립운동사료 2
국가기록원 『기출옥 관련자 명부(관리번호 4404)』
국가보훈처, 공훈록 및 공훈전자사료관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
『광주시사』, 1980
김준엽·김창순, 1990, 『한국공산주의 운동사』 2
정근식·나간채, 1992, 「1920~30년대 광주지역의 노동운동」, 『호남문화연구』 21
박선희, 1994, 『광주1백년』
한상도, 1994, 『한국독립운동과 군관학교』
장석홍, 1994, 「조선학생과학연구회의 초기 조직과 6·10만세운동」, 『한국독립
운동사연구』
이애숙, 1995, 「1920년대 광주지방의 민중운동」, 『전남사학』 9
이애숙, 1995, 「1920년대 전남 광주지방의 청년운동」, 『한국근현대청년운동사』
金基旺(1998, 「在日朝鮮留學生の民族解放運動に關する研究」, 神戸大學大
學院博士論文
장석홍, 2001, 「광주학생운동의 사회경제적 배경-영산포를 중심으로」, 『광
주학생독립운동과 나주』

- 장재철, 2004, 「송정의 2대 명주」, 『어등골문화』 7
- 한상도, 2004, 「조선의용대와 재중 일본인 반전 운동집단의 연대」, 『한국민족운동사연구』 38.
- 何智霖 編輯, 2004, 『陳誠先生回憶錄 (台北: 國史館)』
- 신주백, 2005, 『1930년대 국내민족운동사』.
- 김성민, 2006, 「광주학생운동연구」(국민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기세찬, 2011, 「중일전쟁 초기 국민정부군의 항전전략과 전술 재검토(1937~1938)」, 『軍史』 78
- 김광재, 2011, 「일제시기 상해 인성학교의 설립과 운영」, 『동국사학』 50
- 조동걸, 2011, 「3. 의열단 - 민족혁명당 - 조선의용구의 발자취」, 『우사조동걸전집』
- 홍성찬, 2011, 「한말 일제하의 지주제 연구: 보성 양씨가의 지주경영과 그 변동」, 『동방학지』 114
- 박선홍, 2012, 『광주 1백년』
- 광산문화원, 2012, 『광주송정역 100년사』
- 안동교, 2012, 「오준선의 학문성향과 의리정신」, 『유교사상문화연구 47』.
- 국가보훈처, 이달의 독립운동가 2014년 11월
- 장화, 2012, 「일제 침략기 한국인의 중국 군관학교 교육과 그 의의」, 『통일인문학논총』 54
- 박성순, 2015, 「항일투쟁기 한국독립당의 ‘震光’ 발간과 한중 연대」, 『동양학』 61
- 僑桂瑾, 2016, 「조선의용대 지도위원회의 중국인 요원들」, 『한국독립운동사연구』 56
- 염인호, 2018, 「김두봉의 재중국 독립운동」 『내일을 여는 역사』
- 김형주, 2019, 『빛고을 광주문화』
- 『소안면지』, 2019
- 김영범, 2019, 「조선의용대의 항일전투(참가) 실적과 화북진출 문제 再論」, 『한국독립운동사연구』 67
- 광주학생독립운동기념사업회, 2019, 『광주학생독립운동 90년사』
- 박해현, 2019, 『한말전남의병』(전남교육청 광주남구문화원, 2021, 『광주남구마을(동)지』

- 박해현, 2020, 『독립운동사 의사 김범수 연구』(도서출판 선인)
- 박해현, 2022, 『강석봉 평전』(다큐디자인)
- 박해현, 2021, 『독립운동가 교사가 되다』(도서출판 다컴)
- 박해현 역, 2021 『판결문으로 본 광주전남 3·1운동』
- 박해현·김승태 공역, 2021 『판결문으로 본 광주전남 학생운동』
- 박해현, 2021, 『동구의 인물』 2
- 박해현·이윤정, 2022, 『1980. 05. 27. 도청의 마지막을 지킨 사람들』, 5·18민주
화운동기록관

